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19

군선교, 청년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3).

♧ 비전2020실천운동공동기도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 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80여 군선교사(군선교교역자), 기독군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등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10. 기독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다·미·차(다음·미래·차세대) 기독청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머리말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2020,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2020년은 한국 교회 군선교에 있어 굉장히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꿈꿨던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이 완성되는 해임과 동시에 앞으로의 군선교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옛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25년간의 비전2020실천운동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실과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결실은 결실대로 '감사'하고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반성'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작된 팬데믹은 우리 사역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군선교 현장이 황금어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는 통제됐습니다. 더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방식을 택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사태는 군선교를 체질적으로 변화시켜 놓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은 기존의 방식대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이제 군선교는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내놓아야만 군선교 현장은 여전히 한국교회의 황금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비전2020실천운동의 선교적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을 다뤘습니다.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나름의 제언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 논문집은 포스트비전2020 세대를 맞는 군선교 현장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속에서의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고찰도 담겨 있습니다. 구약성경 속 전염병이 가져온 팬데믹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현대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연구위원들의 깊은 숙고와 땀이 고스란히 묻은 이 논문집이 포스트비전2020을 맞는 군선교 현장에,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 새로운 사역 방법을 찾는 군선교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선교신학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군선교신학이라는 부분을 개척, 군선교를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중장기적인 군선교 전략과 전술을 개발, 적용해 나가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는 학회장 곽요셉 목사님과 군선교 정책개발과 적용을 위해 힘을 다하시는 신학회 연구위원님들, 그리고 출판을 위해 애써 주신 쿰란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과 임직원들, 본

발간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군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수고로 한국군선교신학회는 올해로 군선교신학 논문집 19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누구도, 겪어 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가중되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인교회의 대면예배가 멈췄고, 더 이상 군선교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았지만 이와 동시에 전염병 속에서의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군선교 현장을 황금어장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상황은 군선교 현장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마무리하며 곧 맞이하게 될 새로운 비전 2020실천운동의 시대를 앞두고, 이전 것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선교의 대상인 청년들에게 이런 때일수록 복음만 말하고, 복음증거에 전략들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속해서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라면 위기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군선교에 걸고 계신 기대는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회 사무처 상근사역자들의 노고에 깊은 마음을 표합니다. 군종목사, 군선교교역자, 독자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김삼환 목사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이번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다뤘습니다. 하나는 과거 전염병 사태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어땠는지 찾아보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연구를 담았고, 다른 하나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전망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평가하지 않고 포스트비전2020을 계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다음세대에 올 군선교의 모습이 이 연구 속에서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 연구논문들은 집필자들의 땀과 수고의 결실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부디 군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구원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13일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곽요셉 목사

차 례

■ 비전2020실천운동공동기도문 … 2

■ 머리말 | 김삼환 목사(이사장) … 4

■ 발간사 | 곽요셉 목사(신학회장) … 7

심포지엄 논문

015 **기조강연**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 주연종

029 **발제1**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 | 이정숙

067 **논찬1** 이정숙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찬 | 최석환

075 **발제2**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 | 홍창식

120 **논찬2** 홍창식의 논문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에 대한 논찬 | 김일수

연구위원 논문

157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김진섭

251 예술심리치료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 김상만

287 키릴로스의 세례교육 | 김선영

321 남성 군종장교와 여성 군인 | Daniel L. Roberts & Joann Kovacich, 번역 전요섭

기획논문

347 구약성경이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역대하 7:11-22, 특별히 13-14절이 제시하는 그 원인과 해법 | 김진섭

405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중심으로 | 이규철

457 화해의 공공신학과 군선교의 과제 | 강찬영

일반논문

491 존 로스의 요한복음 7: 53-8: 11 삭제 비판-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 탁명진

부록 1

513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518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522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

부록 2

530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현황

심포지엄 논문

기조강연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 주연종 |

발제1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

| 이정숙 |

논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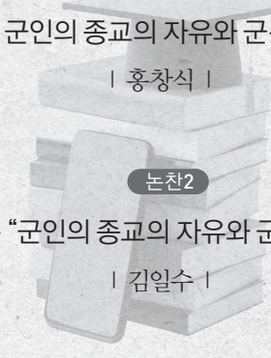
이정숙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찬

| 최석환 |

발제2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

| 홍창식 |



논찬2

홍창식의 논문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에 대한 논찬

| 김일수 |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Missional Evaluation and Prospect of Vision 2020 Action Movement Ministry

» 주연종 Ph. D.*

서론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선교 70년사, 한국기독교 130년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한국교회 청년선교 및 종교개종의 물꼬를 튼 일대 사건이었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에서 매년 20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면 이들이 전역 후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2020년에는 전 국민의 75%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는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진중 청년 세례운동이었다. 이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는 점, 군선교에 관련한 제 단체들 역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반면 한국교회의 약점으로 여겨져 왔던 물량주의와 불량신자 양산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타 종교를 자극하여 자칫 군이 선

• 논문 투고일: 2020년 10월 4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4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7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 예) 군종목사, 사랑의교회

교와 포교의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의 운동 기간에 매년 평균 15만 명(중반기는 약 20만 명)을 넘나드는 용사들이 각 훈련소와 소속부대에서 세례를 받아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종교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은 이 운동의 열매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별히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조사 결과 전체 국민 종교인 수가 기독교가 약 980만 명으로 1위가 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수립 후 인구조사 통계에서 처음으로 전체 국민 종교인 수에 있어서 기독교가 1위[1]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진중 청년전도 세례의 결실임을 공식 발표한 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 운동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확인한 후 회고 및 성찰과 함께 향후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전망과 기대를 제시함으로 이 운동의 선교적 의미를 가늠하고자 한다.

1. 진중세례와 비전2020실천운동의 발단

진중세례운동의 시작은 6·25 전쟁이 발발한 후 군종목사 제도가 소개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월남전이 진행 중이던 1971년, 진중세례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해 9월 보병 제21사단에서 연대장을 비롯한 154명이 합동 세례를 받은 후 11월에는 보병 제26사단에서 1,460명이, 12월에는 제5사단에서 1,005명이 세례를 받았고, 1972년 3월에는 제28사단에서 1,009명, 4월에는 제20사단에서 3,478명이 세례를 받는 등 점차 발전했다.[2]

한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당시 교육사령관 김진영 장로(육군참모총장 및 비전2020실천운동 본부장 역임)의 독려로 한국군종목사단과 군복음화후원회(현, 기독교군선교연합회/기독교군종교구)가 연합하여 진중세례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92년에 85,000명이던 세례 인원이 1995년에는 186,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1997년 4월 19일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에 있어서 1200명을 단체 집례한 것은 당시로는 최고의 결실이었던 것이다.[3] 그리고 2천 년대에 들어서는 2012년 5월 19일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9,506명의 훈련병이 참석하여 8,506명에게 세례를, 기 세례자 1,013명에게는 축복기도를 해 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한국교회 군선교 역사에 제2차 진중세례운동으로 평가하는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진중에서 세례를 받은 청년은 4,574,993명으로 집계되었다.[4]

2. 전개

제2차 진중세례운동은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각 군의 훈련소, 육군의 사단급에 설치된 훈련소, 육·해·공 3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를 비롯한 장교 배출 기관 및 부사관학교, 학생종합군사학교, 보병학교 등 제병과의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군종목사단 및 각 군의 목사단과 지역별 한국군종목사단을 중심

1) 오덕교,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진중세례를 중심으로" 「군선교 청년」 17 (2018), 50.

2)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군진신학』 제1권 (2002), 37.

3) 오덕교, *Ibid.*, 40.

4)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9차 정기총회 보고서」(2020.5.14), 37.

으로 현장에서의 세례운동에 참여할 방도에 대해 방안을 함께 개발 및 공유하였다. 한국군종목사단은 선교국장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중령-대령급 목사를 국장으로 임명하여 각급 부대와 교회에서 청년 장병전도와 진중세례를 베풀고 있는 군종목사들을 격려하고 수세자 명단 및 통계를 수집하는 등 선교정책 개발과 실천을 주도하였다. 즉 비전2020실천운동은 전국 육·해·공군·해병대 진중에서 청년장병 전도와 세례집례에서 태동하였고, 일반교회와 성도들로부터 기도와 후원으로 연계되면서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3. 확산

군선교연합회는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를 부설기관으로 조직하고 초대 본부장에 국군중앙교회 장로인 이필섭 예비역 대장을 보임하여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고, 그 산하에 팀과 전국지회를 두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세례운동 및 지역교회 연결로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지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조직하여 매년 해외 지회에서 고국을 방문하고 훈련소 등지에서 세례식을 주관하였다. 한편 군선교연합회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국가적으로는 애국애족 운동, 군으로는 신앙전력화 운동, 교회적으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명명하고 지난 1998년 11월 1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강당에서 당시 군종목사파송 11개 교단장, 한국군종목사단, 전국 지역교회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비전2020실천운동을 한국교회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포하면서 각 영역별로 맡은 책임을 실천할 것을 선언하면서, 지역교회가 진중세례 선교비를 후원하고, 군인교회에서 수집한 진중수세자의 명단을 연결 받아 미래 출석 교인으로 양육하는 한국교회 청년선교사역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등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다.

4. MCF를 통한 확산

기독장교회(OCU)와 기독부사관단(OECU)이 통합 발전된 한국기독군인연합회(KMCF: Korea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는 비전2020운동의 핵심 구동축 역할을 하였다. 물론, 한국군종목사단과 그에 필적하는 규모와 열정을 가진 민간성직자들이 교회를 지키며 세례운동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것은 부동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민군의 사역자들을 뒷받침하여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용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거듭나는 일에는 KMCF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특별히 군에서 강조하는 사생관(死生觀)과 대적관(對敵觀) 정립에는 정훈병과의 교육도 매우 유용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독 장병은 적어도 사생관은 확고히 정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의 주적을 북한의 노동당 정권과 군부라고 보았을 때 그들의 이념과 사상은 주체사상 혹은 김일성주의이며 그들 스스로가 조선인민군을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고 칭하는 것으로만 보아도[5]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장병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대세력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든 사생관·대적관의 확립이라고 하는 군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군선교의 열매를 함께 거둘 수 있는 군선교의 현장에 군의 지휘관 참모, 그리고 부사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MCF와의 협력은 당연

5)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117-119.

한 것이다. 그리하여 애국은 군선교이고 군선교는 곧 애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지휘관 참모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타날수록 군 본연의 사명과 역할이 더 공고해 지는 이론적 연동성이 확고해 지는 것이다.

사실상 1995년부터 시작된 조선인민군의 군 우선 정책이 선군사상으로 정립되다가 근자에는 '핵경제병진노선'(2013)을 거쳐 2018년에는 '사회주의 경제건설노선'(2018)으로 바뀌며 김정은의 통치의 수단이 조금 다원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북한군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이념과 무력에 있어서 군이 그 핵심 수단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군이 정신무장과 체제에 대한 신념이 필요한 때에 기독교는 군선교 현장에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내(육·해·공군) 자살자 추이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6]	2019년[7]
자살자	391명	172명	82명	82명	56명
증감		– 219	– 90	– 0	– 26

그리고 무형전력인 신앙전력의 극대화를 통해 전시는 물론 평시의 부대관리와 병원(兵員)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허리인 간부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금은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사 사고 특히 자살사고의 예방에 있어서 군종병과와 군목의 역할은 독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6) 『최근 6년간 군 자살자 증가추세』 세계일보, 2011.07.11. 〈https://www.segye.com/newsView/20110711002122〉

7) 〈https://blog.naver.com/mc341/221943345063〉

었다. 만약 이러한 선교 외적 열매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군선교 현장도 수많은 공격과 방해로 형해화(形骸化)되고 명목만 남았을 것이다. 결국 군의 존재 목적과 상치되지 않는 선교 이론과 실제적 접근이 비전2020실천운동의 추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자살은 현재 육군의 경우만 해도 10만 명당 10명 내외로 관리되고 있어 민간의 자살률이 2019년에 10만 명당 38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의 오명을 차지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때 군의 자살이 우리 사회의 우려요소였던 것에 비하면 현재의 추세는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을 양성해 온 군종병과의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육군 군목들과 군종병, 군종행정관은 물론 군인교회들의 헌신으로 성과를 거둔 비전캠프 운영 등도 그 한 예일 것이다.

특히 비전캠프 등 군의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성과는 외국군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 이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에게도 하나의 좋은 사례로 연구되고 있기도 하다. 10-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 오히려 군대가 삶의 의미를 심어 주고 극단적인 선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 중심에 군종목사단과 군인교회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5. 민간교회와의 연대

비전2020실천운동을 20여 년 지속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축은 바로 민간교회였다. 우선 군목파송교단들을 중심으로 교단[8]차원

8) 2020년 현재 군목파송교단은 '기감', '기성', '기하성', '기침', '예성', '기장', '고신', '백

에서의 협력과 지원이 큰 힘이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그 기간에 세워진 각급 부대의 군인교회들은 총 1004개이고 그중에서도 육해공군본부교회와 국군중앙교회, 해군교육사령부 교회, 부사관학교 교회, 공군사관학교 교육관, 육군제3사관학교 교회 및 교육관 신축 등은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진행한 역사였다. 그리고 최근에 봉헌된 육군훈련소 교회로 군의 물리적인 선교의 인프라는 거의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모든 역사에는 한국교회의 힘이 모아진 것이다.

군선교연합회 지회 현황

국내지회 (16개)					
중부지회	부산지회	대경지회	광주지회	동부지회	제주지회
전북지회	충북지회	울산지회	경남지회	강원지회	전남지회
강원영동지회	충남지회	경북지회	경인지회		
해외지회 (10개)					
필라델피아지회	LA지회	시애틀지회	시카고지회	워싱턴지회	뉴욕지회
달라스지회	애틀란타지회	뉴저지지회			
호주지회					

그뿐만 아니라 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각 지회를 국내외에 조직하고 각 지회를 중심으로 운동력을 배가시켰다. 각 교단별로는 군선교 기관 혹은 위원회, 혹은 후원회 등이 창립되어 한국교회 전체가 이 운동에 협력하는 외양을 갖추게 되었다. 더 나아가 각 지교회별로 후원교회로 등록하고 동판을 부착한

석', '통합', '합동'이고, 현재는 총 10교단이다.

교회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후원교회를 통한 개인후원 창구도 마련하여 교단, 교회, 개인으로 세분화된 동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민간교회는 재정적 후원뿐만 아니라 회원교회로 등록한 교회들을 주 대상으로 군에서 세례 받은 장병들 중 기존에 등록된 교회가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미래출석교회로 자원하여 군 복무 중일지라도 소식지를 보내는 등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훈련소 등지에서 세례를 받은 용사들이 복무 중에는 군인교회를 출석하게 되지만, 전역 후에도 신앙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였다. 따라서 전역 후가 아닌 복무 중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교회를 미리 소개해 줌으로 휴가나 외출을 할 때에 방문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게 지역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야말로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이자 목표였다. 각 훈련소 등지에서 수립된 수세장병의 명단을 분류하여 다시 지역교회로 발송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용사의 부모나 가족의 항의도 적지 않았고, 제출된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 행정소요만 발생하고 실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연결이 미미한 이유 중에는 현역 군목들과 군인교회에서 명단을 제대로 수집하고 발송하지 않았던 요인도 있었고, 제출된 명단이 이송과 정리 과정에서 적시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이런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군선교연구소와 한국군종목사단, 그리고 군선교연합회의 전산팀이 프로그램 개

발부터 하드웨어 구축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7. 반성적 성찰

군선교는 아주 특별한 선교, 청년선교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국교회의 통합 국내 선교 사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교단과 진영을 떠나 협력사역의 상징이 되었고, 국방부에서도 군선교연합회를 기독교 군종교구로 변경하여 한국교회의 대민 창구로 설정, 훈령과 규정에도 반영되었다. 군선교연합회 이사장을 고 백낙준 목사와 고 한경직 목사를 이어 곽선희 목사가 감당해 왔으나 2019년에 명성교회 원로 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4대 이사장으로 그 책임을 이어받았다. 군선교의 외형적 틀은 더 견고해졌고 연륜과 함께 경륜, 그리고 사역적인 성숙도도 인정받을 만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선교는 역동성이 생명이고 동력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명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한국교회와 군선교가 분리되어 존재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침체현상과 더불어 군선교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선교 사역을 정리하면서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선교 현장 사역자의 사명감

지금까지 군선교는 현장을 지키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그리고 후방 지원 교회와 교역자,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점철되었다고 확신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밀도가 높은 헌신은 현장 사역자인 군종목사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종목사는 '자애로운 성직자'와 '유능한 참모장교'라는 이중신분을 유지하며 거룩한 이중성, 지혜로운 장교단의 일원으로서

헌신해 왔다. 게다가 천주교와 불교, 그리고 원불교 군종장교들과 함께 한 지붕 네 가족이라는 질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더 나아가 요즘에는 신천지와 기타 이단 종파들의 준동과 공격적인 포교 활동으로 인하여 영적인 위기와 함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가장 급속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군 병영의 현장 책임자로서 자괴감과 성취감, 그리고 당혹감을 함께 느끼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역 군종목사의 노고와 희생과 헌신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의 반성적인 성찰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참모장교인지 성직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처신이나 보직과 진급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일부 극소수 군종목사의 자세는 아쉬운 부분이다. 육군훈련소나 부사관 학교 등,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부대가 선호하는 사명자의 사역지가 되어야 하는데 가끔 오히려 기피 보직이 되어가는 분위기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선교와 세례식을 이벤트나 퍼포먼스처럼 여기고 행사를 치르듯 하는 경향도 가끔은 나타나는데, 이는 한번쯤 군종목사단 내부에서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례는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인데, 본말이 전도되어 오히려 복음보다는 세례 인원에 더 집착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또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특별히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에 있어서 진중세례자의 명단을 잘 챙겨서 교적 관리와 지역교회 연결을 위한 모든 행정 업무는 하나의 매뉴얼이며 당연히 1004 군인교회를 섬기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대대급교회)들의 책임있는 실천이 필수 사항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다. 군 현장에서 진중수세자의 명단관리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기독교군종교구)로 연결의 원천적 책임과 효율적인 능동적 역할은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로부터 출발함을 인식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2) 지원 교회의 역할

민간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이 군선교를 지탱해 온 힘이 되었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보다 더 아름답고 열매가 있는 군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 민간교회나 목회자들도 현장 사역자인 군종목사나 군선교사의 사역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세례인원의 다소를 근거로 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역은 현장 사역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들의 요청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적시적으로 감당함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군선교연합회의 혁신

군선교연합회는 새로운 이사장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그 기능을 쇄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많은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이사회와 임원들이 고령화되는 추세이고 청장년층의 진입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점차 이 부분도 개선되어 청년선교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인적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의 본부이자 머리 역할을 해야 한다. 행사 위주나 이벤트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진정으로 군선교의 동력화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현장을 적시에 지원함으로 역동성이 살아 있는 군선교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이후가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불투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군선교가 이러한 상황에서 적시적인 판단을 통해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군선교연합회가 '기독교군종교구'라는 공식 대표기관으로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정책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이다. 모든 현장 사역자가 다 정책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도적인 뒷받침은 그야말로 현장이 아닌 후원 그룹에서 해야 한다. 기업으로 말하면 R&D, 즉 연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군선교연합회의 오늘을 보면 군선교의 내일을 알 수 있다. 군선교의 '내일'은 '오늘', 군선교연합회의 책임이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함께 실사구시적인, 꼭 필요하고 선교적 열매가 있을 그런 일에 집중하고 매진해야 할 것이다.

8. 전망과 기대

군선교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선교이다. 학원선교와 함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선교의 현장이 군대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령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이 이런 선교의 장을 점점 메마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이고 압도하는 응전 태세를 갖추고 전진하면 군선교가 한국교회의 다음을 감당하는 모판(苗床)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현장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전망은 이미 많이 공개되어 있다. 군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는 없다. 선교가 애국이고 선교가 애군(愛軍)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자로 나서야 한다. 좋은 전망이 없더라도 그런 응전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그 자체가 좋은 전

망이 될 것이다.

결론

지난 70여 년간 군선교는 군의 역사와 함께했다. 월남전을 전후로 확대된 전군신자화운동과 진중세례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 비전2020실천운동이라는 구체적인 선교 목표가 설정됨으로 탄력을 받았고,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요소들도 많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군 안팎의 여러 제약 요소로 인해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재의 군선교는 비전2020실천운동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그나마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과거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선교 현장을 이끌 수는 없다. 이미 흘러간 물에 발을 담그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다. 지혜롭고 현장에 적용할 만한, 무엇보다 선교적 열매가 있는 선교 정책을 개발하고 모든 사역자와 후원자가 혁신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현재 이념, 계층, 세대 간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최근에는 동성애와 낙태 허용과 차별금지법의 도입 추진 등 기독교 신앙적 입장과 건강한 사고를 가진 이들의 상식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편차와 괴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남북분단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장병들의 국가관은 분명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냐?', '사회 공산주의냐?'라는 문제에도 올바른 기준 설정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더 체계적인 시스템과 맞춤형 전략, 전술을 잘 개발하고 적용시키는 21세기형 한국교회 청년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복음전도사역이 지속되도록 실천해야 할 것이다.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

A Historical Evaluation of the 'Vision2020 Project' and Its Prospect

» 이정숙 Ph. D.*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96년에 시작되어 2020년으로 마감하게 되는 군선교연합회의 '비전2020실천운동'을 교회사적으로 평가하면서 계속될 군선교의 향방을 조망한다. 먼저 비전2020실천운동의 배경이 되는 군선교의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군선교의 주체와 확장된 군선교의 조직과 활동내용을 시기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진중세례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장병세례가 급격하게 증가된 것에 고무되어 진중세례를 매해 20만 명에게 주어 2020년에는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75%가 되게 하자는 교회 성장 중심의 선교운동이었다. 당시 군복음화후원회(현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하 군선교연합회)/기독교군종교구)는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를 조직하고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였고, 군종목사단과 군선교사(민간군선교교역자), 기도와 후원을 담당할 실천교회를 조직하여 진중세례자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이 과정은 군종목사단과 군선교연합회가 효과적으로 민간요소를 활용하여 개종과 양육중심의 군선교의 선교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 운동은 군대 내외의 여러 가지 도전들로 인하여 처음의 목표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마감하는 해인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례식과 예배가 취소되는 등 부대 출입 자체가 제한되면서 회심도, 양육의 목표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초교파적 연합선교운동, 교회들의 군선교 동참, 전문적 연구과 발표를 통한 선교전략화, 효과적 청년선교와 기독교세계관으로 무장된 기독교 청년지도자 양성, 또한 다음 시기를 위한 군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논문 투고일: 2020년 9월 14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9월 21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6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5대총장

중심단어
비전2020실천운동, 군선교연합회, 군선교역사, 청년선교, 민족복음화

들어가는 말

뜻밖의 기회에 군선교신학회의 연구위원이 되었고 이 엄청난 과제를 맡게 되었다. 고교 시절 일일입대의 경험 외에는 군대 근처도 못 가봤다는 사실도 잠시 잊어버린 채 교회사가가 이 논문을 써야 한다는 위원회의 강력한 주문을 미처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다. 두고두고 후회가 컸지만 막상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약칭 군선교연합회)[1]가 제공한 자료들을 읽고 정리할 즈음에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큰 감동을 받는 자신을 발견했다.

한 번도 제대로 알 기회를 갖지 못했던 군대라는 장소에서 지난 시간 동안 '청년 전도'와 '민족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라는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한 오랜 열망과 기도가 있었다. 또 큰 성과가 있어 군선교가 단지 군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사회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명한 확인과 확증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명칭은 2008년 자료집에 실린 '주요연혁'에 의하면 1972년 5월 29일에 '전군신자화후원회'(초대회장 백낙준 박사)로 출발하여 1976년 7월에 "군복음화후원회"로 개칭하였다고 나오는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개칭된 시점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1985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가 출발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1976년과 1985년 사이에 개칭시점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미래출석교인 양육 VIP(귀빈) 가족전도" 자료집, 2008년 3월 17일, 29. 그러나 오덕교의 "군복음화 50년의 역사"에 의하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개칭된 시점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한편 이종윤은 그의 2013년 논문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이 시작되면서 1999년 2월 9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개칭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종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 비평적연구," 『군선교신학』 11 (2013), 각주3, 15.

자료정리 과정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이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무지한 필자가 이 중요한 과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증폭되었다. 그래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면으로나마 군선교 70년의 역사와 비전2020실천운동이 진행된 지난 25년 동안 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민간군선교사역자, KMCF 회원, Vision2020실천운동 후원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사역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크게 감사드린다. 관계자 한 분 한 분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믿음의 역사는 매우 컸음을 감히 말씀드린다.

아울러 부족하지만 이 글이 군선교 관계자분들과 필자처럼 이 일과 짐짓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 25년간의 비전2020실천운동을 재인식하고, 함께 다음 단계의 운동을 전망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I. 비전2020실천운동의 배경과 경과

1. 군선교 역사

한국군선교의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조선경비대의 창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라북도 군산에 주둔하던 보병 12여대장인 백인기 중령이 장병들의 정신지도에 종교집회가 유용하다는 생각에서 민간목사를 매주 초청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군인예배의 시작이었다. 선교보다는 군인정신 강화를 통한 전력강화가 목적이었지만 이러한 예배가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을 꾀하던 중, 해군의 손원일 제독은 장교로 입대한 정달빈 목사를 해군 정

훈감실 교화과장으로 임명하여 실제적인 군종업무를 하게 하였다. 또한 정달빈 목사와 손원일 제독의 부인 홍은혜 여사, 육군의 황기오 상사, 이광민 씨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남산감리교회에서의 예배는 용산군인교회를 조직하는 준비과정이 되었다. 곧 이 교회는 한국전쟁 중 미3사단 10공병대대의 무명의 용사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에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써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올림으로 표면화되었다.[2)]

한국전쟁 중 추진된 군종제도는 미 군목들의 도움으로 빠른 시간 안에 승인과 함께 창설될 수 있었다고 한다. 군종(승)제도는 기독교 국가는 물론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에서도 시행되던 제도였기에 다종교 국가였던 대한민국에서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육본군종실의 자료에 의하면, 군종병과는 1950년 이후 다양한 과정을 거쳐 발전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1950년 9월 18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천주교 연합으로 '군종제도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3)] 12월 6일 해군에서는 작전명령 제33호 및 34호에 의거 해군본부에 최초로 군목실이 설치되었다.[4)] 1950년 12월 21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방부에 종군목사를 둘 것을 지시하면서 1951년 2월 7일 군종병과가 창설되었고, 육군 김득삼 목사가 초대 군종과장으로 임명을 받아 육군 내 군목의 업무를 개시하였다.[5)]

2) 육군본부, "육군 군종50년사", (2003년), 68.

3) 육본MCF, "진중교회 양육을 위한 군선교 참고자료" (육군군종실, 2014), 68-69.

4) 김창제, 『21세기 한국교회 부흥의 유일한 돌파구 군선교』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9), 126.

5) 1950년 한 무명의 카투사 용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쟁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쓴 데 이어 극동사령부 군종부장 베넷 군목이 군종참모를 소집해서 회의하고 감리교선교사 쇼우 박사, 가톨릭의 조지 앤 캐럴 신부, 한경직, 유형기 목사 등과 함께 한국군의 군종제도에 대해 의논하고 1950년 9월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예방하여 한국군 군종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개신교 주요 교단들이 연합집회를 열어 군종제도 창설을 위해 기도하였다.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 vols. 1 (2004년 5월); 김창제, 『21세기 한국교회 부흥의 유일한 돌파구 군선교』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9), 124-128. 이외에도 다수의 글에서 간략한 군선교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이후 32명의 무보수 촉탁으로 군종 목사들이 임명되었고, 1952년 6월부터 유급화되면서 군종제도가 해군, 육군, 공군에 잇따라 정착되었다.[6)] 한 용사의 청원에서 피력된 것처럼 군종제도는 일차적으로 전쟁 중 생사를 가로지르는 군인생활이 주는 극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던 용사들을 신앙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종류의 업무가 실제적으로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장병들의 사상지도, 신앙지도, 인격지도, 종교교육과 야전예배 등의 제반업무"[7)]는 물론 상담과 사고예방 등 다양하다. 이렇게 시작된 조직적인 군선교는 군종목사단, 군복음화후원회(현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기독교군종교구), 민간군선교사역자(군선교사), KMCF, 실천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사역자라는 다양한 소속의 제 구성원들이 협력하면서 괄목할 만한 군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군선교의 지난 역사를 정리하면서 오덕교는 '파종기(1950-1967)', '성장기(1968-1987)', '결실기(1988-현재)'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창제는 '개척기(1948-1957)', '성장기(1958-1972)', '성숙기(1972-1987)', '결실기(1988-현재)'라는 네 단계로 나눈다. 두 사람의 시기 분

6) 공군의 경우 한 부사관이 다른 군처럼 공군에서도 군종 업무가 필요하다고 청원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1951년 가을 미 공군 군목부장 페터슨의 자문으로 시작되었으나 1952년 2월 19일 공군본부교회가 창설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발해졌다. 김창제, 126.

7) 김창제, 126.

류는 사실상 일치하는 면이 더 많다. 오덕교는 군선교의 시작 시점을 1950년 군종제도와 함께, 김창제는 조선경비대에서 시작하는데 통합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1948년의 역사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른 이들도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8)]

초기 역사를 지나 군선교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간을 1987년까지로 보고, 1988년 이후를 결실기로 보는 것은 두 사람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성장기와 성숙기를 정하게 되는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덕교는 '파종기'는 군종제도와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마련되는 시기라고 정의한다. 이어서 68년부터를 '성장기'로 명명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건은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의 '새시대복음화운동본부'의 조직이다. 이 조직은 군선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과 군종감, 한국교계 대표목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후 '전군신자화운동'이나 '군복음화후원회'가 결성되고 진중세례와 진중교회 건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군선교가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효율적이 되도록 도왔다.

한편 1948년부터 1957년까지를 '개척기'로 보는 김창제의 시기 구분에서는 1958년부터 1972년까지가 '성장기'인데 그 시작점이 1958년이어야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개념은 없는 듯하다. 이 시기의 중요한 사건은 앞서 오덕교의 경우처럼 김활란이 시작한 '군민 연합 민족복음화운동'이다. 성장기에 이어 성숙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1972년 '군복음화후원회'의 결성이다. 이런 점에서 김창제의 좀 더 소분화된 시기 구분이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오덕교의 시대구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1988년이 '결실기'가 되는 것은 역사적인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해이면서 군선교 조직 내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군복음화후원회'는 설립자 및 제2대 회장 한경직 목사(초대회장 백낙준 목사)에 이어 곽선희 목사가 3대 회장,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후원하는 사단법인체로 개편되었다. 이 시기는 전기에 비해 국가적 위상이나 경제적 형편에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고 한국교회의 부흥도 최고조에 이른 때여서 군복음화후원회의 역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오덕교와 김창제는 이 시기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곽선희 이사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효율적 리더십을 지적하고 있다. 곽선희 이사장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군선교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더 나아가 교단, 또 개교회 중심의 개신교 교회들이 군선교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받아들이고 초교파적으로 또 연합적으로 군선교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런 초교파적 연합선교는 제2차 진중세례 운동, 진중교회 건축 활성화뿐만 아니라 "군선교프로그램 개발, 군선교 사역자에 대한 운영체계 개선과 자질 향상, 사역여건 개선, 군선교의 신학화 노력"[9)] 등 다양한 면에서 군선교의 내실화를 꾀하여 폭발적인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두 학자의 군선교 역사의 시기를 살펴보면서 1988년 이후를 '결

8) 이종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 11 (2013), 14.

9) 김창제, 『21세기 한국교회 부흥의 유일한 돌파구 군선교』, 137.

실기'라고 명명하는 데 대하여 필자는 감히 의구심을 제기하게 되었다. 분명히 1988년 이후는 이전 시기와 확연하게 다른 획을 긋고 있고, 진중세례와 같이 이전부터 수행되던 일들이 더 큰 결실을 맺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군선교의 필요와 역사가 끝나지 않은 지금, 이 시기를 결실기라 하고 역사 서술을 마치는 것은, 이 역사가 마치 오래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역사를 다루는 듯한 느낌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군선교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기록된 '군선교 역사'의 시기 분류는 위에 소개된 두 제안들과 사뭇 다른 것을 발견한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를 '창설개척기'로, 1961년부터 1970년까지를 '성장기'로, 1971년부터 1980년까지를 '부흥기'로, 1981년부터 현재까지를 '도약기'로 정리하고 있다.[10] 안타깝게도 각 시기가 나눠지는 기준이나 각 시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웹상에 포스트된 기록 사진들로 보아 '부흥기'를 합동세례식에서 근거를 찾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군선교의 역사와 시기 분류에서 명칭은 홈페이지를 따르고 내용으로는 오덕교와 김창제를 따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1988-2020년을 하나의 시기로 보고 '군선교의 전략화 시기'라 하고, 2021년 이후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남겨 두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만약 1988년부터 2020년까지가 시간적으로 너무 길고 많은 일들을 담아야 하다면, 둘로 나누어 '도약기(1988-1995년)', '비전2020실천운동기(1996-

10)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홈페이지, 〈"군선교역사", http://www.v2020.or.kr/home/history01http://www.v2020.or.kr/home/history02〉 (2020년 8월 25일 접속).

2020년)'로 나누는 것도 앞으로도 계속될 군선교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군선교 역사가 진행되면서 선교에 참여하는 조직과 각 조직의 사역은 더욱 다채로워졌고, 각 구성원들 간의 파트너십은 다소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다. 군선교 초기에는 군종목사단과 군복음화후원회라는 두 조직이 중심이 되었기에 소통도 더 단순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선교가 활발해지면서 군선교연합회의 조직이 커지고, 대대급 이하 교회에 군종목사 수급이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군선교사(민간성직자, 민간군선교교역자)가 투입되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군종목사보다 훨씬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군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 또한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대교회나 사역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양육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교회를 실천교회로 등록하여 다각적인 선교를 진행하니 그간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11]

그러나 다양한 선교 주체들 간의 소통 부족이나 오해와 갈등의 소지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12] 게다가 군종목사들과는 달리 군선교사 혹은 민간군선교교역자들은 교단이나 개인적인 관계에

11) 2008년 당시 군인교회 양육 한계 상황은 회원교회의 절대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군교회 수가 1000개인데 군종목사 280명에 군선교민간교역자가 400명으로 목회자 320명의 '과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목회자 부족에다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는 주일 낮 예배조차 참석하기가 쉽지 않고, 민간교역자들은 낮에만 예배를 담당하니 저녁에는 군종병들이 담당하게 되어 목회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타 종교의 견제와 물량공세 등의 도전이 있어 장병 전도와 양육이 어렵다고 기록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미래출석교인 양육 VIP(귀빈) 가족전도" 자료집(2008년 3월 17일), 49.

12) 군종목사단과 군선교연합회의 갈등과 오해에 대해서는 비전2020실천운동 중간평가를 시도한 정재원의 논문에서 운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이 논문의 논찬을 맡은 이규철은 이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평가하고 있다. 정재원,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군선교신학」 11 (2013), 82; 이규철,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에 대한 논찬," 「군선교신학」 11 (2013), 93-94.

의해 투입되기에 선교를 하지만 선교파송단체나 후원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서 사역의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역시 선교의 효율성 차원에서 잠재적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13)]

군선교의 내용을 보면, 초기 역사에서는 세례를 통하여 신앙을 갖게 하고 군생활에 어려움 없이 적응하고 조국을 위한 전력강화에 기여하자는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1965년 이후 민족복음화운동과 접목되면서 전도와 더 나아가 세례 받은 장병들과 기존 신자장병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한국교회와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양육강화로 선교적인 측면에서 성숙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개종과 양육이라는 이중 목적을 추구하는 군선교는 '비전2020실천운동'에서 더욱 구체화되었고, 이러한 운동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개신교(기독교)가 1위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성과로 제시되기도 했다.[14)]

2. 비전2020실천운동의 출발

비전2020실천운동은 2020년까지 매해 20만 장병에게 세례를 베풀고 양육하여 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활약하여 2020년에는 전 국민의 75%가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자

13) 주연종,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 11 (2013), 123-124.

14) 오덕교,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진중세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 청년」 17 (2018). 이 논문은 2016년 말에 발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두 가지 큰 특징, 즉 비종교인구가 종교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는 사실과 개신교가 인구구성상 제1의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 논문은 진중세례의 효과가 개신교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을 구성하였다는 아주 정교한 증거제시와 논증을 시도하였고, 주연종의 논찬에서도, 합리적인 분석으로 수용되었다. 주연종, 오덕교 박사의 논문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요인-진중세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군선교, 청년」 17 (2018), 81-86.

는 엄청난 비전제시 운동이다. 이 운동은 군선교가 민족복음화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임을 증명하고자 한 군민연합 군선교운동이며, 그 운동의 효과가 단지 군에만 적용되는 협소한 의미의 선교운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뻗어나가게 하자는 광의적이며 적극적인 선교운동인데, 운동의 구체적인 시작과 진행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의 시작은 1996년 2월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한 이필섭 장로가 육·군·공군 본부교회 예배당을 헌당하는 자리에서 스가랴 3: 9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라는 구호를 만들어 진중세례운동을 기반으로 향후 2020년이 되었을 때 전체 국민의 75%(당시 기독교 인구 25%로 계산)가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하자고 주창하면서 비롯되었다. 1997년 11월 20일 군복음화후원회 정기이사회는 '비전2020실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부설기구로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1998년 1월 30일 정기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인준하고 위원장에 이종윤 목사를, 본부장에 이필섭 장로를 추대하면서 조직을 갖추었다. 이어서 1998년 2월 5일에는 군종목사를 파송하던 10개 교단 총무단회의를 통해 운동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협조와 후원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군복음화위원회 제11차(통합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운동본부의 조직과 운영계획을 승인받고, 예장통합 군선교부의 배려로(군복음화후원회 운영이사인 임종남 권사가 예장통합 군선교부에 기증한) 여전도회관 504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월 23일 개설예배를 드리니 본격적으로 운동이 개시된 것이라 하겠다.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비전2020실천운동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동 '결

의문'을 작성하고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교회 군목파송교단 대표[15]가 실천등록교회와 함께 서명하고 채택하는 시간을 가졌다.[16] 또한 '21세기 기독교운동선언문'을 발표했다.[17]

1998년 결의대회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본격 가동하고 운동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짓는 데 상당히 의미 있는 대회로 보인다. 이 대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운동본부는 24차례의 실무회의와 5차례 이상의 군종목사파송교단 총무단 회의, 국내 지역별 지도자초청회의 등을 가지면서 함께 토론하고 구체화하고 확정한 운동의 개요와 내용들을 '21세기 기독교운동선언문'을 통하여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언문은 대내적으로 운동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대외적으로 이 운동을 인지시키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실제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15) 여기서 한국교회 군종파송교단은 10개 교단으로, 자료집에 기록된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 ] 속 이름은 당시 총회장과 교단총무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유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김종삼, 심군식], 기독교대한성결회[손덕용, 최희범], 한국기독교장로회[강만원, 박종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권문집, 백종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이경운, 김대섭], 예수교대한성결교회[김재용, 엄호섭], 기독교한국침례회[이봉수, 양회협]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유의웅, 김상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길자연, 서성수].

16) (사)군복음화위원회비전2020실천운동본부, "비전2020실천운동결의대회" (1998년 11월 13일), 57-68.

17) 이 선언문은 앞서 당양한 주체의 결의문을 근거로 하여 마련된 것으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군복음화후원회는 한국교회와, 한국군종목사단과, 비전2020실천운동 실천등록교회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 16)는 언약의 말씀대로 향후 2020년 전 국민이 75%인 3700만 성도의 나라를 건설하여 건강한 국가, 밝은 사회를 이룩하자는 국가차원의 **애국애족운동이요,** 건전한 종교활동으로 장병들의 바른 사생관 확립, 필승의 신념 배양, 부대사고 예방 등 정신전력 극대화와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해 건전한 모범시민으로 육성함과 민·군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한다는 군의 기본 방침에 적극 부응한다는 뜻에서 **'신앙전력화 운동'**이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진중세례운동으로 민족복음화는 물론 침체된 한국교회의 부흥과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에 이바지하자는 2천 년대 교회 운동인 **비전2020실천운동**이 이 민족을 죄악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21세기 기독교운동**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사)군복음화위원회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비전2020실천운동 결의대회" (1998년 11월 13일), 69.

선언문에 적시한 대로 '비전2020실천운동'은 '애국애족운동'이며, '신앙전력화 운동'이며, '21세기 기독교운동'이었다. 특별히 1998년은 20세기 말이었고 당시 세계 선교회들이 대망의 21세기를 기대하며 20세기의 선교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동시에 다음 세기의 선교 비전을 제시하던 시점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 군선교 관계자들의 이러한 비전 제시는 세계선교사(史)와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18]

비전2020실천운동의 배경에는 1972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진중합동세례식과, 1990년 당시 육군교육사령관이었던 김진영 장로(1993년 육군참모총장, 이후 비전2020실천운동 본부장 역임)가 육군 제2훈련소를 중심으로 '진중세례운동'을 시작하여 엄청난 수의 장병들이 이미 세례를 받은 성과를 통한 확신이 있었다.[19] 이 과정에서 군선교연합회가 적극적인 기여를 한 바 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전도와 선교운동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최고조의 효과를 보이면서 한국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하였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한 선교사 파송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여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을 성취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있던 시점이었다.

3. 비전2020실천운동의 진행과 관리

18) 피터 바이어하우스, "21세기를 향한 선교," 『신학정론』 15(2) (1997년 10월).

19) 1998년 11월 13일 비전2020 실천운동 경과보고서.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는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사업들을 관리해 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1) 전도를 통한 진중세례식 추진, 2) 세례자들의 양육 프로그램 개발과 양육체계 마련, 3) 실천교회와의 연합선교로 세례자 양육과 세례자 가정 전도(VIP 초청 잔치), 4) 선샤인운동과 YESMission 등의 프로그램 개발로 세례자를 군대에서는 물론 전역 후에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1) 전도와 진중세례

정세준이 비전2020실천운동의 배경으로 세 가지 요인을 지목했는데 그중 하나가 진중세례이다. 운동 이전의 또 과정 중의 진중세례의 숫자는 사실상 군선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필섭 장로가 "1996년 기준 한국교회 신자 수를 1,200만 명이라고 할 때 매년 장병 22만 명을 전도하여 세례교인을 만들고…"[20]라고 했을 때 그는 1996년 어간의 진중세례의 성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실제로 1998년 군대 내 세례인원은 207,951명이었다. 이러한 엄청난 성과는 비록 단순하기는 하지만 매해 진중세례로 22만 명을 전도하겠다는 도전에 나설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에 근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숫자 중심의 배가운동은 군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 복음주의기독교 진영의 전도/선교운동에서 흔히 발견된다.

20) 한국기독교군선교회, "국가안보와 비전2020실천운동-특강내용 수록," 『비전2020실천운동 교육자료집』 (1998), 정세준,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한국교회 청년사역의 양육네트워크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 청년」, Vol. 18 (2019년 10월), 81에서 재인용.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진중세례의 통계는 정세준의 논문을 통하여 이미 소개된 바 있다.[21] 이 통계는 정재원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에 소개된 '연도별 수세자 및 회원교회 결연 현황 통계'(1998년-2012년)를 이어간 통계이다.[22] 이에 의하면 진중세례의 최고치는 216,080명을 기록한 1999년이다. 2000년에는 187,156명이었고 이후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다시 증가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통계, 즉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 통계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도표1. 2017-2020년 상반기 진중세례 명단수집인원, 연결인원, 결연인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공)
(단위: 명)

구 분	세례인원	명단수집인원	연결인원	결연인원
2020년(1-6월)	19,170	35,320*	9,629	
2019년	122,625	43,224	13,016	
2018년	131,764	61,128	13,919	1,281
2017년	143,086	98,897	23,875	3,857

*명단수집인원이 세례인원보다 많은 것은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온 명단수집 자료가 2019년도 세례인원을 일부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함.

이상의 도표는 2018년까지 진중세례에 대한 정세준의 첫 번째 결론, 즉 비전2020실천운동은 진중세례에 관한 연간 목표인원인 22

21) 정세준,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한국교회 청년사역의 양육네트워크 운동을 중심으로," 84.

22) 정재원,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한국군선교신학회, 「군선교신학」 11 (2013), 65-66.

만 명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화해 주고 있다.[23] 2020년은 상반기 자료만 만들어졌고 또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 전체 통계에서 일단 빼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2년간의 통계를 만들어본다면 세례누적 인원은 3,678,707명이고, 연평균 인원은 약 16만 7,213명이 된다.[24] 1996년 당시 이필섭 장로가 2020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625만 명의 절반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도표2〉가 보여주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로 인한 진중세례식의 결과는 충분히 예상했던 바임에도 상당히 충격적이다. 코로나의 진정세가 잘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으로는 2020년 하반기의 통계는 상반기에 못 미칠 수 있다. 더욱 심란한 것은 2021년에도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수 있고, 포스트코로나의 세계는 뉴노멀의 사회, 언택트 문화로 들어가게 되어 진중전도와 세례 역시 새로운 준비와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효과도 기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도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로 인해 전혀 세례식을 거행하지 못한 경우가 이미 5군데 있으니 말이다.

23) 정세준, 85.

24) 2020년 5월 14일 군선교연합회 제49차 정기총회에 제출된 "보고서 · 회의안"에 포함된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현황"에서 "연도별 수세 실적현황"(37쪽)은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수세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 경우 수세자 총합은 4,574,993명이 된다. 그런데 비전2020실천운동의 실제적 역사 시작이 1998년이었던 것을 고려하고 중간평가 단계에서도 1998년부터 통계를 제시했던 것을 고려할 때, 1992년부터 통계를 시작한 것에 대해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2. 2020년 전반기 진중세례식 현황〉

(202년 8월 25일 현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공)

구 분	지 역	상급부대	부 대	인 원 수
중앙본부	경기서부	1군단	1사단	102명
			9사단	256명
			25사단	280명
			30사단	87명
	경기중부	6군단	5사단	628명
			28사단	35명
	경기북부	5군단	3사단	393명
			6사단	124명
	경기동부	지상작전사령부	55사단	472명
			특수전교육단	38명
	서 울	국 방 부	육군사관학교	코로나×
경인지회	경 인	수도군단	51사단	163명
강원지회	강원중부	2군단	7사단	599명
			15사단	381명
			27사단	105명
동부지회	강원중부	2군단	36사단	735명
	강원북부	3군단	12사단	403명
			21사단	346명
영동지회	강원영동	8군단	22사단	231명
			23사단	539명
충북지회	충 북	종합행정학교	37사단	378명
			육군학생군사학교	913명
			공군사관학교	코로나×
중부지회	중 부	육군본부군종실	육군훈련소	10,132명
충남지회			32사단	599명
전북지회			육군부사관학교	540명
전북지회	호 남	상무대근지단	35사단	256명
광주지회			31사단	124명
			상무대근지단	9명

구 분	지 역	상급부대	부 대	인 원 수
경북지회	영 남	2작전사령부	해병대교육단	375명
대경지회			50사단	231명
			육군3사관학교	코로나×
경남지회			39사단	346명
			해군사관학교	코로나×
			해군교육사령부	코로나×
			공군교육사령부	1,045명
부산지회			53사단	280명
총 계				21,225명

진중세례 통계의 허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비판이 있었다. 특별히 2013년 정재원의 논문에서 기독교 세례와 천주교의 영세, 불교의 수계를 받은 '육군 ○○사단 신교대 성례인원 통계'가 제시되었는데 중대총원보다 많은 수가 성례인원으로 소개되면서 많게는 40%까지의 신병들이 중복 성례를 받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진실로 입증되었다.

진중세례는 1004군인교회에서 일 년에 두 번, 즉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실시하고, 신교대와 훈련소에서 월 2회 혹은 3회까지도 실시해 왔다. 연간 엄청난 수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들의 적은 수만이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에 참여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장병들이 군대라는 환경적으로 제한되고 특수한 상황에 처한 호기심 많고 문화적 갈증이 있는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굳이 이해하지 못할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세례자는 기독교인이라는 전통적 등식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고, 양육의 중요성을 더 한층 대두시켰다고 하겠다.

2) 양육

앞서 말한 대로 양육과 양육네트워크 마련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그러므로 진중세례자들의 세례를 재확인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건실한 기독청년으로 성장시키고, 전역 후 지역교회로 편입되고 대학과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원대한 꿈이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민족복음화를 앞당기며 세계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양육은 절대적으로 세례자 파악, 체계적인 연결과 진중교회와 군선교회원교회의 협조를 필요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도표1〉에서 보여주듯 세례자의 명단을 수집하고 그들을 연결하고 실제로 결연을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까지의 통계로 세례 장병의 명단 수집은 65%가 이루어졌고, 총 세례 장병의 45%가 회원교회에 전달되었고, 총 세례 장병의 7%가 회원교회와 실질적 결연으로 이어졌다.[25] 실질적 결연 통계에 대한 실망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었고, 운동 자체에 대한 실망과 부정평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3) 가족전도

장병들의 전도에 이어 그 가족들을 전도하여 세례장병이 전역 후 자연스럽게 지역교회에 가족들과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은 군선교의 효과가 단순히 군대에 머무르지 않고 전역 후 또 한 국교회의 전도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효과를 생각한 전략이었다. '미

25) 정세준, 85.

래출석교인 VIP(귀빈) 가족전도'는 군선교회원교회의 실천 가능한 아홉 가지 모델 중 4모델이다. 아홉 가지 모델은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처음 4가지 모델은 단계적인 전도와 양육 확장이다. 1모델은 회원교회가 군선교를 위해 중보기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2모델은 회원교회에 속한 군인신자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3모델은 미래출석교인 양육으로 진중세례 이후 회원교회와 결연된 신자를 양육하는 것이며, 4모델은 그들의 가족들을 접촉하여 귀빈으로 모시고 전도하여 진중세례로 신자가 된 청년이 전역 후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효과적인 귀빈전도를 위해 구체적으로 10대 실천사항까지 제시하였다.[26] 또한 이러한 실천사항을 실제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군선교연합회는 전국 각 지회를 통하여, 또 자료 전산화, 교육 자료/강의, '실천행정양식'의 개발 및 제공 등의 지원으로 회원교회와 긴밀하게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27]

4) '선샤인(선한사마리아인) 캠페인'과 '예스미션'

선샤인(선한사마리아인) 캠페인은 1004교회의 구성원들이 말 그대로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여 건강하고 보람찬 병영문화를 만들자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운동의 목적은 기독교인 장병들과 사관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장려하고, 본이 되는 병영생활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동료들을 돕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병영문화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병영문화를 더 건강하게 끌어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졌다.

26) 10대 실천사항은 '1) 전도대상자 등록, 2) 전도특공대 편성, 3) 사랑의 기도, 4) 사랑의 편지, 5) 사랑의 전화, 6) 사랑의 선물 보내기, 7) 사랑의 만남, 8) 사랑의 관계성 확인, 9) 사랑의 복음 제시, 10) 사랑의 초청'이다.

27) 회원교회의 다양한 실천사례들은 필자가 전달받은 2004년, 2008년 자료집, 2009년 자료집, 2011년 자료집 등에 소개되어 있었다.

한편, 예스미션(YES Mission)은 2018년 12월 22일 육군훈련소 새 예배당 봉헌식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청년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선교'(Young people Evangelization Special Mission)이다. 이 전략적 개념과 비전2020실천운동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운동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약점을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는 의지였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28] 이미 잘 소개되어 있고 2021년 이후 중점사역으로 소개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Ⅱ. 비전2020실천운동의 도전과 결과

1. 대내외적 도전

비전2020실천운동이 진행되는 20여 년 동안 군대 안팎의 선교적 상황과 환경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이 변화들은 이 운동이 처음 예상과 달리 순항하기 어려운 궤적을 만들었다.

내적 도전은 초기부터 이어져 온 종교와 전력강화 간의 긍정적 함수관계(신앙전력화, 전군신자화, 1인 1종교)에 대한 도전, 종교 간 선교 경쟁 과다구도가 형성되면서 더욱 분명해진 듯하다. 2008년 자료집에서 20세기 군선교의 특징을 '기독교 독점시대(시루떡/초코파이), 하드웨어 시대(시설)'라 하면서 21세기는 '종단 간 경쟁시대(햄버거/치킨), 소프트웨어 시대(프로그램)'로 정리한다. 또한 참여정부의 '군종정책 6대 실책사항'[29]으로 '무종교도 종교다'라는 종교정책의 함의가 군

28) 정세준은 2019년 평가논문에서 예스미션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정세준, 98-106.

29) "참여정부 군종정책 6대 실책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신앙전력화 정책 약화 -"무종교도 종교"라는 정책 적용(다원종교실용화), 2) 소수인권 중시 종교 정책 강화 - 반기독교 정책(결과적)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장병 종교편향 설문조사 시도/원불교 군종장교 편입(법 개정, 규정 편향 적용), 3) 군종병과 시스템 축소 시도 및 굴절시각('애물단지'), 4) 종교적 사유 병역대체법 추진(이단/사이비 용

선교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과 군종도 정치세력화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군선교는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장병 급감, 병역대체법에 따른 이단/사이비 종교 활성화 가능성, 군복무 기간 축소, 인권정책의 강화로 인한 장병생활의 변화 등이다.

반면 외적 도전은 군선교 외부의 선교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일 것이다. 국내비종교인구의 증가, 교회청년부인구의 급감('절벽감소'), 청년선교의 어려움, 대학생 위주 선교회들의 고전, 비대면문화의 확대에 대처하는 선교전략의 부족[30] 등이다. 이러한 도전들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문제 파악과 대응전략에 관하여서는 이미 각각의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실험되고 있기에 그 성과에 기대하고 의지하며 도전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 코로나19

비전2020실천운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2020년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와 감염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운동의 연간목표는커녕, 관련 구성원 전체가 모여 운동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다음 단계를 구상하며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예를 들어 10월 8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0회 군선교신학회 심포지엄').

〈도표2〉에서 본 바와 같이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상반기의 진중세례 인원은 21,225명이다. 이는 비록 상반기 통계임을 감안할지라도 이미 감소세에 들어가 있었던 2018년 연간 131,764명, 2019년 122,625명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숫자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예배 및 기독교활동의 위축과 진중세례식이 아예 열리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나마 감사해야 할 수치이다. 코로나로 인해 군선교사(민간성직자, 군선교교역자), 회원교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제한, 내지는 금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요소'가 축소 내지는 배제되어 군 내부 인력과 자원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운동의 취지와도 어긋나고 이제까지의 성과에서 뒷걸음치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파괴력과 심각성이 리히터 규모 8.3으로 도시의 98%를 폐허로 만들었던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에 비유할 정도[31]라고 하니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성과 위주의 평가로 좌절하는 것보다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고무적인 사실은 군선교연합회가 코로나로 연기되었던 정기이사회(이후 정기총회)를 2020년 5월 14일에 개최하여 지난 33년간 이사장으로 수고한 곽선희 목사를 명예회장으로, 부회장이었던 김삼환 목사를 제11대 이사장(제4대 회장, 제2대 기독교군종교구장)으로 추대했다. 신임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이제까지의 군선교연합회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다음세대, 미래세대, 차세대 청년선교'에 속도를 높이고 '통

납 정책), 5) 최전방 철책선 부대 십자탑 점등 폐지, 6) 특정종교 장군진급 심화(정치세력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민족복음화를 향한 한 생명 살리기 미래출석교인 양육 VIP(귀빈) 가족전도-한국교회 21세기 군선교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 중심-" (2008년 3월 17일), 27.

30) 비대면문화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확대된 개념이지만, 인터넷 보급과 스마트폰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미 밀레니엄세대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2017년 말에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언택트'(untact)라는 신조어가 이미 소개되었고, 이는 은행의 ATM, 음식점의 키오스크, 다양한 VR 체험실, 온라인쇼핑, 무인택배함, 스마일박스, 공유경제 등이 상용화됨을 지적했다. 이상화, "비대면시대, 교회의 코이노니아", 『목회와 신학』, No. 375 (2020년 9월), 64.

31) "Mary Meeker's Coronavirus Trends Report," 〈https://www.axios.com/mary-meeker-coronavirus-trends-report-0690fc96-294f-47e6-9c57-573f829a6d7c.html〉 (2020년 8월 30일 접속).

일선교'에 집중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부흥을 통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겠다는 군선교의 기본 비전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11월 13일에 비전2020실천운동 감사예배를 드리고, 전도-세례-양육-결연으로 이어지는 청년선교 벨트를 견고히 하기 위한 예스미션 사역을 본격 시작하겠다는 로드맵을 구체화한 바 있다.[32)]

Ⅲ. 한국교회사적 평가

비전2020실천운동은 1996년에 주창되어 1998년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래 몇 차례의 구체적이고 학문적인 평가를 거치며 건설적으로 발전해 왔다. 2004년 5월 30일 창간된 신학논문집, 「군선교 신학」(현재 「군선교 청년」)은 단순히 이 운동을 자체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교회사적으로나 선교학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자료로 자리매김하였다.[33)] 그간 발간된 자료집과 연구논문들을 통해 소개된 비전2020실천운동의 전말은 한국교회사의 부흥운동 중 적어도 두 개의 큰 운동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 백만인 구령운동(Million Souls Movement, 1909-1910)[34)]

32) 「크리스챤연합신문」, "군선교연합회 한국교회 청년 생명 살리는 군선교 새 출발 알려", 2020년 5월 24일자, 5면.

33) 비전2020실천운동과 관련하여 군선교신학회의 논문집 제1권에서 곽선희, 이종윤, 오덕교, 박종화, 주연종; 제5권에서 이종윤, 윤병국; 제10권에서 이종윤, 박종화, 주연종, 최석환, 김진섭, 오희준, 유현, 홍석균; 제11권에서 이종윤, 김대덕, 정재원, 이규철, 주연종, 강사문; 제15권에서 안만국, 정재원, 이규철; 제18권에서 정세준 등의 기고문이나 논문들이 있다. 이 중에서 총체적인 평가를 시도한 글은 이종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비평적 연구"(11집)와 정재원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11집), 정세준,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18집) 등이다.

34) 혹 '백만명 구령운동'이라고도 한다. 한국기독교사연구회가 발간한 『한국기독교의 역사 II』는 이 '백만명 구령운동'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1903년의 부흥운동이나 1907년의 '부흥운동', 1909년의 '백만명 구령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개인이 주도했다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진행되는 '집단적' 신앙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87.

한국교회 선교의 초기를 돌아보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다. 이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 선교역사의 분수령이 되었고, 한국교회에게 거대한 영적 기념탑이 된 사건이었다. 이 부흥운동은 상대적으로 소개가 덜 된 1903년 원산부흥운동이 도화점이 되었고, 선교사들과 한국기독교인들이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하며 협력하여[35)] 점진적 리더십 이양의 계기를 자연스럽게 마련해 주었다.[36)]

1907년 1월에 시작된 대부흥의 물결은 약 6개월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장로교회는 그해 3월에 청주에서 집회를 했고, 감리교회는 4월에 공주에서 집회를 열었던 기록이 있다. 그러나 현저하게 약해져 가던 부흥의 불씨를 새로이 지피고자 했던 것이 '백만인 구령운동'이다. 이 운동은 1909년 7월 미국 남감리교 소속 송도(현 개성)선교부에서 갬블(F. K. Gamble), 리드(C. F. Reid), 스톡스(M. B. Stokes) 선교사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던 중 갖게 된 비전이었다.[37)]

처음 이들은 자신들의 선교지역에서 '오만 영혼 구원하기'를 기도

35)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1903년 원산부흥운동에서 하디 선교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서양선교사들의 '양대인(洋大人)자세'와 한국기독교인들의 'Rice Christian' 태도로 인하여 어려워졌던 관계가 선교지체현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을 중국서 또 한국 내 타 지역에서 휴가차 온 선교사들과의 성경공부 기도모임에서 하디 선교사가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시작되었고, 해당 주일에 교인들에게 이를 고백함으로써 부흥의 불길을 피우게 된 것이다. 이정숙, "M. C. 화이트(Mary Culler White) 선교사의 원산 방문 재고," 21집, 2007년 12월: 239-264.

36) 1907년 대부흥 이후 장로교신학교의 첫 졸업생 7명이 배출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독노회가 만들어진 것은 교계의 리더십이 한국인 기독교인들에게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37) 이상규, "[이상규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 (29) 백만인구령운동(1909-1910),"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364433〉 (2020년 8월 20일 접속).

했으나 그해 9월 남감리교 연회에서는 '이십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로 목표를 정하였다. 곧 장로교에서는 1907년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연합부흥운동, 또는 전도운동이 되었다. 1909년 10월 8일과 9일, 서울에서 모인 장감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는 남감리교 연회가 채택한 '2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를 확대하여 '백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A Million Souls for Christ)라는 전도운동으로 개명하였다.[38] 당시 기독교신자는 20만 명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명이라는 목표수치 자체가 허황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들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진 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이 운동은 선교사들이 주동하였고, 비록 두 교단만 참여하지만 그래도 당시로서는 초교파적 연합전도운동이었다. 두 번째, 대중전도집회의 성격을 띠고 "백만 인을 예수께로"라는 노래도 만들어 여러 전도 집회에서 부르면서 전도 집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이 운동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하는 축호(逐戶)전도의 형식으로, 이후 전도의 중요한 한 형태를 실험했다는 사실이다. 전도자들은 복음서와 전도지를 나눴는데 이 기간 동안 배부된 마가복음은 70만 권, 전도지는 300만 부나 되었다고 한다.[39] 또한

38) 김영재는 '복음선교회 연합회(General Council for the Evangelical Missions) 집회에서 목표를 백만 명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김영재, 『되돌아보는 한국 기독교』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8), 126.

39) 이상규, "[이상규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 (29) 백만인구령운동(1909-1910),"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364433〉 (2020년 8월 20일 접속).

이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날 전도'(Day Preaching), '날 연보'(Day Offering)가 그것인데,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듯,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날 전도요, 날 연보였다. 이 전도기간 동안 총 10만 일의 날 연보가 작정되었고, 수요기도회에 이어 금요기도회도 시행되어 훗날 금요철야기도회로 이어졌다.

백만인 구령운동의 결과를 단지 목표숫자 달성도가 가지고 평가한다면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 운동이 시작된 시점에 일본의 강제병합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충격도 있었고, 대중전도집회 방식이 선호되었던 이 운동은 일본경찰에 의해 정치집회로 오인되어 자연스럽게 제재를 받게 되었으니 원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실제 전도운동에서 숫자적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전도나 선교의 기본자세는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엄청난 숫자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그때그때 열심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의 여러 속성과 잘 맞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게으름을 막기 위해 최적의 목표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인 듯하다.

2. 민족복음화운동

김활란 박사(1899-1970)는 1946년 이화여자전문대학(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의 7대 교장으로 임명된 이래 1946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대총장(7대 총장)으로 봉직하다가 1961년 정년 퇴직하였다. 이후 그는 "우리 신자 된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 생활의 중심을 복음전도에 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습니다만 본인 역시 그러한 사명감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많이 내어 개인전도에 힘쓰고 있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큰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3천만 겨레에게 골고루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40]이었지만 그러한 꿈을 혼자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함께할 교계 지도자들을 자신의 처소에 초대한 것이 1964년이었다. 이 모임에서 남미를 순회하며 확인한 '심층전도'(Evangelism in Depth)에 큰 감동을 받고 온 한경직 목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해 10월 16일 각 교단 대표와 전도부 대표, 각 선교회의 대표, 지방교회 대표 75명과 함께 회의를 하고 당시 감리교신학대 학장이었던 홍현설 박사가 임시의장을 맡고, 12월 3일에 발기대회를 가지면서 1965년을 '전국복음화운동의 해'로 선포하였다.

한경직과 함께 명예위원장이자 총무를 맡게 된 김활란은 이 운동은 연합기구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초교파적으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복음전도운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5가지 목표를 적시하였다.[41] 이 목표는 남북한 동포뿐만 아니라 한인디아스포라 동포까지 포함하는 범민족복음화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규모와 범위가 크고, 기독교인 전체에게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제시

40) 김활란, "전국복음화운동 발족에 즈음하여," 『새가정』 123권 (1965년 1월), 16.

41) 전국복음화운동의 다섯 가지 목표는 1) 삼천만 온 겨레가 모두 다 기독교의 복음을 듣게 한다. 2) 삼천만 온 겨레의 손에 기독교의 복음서를 빠짐없이 갖게 한다. 3) 전국 중요도시와 4만 개 부락에 복음이 골고루 전파되게 한다. 4) 재일교포와 북한 동포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5) 신자는 각각 배가운동을 한다.

함으로써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마련하였다.[42]

이렇게 시작된 전국복음화운동은 1970년대 1980년대 대중전도집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운동이 되었다. 이 복음화운동은 단순히 교회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직장복음화와 전도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어 가히 전방위적인 전도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한국교회가 1950년대 겪은 분열과 이단 등장으로 인한 혼돈[43]을 정리하고 교회의 발전과 전도 동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교회에는 일치를! 사회에는 변혁을! 민족에는 소망을!"이라는 '신도선언'을 채택하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길을 복음전도에서 찾고 있는데, 이은선은 이 운동의 "핵심적인 원동력"은 "교회연합"이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교회연합은 단지 개신교만의 연합이 아니었고 성공회와 천주교가 함께하는 기독교 전체의 연합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교회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때 전도의 모든 다양한 대상을 17개 분과로 나누어 접근했는데 군대가 이 중 하나였다. 1974년 한경직 목사가 '전군신자화후원회'의 제2대 회장이 되면서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진중예배당 건축사업도 활성화되었다.

이 운동의 활성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열렸던 '신도대회'에 정일권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부의 지원 배경에는 당시 기독교가 보여주었던 투철한 반공의식

42) 1965년 1년 동안 전국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복음화운동 주일을 작정하고 특별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 2) 각 개인, 단체, 직장별로 전도활동을 한다. 3) 전도의 다양한 방법 사용: 구두전달, 문서전달, 시청각전달, 간접전달. 4) 각 교회가 1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5) 전 교인이 한 끼 금식과 헌금을 실천한다. 김활란, 19.

43) 1950년대 한국장로교는 3차례의 분열을 경험하였고, 감리교와 성결교 역시 분열되었으며, 박태선의 전도관과 문선명의 통일교가 등장하여 기독교에 큰 도전이 되었다.

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공의식은 1970년 영락교회 설립 25주년 기념 '정신혁명 전도집회'에서 더욱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반공'이라는 소극적 목표는 '승공'으로 바뀌고, 승공통일을 위한 신앙심과 성실한 삶은 정신혁명의 첫 번째 목표가 된다.[44] 이는 현재 한국교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보수 혹은 복음적 교회의 반공의식과 국가의식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 또한 연방제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듯 보이는 현재 한국정부나 소위 진보 기독교가 보수 기독교를 통일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근거가 된다.

1965년 이후 민족복음화운동은 세계전도대회와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로 이어져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라는 표어가 등장한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는 서울과 지방집회를 합하여 440만 명이 참석하여 10만에 가까운 새로운 결신자를 내는 역사적인 전도집회가 되었다. 한경직 목사는 이 집회를 통한 기독교의 일치단결은 민족(국가)을 위한 방향제시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어 "복음 전파를 통한 민주국가 건설의 위대한 사명"을 강조하였다.[45]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와 한경직 목사의 활약이 한국교회의 온전한 일치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ICCC 계열의 보수 기독교는 빌리 그레이엄이 공산주의를 분명하게 비판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였고, 진보 기독교는 1972년 10월 유신체제

44) 정신혁명 전도대회의 3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승공통일을 대비하여 신앙심을 함양하고, 한국교회의 일치와 성실성 있는 온 성도의 결심을 새롭게 한다. 2) 국민 도위심의 앙양과 절제 있는 생활의 초소로서 시민생활의 결속을 다짐한다. 3)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이 나라의 화평을 가져온다." 이은선, 263.

45) 『복음의 대향연-빌리 그레이엄 한국전도대회의 전말』, 67-8, 71. 이은선, 264-265에서 재인용.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정권의 비호를 받은 기독교 대형집회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이 집회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컸다.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성가대 스탠드와 가로등 신설 등이 정부지원으로 가능하였다.[46]

군선교와 관련하여 서울대회 셋째 밤이었던 6월 1일은 '군인의 밤'으로 정하여 옥만호 공군참모총장과 각 군 군종감들을 위시하여 2000명의 각 군 장병들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다.[47]

군선교운동은 앞서 1966년 제1차 세계전도대회가 열렸던 베를린 대회에서 나온 전도방법 중 소위 '황금어장론', 즉 군대와 산업현장 같은 곳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가장 좋은 어장이라는 분석과 직결된다. 이러한 분석은 1965년 전국복음화운동의 해가 마치면서 구체적인 목표설정에 유효하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활란은 1968년 6월에 '새시대복음운동'을 조직하여 각 군 참모총장, 군종감과 함께 한경직, 홍현설, 강신명 목사를 중심으로 한 전도단을 군에 파견하고 전도강연을 펼쳤다. 전군복음화를 위한 이러한 열심은 1969년부터 '1인 1종교 갖기', '전군신자화운동' 등으로 연결되었고, 비기독교인 지휘관들조차도 신앙전력화의 효과에 대한 확신으로 이 일에 협조적이었다고 한다.

이 운동의 결정적인 도약은 당시 1군사령관이었던 한신 대장의 "무신론의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는 하나님을 믿는 군인을 만드는 데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되었다. 그는 "1군사령부 내 대대 단위 부대까지 33명의 군종목사를 파송"하며 전군신자

46) 이은선, 265.

47) 이은선, 265.

화운동을 지원하여 1971년 9월에는 진중세례를 합동세례식의 형태로 거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48] 이렇게 시작된 합동진중세례의 긍정적인 결과가 후일 비전2020실천운동의 배경이 된 것은 이미 확인한 바이다. 한경직은 1972년 유신헌법 선포에 대해 반대서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군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반대서명하면 군전도가 막힌다는 이유에서 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도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내려놓았던 한 사례가 되겠다.[49]

Ⅳ. 결론과 전망

한국교회사의 큰 부흥운동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비전2020실천운동은 그 실천과정에서 계속적인 평가와 연구 및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19년 논문에서 정세준은, "비전2020실천운동은 한국교회의 분산된 힘과 자원을 결속시켜 군선교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반면 세례장병을 군인교회와 한국교회에 연결시키도록 한 결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후속 양육 사역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인해 신학적, 방법론적 난관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50]

비전2020실천운동을 마감하며 우리는 이 운동의 최대 과제이자 장점이었던 양육 시스템의 정착과 그 효과를 통한 민족복음화의 꿈이 그리 쉽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선교의 목표가 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중세례 명단 작성 및 결연 연결을

48) 이은선, 273.

49) 김병희 편저, 「한경직 목사」, 89. 이은선, 274에서 재인용.

50) 정세준,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한국교회 청년사역의 양육 네트워크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 청년」, Vol. 18 (2019년 10월).

위한 전산화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격려와 교육이 있어도 진중세례자들을 군교회와 실천교회로 온전히 결연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인 난관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한국교회사의 복음 전도 부흥운동과 세계교회가 치중했던 교회성장, 양적성장, 외적성장의 연장선에 있었다. 비록 출발 당시에는 전도와 양육이라는 선교의 균형과 총체성 혹은 통전성(wholeness)에 큰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적으로 전도에 치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의 게으름이나 소홀함보다는 양육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따르는 정보수집의 어려움과 결연 과정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듯하다. 사실 진중세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신나고 보람된 일이지만 장병들의 기록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세례자들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 더더욱 세례자의 행방을 확인하기가 용이치 않았다.

실제로 1996년 이전의 진중세례의 통계는 환상적일 만큼 어마어마했기에 이필섭 장로가 제시한 숫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비판이나 수정을 제시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1996년 운동 초기에 제시된 세례자 수와 한국기독교인 인구 증가에 대한 목표수치는 상당히 기계적인 증가율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기대만 증폭시켰지 회심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이전의 증가율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듯하다. 물론 당시 분위기에서 이러한 비판적 사고나 의견은 불신적 사고나 행위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상명하복식의 군대문화로 인해 누구도 쉽게 다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놓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이 말하듯 예정한 숫자를 채우지 못한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비전을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또한 씨를 뿌리고 물은 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인정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숫자상의 불일치와 결연을 통한 양육에 대한 측정이 쉽지 않았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과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운동을 중심으로 1) 초교파적 연합선교운동이 뚜렷하게 일어났고, 2) 교회들이 군선교를 통한 청년선교, 민족복음화의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여 참여하게 되었고, 3) 그 결과 교회의 청년선교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군선교를 통한 청년선교는 활발했고 회심을 경험한 청년들은 기독교세계관으로 새로운 삶의 비전(사생관의 변화)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가관과 사회관을 정비하게 되었고, 4) 비전2020운동본부와 군선교신학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평가와 전략방안들이 연구되고 발표되었고, 5) 운동은 정체되지 않고 보완과 수정을 통하여 군선교의 미래 사역의 향방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양육체계 마련과 양육목회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할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비전2030, 혹은 비전2040, 혹은 비전2050을 준비한다면 기존 사역 프로그램을 되짚어 보면서 수정 내지는 보정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이러한 작업이 군선교 관계자들을 통하여 준비되고 있다고 들어 필자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듯하다.[51] 군선교연합회가 1004진중교회,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 4,000여 회원교회가 긴밀하게 연결

51) 정세준의 2019년 논문의 각주 28)에 의하면 이미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하여 비전 2020 이후의 양육 중심의 군선교의 대안들이 제시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생적선교운동'들이 실천단계에 들어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정세준, 97-98.

되어 있으며, 전산팀이 있어서 여러 자료를 데이터 처리하고 있으니 빅데이터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대 사회의 테크놀로지와 경영방식이 군선교 현장에 선용되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다.

2020년 현재 군선교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게다가 2019년 말 우한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19는 2020년 2월부터 한국과 세계를 매우 새로운 세상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교회가 받는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교제나 양육이 매우 제한되었고, 유소년 및 청년양육과 비신자 선교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군선교가 겪는 최고의 시련일 것이다.

2019년 평가에서 정세준은 향후 전망으로 양육 네트워크 발전과 예스미션의 활성화를 통하여 비전21세기실천운동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종윤은 "목표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재검토하는 자리에서 인간의 부족을 다시 채우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미래전략으로 ABC-3Pr을 제안했다. 즉 '열렬한 기도 Ardent Prayer, 성경적 설교 Biblical Preaching,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Consistent Program'이다. 김삼환 이사장은 비전2020실천운동을 돕기 위하여 이미 출범하였으나 적절하게 작동되지 못한 YES Mission 사역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했다. 사실 기존의 프로그램에 답과 전략은 거의 다 있는 듯하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심기일전하여 전략적으로 나아갈 일이다.

필자는 1948년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군(장병)선교에서 놀라

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실하고 열정적인 군선교관계자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또한 중보의 기도를 약속하며 피터 바이어하우스의 말씀으로 졸고를 맺고자 한다.

>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하실 세계 복음화 계획을 인간의 계획으로 대체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선교학자들이 상기시켜 왔듯이 세계복음화의 최고 책임자와 집행자는 인간도, 교회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하나님 자신이다. 즉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지 우리 인간의 선교(Missio Hominum)가 아니다.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대체함으로써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들이 결국에 가서는 좌절되거나 또는 이로 인해 구속계획 자체가 혼란스러운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 인간의 방법론이나 기술이나 과학은 주의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일 뿐이다. 의도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이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늘 새로이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의존해야 하며 성령은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곧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성실하게 연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52]

52) 피터 바이어하우스, 302.

Abstract

A Historical Evaluation of the 'Vision2020 Project' and Its Prospect

Jung Sook Lee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Vision2020 Project' operated by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MEAK) from 1996 to the present,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hurch history. It summarizes and reviews the history of the evangelization of the military in Korea since 1948 that leads to the birth of the Vision2020 Project. Then it seeks to identify the Project itself regarding its goal and strategy to accomplish the goal. The project was spark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baptism cases in the military in the 1980s and 1990s, and launched by former General Lee, to baptize 200,000 soldiers every year so that by the time of 2020 it will contribute to the 75% evangelization of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For the success of the project MEAK worked closely and strategically with military chaplains as well as civilian pastors who committed to help out military churches, and supporting local/civilian churches around the country for more than twenty years. When considering the initial goal of evangelizing and baptizing 200,000 soldiers and looking at the current context of the Covid19, the project results may seem like somewhat a failure. However, there were some positive fruits, such as 1) ecumenical cooper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military, 2) awareness and participation of local/civilian churches about the importance and the evangelization of the military, 3) mission strategy development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military, and 4)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evangelization of the military in the next stage.

Key Words

Vision2020 Project, MEAK(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in Korea), History of the Evangelization in Korean Military, Evangelization of Korean Nation

이정숙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찬

A Comment: A Historical Evaluation of the ‘Vision2020 Project’ and Its Prospect

» 최석환 Ph. D.*

1. 요약

이정숙 박사는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제5대 총장 및 한국교회사학회 첫 여성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드루 대와 프린스턴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저명한 역사신학자이다. 연구자는 군선교 70년의 역사와 비전2020실천운동 25년의 역사를 교회사적으로 평가하며 다음 단계의 운동을 전망하였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지만 배움과 감동을 받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비전2020실천운동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등 학자로서의 겸손함과 진솔성에 논찬자로서 큰 감동을 받았다. 연구자는 교회사적으로나 선교학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자료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자평한 「군선교신학」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포함하여 폭넓게 연구함으로써 비전2020실천운동을 이을 다음 단계의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가치 있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 논문 투고일: 2020년 9월 21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9월 23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9월 24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교육단장

연구자는 제1부 '비전2020실천운동의 배경과 경과'에서는 군선교 역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출발, 진행과 관리를, 제2부 '비전2020실천운동의 도전과 결과'에서는 대내외적 도전, 코로나19를, 제3부 '한국교회사적 평가'에서는 백만인 구령운동, 민족복음화운동을 상세하게 기술했으며, '결론과 전망'에서는 피터 바이어하우스의 글로 논문을 맺었다. 연구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탄탄한 논지와 논리로 엮어 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우 적절하며 군선교관계자들에게 가치 있는 방향제시를 했다고 생각된다.

2. 논평

1) 훌륭한 점

⑴ 연구자가 군선교 7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군선교의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을 군선교관계자들에게 각인시켜 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예를 들면, 연구자는 1988년 이후를 '결실기'라고 명명하는 데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였는 바 군선교의 필요와 역사가 끝나지 않은 지금, 이 시기를 '결실기'라고 하고 역사서술을 마치는 것은 이 역사가 마치 오래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역사를 다루는 듯한 느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논한 것은 매우 합당한 비판이다. 아울러 '파종기', '성장기', '성숙기'와 함께 '도약기', '비전2020실천운동기' 등의 용어를 제시해 준 것에 동감을 표한다.

⑵ 연구자는 기존에 '애국애족운동', '신앙전력화운동',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불리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비전제시운동', '군민연합 군선교운동', '광의적이며 적극적인 선교운동'이라고 재평가하며, 세계선교사와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고 부각시켰다. 이는 연구자가 포괄적인 역사적 통전성을 갖고 있는 역사학자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⑶ 연구자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도전들과 문제점을 독자에게 쉽게 공감을 갖게 하면서 예리하게 지적함으로써 매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예를 들면, 비전2020실천운동의 내적 도전으로 종교와 전력강화 간의 긍정적 함수관계(신앙전력화, 전군신자화, 1인 1종교)에 대한 도전, 종교 간 선교경쟁 과다구도 형성,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장병 급감, 병역대체법에 따른 이단/사이비 종교 활성화 가능성, 군복무 기간 축소, 인권정책의 강화로 인한 장병생활의 변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외적 도전으로 국내 비종교인구의 증가, 교회 청년부 인구의 급감, 청년선교의 어려움, 대학생 위주 선교회들의 고전, 비대면문화의 확대에 대처하는 선교전략의 부족 등을 예시했다. 또한 연구자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선교 주체들 간의 소통부족이나 오해와 갈등, 군선교사의 사역 안정성 유지의 어려움, 진중세례 통계의 허수에 대한 문제점, 세례자의 명단 수집의 제한, 비전2020실천운동의 최대 약점으로 자평한 회원교회로의 실질적 결연의 한계 등을 날카롭게 적시했다.

⑷ 연구자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한국교회사의 부흥운동 중 '백만인 구령운동'(1909-1910)과 '민족복음화운동'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논찬자는 이 부분을 본 논문의 백미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연구자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한국교회사적 큰 맥락 속에서 통전성을 가지고 고찰하여 평가했기 때문이다. '백만인 구령운동'은 1909년 7월 미국 남감리교 소속 송도선교부에서 갬블, 리드, 스톡스 선교사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던 중 갖게 된 비

전으로서, 10만 일의 '날 연보'(Day Offering)가 작정되었다는 정보는 군선교 관계자 모두에게 큰 도전과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독교 전체의 연합운동이었던 '민족복음화운동'은 전국복음화운동으로 시작되어 1970년대, 1980년대 대중전도집회를 거치면서 전방위적인 전도운동으로 발전되었으며, 17개 분과 중 군대가 이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고 가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연구자는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치우침 없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논의를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제시를 위한 탁월한 통찰력을 주었으며, 연구결과의 가치를 높였다고 생각된다. 긍정적 평가로는 초교파적 연합선교운동이 뚜렷하게 일어났고, 교회들이 군선교를 통한 청년선교, 민족복음화의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여 참여하게 되었고, 운동본부와 군선교신학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평가와 전략방안들이 연구되어 발표되었고, 정체되지 않고 보완과 수정을 통하여 군선교의 미래 사역의 향방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었다고 논했다. 아울러 부정적 평가로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출발 당시에는 전도와 양육이라는 선교의 균형에 큰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적으로 전도에 치중하게 되었고, 1996년 비전2020실천운동 초기에 제시된 세례자 수와 한국 기독교인 인구 증가에 대한 목표수치는 상당히 기계적인 증가율을 적용한 것이었고, 그리하여 기대만 증폭시켰지 회심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이전의 증가율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2) 제안할 점

(1) 연구자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진행과 관리'에서 논한 내용

중 '선샤인캠페인'을 비전2020실천운동본부가 관리해 온 사업이라고 논했다. 그러나 '선샤인캠페인'과 'It's OK캠페인'은 한국군종목사단 선교국에서 육·해·공군·해병대 군종목사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기독교군종교구(한국군선교연합회)와 연합하여 관리해 온 사업으로 바로잡는다.

(2) 연구자는 '예스미션'을 비전2020실천운동의 약점을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는 의지로 평가하고, 2021년 이후 중점사역으로 소개될 예정이라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2021년 이후 전개될 중점사역에 대한 군선교 유관기관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이미 한국군종목사단에서는 육해공군 군종목사단과 각 지역 군인교회의 MCF, 여전도회, 신우회 등과 치열한 토의를 통해 군선교 비전2030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제는 기독교군종교구, 군선교사회, KMCF, KVMCF, 국군기독부인회, 국군장로연합회, 국군준부사관단 임원들과 함께 토의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논찬자는 한국군종목사단 선교국장으로서 비전2020실천운동 이후의 중점사역은 1004동의 육해공군해병대 군인교회와 10개 군목파송교단 및 교단 군선교회와 4,000여 비전2020실천운동 회원교회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군선교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확정하여 공감할 수 있는 사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 연구자는 포스트코로나의 세계는 뉴노멀의 사회, 언택트 문화로 들어가게 되어 진중전도와 세례 역시 새로운 준비와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효과도 기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동시에 연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교제나 양육이 매우 제한되었고 유소년 및

청년양육과 비신자 선교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극명하게 역설했다. 또한 연구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군선교사와 회원교회 관계자들의 부대출입이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마지막 해를 맞은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에 연구자는 올해 한국 군선교에 힘써 온 모든 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는데 논찬자도 적극 공감한다. 여기에 더하여 비전2020실천운동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새롭게 시작하는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전망을 함께 구상하고 조망해 보는 기회를 올해 갖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논찬자 또한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논찬자가 보기에 아쉬운 것은 연구자가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전망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보안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이에 본 논찬자를 비롯하여 한국군종목사단에서는 최근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선교전략과 정책을 모색하였기에 그 핵심 내용을 이 지면을 빌려 소개한다.

먼저 한국군종목사단 코로나19 상황 군인교회 인식조사 TF(팀장 김호근)에서는 2020년 6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지앤컴리서치와 공동으로 육해공군해병대 군인교회 구성원 2,496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코로나19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인식조사를 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군인교회 출석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54.7%뿐이고, 지금보다도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28.9%,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전망이 16.4%였다. 즉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45.3%로 집계

되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군인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실생활 속에서의 신앙실천으로의 의식 전환(32.5%)이고, 그다음으로 군선교 전략의 변화(17.9%),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이단 척결 등 신학적 정리(15.6%)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예배와 신앙 본질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생활 신앙으로의 전환과 목회적 지도가 필요하며,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하며, 용사들에 대한 목회적 보살핌을 강화해야 하며, 가정 중심의 주일학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육군군종목사단 군선교 비전2030 TF(팀장 정재원)에서는 군선교 비전2030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추진할 군선교의 중점 슬로건으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고 정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다. 아우트라인을 소개하면, 진중세례를 받고 양육을 받아 전역 시까지 군인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는 목표인원으로 6만 명, 기세례 입대장병 4만 명을 합하여 매년 10만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한국교회로 파송하자는 영적 선교적 비전이다. 10년이면 100만 명이다. 기존의 비전2020실천운동 회원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각 지역별, 도시별 거점교회를 만들어 청년사역 전담사역자 및 시스템을 갖추고 전역하는 청년들을 인계받기를 자원하는 교회들을 신청 받아 향후 10년간 추진하는 선교정책이다.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교회에 파송장을 제작하여 수여하고, 파송현황을 공유하고, 담당사역자들을 정기적으로 소집해서 교육하고 성공적 수범사례를 축적해 간다면 한국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제시한 대

로 기독교군종교구의 홈페이지 내용 중에서 군선교의 역사와 시기 분류를 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하여 반영할 것과 군선교 70년사를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백만인 구령운동 시절 불렀던 "백만 인을 예수께로"라는 노래처럼 군선교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토의 및 확정하여 새롭게 정립될 군선교 비전2030 노래를 작사 작곡 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비전2030 기도문을 재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모바일,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확보 제공함으로써 병영 내 자기 계발 붐이 언택트(Untact, 비대면) 바람을 타고 더욱 거세지도록 맞춤형 학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국방일보」 2020년 9월 17일 1면). 이에 논찬자는 장병들이 언택트 시대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곧 온라인 군선교 콘텐츠 제작을 제안한다. 동시에 육군군종목사단이 제안했듯이 군인교회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육해공군해병대 군인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온라인 양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논찬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황금어장인 군대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 번 탁월한 논문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과 따뜻한 격려를 더해 주신 이정숙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
-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Soldiers' Freedom of Religion and Military Evangelization

» 홍창식 LLM.*

국문초록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군종목사와 군 간부들은 당연히 자신의 신앙의 자유, 특히 선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반면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에 군종제도를 두는 것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군 간부는 공무원으로서 종교에 대한 중립의무를 진다. 이 시점에서 군종제도의 합헌적인 운영과 군 간부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및 국제법상 군종장교의 존중·보호 규정에 비춰 군종제도의 역할과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군종의 역할인 '신앙전력화'보다는 장병의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즉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병들도 군종에게 자신들이 단순히 선교 및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군종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조직이라고 인식할 것이고, 군종을 수용할 것이다. 그 결과 신앙전력화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또한 군종장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재량을 더 확대해야 하고, 종교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심단어

군종장교, 종교의 자유, 종교강요, 종교차별, 종교중립, 정교분리

• 논문 투고일: 2020년 9월 25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5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6일

* 한국군선교연구소 연구위원, 변호사,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전) 육군 법무실장

I. 서론

군종목사와 기독간부는 모두 군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군 복무를 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향유하며 특히 신앙고백의 자유, 전도의 자유를 가진다. 한편, 군 간부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이 선언한 국교 부인 및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에 대해 중립의무도 지고 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의에 따라 이윤영 의원이 대표기도를 하면서 국회를 개원했다. 이 때에는 이를 두고 정교분리위반이라는 지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동안 없었던 종교차별, 종교강요 등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고, 군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군선교 여건도 과거와 같지 않다. 과거 군선교는 민간교회와 군교회가 협력하여 기도로 후원하고 군선교에 필요한 물적·문화적 기반을 군 및 군 교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교회 건축, 위문 예배, 세례식 지원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지금은 군 교회 건물도 대분은 필요한 만큼 건축되었다. 인구가 줄어들고 국방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부대와 장병의 수도 줄어서 교회 수도 줄고 있다. 장병들의 영적·문화적 목마름도 예전 같지 않다. 사회가 풍요해짐에 따라 종교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청년 신자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1] 군대 내 인권존중 분위기 확산, 주 5일제 근무, 급여인상, 자기계발 환경 조성, 생활관 환경 개선, 인터넷 및 휴대폰 활용, 휴가 및 외박 증대 등 병영문화 개선으로 교회를 찾는 장병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과 2019년 발간한 『2018년 한국인의 종교현황』을 비교하면 내국인 중 전체 종교인구는 감소하였으며, 기독교 인구는 증가하였다. 다만 입영연령인 20-24세 기독교 인구는 684,430명(2011년)에서 533,428명(2018년)으로 감소하였다.

금년에는 유례없는 코로나19로 대면예배가 중단되고 민간 성직자가 영내 예배에 출입할 수 없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 종교강요금지 등이 입법화되었다. 법원과 인권위의 결정도 늘어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도 설립하여 개별적 신고를 받고 있다. 군종목사 및 기독간부의 군선교에 대한 열정이 자칫 위축될 수 있다. 세상은 점차 복잡하고 각종 규제가 넘친다. 이제 군종목사와 기독간부도 군선교를 할 때 선교의 열정과 더불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군종목사 및 기독간부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들의 자유와 권리, 의무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하였다.[2]

II.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자유의 연혁[3]

중세 유럽에서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고, 다른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 유럽의 기독교와 중동의 이슬람 간에는 종교적 긴장과 전쟁이 이어졌고, 전쟁의 결과에 따라 지역 주민의 종교는 바뀔 수밖에 없었다. 종교개혁 후에도 구교국와 신교국 간에 피비린

2) 군종장교 및 기독간부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그에 대한 설명식으로 글을 구성하였다. 또한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을 고려해서 법령은 조문뿐만 아니라 본문도 각주로 처리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군종제도와 관련해서 그 목적 또는 역할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다소 많은 분량을 기술하였다.

3) 예수께서 2,000년 전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지만 세속 관점에서 보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으신 것이다.

내 나는 종교전쟁이 이어졌다. 영국에서는 국교도에 의해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았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였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청교도들은 미국을 건립하고 자신들이 애써 쟁취한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이것이 헌법 수정 제1조이다. 국교의 설립은 부정되고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4] 종교의 자유를 최초로 규정한 헌법이다.

2.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부터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5] 한편, 헌법 제11조에 법 앞에 평등을 천명하고, 종교를 이유로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6] 헌법학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간 내면의 신앙이므로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 신앙의 자유는 자연권이자 동시에 절대적 기본권이다"[7],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적 평안과 행복 없이 자유로울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존엄할 수도 없다"[8]라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

4) U. S. Constitution Amendment I;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free exercise thereof…(후략)",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헌법 번역본; "수정 제1조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5) 대한민국임시헌법 제8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범위 내에서 좌예 각항의 자유를 향유함. 1. 신교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제1호, 1948. 8. 15)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 1988. 2. 25. 시행)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6)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7) 성낙인,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16), 525.

8) 정회철, 『헌법』 (서울: 도서출판 여산, 2011), 493.

에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의식 및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전파교육의 자유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9] 정교분리는 문자적으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인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종교의 분리, 국가와 종교의 유착금지를 의미한다.

3. 종교의 자유에 관한 국제규범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도 종교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10] 종교에 근거한 차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고 밝히고 있다.[11] 이 선언은 대체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세계인권선언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규정하고 있다.[12]

9) 헌법재판소 2008. 6. 26. 2007헌마1366.

10)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11) *Ibid.*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1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정(대한민국은 1990년 가입하고 같은 해 7. 10. 발효됨) 제18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②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④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특정 국가 내 소수 종교 또는 민족에 대한 특별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13] 이 조약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에서는 일정한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고 밝혀 종교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14] 이 조약도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평등 규정을 두고 있다.[15]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전쟁을 선전하거나 종교적 증오를 고취시키는 발언은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16]

흔히 전쟁법이라 불리는 제네바협약은 전시 군인의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네바 제3협약은 포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17] 제네바 제4협약은 억류된 민간인의 종교의 자유를[18] 각 규정하고

13) *Ibid.*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14) *Ibid*. 제4조 제2호.

15) *Ibid.*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16) *Ibid.*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17)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대한민국 발효일 1966. 8. 16) 제34조, "포로는, 군 당국이 정하는 일상의 규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들 신앙의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들의 종교상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종교적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적당한 건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18)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제93조, "피억류자들은 억류당국이 제정하는 일상적 규율에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자기의 종교의무(종교의식에의 참석 포함)를 이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향유한다. 억류되고 있는 성직자들은 동일한 종파에 속하는 피억류자들에게 대하여 자기의 성직을 자유로이 행하도록 허용받아야 한다(후략)."

있다. 또한 전시 전투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종군하는 군종장교에 대해서 중립의무를 지우고 그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교전당사국에게 지우고 있다.[19] 군종장교는 적에 의해 억류되더라도 포로가 아니며 다만 대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포로 이상으로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로들을 위하여 자신의 종교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

4. 종교의 자유에 관한 국내법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종교생활이 국가로부터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이다. 그래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법령을 제정할 필요는 많지 않다. 특별한 예외가 군인과 형사절차에 의해 구금된 수용자들이다. 이들은 주거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관계로 그들의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21]

군인복무기본법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고,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

19)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발효일 1966. 8. 16) 제24조, "부상자 또는 병자의 수색, 수용, 수송이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요원, 의무부대 및 시설의 관리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직원, 및 군대에 수반하는 종교요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20) *Ibid.* 제28조, "제24조 및 제26조에 지정된 요원으로서 적국의 수중에 들어간 자는 포로의 건강상태, 종교상의 요구 및 포로의 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어서 억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이 억류된 요원은 포로라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그들 요원은 적어도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모든 규정에 의한 이익을 향유한다. 그들 요원은 억류국의 군법의 범위 내에서, 억류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관리하에, 그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포로, 특히 자기가 소속하는 군대의 포로에 대한 의료상 및 종교상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그들 요원은, 그 의료상 또는 종교상의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또한 다음의 편의를 향유한다(후략)."

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1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 제45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군형집행법) 제45조.

이 지정하는 종교시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석할 수 있고, 영내에 종교시설이 없는 경우 지휘관의 허락을 받고 영외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군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2] 과거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종교강요 및 종교참여 제한 금지에 관한 규정은 2018년 추가되었다.

헌법 제11조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으며 종교에 대해 중립의무를 진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표방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에서는 특정 종교교육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3] 그동안 우리 사회는 종교다원국가였지만 서로 포용하고 종교로 인한 갈등이 크게 없었다. 그런데 2008년 즈음하여 공직자의 종교차별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2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에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가 새로 규정되었다.[25]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평등을 실천해야 하고, 종교중립의무를 지며,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에 보도된 공직자의 종교차별행위에 기인하였다.[27][28] 2018년에는 군인복무기본법에 종교행사 참여 강요금지가 추가되었다.[29] 우리 사회가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15조.

23)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4) 당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와 관련해서는 당시 나경원 의원 및 강창일 의원이 대표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를 합쳐 대안으로 하여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위원장의 개정 법률안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종교는 정신적 영역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가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분야임.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종교편향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시 차별적 행위 사례가 반복될 경우 자칫 위와 같은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논쟁과 종교 간 대립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5) 국가공무원법(2009. 2. 6 시행) 제59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2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되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8. 9. 18. 개정)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행동강령(2008. 11. 5. 개정)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8. 8,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는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평등권 및 차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제11조 19)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인용하여 규정한 것인 바,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후략)."

27) 행정안전위원장(2019. 1. 12) 대안의 제안이유: "종교는 정신적 영역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가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분야임.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종교편향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시 차별적 행위 사례가 반복될 경우 자칫 위와 같은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논쟁과 종교 간 대립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안번호 1803496).

28)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8. 11. 7p, "현 정부 들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태를 보면,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이용시스템(알고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정보지도에 사찰표기 누락, 전국 경찰복음화 대성회 홍보 포스터에 경찰청장 사진 게재, 조계종 총무원장 탑승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서울시 교육감 및 일부 학교장의 근무 중 기도회 참석, 검찰수사관의 피의자 조사 시 특정종교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29)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현행법은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군인은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것일 뿐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군인을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시키고,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소 등 추가적인 작

국가와 공무원의 종교중립성 준수에 대해 더 민감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군대와 종교

1. 국가와 종교

역사적으로 국가 통치자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통치철학 또는 종교가 필요했다. 자신들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왔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와 고려는 불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했다. 왕실 사찰과 전담 승려도 있었다. 유럽에서도 기독교가 공인된 후 국가권력과 종교(교황)권력이 협조하고 때로는 갈등을 빚었다. 세속적인 욕망과 종교적인 열정이 뒤엉켜 십자군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종교개혁 후 신교와 구교의 대립으로 종교전쟁을 겪기도 하였다. 종교는 인간에게 영적 위안과 행복을 갖다 주기도 했지만 종교가 국가권력과 결합될 때에는 관용이 없어지고 대립과 분쟁, 유혈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국가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들은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2. 군대와 종교

인류가 시작되면서 종교와 전쟁도 같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사이다.[30]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

업을 부과하는 관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은 다른 군인을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하려는 것임(제15조 제3항 신설)."

30) "전쟁이란 국가의 대사이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 마당이 되고, 나라가 존속하고 망하는 갈림길이 되는 것이니 살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孫子 曰: 兵者國之大事也. 死生之地,存亡之道, 不可不察焉, 孫子 計編). 김학주, 『손자·오자』 (서울: 명문당, 1999), 15.

패를 점치고, 승리를 기원하고, 군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 줄 필요가 있었다.[31] 군대가 출병할 때 성직자도 동행하였다. 마키아벨리도 로마에서 군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매우 중요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32] 우리나라는 승려로 구성된 군도 있었다.[33] 국가의 지도자, 군의 지휘관은 군인들이 전쟁과 전투를 앞두고 죽음에 대해 의연할 것, 전장에서도 윤리도덕을 유지할 것과 전투에 있어서 신의 가호를 통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했다. 그 역할을 종교와 성직자가 담당했다. 그래서 군대는 종교와 밀접하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종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뿐 아니라, 군인들의 영적인 갈급을 채울 필요성 때문에 더 중요해졌다. 무기가 발달하고 전쟁의 규모도 커지자 전쟁은 더욱 참혹해졌고, 국민 개병제로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군인들은 전투를 앞두고 자신이 신봉하는 신에게 종교의식을 갖고 승리와 안전을 기도하고, 전사를 하더라도 성직자 앞에서 임종하고, 성직자에 의한 장례를 통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군에서도 성직자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가가 국교를 부인하고,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선언하지만 군인들의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 군종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31) Martin van Creveld, 『전쟁본능(전쟁의 두 얼굴)』, 이동훈 역 (서울: 살림출판사, 2010), 126-132 참조.

32) N. Machiaveli, "The discourses," Ed., B. Crick (London: Penguin, 1998), 139, 148-149, 494-495, Martin van Creveld, 『전쟁본능』, 128에서 재인용.

33) 고려시대 대몽항쟁을 펼쳤던 삼별초의 항마군, 임진왜란 때 의승군이 이에 해당한다.

3. 군종제도

성직자가 군대에 종군하여 군인들에게 성직을 수행하면서 교육을 행하는 현대적 의미의 군종제도를 최초로 채택한 나라는 영국으로 전해진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프란시스 드레이크 제독이 1578-1560년 사이에 항해하면서 영국 국교회 Francis Fletber 목사를 군함에 승선토록 하여 함상에서 예배를 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 그 후 해군은 큰 함정에는 군목을 승선시켰고, 찰스 6세 이후에는 군목제도를 확립해서 16세기 이후에는 많은 성직자가 군목으로 종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고 한다.[34] 군종장교를 영어로는 'chaplain'이라고 하는데 교회 또는 교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특정 기관 또는 단체, 즉 교도소, 병원, 학교, 군대에서 일하도록 위임된 성직자를 말한다.[35]

미국은 독립전쟁과 함께 군종제도를 시작했다. 조지 워싱턴은 군대의 기강유지를 위해서는 군종장교가 꼭 필요하다는 것과 탁월한 성직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1775년 7월 29일에 군종장교 임용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날이 미 육군의 군종병과 창설일로 기념되고 있다. 미 육군 군종장교들은 군종이 육군창설 병과 중 하나라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36]

2013년 국방부가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전투 군종활동 전시회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세계 44개국에서 군종제도를 두고 있다고

34) 김기태, 『전쟁과 선교』, 203 이하 참조.

35) *Ibid*, 200. 이 책은 chaplain의 어원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36) 미 육군, FM 1-05, "Religious Support," p1-3.

밝혔다.[37] 최근 다른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군종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가 69개국, 군종제도가 없는 나라는 31개국이라고 한다.[38]

IV. 한국의 군종제도

1. 군종 창설의 역사

국군에 성직자가 근무하게 된 것은 1948년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 장병의 정신무장을 위해 성직자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정달빈 목사를 중위로 임관시켜 정훈감실 교화과장으로 군목업무를 시킨 것이 최초이다.[39] 공식적 군종제도 도입은 1949년부터 논의되던 중, 6·25가 발발하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당시 천주교 Carroll 신부와 기독교 William Show 선교사가 군종제도 창설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종활동을 위한 예산이 없으므로 각 교단에서 군종활동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고, Carroll 신부와 Show 선교사는 피복 및 식량 등의 병참관계는 군이 부담하고, 경비는 각 교단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군종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해군은 1950년 11월 10일에 해군본부에 군목실을, 육군은 1951년 2월 10일에 육군본부 군목과를,[40] 공군은 1951

37) 국방부에서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쟁기념관에서 '포화 속에서 희망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전투군종활동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 취지는 '정전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군종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그 희생정신을 드높이고 군복을 입은 성직자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겨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라고밝혔다(「국민일보」, 2013. 9. 26일자).

38) 강인철, 『종교와 군대: 군종, 황금어장의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서울: 현실문화, 2017), 20.

39) 국방부군종위원회, 『군종약사』 (1963), 59. 국방부, 「군종업무지침」 (1999), 27.

40) 국방부, 「군종업무지침」, 29. 군목과에서 군승과로, 다시 군종감실로 변천되었다.

년 3월 30일에 군목을 두어 각 군종제도가 출범하였다.[41] 당시 군종 성직자의 신분은 현역 군인보다는 문관(군무원)이 적절하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문관으로 결정되었다. 군종 성직자는 최초 무보수 촉탁 문관에서 1952년 6월에는 유급 문관으로 전환되었고, 1964년 12월에는 현역장교로 전환되었다.[42] 군종성직자를 파송한 종교는 최초에는 기독교와 천주교였고, 불교(조계종)가 1968년,[43] 원불교가 2007년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최초 여성 군종장교가 임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군종제도의 합헌성

헌법은 국교를 부인하고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가 예산을 들여 군종장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군에 종교시설을 두는 것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 일부 종교에 대해서만 군종장교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군종장교를 파송하지 못하는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판단한 사례는 없다.[44] 일부 학자는 군종제도가 군인의 종교적 자유를 충족

41) 『군종약사』, 29.

42) 군종병과의 창설에 대해서는 『군종약사』, 1-4, 국방부, 「군종업무지침」, 23-28 참조.

43) 국가인권위원회, 2018. 10. 8.결정, 병역법상 군종법사 선발에 관한 자격요건을 특정 종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방부가 제도 도입 후 50여 년간 관례적으로 조계종만을 군종법사 선발대상 종교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것이며,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군종 분야 장교의 병적 편입대상 종교를 선정함에 있어 불교의 경우 대한불교 조계종 외에 다른 종단도 원불교의 사례와 같이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44)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방부, 「2019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 16p, "정교분리 국가에서도 군종제도는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는 수용시설에서 일부 성직자들이 수용자들의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일부 종교에 대하여만 군종제도를 운영하고 모든 종교에 대해 군종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종교차별이 되는 것은 아님. 이는 현실적으로 군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교목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종교 간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45] 군종제도를 시작한 지 오래된 미국은 초기에는 기독교, 천주교 군종장교들만 편성하였지만 현재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군종장교를 허용하고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군종제도의 합헌성과 군종장교에 진입하지 못한 종교에 대한 차별에 관한 문제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군종제도의 합헌성에 대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다.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5년 하버드 법대생 2명이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이유는 미 정부가 종교실행(religious practice)을 돕기 위해 군종제도를 두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국교설립을 금지한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힘들고 엄격한 군복무를 고려할 때, 만약에 군대에 군종장교를 두지 않는다면 장병들의 자유로운 종교생활은 숨이 막힐 것이고, 연방 의회가 육군 창설에 즈음해서 국가에 의해 장병들이 종교생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동원되어 갈 때에는 그 용사들에게 해당 종교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46]

미 합참의 규정은 "군종장교는 이 나라를 창설하는 문서(미연방법)에 선포된 종교 및 양심의 자유 가치에 대한 국가의 헌신과 노력

종제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종단이 많지 않고 군대 내 군인인 종교인의 수나 종교활동 수요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임. 다만, 군종제도를 이유로 군종이 있는 종교에 대해서만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군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45) 강인철, 『종교와 군대』, 228 이하 참조.

46) *Katcoff v. Marsh*, 755 F.2d at 223, 234(2d Cir. 1985).

을 명확히 입증하는 존재이며, 제복 입은 군종장교들은 정부 특히 국방부가 미군들에 대해 가지는 책무를 실행하는 불가결한 존재"라고 기술하고 있다.[47] 즉 군종제도 없이는 군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 실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3. 군종의 역할과 목적

군종제도가 창설될 당시 군종제도의 목적을 군내 선교(포교)에 두었는지, 장병을 신앙으로 무장하여 전투력을 향상시키려는 신앙전력화에 두었는지,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실현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선교사가 관여한 것을 보았을 때에는 선교를 포석에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교분리 원칙하에서 군종제도의 공식적 목적을 선교라고 할 수는 없다.

1) 신앙전력화

국군 창설 이후 군내 종교 및 군종제도 활용에 대한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의 인식을 통해서 군종제도의 목적을 엿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에 '신앙전력화'(信仰戰力化)라는 휘호를 하사하였다.

47) Joint Guide 1-05, RELIGIOUS AFFAIRS IN JOINT OPERATIONS, 2018. 2. 1. at I a. Chaplains served with American forces in the colonial militias of the 1600s and 1700s and have remained an integral part of the US military since the formation of the Continental Army and Navy in 1775. US military chaplains are a unique manifestation of the nation's commitment to the values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free exercise of religion proclaimed in the founding documents. US military chaplains represent specific religious organizations and work together within the pluralistic context of the military to advise the command and provide religious ministry in support of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in the joint force. b. The Services maintain chaplaincies to accommodate religious needs, provide religious and pastoral care, and advise commanders on the complexities of religion with regard to its personnel and mission, as appropriate. As military members, chaplains are uniquely positioned to assist Service members, their families, and other authorized personnel with the challenges of military service as advocates of religious, moral, ethical, and spiritual well-being and resiliency. Uniformed chaplaincies are essential to fulfill the US Government's, and specifically the Department of Defense's (DOD's), responsibilities to all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nd authorized civilians.

군인의 신앙은 군의 전력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한신 장군은 육군 1야전군 전체에 '전군신자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군인이 종교를 가짐으로써 사생관이 투철하고, 윤리도덕의식을 갖게 되어 군의 기강이 바로 서고 이로 인해 전투력이 향상된다는 소신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다수 지휘관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현재의 군종업무의 목적도 군종의 역할과 목적이 신앙전력화로 보인다.[48]

2) 군인의 종교생활 보장

군종제도의 목적은 민간인과 같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군인들의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고, 핵심 역할은 장병들의 영적 돌봄이라는 견해이다.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6·25 때 미 3사단 10공병대대의 한 카투사병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썼다고 한다. 내용은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에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49] 미군들처럼 군종목사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말이다. 종교를 통해 두려움을 없애 달라는 애절한 요청이었다.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는 말이 있다. 군인은 영내생활을 하고 주거이전의 자유가 없다.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외로움과도 싸워

48)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제1호, "'군종업무'란 군종장교가 신앙전력화를 위하여 행하는 종교활동·교육활동·선도활동·대민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목표), "군종업무는 종교활동·교육활동·선도활동·대민활동 및 기타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9) 국방부, "군종업무처리지침", 26,「크리스천투데이」, "군목파송 60주년, 선진국형 군종제도 대통령께 건의," 2011. 2. 16.

야 한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때로 외국에 파병이 되거나 전쟁에 임하게 된다. 전투를 앞두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야 한다. 전투를 겪은 사람은 전투 피로 및 전장공포를 이겨야 한다. 회복탄력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은 절대자를 더 찾고, 성직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군인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불안과 공포는 배가된다. 이때 종교적 위로자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전쟁터에 민간인 성직자가 접근할 수 없다. 민간인은 군대와 전투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군인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 주기 위해서 군종제도가 필요하다.

육체의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 군의관이라면, 마음과 영혼의 질병과 상처를 감싸고 치유하는 것은 군종장교의 역할이다. 제네바협약은 의무요원과 군종요원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그들에게 적대행위를 할 수 없고, 어디에 있든지 진료 및 종교적인 의식과 상담을 허용하는 것이다. 생포되더라도 포로들을 위해 의사와 성직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제네바협약을 창안했던 앙리 뒤낭이 집필한 『솔페리노 회상』 중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군종신부의 헌신적인 활동 모습이 나온다.[50] 6·25전쟁에 참전하여 후퇴하라는 명

50) "전투가 극도로 치열해짐에 따라 쇠붙이와 유황과 납이 폭풍같이 뒤섞여 날리며 땅을 진동시켰고, 많은 사상자를 내며 빗발치듯 날리는 포탄들로 인해 지면은 탄피자국 투성이가 되었다. 또 인명을 앗아가는 총알이 번개처럼 사방에서 번쩍거리며 허공을 가르고 전방 사격선에는 순간순간 새로운 순교자들의 죽음으로 대살육의 참상이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나폴레옹 황제의 전속 사제인 레느 신부는 이 야전병원에서 저 야전병원으로 다니면서 죽어가는 부상자들에게 위안과 동정의 말을 해주는 것이었다." 앙리 뒤낭, 『솔페리노의 회상』(대한적십자사), p. 30.

령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부상자와 포로를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목숨을 잃은 미 육군 군종신부 Emil Kapaun의 헌신도 유명하다. 그는 2013년 4월 11일 뒤늦게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수상했다.[51] 2차 대전 당시 유럽전선으로 병력을 수송하던 Dorchester 호가 북대서양에서 독일의 U보트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했을 때 4명의 군종장교가 자신의 구명조끼를 다른 용사에게 양보하고 끝까지 장병의 안전을 위해 찬송과 기도를 올리며 순직한 사실도 군종장교의 희생과 헌신을 잘 나타낸 사례이다.[52] 이런 군종장교들은 모두 죽어가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함께하였다는 점이다.

미군은 야전교범에서 군종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살아 있는 자, 죽어가는 자, 죽은 자에 대한 보살핌으로 구분한다. 생존 장병에 대해서는 양육하고(nurture the Living), 즉 군사작전을 대비하여 영적인 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 지원활동을 개발하고, 전투가 있는 동안에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에 상처와 충격을 받은 장병과 가족들에게 치유과정을 지원한다. 전장에서 죽어가는 장병에게는 종교적 지원, 영적 보살핌, 위로와 희망을 제공한다(care for the Dying). 생명의 존엄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군종활동의 가장 핵심이다. 죽어가는 장병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 죽음을 앞둔 장병에게 용기와 위로를 준다. 그리고 죽은 자의 죽음을 명예롭게 한다(honor the Dead). 장례식 및 추도예배를 통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5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3/04/11/president-obama-awards-medal-honor-father-emil-kapaun-0〉 2020. 9. 20 방문. LTC William C. Latham Jr.,Father Emil Kapaun, Army, November 2012., visited 2020. 9. 20.

52) 〈http://en.wikipedia.org/wiki/Four_Chaplains〉 2020. 9. 20 방문.

목숨을 바친 미국의 아들과 딸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53]

3) 군종장교의 중립성(국제법)

군종장교는 중립적이어야 하며 적대행위를 할 수 없는 비전투원이며, 존중과 보호를 받는다.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느냐는 각 국가의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우리 군은 군종장교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54] 군종장교는 자신이 속한 국가의 군인에게 종교행사와 의식을 베풀고 상담을 제공한다. 군종장교도 군인의 사기를 위해 아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을 조롱하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을 해치는 발언 또는 적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군복을 입고 있지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할 성직자이기 때문이다. 르완다 내전에서 후투족 군종신부가 군인들에게 투치족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민간인 납치공격을 지시한 행위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55] 제네바협약은 군종장교를 해당 국가의 무형전력 향상을 이유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터에서도 군인의 영적 필요를 충족하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4) 소결

역사적으로 군에 성직자를 둔 것은 장병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무장시켜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이러한 목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종교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선언한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에 정교분리 원칙을 두면서도 군종제도를 두는 것은 장병의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 보장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설명될 수 있다.

군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전쟁법(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전쟁법이 군종장교를 보호하는 것은 그 임무의 성격이 성직자로서 희생과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기 때문이며, 적에 대해서도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종제도의 목적은 장병들의 제한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종교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장병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사생관이 확립되어 용감하게 전투를 수행하여 전투력이 향상되는 것은 장병의 종교자유를 인정한 결과로 얻는 것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군에서 정신전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군종에 대해서 국제법이 보호하고 존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군선교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기관이 스스로 그 제도의 존재목적을 선교(evangelizing or proselytizing)라고 설정할 수 없다. 군종장교가 '장병의 종교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성실히 임무수행하면 그 결과 신앙전력화와 군선교도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종제도의 역할과 목적의 재설정에 대해서 군과 군종병과의 깊은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3) 미 육군 FM 1-05, p1-5.

54)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 제2항.

55) 〈https://en.wikipedia.org/wiki/Emmanuel_Rukundo〉 2020. 9. 20 방문.

V. 군종장교의 종교의 자유

1. 군종장교의 인사와 복무

군종장교는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된다. 군인사법은 여러 병과 중 군종(軍宗)을 두고,[56] 전문 분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57] 병역법은 군종장교가 되려는 자에 대해 군종장교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에 대해서 각 규정하고 있다.[58] 병역법 시행령은 군에서 선발할 군종장교의 대상종교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59]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대상 종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0]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 3은 군종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61] 군종

56) 군인사법 제5조 제1항.

57) 군인사법 제11조(장교의 임용) 제1항 제5호,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58) 병역법 제58조 제1항 제3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제2항 제3호, "3.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59) 병역법시행령 제118조의 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1.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의 승인·취소 및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을 것, 2. 교리의 내용 및 종교의식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 및 준법성의 함양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의 수, 종교 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60)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2조

61)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 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입영일 전에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선발 과정에서 군종장교 및 후보생에 적용할 신체검사기준은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의한다. 군종장교로 임용되면 자신의 경력에 따라 중위 이상의 초임계급이 부여된다.[62] 그 외 군종장교의 인사관리는 일반 장교와 동일하다.[63]

군종장교가 군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임무에 대해 법령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인사법에서 병과로 군종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종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군종장교는 장교인 동시에 소속 종단에서 인정한 성직자이다.[64] 그래서 장교에 공통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 군종장교의 업무에 관해서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직제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다.[65][66] 그 외 군종장교의 업무 수행에 관해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을 두고 있다. 각 군은 군종업무 규정을 두고 있고, 육군은 군종

62)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제3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63) 군종장교는 해당 종교의 성직자 자격보유를 전제로 임관하는데, 복무 중 해당 종단에서 그 자격을 박탈한 경우에 그가 장교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군인사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군종장교를 파송한 종단에서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 자격을 박탈했을 때, "군종장교 자격이 유지되는가?"가 쟁점이다. 임용할 때 자격요건을 요구했다면 중간에 자격을 상실하면 당연히 결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경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사유(능력부족)를 들어 전역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64)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 제1항은 군종장교를 소속 종단으로부터 파견된 성직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의 의미의 파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9항, "군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종업무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2. 군종장교의 양성 및 보수 교육, 3.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4. 군인과 군무원의 인격 지도, 5. 군종영화의 제작 관련 업무 및 방송 운영, 6. 군종도서 및 명상자료 제작·보급, 7.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8. 국제 군종교류 및 협력 활동."

66) 육군본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공군본부 직제 각 제8조,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9조.

업무 야전교범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군종장교에게 부여되는 일들은 위 훈령으로 다 규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휘관들은 군종장교에 대해 가급적 종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67]

2. 군종목사의 이중적 지위

군종목사는 국군 장교단의 일원이며, 군종 참모장교이며, 자신을 파송한 교단의 성직자의 신분을 갖는다.[68] 따라서 장교로서의 일반적인 소양을 갖춰야 하고, 군종병과 참모장교로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일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목사로서 기독교 교리 및 복음에 정통해야 하고, 성결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역할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 군종목사는 다른 장병보다 더 강력한 종교의 자유를 향유하고, 이를 실행할 권리와 권한이 있다.

3. 군종참모장교로서의 지위

군종목사는 이 경우 종교에 대한 전문가로서 지휘관을 보좌하여 군내 종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69] 따라서 중립의무가 강조된다. 부대활동에 있어서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애로를 청

67) 과거 군에서 이른바 보호관심사병을 관리하고 부대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전캠프 및 그린캠프를 운영하였다. 군은 이 임무를 군종병과에 부여하였다. 군종장교가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국회 등으로부터는 전문성이 없다는 등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군종장교들의 사기가 많은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은 군종장교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파급효과, 성직 존중, 중립성 등을 고려해서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참고로 군 내부 규정으로 군종장교는 징계위원, 군사법원 심판관으로 임명되거나, 부대 당직근무 업무로부터는 배제된다.

68)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 제1항.

69) 예컨대, 해외 파병 중에 군종장교는 해당 지역의 종교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군이 해당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할 때 종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휘관에게 참모 조언을 해야 한다.

취하고 이를 지휘관에게 건의하는 등 소속 부대 장병의 영적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 특히 부대에 군종장교가 없는 종교를 신봉하는 장병의 종교활동 보장을 위해 지휘관의 참모로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부대 내 윤리적·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부대의 단결을 해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파악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종장교는 군사활동을 종교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윤리도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참모조언을 해야 한다.[70]

군대의 존재 목적이 전쟁을 억지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를 상정한 훈련과 연습에도 군종장교가 배제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각종 군사연습 및 훈련에서 군종관련 상황조성이 어렵겠지만 자체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적시에 필요한 참모조언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군종장교는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사상황에 대해서도 최신의 정보에 익숙해야 한다.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은 군종업무를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활동으로 구분하고, 종교활동을 군종장교의 주된 업무로 장병의 신앙심 함양하고 사생관 확립을 위하여 행하는 행사라고 밝히고 있다. 종교활동은 대체로 성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활동은 종교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종교행사나 종교의식은 아니다. 이 경우 이러한 활동이 성직자로서 행하는 것인지 참모장교로서 행하는 것인지

70) 군에서 각종 연습 및 훈련을 할 때에는 전시 군종활동 계획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물자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윤리·도덕적, 종교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군종장교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애매할 경우가 있다. 기독 장병뿐만 아니라 전체 장병이 참석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모장교로서 하는 역할로 보는 것이 좋다. 인성교육, 종교교육 등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종교적 발언, 권면, 자신을 파송한 종교에 대한 고백 및 경험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결할 것이다. 그러나 전도활동은 할 수 없다.[71]

군종목사는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을 상담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소속 간부의 권면에 따라 상담할 수도 있다.[72] 군종장교는 상담에 대한 기법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상담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응원하고 위로할 수 있다. 이때 성직자로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를 권하는 것은 성직자의 당연한 도리이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권면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참모장교로서 중립적인 역할에 대해서 애매할 때에는 상급부대의 조언을 구하고, 사전에 종교적 전도의 목적이 없고 자신이 군종목사이기 때문에 불가불 성경 및 자신의 신앙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종교행위(예,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목사로서의 지위

군종목사는 자신이 소속된 부대의 기독 장병을 위해 예배 및 설교 등 종교활동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때는 성직자(religious capacity)로서 다른 군인에 비해 더 폭넓은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군종목사의 핵심 업무영역이다. 성직자로서 일요일과 수요일 등 교회

71)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6조.

72) 군종장교가 장병을 상담할 경우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해 상담 내용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의 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대체로 부대 업무에 우선한다. 군종목사가 인도하는 군대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방해죄가 성립된다.[73]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드리는 예배도 포함한다. 방해라 함은 예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폭행폭언소란행위 등이 해당된다.[74] 기독 장병의 결혼식 및 장례식을 집전하는 것도 성직자의 임무이다.

군종목사는 해당 부대 및 지역의 기독 군인을 대표해서 지휘관에게 기독교 종교활동에 대한 고충을 건의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설교 및 성경공부 등 종교활동에서 폭넓은 신앙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사전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소신에 따른 행동까지도 보장한다.[75]

73)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4) 대법원 1971. 9. 28. 71도1465 판결.

75) 1990년대 미 의회는 "Partial-Birth Abortion Ban Act"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의회는 재의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에 가톨릭 교회는 "Project Life Postcard Campaign"이라는 행사를 통해 미 의회의 재의결을 지지하였다. 캠페인에는 군종교구를 포함한 가톨릭 성직자가 많이 참여하였다. 이들 성직자들은 교구원들에게 낙태 반대를 설교하고, 교구원들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낙태를 반대하여 이 법안이 재의결되도록 우편엽서를 보내도록 권장하였다. 미 공군 법무실은 군인들이 이 카드 보내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견을 지시하였고, 육군과 해군도 유사한 지침을 하달하였다. 미 공군 군종장교인 Rigdon 신부와 Kaye 랍비는 부분 낙태는 자신들의 종교의 교리에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라며 이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공언하였고, 공군은 이를 금지시켰다. 이에 위 두 사람은 부분낙태금지법에 찬성하는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자유회복법에 위배된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은 원고 군종장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다. "군종장교는 예배를 인도한다. 그들은 종교적 차원(religious capacity)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단순히 군대의 권위하에 군대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군종장교들은 설교를 할 때 공식승인을 받은 사항에 의지하지 않는다(not invoke the official imprimatur of the military). 그들은 설교할 때 종교적인 차원에서 행동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군종장교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추구한 것은 극히 적절한 행동이다." Rigdon v. Perry, 962 F. Supp. 150 (D.D.C. 1997).

군종목사의 종교중립의무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내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2003년 공군본부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속칭 구원파로 불리는 독립침례회 소속 교회 신자이자 간부가 공군 내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기존 신자들의 신앙심이 흔들리거나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군 기강 확립차원에서 군종감에게 군내 이단종교를 파악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군종감은 이단의 의의, 이단이 군에 미치는 영향, 2003년 공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18개 사이비 종교단체의 피해와 실상, 교리에 대한 비판을 담은 『이단, 사이비란 무엇인가』라는 책자를 3,000부 발행 배포하였다. 한편, 2003년 12월경 20전투비행단 내 기지 교회에서 군종목사가 구원파 교회의 이단성에 대한 설교를 하였다. 이에 독립침례회 소속 교회 측은 이 책자와 군종장교의 설교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76] 1심 법원은 위 책자를 발간한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고, 다만 군종장교의 설교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77] 2심법원은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8]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다.[79]

공군본부가 발행한 이단종교 비판 책자 작성과 군종목사의 이단

76) 구원파 소속 교회는 군종감 및 책자 저술에 관여한 실무장교 및 설교한 군종목사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공군본부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8. 선고 2005가합10864판결.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8. 선고 2005가합10864판결.

78) 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나21639판결.

79)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판결.

종교에 대한 설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80]

>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 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이 사건 책자와 설교의 내용 중에 원고들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 아니라 장병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80) *Ibid*.

주로 그들을 상대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 사건 책자를 발행·배포하거나 이 사건 설교를 행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어서 군종장교의 설교와 공군의 이단비판 책자 작성이 정교분리 및 종교중립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국가공무원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뿐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소속 종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강론 또는 설법을 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므로, 군종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2항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특정 종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특혜를 가하거나 억압하기 위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공군참모총장이 전 공군을 지휘·감독할 지위에서 수하의 장병들을 상대로 단결심의 함양과 조직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몽적인 차원에서 군종장교로 하여금 교계에 널리 알려진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배포하게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군에서는 같은 군종장교 간에도 상급 군종장교가 부하 및 동료 군종장교에게 신앙에 대한 일정한 견해를 메일로 보낸 사안에 대해 이는 메일을 보낸 군종장교의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와 부하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기에 처벌해야 한다는 논란이 2020년 봄에 있었다.[81]

VI. 기독 간부의 종교의 자유와 중립의무[82]

1. 종교생활의 공사(公私) 구분

기독 간부도 국민과 군인으로서 헌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이 정한 종교활동의 자유를 누린다. 한편, 간부로서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따라서 헌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종교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종교를 강요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부분은 공적 영역에서 문제가 된다.

시간적으로 일과시간 중(다만 휴게시간은 사적인 영역이라 할 것이다), 부대 또는 군 시설 내, 자신의 계급과 직책에 근거한 행위는 공적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부대에서 지휘관이 주관하는 상황보고, 참모회의, 각종 회의, 부하 면담, 부대 교육, 체육활동, 부대의 각종 행사 및 의식(취임식, 이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이 모두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종교활동에 관한 정책 결정은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 기독 간부는 자신의 언행이 특정 종교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을 나타내는 등 종교에 대해 중립성의무에 오해를 끼칠 행동은 삼가야 한다.

2. 사적 종교의 자유 향유

기독 군 간부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중립의무와 관련 없이 자

81) 한국 주둔 미 8군 군종참모 Kim 대령이 군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취지의 Piper가 저술한 "Coronavirus and Christ" PDF 파일을 전송했는데, 이를 두고 군종장교로서 종교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의견과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군종장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Army Times, 2020. 5. 6. 보도.

82)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군에 종교활동 보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고, 이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군 동료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전도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종교활동이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교회출석을 강요하는 행위,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넘어 종교를 이유로 타인을 조롱하거나 협박 등 괴롭히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종교 자유의 내재적인 한계이다.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부대에서도 사무실 등에서 업무시간 외에 성경을 읽거나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다. 식사시간에는 식전 감사기도를 할 수 있다. 신앙에 근거하여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강요당하지 않는다. 복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 상징물을 부착 또는 휴대할 수도 있다.[83)]

군 간부 스스로도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종교활동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임무수행 지장이라는 것은 군사적 필요(military necessity)를 말한다. 즉 종교활동의 자유(기본권)가 군사적 필요(국가안전보장)를 위해 제한되는 것이다. 임무수행에 대한 지장은 매우 추상적이다. 미 육군은 부대 준비태세, 개인의 준비태세, 부대 단결, 사기, 기강, 안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으면 종교활동을 보장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84)]

83) 외국 군대의 경우 단식(이슬람 라마단, 고난주간), 복장(두건, 히잡), 식단(코세르, 할랄) 등이 주로 문제된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Guide on the Religion and Belief in the Armed Forces"라는 지침을 두고 있다.

84) AR 600-20 of March 18, 2008, P6-6a; "the Army will approve requests for accommodation of religious practices unless accommodation will have an adverse impact on unit readiness, individual readiness, unit cohesion, morale, discipline, safety, and/or health."

종교활동 중 예배 참여와 관련해서 임무수행의 기준은 살펴본다. 종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임무수행은 군사적 사항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활동 제한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고, 종교의 자유를 가장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종교활동 제한을 통해 얻는 군의 공익과 이로 인한 장병의 종교의 자유 침해를 비교했을 때 공익이 우월해야 한다. 예컨대, 예배시간과 당직근무가 겹쳤을 때 당직근무가 우선되며, 반면 일요일 종교행사 시간에 부대에서 체육활동, 단결활동을 하는 것은 군사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종교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보건 위생을 위해서도 종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단체생활을 하는 장병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전투력 유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 해군은 2020년 6월 23일 해군 대원의 영외 실내예배 참석을 전면금지 지시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의 강력한 비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실내예배를 허용한 바 있다.[85)86)87)]

부대가 야외훈련을 하는 중 일요일이 중간에 있을 때에도 가능한 한 종교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이때도 부대는 준비태세 및 상황

85) 〈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20/07/10/navy-drops-ban-attending-indoor-religious-services-off-base.html,〉 2020. 9. 20 방문.

86) 최근에는 미 의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종교의 자유를 우선하는 취지의 새로운 지침을 하달하였다.DoD Instruction 1300-17, 2020. 9. 1. "Religious Liberty in the Military Service."

87) 우리나라의 경우 군교회의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거나, 군교회를 담당하는 민간 성직자의 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 부대 내 확진자 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취한 조치인지 의문이고, 과도한 종교활동 제한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차피 장병들은 영내 집단생활을 하고 있고, 영내 교육훈련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지, 경계 등은 필수적이고, 실제 훈련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종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련 상황이 없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라면, 종교행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의 예배는 전시에 드릴 예배의 훈련도 될 수 있다. 야외 훈련 중 예배는 부대 임무수행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저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군종목사의 임무이고 군 장병들이 군과 군종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훈련 중에 군종목사가 없거나 자체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휘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민간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88]

과거 사관학교 가입교 기간 중에는 종교활동 참여를 금지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사일정의 촉박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관후보생의 가입교 기간 종교활동을 금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어, 가입교 기간에도 사관후보생에게 종교활동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89] 또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종교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지휘관의 지시도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법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90] 징계 입창된 장병에 대해 종교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것도 장병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시정을 권고하였다.[91][92]

88) 상황에 따라 군형법상 무단이탈죄가 성립될 수 있다.

89) 국가인권위원회, 2008. 7. 17. 결정.

90)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 28. 결정.

91) 국가인권위원회, 2017. 1. 24. 결정.

92) 『2019년도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은 그 제목이 '종교차별 예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 중 상당부분은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를 기술한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항도 종교차별 또는 정교분리위반보다는 종교활동 침해에 대한 사항이 더 많다.

3. 종교 중립의무

1) 종교강요 금지

과거 군인복무규율은 종교활동의 목적을, '참된 신앙을 통해 인생관 확립, 인격 도야, 도덕적 생활로의 유도'로 규정했었다.[93]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도 군인의 종교활동 필요성을 '군인 개인의 신앙의 자유 보장, 군인 개인의 인생관 확립 및 인격 도야에 도움, 군대 생활 적응 어려움 완화, 군인 사기 진작에 기여'라고 적시하고 있다.[94] 국가공무원법에 종교중립의무를 추가할 때도 "종교는 정신적 영역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가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분야"임을 인정했다. 종교가 군내 무형 전투력 또는 정신전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장병들에게 종교활동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는가?', 즉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가질 것을 권유할 수 없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지휘관들과 군종장교의 고민이기도 하다. 결론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무종교의 자유도 인정되고, 군에 군종장교를 두는 것은 장병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강요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신앙전력화', '1인 1종교 갖기', 신병훈련소에서 제한된 기간 '의무적 종교행사 참석' 운동 또는 지시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종교의 자유에 종교를

93)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6394, 2016. 6. 30. 폐지 이전 법령) 제30조, "종교생활은 군인이 참된 신앙을 통하여 인생관을 확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94) 『2019년도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 15.

갖지 않을 권리(무교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고,[95] 국가인권위원회도 군에서 종교활동 참여의 강요는 무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96] 결국 군에서 종교를 신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과 부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 군대, 지휘관, 상관의 이름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지휘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며 종교활동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종교활동 강요에 해당될 수 있다. 군 간부가 계급이 낮은 장병들에게 특정 종교를 신봉할 것 또는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권하거나, 종교행사에 가지 않는 장병에게 TV 시청 또는 사이버지식방 활용을 금지하고 청소 등을 시킨 행위는 무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교를 강요한 것에 해당될 수 있다.[97]

반면 지휘관 및 상관은 부하들의 종교활동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취한 조치는 종교강요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독립 소부대는 군종장교가 없어 자체적으로 예배 및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군종참모에게 지시 또는 요청하여 별도 종교행사를 요청하거나 설교 및 강론, 설법 자료를 배포하게 할 수 있다. 특정 종교가 아니라 일반적인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휘관 및 상관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계급이 낮아서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어려운 자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병영 내에서 종교활동 시간에 다른 불요불급한

95)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96) 국가인권위원회 2010. 7. 23. 결정.

97) *Ibid*.

부대행사를 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병들 상호간에도 보이지 않는 종교참여활동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 종교활동 시간대에 각 종교별로 행사 일정을 공지하고 필요시 차량을 제공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공지가 아니라 참여를 유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병에게 부담이 가는 업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지휘관이 자신이 믿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이고, 종교중립과 아무 상관이 없고, 종교강요도 아니다. 지휘관이 각 종교의 경절에 공평하게 축하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경절에 해당 종교의식을 부대행사라고 하면서 종교와 상관없이 참석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종교강요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98] 군 간부가 업무상 부하의 고충을 청취하거나 상담을 할 때, 고충 또는 상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종교적 경험 또는 전도는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부하면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다.

2) 정교분리 및 종교차별 금지

군 간부는 장병을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종교적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법 앞에 평등'함을, 그리고 국가가 종교적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차별 영역은 인사, 병역생활 전반에 적용된다. 군인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종교에 대해 특혜성 편의를 제공하거나,

98) 부활절·성탄절 때 예배와 미사, 석가탄신일 법회에 지휘부 및 참모 전체를 참석토록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종교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

부대에서 공무상(세속목적)으로 종교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종교시설은 국가의 소유이다. 그러나 종교시설에는 신앙상징물이 부착되어 있고,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장병에게 종교시설은 신성하고 경건해야 하는 장소이다.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은 종교시설을 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99] 군이 종교 목적 외로 종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해당 종교의 신성함을 해치거나 해당 종교 신도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해당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군인은 군이 해당 종교를 강요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고, 자신이 신봉하지 않는 종교시설과 상징물로 인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수행 및 공식 행사에서 종교적 발언은 중립의무를 해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계급 및 직책으로 인해 부하들이 종교강요나 종교편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자신의 신앙의 자유 특히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는 종교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군인의 군복무는 세속공적 업무이다. 부대에서 자신의 신앙이 인품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것이고, 공식 부대활동에서 의도적인 종교에 관한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부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공식 기도를 하거나 시키는

99)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5조,

행위, 이취임식에서 성직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행위나,[100] 진급과 취임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다는 표현 등은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101] 군 간부가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 훈시를 할 때에도 교육목적상, 교육 전체의 맥락에서 성경구절이나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전체적인 취지가 교육목적(세속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특정 종교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거나 전도목적으로 성경 및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발언이 필요하다면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발언 중에 종교 전체 또는 특정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특정 종교를 이단 또는 사이비라고 공언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앞에서 든 공군의 사례처럼 부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을 초청하여 전체 부대원을 대상으로 종교행사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가의 종교중립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군인들이 참석하는 종교행사에 해당 종교인을 초청

100) 물론 공식행사 후에 기독 신도들만 있는 곳에서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때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01) 이러한 공식행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해야 신앙심이 깊고 군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의 진급과 보직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선발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상황을 감안하면 같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진급과 보직은 인사권자가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더 이상 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전역식에서 군 생활을 회고하는 전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넣어도 양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 부대 및 군 시설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등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과거 서울시장이 발언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발언이 전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식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여 종교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은 무방하다.[102] 외부 종교인을 초청한 종교강연회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장병이 참석하게 되므로 듣는 이가 특정 종교를 광고하거나 전도(포교)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고,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도록 초빙 종교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종교 강연회 초빙 강사는 각 종교별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VII. 합법적인 군선교를 위한 제언

1. 군종제도 및 군종업무의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군종장교 및 기독 간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다. 하지만 국가와 종교는 분리된다. 군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인의 종교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군종제도가 허용된다. 따라서 군종장교 및 기독 간부는 공적 업무수행을 선교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처럼 공적 업무에서는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

군은 오랜 기간 신앙전력화를 군종제도 또는 군종업무의 목적으로 견지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장병들의 영적, 종교적 갈급을 채워주는 데 그 목적을 둬야 한다. 군종제도가 신앙전력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국가나 군의 활동이 종교적·윤리도덕적으로 충돌될 때 올바른 양심의 소리를 내는 데 제한될 수 있고, 장병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

102) MCF 조찬기도회에 MCF 회원이 참석하여 외부 민간목사를 초청하여 설교를 청해 듣는 경우가 이러하다.

또 군종목사는 장병의 영적 돌봄의 우선순위를 현역 장병에 두어야 한다. 교회를 나와 군인이 있는 사무실과 야전에 나가서 만나고 돌보아야 한다. '함께하라'는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Kapaun 및 4 chaplains와 같은 군종장교가 나와야 군종제도가 신뢰받고 지속적인 군선교가 이뤄질 수 있다. 부모를 떠나 외로움에 지친 장병,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좌절하는 간부를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군종목사가 돼야 한다.

2. 장병의 종교생활 장애를 제거해 줘야 한다.

군 간부는 종교행사 참석을 강권하는 방법의 군선교가 아니라, 먼저 장병의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병 상호 서열로 인해 예배참석을 머뭇거리는 장병을 위해 종교행사 시간을 공지하고, 그 시간대에 불요불급한 부대활동을 자제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것이다. 종교활동이 제한되는 장병에게 대체 시간에 종교활동을 허용하거나 종교 영상물을 구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3. 군선교는 말보다는 삶으로 이뤄진다.

종교차별 및 종교강요 등의 문제는 기독 간부의 언행 불일치로 인한 경우가 많다. 군선교는 직장선교이다. 군인은 동료들과 긴 시간 부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정적인 복음 전파도 종교강요와 종교차별로 귀착된다. 기독 간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과 열정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군 간부는 먼저 군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능력 있고, 훌륭한 인품으로 무장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동료들에게 '소금으로 녹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빛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병과 초급 간부도 군선교의 주체이다.

국방부의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은 장병을 신앙전력화의 대상 또는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장병을 돌보는 따뜻한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군선교 전략도 군대를 "황금어장,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비신자는 자신들을 기독교가 포섭(?)할 물고기로 본다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 요즈음에는 간부가 전도를 하면 종교강요 및 종교차별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병이 전우를 전도하면 강요와 차별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며 따로 지시명령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병이 동료 전우에게 전도하는 방향으로 군선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위가 높이 올라간 군 간부는 삶으로 선교해야 하고(信行一致), 병과 초급 간부는 소통으로 선교해야 한다.

5. 개선된 인권 및 병영생활을 전제로 선교해야 한다.

군선교와 관련해서 '장병들이 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면 장병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군생활을 어렵게 해야 하는가? 동의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과거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기독교 인구가 줄 것이라 우려했다. 그렇다고 주 5일제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이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더 찾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일부러 불행을 기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병영생활이 힘들 때만 찾는 대체제가 아니다. 이제는 배고프고 생활관에 있으면 재미없고 다른 군인이 괴롭히니 교회에 오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편한 군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숙한 크리스천을 양성하는 미래지향적 선교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Abstract

Soldiers' Freedom of Religion and Military Evangelization

Chang Sik Hong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freedom of religion. Military chaplains and military officers deserve to enjoy the freedom of their faith, especially the "freedom of evangel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 also stipulates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chaplain system in the armed forces itself violates the Constitution. Military officers, as public servants, are obligated to be neutral in religion. At this point, the military chaplain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constitutional manner. The freedom of evangelization and the neutrality in religion also should be harmoniously balanced. In other words, military chaplains and christian soldiers should evangelize "as shrewd as snakes and as innocent as doves" in the armed forces rather than violating the constitution and laws.

In the light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and the respect and protection of military chaplains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role and purpose of the military chaplain system. It is proper to shift to the one that substantially guarantees the religious freedom of soldiers, that is, satisfies the spiritual needs, rather than the "combat power enhancement through faith" seen as the role of the current military chaplain system. Even soldiers will receive the military chaplains with warm hearts because the chaplains meet their spiritual needs rather than seeing them as objects of teaching and evangelizing. As a result, soldiers' combat power will be strengthened. It is recommended to further expand the discretion of military chaplains on religious freedom, and to clarify their duties so that they can concentrate more on religious activities.

Military officials should enjoy their rights with a clear awareness of religious freedom in the private and personal realm. In particular, obstacles should be removed and their rights should be confirmed so that the religious freedom of the service members is guaranteed. This will lead to natural activation of religious activities and military evangeliz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public domain, neutrality of religion obligation must be maintained. In order to eliminate the problem of religious coercion,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strategies and systematize and strengthen the upbringing of enlisted soldiers and beginner officers so that evangelism by peers can take place.

Key Words

Military Chaplain, Freedom of Religion, Religious Coercion, Religious Discrimination, Neutrality in Religion,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홍창식의 논문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 -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A Comment: Soldiers' Freedom of Religion and Military Evangelization

» 김일수 Dr. jur.*

I. 들어가는 글

홍창식 변호사님의 옥고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를 정독하면서, 그 주제와 내용이 오늘날의 군선교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잘 진단하고 분석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길에 유익한 방도를 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교활동이 소중한 종교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속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종래 군선교 활동은 이러한 원리에서 결코 특단의 제한을 받아야 할 별도사안이 아닌 것으로 존중되어 왔고, 이러한 기조는 오늘과 내일에도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과업으로 인식되고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모든 제도와 전통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우리 사회의 생활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 논문 투고일: 2020년 10월 5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7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8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고려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인권 이데올로기의 영향 아래 사회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는 개인주의적인 자유로 치닫는 경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이 같은 극단적인 자유의 요구가 사회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해체할 위험을 무릅쓰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러한 영향은 엄격한 기율과 지휘명령체계가 우세했던 군인과 병영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연장문제와 관련하여, 집에서 카톡이나 전화로 상관에게 휴가연장신청을 해도 되도록 군의 내부규정들이 바뀌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받은 충격에 근거한 말이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군선교 활동에도 적지 않은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군형법상의 동성 간 성교금지규정을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보고, 이를 폐지하려는 일단의 이데올로기 그룹들의 리걸 노이즈 운동은 앞으로 더욱 기세를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무종교도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이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국방부의 인식은 올바른 생사관의 확립과 더불어 **군의 신앙전력화**에 이바지해 온 지금까지의 군종 및 군선교 활동에 앞으로 점점 더 적지 않은 제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군에서의 선교활동과 군인 개인의 신앙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따라 사적인 전도활동 등은 갖가지 법률, 훈령, 지침 등에 의해 얼마나 위축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연구논문의 서론에서부터 무겁고 아픈 마음과 긴장된 마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근본의 원리

를 반추하며 멀리 내다보노라면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 근본이란 헌법이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기본권을 깊이 숙고해 보는 일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의 종교적 활동의 자유인 예배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 같은 정치적 자유가 사스 때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질병관리법률 및 위임된 행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통제수단에 의해 길들여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공권력의 통제에 잘 길들여진 소시민적인 복종의 습관을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고, 자유사회의 정상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는 아픔을 감내할 용기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볼 계기는 없을까 하는 점이다. 원칙적인 자유보장과 예외적이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유제한이라는 자유법치국가의 기본적인 법 원칙을 우리는 안전의 이익을 위해 가볍게 포기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우리는 전체주의적인 경향으로 나가기 쉬운 국가권력에 정당하게 맞서 경종의 나팔소리를 울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유법치국가 헌법의 기본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특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라는 지고한 가치기준에 반하는 부자유하고 부도덕하고 강압적인 공권력 작용이나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사법판단, 그리고 통합보다는 단절과 해체를 꾀하는 사회정책의 개혁과 개선을 위해 합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해 보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는 점이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공권력의 개입에 대해서는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회복하기 위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그리고 최후수단으로 시민 불복종운동과 저항권 차원에서 불의에 맞서는 합법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잠자는 자에게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는『권리를 위한 투쟁』의 저자 폰 예링(R. von Jhering)의 말이 새로운 울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에 앞서 먼저 이 연구논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는 것부터가 일의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Ⅱ. 연구논문의 요약

이 연구논문은 군 내부에서 종교활동에 관한 걸림돌이 많아진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종교활동 내지 선교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론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국가와 종교, 군대와 종교 문제를 다룬다. 셋째 단락에서는 우리나라의 군종제도와 현실의 문제점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넷째 단락에서는 군종장교의 종교의 자유 문제를 다룬다. 다섯째 단락에서는 기독 간부의 종교의 자유와 중립의무를 다룬다. 끝으로 합법적인 군선교를 위한 부드러운 제안들을 담고 있다.

1. 종교의 자유 일반

우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 헌법학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간 내면의 신앙이므로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며, 종

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 신앙의 자유는 자연권이자 동시에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의식 및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전파교육의 자유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2007헌마1366). 정교분리는 문자적으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인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종교의 분리, 국가와 종교의 유착금지를 의미한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종교생활이 국가로부터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이다. 그래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법령을 제정할 필요는 많지 않지만, 특별한 예외가 군인과 형사절차에 의해 구금된 수용자들과 같은 경우이다. 이들은 일정기간 국가영조물에 거주하며, 주거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관계로 그들의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법률로 특별히 규정해 놓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1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형집행법) 제45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군형집행법) 제45조].

헌법 제11조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으며 종교에 대해 중립의무를 진다. 또한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표방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에서는 특정 종교교육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그동안 우리 사회는 종교로 인한 갈등이 크게 없었으나, 2008년 즈음하여 공직자의 종교차별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에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가 새로 규정되었다. 국민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는 군인복무기본법에 종교행사 참여 강요금지가 추가되었다. 국가와 공무원의 종교중립성 준수에 대해 인권감수성이 더 민감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와 군대와 종교

가. 국가와 종교

서구의 학자들 가운데는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종교를 손꼽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종교는 인간에게 영적 위안과 행복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종교가 국가권력과 결탁할 때에는 권력의 신격화와 종교의 세속화 내지 타락의 결과를 가져올 염려도 많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관용이 없어지고 대립과 분쟁, 유혈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종교는 서로의 영역에서 누리고 있는 독자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되 결코 하나로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대적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나. 군대와 종교

현대에 이르러 종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뿐 아니라, 군인들의 영적인 갈급을 채울 필요성 때문에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군인들은 전투를 앞두고 자신이 신봉하는 신에게 종교의식을 갖고 승리와 안전을 기도하고, 전사를 하더라도 성직자 앞에서 임종하고, 성직자에 의한 장례를 통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군에서도 성직자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헌법이 국교제도를 부인하고,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선언하

지만 군인들이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 군종제도가 필요하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의 군종제도

가. 군종제도의 합헌성

혹자는 국교를 부인하고 정교분리를 선언한 헌법질서하에서 국가가 예산을 들여 군종장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군에 종교시설을 두는 것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 일부 종교에 대해서만 군종장교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군종장교를 파송하지 못하는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판단한 사례는 없지만, 일부 학자는 군종제도가 군인의 종교적 자유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교목적으로 활용될 뿐이어서 종교 간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군종제도를 시작한 지 오래된 미국은 초기에는 기독교, 천주교 군종장교들만 편성하였지만 현재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군종장교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위세를 떨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군종제도의 합헌성과 군종장교에 진입하지 못한 종교에 대한 차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군종의 역할과 목적

군종제도의 목적을 신앙전력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역사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군에 '신앙전력화'(信仰戰力化)라는 휘호를 하사하였던 사실과 그 외 한신 장군이 육군 1야전군 전체에 '전군신자화운동'을 전개하였던 데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이 종교를 가짐으로써 사생관이 투철해지고, 윤리도덕의식을 갖게 되어 군의 기강이 바로 서고 이로 인해 전투력이 향상된다는 소신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현재의 다수 지휘관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들어 있는 "신앙전력화를 위하여"라는 문구도 군종업무의 목적에서 이 정신이 뼈대를 이룬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제1호, 제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군종제도가 민간인과 같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군인들의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고, 핵심 역할은 장병들의 영적 돌봄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 군종장교는 중립적이어야 하며 적대행위를 할 수 없는 비전투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논리다.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각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 군은 군종장교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 제2항). 군종장교는 자신이 속한 국가의 군인에게 종교행사와 의식을 베풀고 상담을 제공한다. 군종장교도 군인의 사기를 위해 아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으나, 적을 조롱하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을 해치는 발언 또는 적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기본목표)는 **장병의 정신무장 강화 및 사기진작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모범시민의 육성**도 지향하기 때문이다. 군복을 입고 있지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할 성직자라는 것이다.

다. 소결

요컨대 헌법에 정교분리 원칙을 두면서도 군종제도를 두는 것은 장병의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 보장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한

다. 군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전쟁법(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전쟁법이 군종장교를 보호하는 것은 그 임무의 성격이 성직자로서 희생과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기 때문이며, 적에 대해서도 중립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종제도의 목적은 제한된 상황에서 장병들의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종교활동)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로 인해 장병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사생관이 확립되어 용감하게 전투를 수행하여 전투력이 향상되는 것은 장병의 종교자유를 인정한 결과로 얻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한다. 군에서 정신전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군종에 대해서 국제법이 보호하고 존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스스로 그 제도의 존재목적을 선교라고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종장교가 장병들의 종교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성실히 임무수행하면 그 결과 신앙전력화와 군선교도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종제도의 역할과 목적의 재설정에 대해서 군과 군종병과의 깊은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4. 군종장교의 종교의 자유

가. 군종장교의 인사와 복무

군종목사는 국군장교단의 일원으로서 군종참모장교인 동시에 소속 종단에서 인정한 성직자로서 이중의 지위를 갖는다. 군종장교가 군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임무에 대해 법령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인사법에서 병과로 군종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종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군종장교인

동시에 소속 종단에서 인정한 성직자이기 때문에 장교에 공통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 군종장교의 업무에 관해서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직제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고, 그 외 군종장교의 업무 수행에 관해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을 두고 있다. 각 군은 군종업무 규정을 두고 있고, 육군은 군종업무 야전교범을 두고 있다.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은 군종업무를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활동으로 구분하고, 종교활동을 군종장교의 주된 업무로 장병의 신앙심 함양하고 사생관 확립을 위하여 행하는 행사라고 밝히고 있다(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제4조). 종교활동은 대체로 성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활동은 종교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종교행사나 종교의식은 아니다. 이 경우 이러한 활동이 성직자로서 행하는 것인지 참모장교로서 행하는 것인지 애매할 경우가 있다. 기독 장병뿐만 아니라 전체 장병이 참석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모장교로서 하는 역할로 보는 것이 좋다. 인성교육, 종교교육 등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종교적 발언, 권면, 자신을 파송한 종교에 대한 고백 및 경험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결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 드러내놓고 의도적·계획적으로 하는 전도활동은 할 수 없다(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군종장교에게 부여되는 일들은 위 훈령으로 다 규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군인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여, 이를 위해 일하는 군종장교들이 되도록 종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어 보인다.

나. 군종참모장교로서의 지위

군종목사는 이 경우 종교에 대한 전문가로서 지휘관을 보좌하여 군내 종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부대활동에 있어서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지휘관에게 건의하는 등 소속 부대 장병의 영적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 특히 부대에 군종장교가 없는 종교를 신봉하는 장병의 종교활동 보장을 위해 지휘관의 참모로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부대 내 윤리적·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부대의 단결을 해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파악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종장교는 군사활동을 종교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윤리도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참모조언을 해야 한다. 이런 활동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군종목사는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을 상담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소속 간부의 권면에 따라 상담할 수도 있다. 상담내용의 비밀은 준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언을 법정에서 거부할 수 있다(형소법 제149조). 군종장교는 상담에 대한 기법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상담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응원하고 위로할 수 있다. 이때 성직자로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를 권하는 것은 성직자의 당연한 도리이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권면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참모장교로서 중립적인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애매할 때에는 상급부대에 조언을 구하고, 사전에 종교적 전도의 목적이 없고 자신이 군종목사이기 때문에 불가불 성경 및 자신의 신앙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종교행위(예,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 목사로서의 지위

군종목사는 자신이 소속된 부대의 기독 장병을 위해 예배 및 설교 등 종교활동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때는 성직자로서 다른 군인에 비해 더 폭넓은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군종목사의 핵심 업무영역이다. 성직자로서 일요일과 수요일 등 교회의 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야외예배도 포함한다. 기독 장병의 결혼식 및 장례식의 집전도 성직자의 임무다.

부대가 야외훈련을 하는 중 일요일이 중간에 있을 때에도 가능한 한 종교활동이 허용돼야 한다. 이때도 부대는 준비태세 및 상황유지, 경계 등은 필수적이고, 실제 훈련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종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련 상황이 없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라면 종교행사를 허용해야 한다. 과거 사관학교가 입교 기간 중에는 종교활동 참여를 금지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사일정의 촉박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관후보생의 가입교 기간 종교활동을 금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어, 가입교 기간에도 사관후보생에게 종교활동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7. 17. 결정). 징계 입창된 장병에 대해 종교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것도 장병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시정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1. 24. 결정).

군종목사는 해당 부대 및 지역의 기독 군인을 대표해서 지휘관에게 기독교 종교활동에 대한 고충을 건의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설교 및 성경공부 등 종교활동에서 폭넓은 신앙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사전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소신에 따른 행동까지도 보장한다(Rigdon v. Perry, 962 F. Supp. 150 (D.D.C. 1997).

5. 기독 간부의 종교의 자유와 중립의무

가. 종교생활의 공사(公私) 구분

기독 간부도 국민과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헌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이 정한 종교활동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동시에 간부로서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따라서 헌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종교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종교를 강요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부분은 공적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 기독 간부는 자신의 언행이 특정 종교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을 나타내는 등 종교에 대해 중립성의무에 오해를 끼칠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 사례들은『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한다.

나. 개인적 종교의 자유 향유

기독 군 간부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중립의무와 관련 없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군에 종교활동 보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고, 이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군 동료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전도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부대에서도 사무실 등에서 업무시간 외에 성경을 읽거나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다. 식사시간에는 식전 감사기도를 할 수 있다. 신앙에 근거하여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강요당하지 않는다. 복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 상징물을 부착 또는 휴대할 수도 있다. 물론 자신의 종교활동이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교회출석을 강요하는 행위,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넘어 종교를 이유로 타인을 조롱하거나 협박 등 괴롭히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종교 자유의 내재적인 한계이다.

군 간부 스스로도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종교활동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임무수행 지장이라는 것은 군사적 필요(military necessity)를 말한다. 즉 종교활동의 자유(기본권)가 군사적 필요(국가안전보장)를 위해 제한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임무수행은 군사적 사항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활동 제한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고, 종교의 자유를 가장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종교활동 제한을 통해 얻는 군의 공익과 이로 인한 장병의 종교의 자유 침해를 비교했을 때 공익이 우월해야 한다. 예컨대, 예배시간과 당직근무가 겹쳤을 때 당직근무가 우선되며, 반면 일요일 종교행사 시간에 부대에서 체육활동, 단결활동을 하는 것은 군사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종교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보건위생을 위해서도 종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단체생활하는 장병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전투력 유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 해군은 2020년 6월 23일 해군 대원의 영외 실내예배 참석을 전면 금지 지시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의 강력한 비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실내예배를 허용한 바 있다. 그리

고 최근 미 국방부는 미 의회의 권고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우선하는 취지의 새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한다(DoD Instruction 1300-17, 2020. 9. 1. "Religious Liberty in the Military Service").

다. 종교중립의무

1) 종교강요 금지

2016년 6월 30일 폐지된 과거의 군인복무규율은 종교활동의 목적을, '참된 신앙을 통해 인생관 확립, 인격 도야, 도덕적 생활로의 유도'로 규정했고, 지휘관은 부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대통령령 제26394호 군인복무규율 제30조). 『2019년도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도 군인의 종교활동 필요성을 '군인 개인의 신앙의 자유 보장, 군인 개인의 인생관 확립 및 인격 도야에 도움, 군대 생활 적응 어려움 완화, 군인 사기 진작에 기여'라고 적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종교중립의무를 추가할 때도 "종교는 정신적 영역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가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분야"임을 인정했다.

종교가 군내 무형전투력 또는 정신전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장병들에게 종교활동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는가?', 즉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가질 것을 권유할 수 없는가?'라는 지휘관들과 군종장교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던져놓고, 저자는 "아니다"라는 답을 내놓는다.

종교의 자유에는 무종교의 자유도 인정되고, 군에 군종장교를 두는 것은 장병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강요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신앙전력화', '1인 1종교 갖기', 신병훈련소에서 제한된 기간 '의무적 종교행사 참석' 운동을 불러일으키거나 지시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 좋은 시절은 벌써 지나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종교의 자유에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무교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국가인권위원회도 군에서 종교활동 참여의 강요는 무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기 때문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7. 23. 결정).

2) 정교분리 및 종교차별 금지

군 간부는 장병을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종교적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법 앞에 평등'함을, 그리고 국가가 종교적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 영역은 인사, 병역생활 전반에 적용된다. 군인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종교에 대해 특혜성 편의를 제공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종교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은 종교시설을 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5조). 군이 종교 목적 외로 종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해당 종교의 신성함을 해치거나 해당 종교 신도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해당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군인은 군이 해당 종교를 강요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고, 자신이 신봉하지 않는 종교시설과 상징물로 인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의 군복무는 세속적공적 업무이다. 그러므로 공무수행 및 공식 행사에서 종교적 발언은 중립의무를 해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계급 및 직책으로 인해 부하들이 종교

강요나 종교편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대회의 시작하기 전에 공식 기도를 하거나 시키는 행위, 이취임식에서 성직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행위나, 진급과 취임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다는 표현 등은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다. 군 간부가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 훈시를 할 때에도 교육목적상, 교육 전체의 맥락에서 성경구절이나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전체적인 취지가 교육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특정 종교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거나 전도목적으로 성경 및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6. 합법적인 군선교를 위한 제언

가. 군종제도 및 군종업무의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군종장교 및 기독 간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지만 군종장교 및 기독 간부는 공적 업무수행을 선교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처럼 공적 업무에서는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오랜 기간 신앙전력화를 군종제도 또는 군종업무의 목적으로 견지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장병들의 영적, 종교적 갈급을 채워주는 데 그 목적을 둬야 한다. 군종제도가 신앙전력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국가나 군의 활동이 종교적·윤리도덕적으로 충돌될 때 올바른 양심의 소리를 내는 데 제한될 수 있고, 장병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 또 군종목사는 장병의 영적 돌봄의 우선순위를 현역 장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장병의 종교생활 장애를 제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군 간부는 종교행사 참석을 강권하는 방법의 군선교가 아니라, 먼저 장병의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병 상호 서열로 인해 예배참석을 머뭇거리는 장병을 위해 종교행사 시간을 공지하고, 그 시간대에 불요불급한 부대활동을 자제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것이다. 종교활동이 제한되는 장병에게 대체 시간에 종교활동을 허용하거나 종교 영상물을 구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 군선교는 말보다는 삶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종교차별 및 종교강요 등의 문제는 기독 간부의 언행 불일치로 인한 경우가 많다. 군선교는 직장선교이다. 군인은 동료들과 긴 시간 부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정적인 복음 전파도 종교강요와 종교차별로 귀착된다. 기독 간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과 열정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군 간부는 먼저 군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능력 있고, 훌륭한 인품으로 무장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동료들에게 '소금으로 녹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빛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라. 병과 초급 간부도 군선교의 주체라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간부가 전도를 하면 종교강요 및 종교차별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병이 전우를 전도하면 강요와 차별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며 따로 지시명령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병이 동료 전우에게 전도하는 방향으로 군선

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위가 높이 올라간 군 간부는 삶으로 선교해야 하고(信行一致), 병과 초급 간부는 소통으로 선교해야 한다.

마. 개선된 인권 및 병영생활을 전제로 선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선교와 관련해서 '장병들이 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그러면 장병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군생활을 어렵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두고, 저자는 이 시대에 배고프고 생활관에 있으면 재미없고 다른 군인이 괴롭히니 교회에 오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편한 군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숙한 크리스천을 양성하는 미래지향적 선교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Ⅲ. 이 글에서 찾은 몇 가지 지혜와 몇 가지 의문

1. 논찬을 시작하며

남의 글을 읽고 그 저자의 생각을 헤아려 도리를 밝히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화와 담론은 이에 비하면 덜 부담스러운 작업에 속할지 모른다. 논쟁이나 논찬의 어려움을 우리말로 논구(論究)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독일 말 Erörtern을 뜯어보면 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초존재론의 대가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하이데거(Heidegger)의 풀이에 따른다면, 이 말은 어떤 장소로 안내하고 어떤 장소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논구는 사유의 길에서 장소의 장소성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가의 탁월한 혜

안에 따르면 놀랍게도 장소(Ort)라는 명사는 근원적으로 창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창끝에 모든 것이 집결된다고 한다. 따라서 장소는 자신을 최고의 것, 극단의 것 가운데로 모으는 열린 공간 같은 것이다. 이 결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여진 것을 간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이 결집은 모든 것을 폐쇄된 주머니에 봉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결집된 것을 빛으로 꿰뚫어 투명하게 빛나도록 해서, 그것을 처음으로 그것 자신의 본질 가운데로 해방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1)]

필자는 이 언어해석을 읽을 때 날카로운 창끝보다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군인 롱기누스(Longinus)의 창을 떠올리곤 한다. 아르메니아의 어느 수도원박물관에 보관되어 전해 내려오는 롱기누스의 창은 처음으로 대했을 때 필자의 예상을 뒤엎고 끝이 뭉툭하게 생긴 마름모꼴의 창으로 진열돼 있었다. 그 마름모꼴의 창은 앞뒤로 두 손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 만큼 열려 있는 빈 공간을 그 안에 담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긴 그 창은 내게 간혹 비평의 임무가 주어졌을 때에도 뾰족하게 남의 살갗을 파고드는 창이 아니라 최고의 것 가운데로 모아가는 장소로서의 창을 생각나게 해주곤 하였다. 물론 이런 방향으로의 작업도 아무 때나 어떤 부담도 없이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쉬운 일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저자는 이 연구논문에서 군선교의 토양과 기후변화를 여러 주제에서 적절히 지적했다. 그러한 지적들은 군종활동 종사자들의 선의가 상대방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곧 법적 시빗거리

1) 마틴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오병남/민형원 공역 (서울: 경문사, 1979), 29.

로 변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오늘날은 합리적인 이성이나 도덕적 정당성에 입각한 권리주장이 아니라 상대방 개인의 기분과 감정에 입각한 권리주장이 판을 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기 쉽다는 점에서, 말하는 이의 선의 중심에서 듣는 이의 감정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점점 척박해지는 군선교의 토양을 옥토 밭으로 바꾸려면 소극적인 조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도덕적·인격적인 역량을 갈고닦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내지 선교의 자유를 옥죄는 무종교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적 투쟁이나 공개적·비공개적인 논쟁수단을 총동원하여 변화와 개혁의 물꼬를 터가는 연합된 힘이 필요하다. 그 준거점은 바로 종교의 자유이며, 더 나아가 이를 위한 투쟁인 것이다.

다시 언급하거니와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 국교 부인,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제2항). 이것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신앙과 정치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국교를 둔 국가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수반되었던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헌법적 지혜의 하나에 속한다. 이처럼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지만, 특히 성경의 가르침과 청교도적인 전통은 국가의 신성성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며, 공정한 사회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의 권위에 원칙적으로 교회와 신자는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 함부로 국가를 해치거나 정부를 비방하는 행위, 특정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혀 정치에 개입하여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삼는 것은 신자의 도리가 아니다.[2)]

2) 에밀 부르너, 『정의와 자유』, 전택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15면 이하.

그러나 거꾸로 국가권력이 변질되어 참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부당한 제한이나 간섭,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압력을 행사할 때에도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국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거나 우대하고 다른 특정 종교를 탄압하거나 국고의 지원 등에서 차별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불법에 해당한다. 국가권력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 있고, 국법도 더 고차원의 법인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므로, 국가권력 작용이 그런 거대불법적인 한계상황에 다다랐을 땐,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은 법이 아니며 정의가 아니라는 경고의 나팔을 울려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법정이 명하는 바에 따라 일종의 크고 작은 시민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하여 법과 정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진력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며,[3)] 비극적인 최후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4)] 물론 우리 신자들에게서 양심은 때로 착오할 수 있다.[5)] 하지만 이 양심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공유된 앎, 그리고 타인과 함께 나누는 앎을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비이성적이고 독단적인 주견도 양심의 자유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법질서의 흐름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6)]

두말할 것도 없이 종교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절대 무제약적

3) 김일수, 『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 (서울: 미래한국재단, 2019), 215, 221면 이하.

4) 김철수,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 2013), 870면 이하; 아르투어 카우프만, 『법철학』, 김영환 역 (서울: 나남, 2007), 440면 이하 참조.

5) H. Welzel, *Vom irrenden Gewissen*, 1949, S.3ff.

6) H. Welzel, *Gesetz u Gewissen, in: ders., Abhandlungen zum Strafrecht u Rechtsphilosophie*, 1975, S.297f.

자유는 애당초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다. 물론 외부로 표현되지 않은 채 내면에서 향유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사회에서는 법적 강제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가 외부적인 행위로 표출되어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 등과 충돌할 때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같이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유의 적정한 한계를 법에서 판단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든 법질서의 최고규범으로 삼는 자유법치국가 헌법에서 원칙적인 자유보장과 예외적인 자유제한이라는 법의 일반원칙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명료하지 않을 때가 더욱 문제이다. 이와 같은 때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자유에 유리하게, 그리고 강제적 제한에 불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틀을 담보하는 일반원칙들이 헌법질서 내에서는 물론, 하위의 법질서 속에서도 확립되어 있다.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그것을 개인 스스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7)]

모든 법질서와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 국가작용에는 보충성의 원칙, 정의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평등의 원칙, 그 밖에도 비례

7) 김일수, 『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 58면 이하.

성의 원칙, 과잉금지 및 과소금지의 원칙과 같은 자유보장책 등이 있다. 더 나아가 형법상으로는 죄를 범한 데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의 책임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책임원칙, 행위 이전에 미리 명확하게 정해진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처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원칙 등이 있다. 그 밖에 민법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같은 일반원칙이 마련되어 있다.[8)]

특히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이익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국가가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 그 분쟁의 대상이 종교의 자유문제와 직결된 것일 때에는 신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세속적인 판단기준으로 섣불리 다루지 않도록 사법의 세심한 주의와 절제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신앙공동체의 갈등에서 정교분리의 본지를 넘어, 세속적인 관점으로 신앙공동체의 규범을 재단하려 드는 것은 중요한 법치국가원리의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에도 반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관념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 즉 자기선택과 자기결정능력에 따라 자기책임을 지는 존재자인 인간은 원칙적으로 자기기획 안에서 자신의 삶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같은 기본관념을 전제로 한다면, 종교의 사적 영역과 국가사회공동체 사이에 갈등의 여지가 있을 때, 법치국가는 더 작은 단위의 생활공동체를 더 큰 단위의 생활공동체보다 우선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교회법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단헌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8) Il-Su Kim, *Die Bedeutung der Menschenwürde im Strafrecht*, 1983, S.154ff.

국가의 임무와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은 소극적·적극적인 의미에서 2중의 의미를 지닌다. 먼저 소극적으로 그것은 개인이나 소규모의 생활공동체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국가가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적극적으로 그것은 개인이나 소규모의 생활공동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는 능동적으로 돕는 자리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본정신은 사적 영역의 당사자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자율과 자유 안에서 문제해결에 이르러 가도록", 그리고 국가작용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적 자율과 자치적인 법도에 의한 해결을 우선할 것과 합리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개입"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익충돌 상황에서는 약자인 개인 또는 더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게 유리하도록 "의심스러울 때는 당하는 약자에게 유리하게"라는 근본정신에 따라, 강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9)]

2. 몇 가지 지혜

가. 군종장교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법적 투쟁

1990년대 미 의회는 "Partial-Birth Abortion Ban Act"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의회는 재의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에 가톨릭 교회는 "Project Life Postcard Campaign"이라는 행사를 통해 미 의회의 재의결을 지지하였다. 캠페인에는 군종교구를 포함한 가톨릭 성직자가 많이 참여하였다. 미 공군 법무실은 군인들이 이 카드 보내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견을 지시하였고, 육군과 해군도 유사한 지침을 하달하였다. 미 공군 군종장교인 Rigdon 신부와 Kaye 랍비는 부분 낙태는 자신들의 종교의 교리에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라며 이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공언하였고, 공군은 이를 금지시켰다. 이에 위 두 사람은 부분낙태금지법에 찬성하는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자유회복법에 위배된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은 원고 군종장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다. "군종장교는 예배를 인도한다. 그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단순히 군대의 권위하에 군대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군종장교들은 설교를 할 때 공식승인을 받은 사항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설교할 때 종교적인 차원에서 행동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군종장교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추구한 것은 극히 적절한 행동이다"[Rigdon v. Perry, 962 F. Supp. 150 (D.D.C. 1997)].

9) 김일수, "종교·양심의 자유와 기독교," 2019.3.19. 제23회 한국교회법학회학술세미나 자료집, 13면.

저자가 소개한 위 Rigdon v. Perry 사건이 주는 지혜는 낙태반대 캠페인에 참여한 군종장교 두 사람이 군 본부의 만류에 직면하자 이 만류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종교자유회복법에 위반된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행동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종교자유회복법 같은 선한 입법을 위한 착안점을 우리에게 던져준 점과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억압하는 군의 명령체계에 맞서 법정투쟁을 벌인 당사자들의 용기는 어두운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개척해야 할 길에 한 줄기 서광을 비춰 주는 지혜라고 생각한다.

나. 군종제도가 직면할 위헌성과 종교차별시비에 대한 대비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위세를 떨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군종

제도의 합헌성과 군종장교에 진입하지 못한 타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가 헌법소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시비가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독자적으로 또는 군종을 파송한 종단들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군선교신학 차원에서도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같은 태스크 포스 팀은 무종교도 종교의 자유라고 한 헌재와 인권위의 결정으로 인해 무종교자유가 종교의 자유를 침식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거꾸로 다시 이해당사자를 내세워 헌재의 이 결정이 번복되기까지 끈질긴 소송전략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 군종장교와 기독 간부의 사적인 종교 자유영역확대를 위한 제도개선투쟁

저자는 실제 군종장교에게 부여되는 일들은 위 훈령으로 다 규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점은 군종장교의 활동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광범위에 미친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군종장교의 인격적 활동의 자유가 펼쳐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구하고 두드리면 척박한 선교의 지평도 열릴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현상에 얽매이거나 안주하지 말고, 현상을 타개하고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한 창조적인 지혜와 실천과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작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헌재와 인권위의 문을 역으로 두드려 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영역을 가로질러 그것을 확장하는 것은 주님이 문화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저자가 상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 군 간부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중립의무와 관련 없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군에 종교활동 보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고 이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군 동료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전도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부대에서도 사무실 등에서 업무시간 외에 성경을 읽거나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다. 식사시간에는 식전 감사기도를 할 수 있다. 신앙에 근거하여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강요당하지 않는다. 복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상징물을 부착 또는 휴대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의 지혜로운 섬김의 활동영역은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선교의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개선된 인권 및 병영생활을 전제로 병과초급간부를 선교첨병으로 세우는 문제

저자는 이미 인권의식이 높아짐과 비례하여 이 시대에 병영문화와 생활이 종전과 달리 변화된 상황을 직시하여 군선교의 정책과 방향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편한 군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숙한 크리스천을 양성하는 미래지향적인 선교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일깨운다.

특히 요즈음에는 간부가 전도를 하면 종교강요 및 종교차별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병이 전우를 전도하면 강요와 차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선교전략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며 따로 지시명령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

이 동료 전우에게 전도하는 방향으로 군선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병영 내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전도의 첨병으로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전도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몇 가지 의문

가. 군종의 역할과 목적에 관하여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들어 있는 "신앙전력화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군종업무의 목적에서 이 정신이 뼈대를 이룬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해 보인다(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제1호). 더 나아가 군종업무는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활동 및 기타 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성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모범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는다(동 제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군종제도가 민간인과 같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군인들의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고, 핵심 역할은 장병들의 영적 돌봄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

따라서 군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스스로 그 제도의 존재목적을 선교라고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군종장교가 장병들의 종교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성실히 임무수행하면 그 결과 신앙전력화와 군선교도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종제도의 역할과 목적의 재설정에 대해서 군과 군종병과의 깊은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군종장교는 중립적이어야 하며 적대행위를 할 수 없는 비전투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적극적인 정신전력화와 군선교라는 주제는 군종업무에서 본령이 아니고, 다만 장병들의 종교와 신앙생활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군종장교 및 기독 간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지만 군종장교 및 기독 간부는 공적 업무수행을 선교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처럼 공적 업무에서는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내지 신앙공동체의 영역과 세상나라의 영역을 서로 절연된 영역으로 준별한 것처럼 보인다. 가이사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므로 양자는 절연된 것으로 볼 일이 아니다. 비록 영역주권이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세상나라와 군대의 영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문화명령의 부름 받은 문화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시키고 가꾸어가야 할 과업으로 주어진 영역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전력화는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장군이 언급하기 전에 근본부터 성경의 하나님께서 위험한 지경을 넘어 약속의 땅을 개척해야 할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방법의 하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내셨을 때, 그의 친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군대임을 전제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신앙의 전력화는 세속적인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겠으나, 특히 군종의 역할과 목적에서 하나님과 신자의 특별히 돈독한 관계를 나타내는 영적·신앙적 언어임을 염두에 둔다면, 관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대목으로 주목할 점이다.

나. 종교의 중립의무는 무조건적인 규범명제인가.

군종장교 및 기독인 군 간부들에게 과하여진 종교의 중립의무는 타인, 특히 부하에게 종교 및 신앙강요 금지, 정교분리 및 종교적 차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공직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수행에 수반되는 신의와 염결성, 공정성 등의 덕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종장교나 기독인 군 간부들은 그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주관적인 선의를 과신하지 말고 타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와 같은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과정에서 인적·물적 대상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신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사고와 행동과 선택과 결정 등에는 그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또한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감안해 항상 이의와 시정조치와 같은 행정적 구제제도와 소송과 같은 법적 구제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비와 불만에 휩싸이기 전에 미리 몸단도리, 말단도리를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지혜에 속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립의무로 인해 개인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업무와 충돌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 놓고 홀로 조용히 드리는 기도나 성경읽기 습관, 내방한 상담자의 마음의 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적인 조언을 나누는 것은 결코 중립의무를 벗어난 게 아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신자라면 주어진 대면기회를 사랑으로 종 노릇하듯 섬기는 일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혹 소통과 상호이해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그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그 시정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에 앞장서는 일이 선해 보인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지레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립의무는 직책과 기회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정언명령과 같은 무조건적인 규범명제는 아니다.

다. 군선교에서 합법성은 선교의 자유를 한계 짓는 철책인가.

이 논문에서 저자는 합법적인 군선교의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제안들로 사료된다. 다만 여기에서 합법성 명제는 그 윤곽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칫 군 선교의 활력과 열정을 필요 이상으로 억누를 수 있는 장애물로 오해될까 두렵다. 법과 규칙, 약속 따위는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법률이나 규칙은 결코 온전한 것일 수 없다. 약속도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생겼다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법치국가의 법 원리는 "명백히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된다"는 원칙 아래 법률과 규칙으로써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금지선을 긋는 것이다. 이 원칙은 전체주의국가나 독재국가에서 통용되는 바, "명백히 허용되지 않은 것은 금지된다"는 것과 이렇게 천양지판으로 다른 것이다.

법률이나 규칙의 완전성을 부지불식간에라도 신봉하는 것은 우

상을 마음에 두는 것처럼 그 자체 부자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온당한 법률과 규칙은 준수하되, 과도하거나 흠결이 있는 것은 폐지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폐지되기 전이라면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상책이다.

시급한 선교나 개별전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법률이나 규칙이 틀어막는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생명 구하는 일이 율법 지키기보다 중하다고 한 가르침은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일깨워 주신 교훈이다. 그러므로 법률과 규칙 때문에 지체되는 정의를 때에 맞추어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법성의 철책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다. 우선 그 철책과 정면으로 대결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지하 터널을 뚫어 우회로를 만들어 피해 나가든지, 아니면 최후로 시민불복종의 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정에서 괴로움과 부끄러움에 시달리기보다는 차라리 선을 위하여 양심수가 되는 편이 훨씬 복된 일이라는 점은 보통의 신자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나가는 글

이제 논찬을 마무리할 시간과 장소에 이르렀다. 홍창식 변호사님의 연구논문은 형식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군 안팎의 환경변화와 병영문화의 빠른 변화 속에서 군종활동과 군선교전략이 어떻게 현실에 적응하면서 또 어떻게 새 지평을 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상세한 각주에도 불구하고 논문에서 상세히 담기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도는 요소요소에서 간략히 언급되어 있어 앞으로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바탕으로 더 상세한 정보들을 집적한다면, 앞으로 군종활동과 군선교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 논찬에서 던진 문제들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지어져 갈 그 길라잡이에서 전후좌우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논문의 깊이를 잘 헤아리는 사람은 누구보다 저자 자신일 것이다. 그 논문에 기대어 있는 논자는 그 저자의 깊은 뜻을 오해할 수도 있고, 표현된 글의 객관적인 의미조차 오독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인정한다. 혹 논찬에서 저자의 의도가 오해되고 글 읽기에서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논찬자의 한계를 헤아려 주고 또 질정해 주기 바라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연구위원 논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김진섭 |

예술심리치료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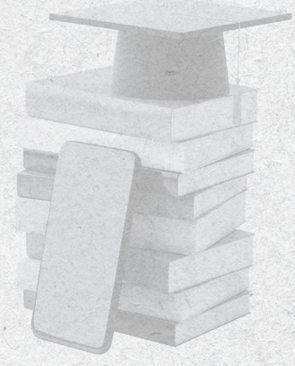
| 김상만 |

키릴로스의 세례교육

| 김선영 |

남성 군종장교와 여성 군인

| Daniel L. Roberts & Joann Kovacich, 번역 전요섭 |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How to read the Bible

» 김진섭 Ph. D.*

국문초록

이 논고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통전적인 기본적 전제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첫째, 우리가 가진 성경은 왜 구약 가경 13-18권(그중에 7권은 로마 가톨릭에 의해 '제2정경'으로 인정)과 22권의 구약 위경과 88권 이상의 신약 가경은 제외되고, 지금의 구약 39권과 신약의 27권으로 한정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다섯 가지 세목을 논의한다. 1) 성부·성자·성령의 내재적·경륜적 삼위일체론, 2) 성경의 영감론과 그 저자인 성령 하나님, 3) 원본, 필사본, 본문비평, 정경성과 정경화, 정경·가경·위경, 4) 고대번역본과 현대번역본 배후에 흐르는 신학사상, 5) 신학분류(주경·역사·조직·실천)의 통전적 이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둘째, 동일한 책명과 내용이지만, 토라/모세오경(5권), 네비임(8권)/전기선지서(4권)와 후기선지서(4권), 케투빔(11권)/전기성문서(7권)와 후기성문서(4권)의 배열순서로 구성된 24권의 유대인성경(Tanak)과 모세오경(5권), 역사서(12권), 시가서(5권), 대선지서(5권), 소선지서(12권)의 배열순서로 구성된 39권의 기독교 구약성경의 대조를 여섯 가지 세목으로 상론한다. 1) 삶의 표준(딤후 3:12-17): "오직 성경대로"(Sola Scriptura), 2) 모세오경의 유대인 명칭: "토라, 후마쉬"(Torah, Chum[m]ash), 3) 유대인 성경(Tanak)과 그리스도인 구약성경의 구조분석, 4) 예수님이 읽으신 구약성경의 7대 주제, 5) 구약·신약 성경의 대하(大河)이야기(Big Picture, Grand Story, Metanarrative), 6)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셋째, "구약·신약"성경의 공통어인 "(옛/새) 언약"이 놀랍게도 유대인 구약성경(Tanak)과 기독교 신약성경이 공통적으로 가진 다섯 장르(구약: 모세오경-전기 선지

• 논문 투고일: 2020년 9월 28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5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8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백석대 평생교육신학원 학장, 아세아신학연맹(ATA) 국제이사 겸 한국회장

서-후기 선지서-전기 성문서-후기 성문서; 신약: 복음서-행전-바울서신-일반서신-계시록)의 평행적 배열순서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경적 언약신학을 "새 언약을 위한 한 권의 새 정경"이란 주제 아래 다섯 가지 세목으로 제시한다. 1) 언약 문서로서의 구약과 신약, 2) 구약과 신약의 문예적 단위들, 3) 구약과 신약의 추이(推移)와 내부적 연결, 4) 구약과 신약의 배열구조 비교, 5) 정경적 언약신학

중심단어

삼위일체와 페리코레시스, 성령 하나님의 영감과 정경, 정경성과 정경화, 가경과 위경, 유대인 타나크와 그리스도인 구약성경, 구약과 신약의 5중 평행적 배열 구조, 정경적 언약신학

서론: 시대의 표적

주 예수님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 16:2-3)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1]에 대한 태도를 물으신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시대정신(Zeitgeist)은 무엇인가?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종교다원화"이다. 이것은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모더니즘의 이성중심주의가 표방하는 사실주의(Realism), 실증주의(Positivism)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상적 경향의 총칭이

1) 이 주제에 대한 필독서로서, 영국 왕실 주치의 중의 한 사람으로서 20세기 마지막 청교도로 칭송 받았지만 신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않고 그가 목회하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채플의 주일 예배 참석을 위해 스코틀랜드의 사업가가 개인 비행기를 타고 매 주일 참석하게 만들었던 Martyn Lloyd Jones(1899-1981)의 *Knowing the Times* (Edinburgh: Banner of Truth and Trust, 1989), 서문강 역, 『시대의 표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을 보라.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페미니즘, 학생운동, 흑인민권운동과 함께 1960년대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탈구조주의/해체주의(deconstruction)로서,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와 탈이성적 사고를 통하여 모든 것을 상대주의화하려는 것이 그 중심 특징이다.

인본적인 다원주의와 해체주의, 공산주의와 페미니즘 젠더주의 이념은 나치(흑인, 장애인, 유대인 등의 약자부터 죽이자는 인종차별적 동기와 그 수단으로서의 동성애와 낙태, 적극적 다산을 위한 혼외정사, 조혼, 이혼으로 연결됨)나 KKK 및 Jim Crowe 노예법 등이 보여준 바, 진화론과 결탁된 우생학을 통한 민족의 개량을 위한 대량학살을 추진하는 전체주의 체제와 연결되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기초하여 세워진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 그에 기초하여 발전된 학교와 민주공화국 체제의 근본이 되는 가치와 규범, 도덕과 윤리, 체제와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활개 치므로,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사탄),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고후 6:14-16)의 "삼중 원수관계"(창 3:15)의 투쟁이 격화되어 온 것이다.[2]

성경은 우리 시대를 향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삿 21:25), "바른

2) 참조. 진화론, 나치, 우생학, 국가의 기본 자산인 다산을 위해 성경 규범을 파괴한 정책들, 인종차별주의 등을 설명하는 기독교 역사가인 Richard Weikart, *From Darwin to Hitler: Evolutionary Ethics, Eugenics, and Racism in German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Hitler's Ethic: The Nazi Pursuit of Evolutionary Progress*(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최근 논의로서 (1) 계몽주의 유대교-기독교의 생명의 존엄성 윤리가 역사적으로 쇠퇴된 이유; (2) 이것이 당대에 끼쳐온 유해한 영향들; (3) 인간성의 기독교 비전에 세속적 많은 대안들(유물론, 실증주의,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다윈주의, 우생학, 행동주의 심리학, 실존주의, 사회 생물학,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빈곤성; (4) (유산, 안락사, 영아살해, 자살, 우생학, 트랜스휴머니즘 등과 관련된) 인간 생명의 존엄성 옹호를 지지하는 *The Death of Humanity and the case for Life* (Washington, DC: Regnery Faith, 2016); 포스트모더니즘, 반 계몽주의, 동성애와 신 공산주의 운동과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Stephen R. C. Hicks, *Lesbian, Gay and Queer ParentingL Families, Intimacies, Genealogi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Explaining Postmodernism: Skepticism and Socialism from Rousseau to Foucault* (Tempe, AZ: Scholargy Publishing, 2014).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μῦθοι, myths)를 따르는"(딤후 4:3-4) 현대인의 삶을 예고한다. 일원화보다는 다극화를, 전체주의보다는 개인주의를, 그리고 절대적 진리보다는 상대적 가치를 더 중시하므로, 전통적 가치나 보편적 가치, 또는 종교적 가치를 낡은 것으로 치부하는 종교다원화와 맥을 같이한다.

이 시대정신의 뿌리에는 이성에 근거하여 진리를 추구한 후기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독일의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 1844-1918)이 성경의 영감론과 그 저자가 성령 하나님임을 부인하고 모세오경은 소위 JEDP라는 역사 흐름에 따른 4가지 독립된 자료에 의해 편집된 것이라는 인본주의적 문서설(Documentary Hypothesis)[3]과 그 뒤잇는 여러 형태의 역사적 비평들이 자리 잡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의 절대적 규범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유일성을 모두 부인하는 종교다원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이 가장 극명하게 시위되는 현장은 바로 상황윤리적 성혁명인 친 동성애(LGBTQIA) 운동이다.[4] 그리하여 성경이 정죄하는 성범죄들 가운데 "근친상간, 강간, 간음, 아동성애, 수간, 동성애·동성혼(젠더이데올로기, 포괄적 차별금지법, '나다움'의 조기 성교육)" 등을 인정하거나, "생리 중 성관계, 독신,

3) 모세오경은 4가지 자료의 형태로 일련의 편집자들에 의해 현재의 모습으로 조합되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이 4가지 자료의 출처는 야웨이스트(J, Jahwist/Yahwist; 남유다 주전 850년경), 엘로히스트(E, Elohist; 북이스라엘 주전 750년경), 신명기 작자(D, Deuteronomist; 요시아 종교개혁[주전 621년]에 의해 주로 신-수-삿-삼상하 편집), 제사장적 편집자(P, Priestly Writer; 포로/포로후시대, 주전 500년경 성결법전[레 17-26장] 등)이다.

4) Marion Soards, *Scripture and Homosexuality: Biblical Authority and the Church Today*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William Swartley, *Homosexuality: Biblical Interpretation and Moral Discernment* (Scottdale, PA: Herald Press, 2003), 김복기 역, 『동성애-성서적 해석과 윤리적 고찰』(대전: 대장간, 2014), 30-35, 113-125.

성기 언급, 나체, 수음, 피임" 등을 수정하거나, "매춘, 일부다처, 계대결혼, 노예와 성관계, 축첩, 여자를 재산목록으로 취급, 조혼" 등을 수용하는 수정주의 성윤리가 팽배해 왔다.[5]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된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구약(약 1,000년 동안 31명)과 신약(약 45년 동안 9명)으로 구성된 인간 저자 당대의 산물인가?" 신적 영감론을 부인하고[6] 인간 저자의 당대의 산물로 받는 친 동성성애자들은 성경은 21세기 시대정신에 맞추어서 소위 친 동성애주의인 "퀴어 신학"(Queer Theology)[7]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핀 바가 있다.[8]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다. 가장 밝으리라 짐작한 곳이 실상 가장 어둡다는 의미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

5) 수정주의 성윤리에 대한 비판으로서, 참조. S. Donald Fortson III and Rollin G. Grams, (2016). *Unchanging Witness: The Consistent Christian Teaching on Homosexuality in Scripture and Tradition*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16), 176-189.

6) 이를 반박하는 R. Laird Harris, *Inspiration and Canonicity of the Scriptures* (Eugene, OR: Wipf & Stock, 1995), 81-93("Hermeneutics and Inspiration"); Henk van den Belt,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Truth and Trust* (Leiden: Brill, 2008), 308-315("The *Autopistia* of Scripture in a Postmodern Context"), 316-24("The Autopistia of Scripture and the *Testimonium* of the Spirit").

7) '퀴어'는 '낯설고 이상한'이란 뜻으로서, 정통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성육신·십자가의 죽음·부활; 세례와 성찬; 독신생활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결혼 등)은 일반 상식의 눈에는 '낯설고 이상한' 것들이어서, 이것들의 재해석을 통하여 원래 신학의 중심부가 지녔던 '낯설고 이상한' 것들을 찾아내어 그것들로 새롭게 채움으로써 정통 기독교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려는 신학적 주장을 가리킨다. 퀴어 신학자로서의 최근 논의를 위해, Gerald Loughlin ed., *Queer Theology: Rethinking the Western Body* (Malden, MA: Balckwell Publishing, 2007); Jay Emersion Johnson, *Peculiar Faith: Queer Theology for Christian Witness* (New York: Seabury Books, 2014); Chris Greenough, *Queer Theologies: The Bas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20); 퀴어신학에 대한 성경적 비판을 위해 이상원, "퀴어 신학," 『생명과 성 I』(용인: 킹덤북스, 2020), 104-131을 보라.

8) 김진섭, "구약 · 신약 성경이 말하는 동성성애," 『생명과 성 I』(용인: 킹덤북스, 2020), 26-103.

음과 삶의 유일한 표준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쉽게 하지만, 정작 얼마나 성경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익히 알며, 얼마나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며, 무엇보다 알고 배운 말씀대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약 1:21-25)?

우리의 시대정신을 거슬러 "오직 성경대로"(고전 15:3-4) 살기 위하여,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다소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해답을 본 논고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인가?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정경'(Canon)이라 부른다. 이 정경을 기록하는 방편이 된 소위 인간 기록자는 구약 31명, 신약 9명, 도합 약 40명이다.[9]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구약은 약 1,000년, 신약은 약 45년의 기간이 요구되었다.[10]

9) **인간 기록자**: **(a) 구약(약 31명)**: ① **모세**(오경, 시 90), ② **여호수아**(신 1:1-5[?]; 34장[?], 여호수아서), ③ **사무엘**(사무엘상하[?], 여호수아서 일부[?], 룻기[?], 사사기[?]), ④ **다윗**(시편 75개), ⑤ **헤만**(시 88)과 고라 자손(12개 시편; 42-49; 84-85; 87-88), ⑥ **아삽**(시 50)과 **아삽 자손**(시 73-83), ⑦ **여두둔**(= **에단**; 시 39, 62, 77)과 **여두둔 자손**(시 89), ⑧ **솔로몬**(시 72, 127; 전도서, 잠언 1-24장, 아가서), ⑨ 유다 왕 **히스기야**(주전 715-686; 초기 개혁활동[왕하 18:1-6; 대하 29-31장])의 신하들의 편집(잠 25-29장), ⑩ **익명 기록자**로서 솔로몬-바벨론 포로기 사이의 이스라엘 역사와 무관한 족장시대(주전 2-1천 년)의 욥이라는 현인에 대한 지혜문헌(욥기), ⑪~㉖ **16명 선지자**(이사야, 예레미야[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㉗ **에스라**(에스라, 역대상하[?], 느헤미야 일부[??]), ㉘ **느헤미야**(느헤미야), ㉙ **익명 기록자**(에스더), ㉚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 공동체의 필요에 부합하여, **익명 기록자**(열왕기상하), ㉛ 바벨론 포로에서 갓 돌아온 회복된 유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익명 기록자**(역대기상하). **(b) 신약(약 9명)**: ① **마태**(마태복음), ② **마가**(마가복음), ③ **누가**(누가복음, 사도행전), ④ 예수님의 이종사촌 **요한**(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⑤ **바울**(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⑥ 예수님 다음 동생 **야고보**(마 13:55; 눅 8:19; 행 12:17; 15:13; 21:28; 고전 15:7; 갈 1:19; 2:9; 주후 62년경 순교; 야고보서), ⑦ 그 야고보의 동생 **유다**(유 1절; 마 13:55; 막 6:3; 요 7:3-10; 행 1:14; 고전 9:5; 갈 1:19; 유다서), ⑧ **베드로**(베드로전후서), ⑨ 히브리서 **익명 기록자**(바나바[?] 혹은 **아볼로**[?]).

10) **저작 기간**(1,500년[= 구약 1,000년 + 구신약 중간시대 400년 + 신약 첫 책인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기록까지 50년 + 신약 50년]): **(a) 구약**(1,000년): **모세오경**(모세 죽음, 주전 1406년)~**역대기**(에스라 예루살렘 도착[스 7:8], 주전 458년; 느헤미야 예루살렘 2차 귀환[느 13:6], 주전 432년), 혹은 **말라기**('총독'[말 1:8], 주전 475년[느헤미야 이전 페르시아인? 총독]이거나 432년[총독 느헤미야]). **(b) 신약(50년)**: **갈라디아서**(① 남갈라디아설로서, 1차 전도여행 후 주후 48-49년[행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 시리아 안디옥에서], 혹은 51-53년[시리아 안디옥이나 고린도에서], ② 북갈라디아설로서, 2차 전도여행 후 주후 53-57년[에베소나 마게도냐에서])나 **데살로니가전서**(행 18:12, 주후 51-52년[아가야 총독 갈리오 시절 고린도에서])-**요한계시록**(주후 95년).

11) 성경신학을 이 세 가지 주제로써 구약과 신약의 점진적 계시로서의 통전성을 강조하는 James K. Mead, *Biblical Theology: Issues, Methods, and Them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169-240을 보라.

왜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한정되어야 하는가? 이 단순하게 보이는 질문의 배후에는 매우 복합적이며 근원적인 여러 주제들이 얽혀 있다. 제한된 지면으로 다 상론할 수 없지만, 그 필수적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성부·성자·성령의 내재적·경륜적 삼위일체론

구약·신약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를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즉각적으로 성경 기록과 관련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본성"과 "위격적 속성"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성경신학의 관점에서 살핀다면, (1) 하나님의 "본성과 말씀과 사역"으로 시작하여, (2) 인간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역사와 이야기, 창조와 언약, 그리고 예배와 삶"을 통해 살피며, (3) 인간끼리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열방, 필요와 공의, 공동체와 소명"의 관점에서 "단 하나의 성경신학"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11] 다시 말하면, 성경신학이 구약신학과 신약신학 각각의 결합 정도가 아니라

한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통일된 하나의 정경으로서 구약은 주로 성부 하나님, 복음서는 주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신약의 나머지는 성부와 성자와 관련하여 성령의 사역을 밝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계시"로서 읽어야 하며,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으로 진행할수록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본질과 사역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구약을 신약의 "동일시"의 언어보다는 "성취"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12)]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삼위일체(Trinity)라는 용어는 "셋의 구별"(tri)과 "하나의 통일"(unity)의 합성어이다. '신적 본성'(ousia)에 있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위격적 속성'(hypostasis)에 있어서는 서로 구별되는 삼위, 곧 성부·성자·성령이시고, '위격적 속성'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는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은 '신적 본성'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간단히 perichoresis[상호내주]란 용어로도 설명된다).

"내재적 삼위일체"(Immanent Trinity)란 초월의 영역인 하나님 은혜왕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한 분 하나님 '자신 안에'(in se)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적 존재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심'(요 1:18,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12) 40권 이상의 저서와 6개 주석을 쓴 영국의 Durham 대학교와 미국의 Asbury 신학대학원에서 35년 이상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성경신학"을 강의하면서, 신약 전체의 주석과 구약 주석 일부를 저술하였고, "먼저 언약 맺기와 그 후 신학하기"의 구조로 성삼위 하나님이 쓰신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함을 강조하는 필독서인 Ben Witherington III, *Biblical Theology: The Convergence of the Can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구약과 신약의 상호본문성"의 입장에서 그가 쓴 구약 주석들인 *Isaiah Old and New: Exegesis, Intertexuality, and Hermeneutic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7); *Psalms Old and New: Exegesis, Intertexuality, and Hermeneutics* (2017); *Torah Old and New: Exegesis, Intertexuality, and Hermeneutics* (2018)를 보라.

성자에 대한 성부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낳아지심'으로 성부에 대한 성자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심'(요 15:26)으로 성부와 성자에 대한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이때 "낳으시고, 낳아지시고, 나오시고"라는 표현은 창조된 영역에서의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영역, 곧 하나님 은혜왕국에서 시간의 연대기적 흐름이 없는 영원한 현재적 시간이다. 따라서 성부가 영원하신 만큼 성자와 성령도 영원하시다. 이런 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삼위는 공통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중심으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시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원한 사랑의 교제(요 17:5)를 가지고 계신다.

"경륜적 삼위일체"(Economic Trinity)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 밖으로'(ad extra) 나타나 일하시는 사역방식은 그 고유한 속성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삼위이시지만,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의 통일성을 유지하심을 가리킨다. 보이지 않는 '성부'의 뜻으로부터 모든 신적 사역이 시작되는데, '성자'는 그의 지혜로 성부의 뜻을 따라 설계하시고 질서 있게 배열하시며, '성령'은 성자의 사역을 그의 능력으로 효과 있게 하시는 생명과 기능을 모든 피조물에 주신다.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전체로 동시에 거하시지만, 삼위는 서로 섞이거나 혼동을 일으키거나 나누어지거나 분리됨이 없이 서로 고유한 속성에 따라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상관적으로 한 분 하나님의 통일을 이룬다.

영원하신 내재적 본성과 인간의 구원역사를 예로 든다면, 성부께서 "9단계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이라 부르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이 내게 효험되도록 적용하시는 경륜적/위격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13)]

2) 성경의 영감론과 그 저자인 성령 하나님

본래 성경(Bible)이란 영어 단어는 헬라어 '비블리아'(βιβλία biblia; '책들')에서 유래했다. 성경이 모든 "책들 중의 책"이요, 누구든지 성경을 애독하지 않으면 인생 독서 계획에 완전 실패이기에 이 용어는 합당하다. 또한 약 1,500년에 걸쳐 약 40명(구약 31명 + 신약 9명)의 인간 기록자를 통해 쓰여진 66권의 "책들"(구약 39권 + 신약 27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합당한 명칭이다.

그렇다면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인가?"라는 사활적인 질문이 생긴다. 올바른 성경읽기를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대답은 인간 기록자가 결코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이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기 위해, 인간 기록자(모세, 다윗, 요한, 바울 등)를 저자로 당연시 표현하는 모든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를 통해 기록한"이라는 확고한 태도로 그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게 하기까지"(벧후 1:19) 조명해 주시도록(엡 1:17-19; 벧전 1:10-11) 마땅히 기도하며 주의 집중해야 할 것이다.

흙에서 취한 티끌로 빚은 남성의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넣어" 남성(아담)을 빚으시고(창 2:7), 그의 갈빗대 하나로 여성(하와)을 만들어(창 2:22),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남성 + 여성, 창 1:27; 5:2)을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욥 33:4; 겔 37:5-6; 말 2:15)이시라면,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쎄오프뉴스토스[θεόπνευστος], "God-breathed", 딤후 3:16), "성령님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움직여진 대로'(페로메노이[φερόμενοι]; 참조. 동일한 동사로 강풍의 현상을 가리키는 행 2:2; 27:15, 17)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휘포 프뉴마토스 하기우 페로메노이 엘라레산 아포 쎄우 안쓰로포이[ὑπὸ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φερόμενοι ἐλάλησαν ἀπὸ θεοῦ ἄνθρωποι]; 벧후 1:21) 사람들이 "축자적(逐字的, verbal, 일점일획), 만전적(萬全的, plenary, 단어의 사상), 유기적-동력적(organic-dynamic, 인간 기록자의 교육과 재능을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 정확/무류(infallible, 기록된 '말씀'에 관한 한, 축자적 만전적 소통에 '실패할 수 없다'), 무오한(inerrant, 기록한 '인간 저자'에 관한 한, 원저자이신 성령의 뜻을 기록함에 유기적-동력적으로 '잘못이 없다')[14)] 영감을 받아 구약과 신약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13) 참조. 20세기 개혁주의신학자들의 거두였던 Geerhardus Vos, Cornelius Van Til, Herman Ridderbos, Louis Berkhof를 제자로 만든 네덜란드의 조직신학자 Herman Bavinck의 원전 *Gereformeerde Dogmatiek* (1895-1901)를 직접 번역한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I』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393-648("계시, 성경, 성경의 영감과 속성들"을 상론하는, "2부: 외적 원리"); 미국 Orlando 소재 Reformed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로서 "삼위일체, 계시, 영감된 성경의 신학적 개론과 그 해석"을 다룬 Scott R. Swain, *Trinity, Revelation, and Reading: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ible and Its Interpretation*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11); 미국 Westminster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명예교수인 John Frame의 "주권신학"시리즈 4부작으로서 우리의 논의 흐름을 따라, *The Doctrine of God*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2), 김재성 역, 『신론』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4);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1987), 김진운 역, 『신지식론』 (2020); 특별히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2010), 김진운 역, 『성경론』 (2014); *The Doctrine of Christian Life* (2008), 이경직 역, 『기독교윤리학』 (2015); 4명의 공동저자의 최근의 동향과 4가지 항목(전통적, 로마 가톨릭, 관계적[교리적 관점], 관계적[래디컬])의 논의로서 Stephen R. Holmes, Paul D. Molnar, Thomas H. McCall and Paul S. Fidder, *Two Views on the Doctrin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Zondervan, 2014).

14) 참조. 36개의 주제들(역사적, 성경적, 신학적, 철학적, 비교종교학적, 총체적)에 따른 다양한 복음주의/개혁신학자들의 논고를 편집한 D. A. Carson. ed., *The Enduring Authority of the Christian Scriptures* (Grand Rapids: Eerdmans, 2016);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다섯 학자들의 담론서로서 R. Albert Mohler Jr. et al.,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 (Grand Rapids: Zondervan, 2013); 성경의 "권위, 영감, 무류성"에 대한 고전적 필독서인 E. J. Young, *Thy Word Is Truth*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3); D. Martyn Lloyd-Jones 박사가 서문을 쓰고 Westminster 신학대학원의 교수들(John Murray[특별히 "성경의 자증(自證; 아우토피스토스, self-authentication)과 성령의 내적 증거"에 관한 그의 논고는 필독을 요한다], Edward J. Young, Ned Stonehouse, Cornelius Van Til)의 옥고를 편집한 Ned Stonehouse and Paul Woolley, eds., *The Infallible Word: A Symposium by the Members of the*

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15] 또한 성경이 지닌 사도성의 권위(믿음과 삶의 유일한 표준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l], 최종성과 충족성(계시의 완전성)과 명료성과 보편성[16]이 강조된다.

흙에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살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는다면, 동일한 인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기록하게 하실 수 있으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어-아람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주전 200년경에 그 당시 국제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섭리하시고, 예수님과 사도와 초대교회의 국제어인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기록될 때 유대인의 히브리어 성경(Masoretic Text)보다는 그 번역된 70인경(LXX, Septuagint)을 인용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또한 보게 되는 것이다.

3) 원본, 필사본, 본문비평, 정경성과 정경화, 정경·가경·위경

구약·신약 성경의 원본(autographs)이 모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필사본의 진정성과 신뢰에 대한 논의와 이에 수반되는 사본학의 주제가 있다. 현존한 모든 사본들이 원본의 진정성과 신뢰를 결과적으로 지지함을 보여주는 본문비평[17]은 구약의 히브리어(MT)

Faculty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R, 1946); 성경의 자증과 성령의 내적 증거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필독서인 17세기의 John Owen, *The Divine Original: Authority, Self-Evidencing Light, and Power of the Scriptures*, vol. 16 of Owen's Collected Work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8). 성경 자체가 "자증과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해 밝히는 다음의 구절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시 12:6; 19:7; 잠 30:5; 렘 20:9; 살전 2:13; 히 4:12.

15) 성경의 인간 기록자는 신적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유기적 도구임을 강조하는 다음의 본문을 명심할 필요가 크다: (1)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의 설계도와 그에 일치한 형태를 만들고 생명력 있는 내용물로 채우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삼하 23:1-2; 대상 28:12, 19). ① 우주 창조(창 1:1-2:3): ⓐ 그가 창조하셨다'(바라[ברא], '잘라서 모양을 내다')는 표현은 '지적 설계'(Intellectual Design)의 도면(계획)을 보여준다; ⓑ"땅은 '혼돈하고'(토후[תהו],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보후[בהו], '거주자가 없는')…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메라헤페트[מרחפת]; '[독수리같이] 선회하고 계셨다'; 참조. 신 32:11,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는 표현은 첫 3일간의 '형체'를 만드심과 다음 3일간의 1-3, 2-5, 3-6일의 짝을 이루는 형체 속에 생명과 가능을 가진 '거주자'를 수놓는 성령님의 창조사역을 보여준다(욥 26:13; 시 33:6; 104:30; 147:18; 잠 8:22-31; 사 32:15; 40:13). ② 노아 방주(창 6:15): 규모가 300×50×30규빗=135×22.5×13.5m; 21,000톤, 미식 축구장보다 30m 정도 더 길고 5층 건물의 높이로서, 약 30m의 파도에도 규격이 가장 안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③ 모세 성막(출 25:9, 40; 민 8:4; 참조. 투포스[τύπος] type[행 7:41; 히 8:5]): "내가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마르에[מַרְאֶה]…타브니트[תַּבְנִית] 대로. ④ 솔로몬 성전(대상 28:12, 19). ⑤ 스룹바벨 제2성전: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조서(주전 538.3; 스 1:1-4)를 따라 1차 귀환(스 2:64-65) 한 약 5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감독 아래 성전 지대를 놓고 공사 부진 중에(주전 536-30년; 스 3:8-4:5), 방해로 공사 중단에 이르렀을 때(주전 530-20년; 스 4:6-24), 학개는 출애굽 시의 "나의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주지시키고(학 2:5), 스가랴는 성전 재건은 재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됨을 역설하여(슥 4:6), 성령님의 감동으로(학 1:14) 3년 반 만에 재건을 완공하였다(주전 520.9.21~516.3.12; 학 1:14; 스 6:15-18). ⑥ 에스겔 환상성전(겔 40-48장):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의 '권능'(야드[יד], '손' 겔 40:1)이 에스겔을 이상 중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한 천사가 삼줄과 장대로 환상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보이셨다(겔 40:2-5a). ⑦ 천국(히 11:10): "하나님이 계획(설계)하시고 지으실(건축) 터가 있는 성." (2) **신약**: 마 4:4 ('기록되었으되'[게그랍타이]; 신약이 구약 인용 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임을 드러내면서도 그 이름은 절대 언급되지 않는 '신적 수동'[divine passive]의 의미로 자주 활용); 막 12:36 〈시 110:1; 행 1:16 〈시 109:8; 행 4:25 〈시 2:1,2; 행 21:11; 행 28:25 〈사 6:9-10; 살전 2:13; 딤전 4:1(막 13:22; 행 20:29-30; 살후 2:3과 유사한 예언으로,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것을 가리킨다; 참조. 갈 1:11-12; 행 20:35b; 고전 7:10-13); 딤후 3:16a; 히 3:7(3:7-4:13은 시 95:7-11의 해설임); 9:8(참조. 8:7-8, 13); 10:15(10:16-18=8:8-12 〈렘 31:31-34); 벧후 1:21; 3:15b-16(11-14절의 "거룩한 행실"에 대한 권고의 평행구절이 바울서신과 사도행전에서 충분하게 증명되며, '다른 성경',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바울서신과 베드로서신이 동일한 신적 권위를 지녔다는 점에서 성경의 동일한 교훈과 목적의 통일성을 강조); 계 22:18-19.

16) 미국 Charlotte 소재 Reformed 신학대학원의 총장 겸 신약학·초대교회사 교수인 Michael J. Kruger, *The Question of Canon: Challenging the Status Quo in the New Testament Debate*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3); *Canon Revisited: Establishing the Origins and Authority of the New Testament Books* (Wheaton, IL: Crossway, 2012). 그는 신약 정경의 경우 교회(신앙공동체)나 각 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장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자증'(自證)에 의해서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17) 컴퓨터에 의한 필사본들의 비교 연구는 원본을 복원하려는 주요 의도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의 발전과 주해의 역사 이해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최고(最古)의 아론의 축도문(1979년 발견된 주전 650-587년경의 아론의 축도문[민 6:24-26] Silver Scroll), 구약 헬라어 사본(LXX; 주전 300-100년, Codex Vaticanus, Codex Sinaiticus), 쿰란 사해사본(주전 150년-주후 70년, 약 220개; 이사야서 전권[1QIs^a], 75%[1QIs^b]), 알레포 사본(주후 920년경), 레닌그라드 사본(Abraham Firkovich B 19 A; 주후 1008년경) 등을 중심한 구약 사본학과 본문비평의 상관성에 관하여 참조. Craig A. Evans and Emanuel Tov eds., *Exploring the Origins of the Bible: Canon Formation in Historical, Literary, and the Theolog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신약에 대한 탁월한 입문서인 D. C. Parker,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Manuscripts and Their Texts* (Cambridge: Cambridge

와 헬라어(LXX) 성경, 신약의 코이네 헬라어 성경의 비평장치(Critical Apparatus)를 통해 증거된다.[18]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는가의 역사적 고찰은 "정경성(canonicity)과 정경화(canonization)"란 용어로 진술된다.[19]

University Press, 2008).

18) 구약: Ernst Würthwein,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Biblia Hebraica* (Grand Rapids: Eerdmans, 2014[3]);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MN: Fortress, 2011[3]). 신약: Kurt Aland and Barbara Aland,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Critical Editions and th the Theory and Practice of Modern Textual Criticism* (Grand Rapids: Eerdmans, 1989[2]); Bruce M. Metzger and Bart 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4]).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Princeton 신학대학원에서 Metzger 박사의 제자로 시작하여 이제는 신약 사본학과 본문비평 분야에 독보적 다작가로 활동하는 North Carolina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 Ehrman(1955-)은 이미 5권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30권 이상을 출간했지만,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는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다. 신약의 5,800개 이상의 헬라어 사본들에서 약 30-40만 개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성경의 신적 영감설을 전면 부인하는 불가지론자의 선봉장이 되었다. 그는 청소년 시기에 복음을 받고 미국 Moody 성경학원과 Wheaton 대학을 졸업했지만, 사본학과 본문비평에 함몰하면서 복음적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필사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변개하거나 역사적 진실이 아닌 예수님을 각색(脚色)해 왔는지를 해악스럽게 드러내려는 Bart D. Ehrman, *Misquoting Jesus: The Story Behind Who Changed the Bible and Why*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5), 민경식 역, 『성경 왜곡의 역사』 (서울: 청림출판, 2006); *Jesus, Interrupted: Revealing the Hidden Contradictions in the Bible (and Why We don't Know About Them)*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9), 강주헌 역, 『예수, 왜곡의 역사』(서울: 청림출판, 2010)를 보라. 이에 대한 당연한 반론적 필독서로서, 타 종교의 경전들의 사본들과 비교하여 사본들의 고대적 기원과 보전의 논증을 통해 오히려 이러한 사본적 차이는 성경 원본의 회복과 신뢰성을 더할 뿐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J. Ed Komoszewski, M. James Sawyer and Daniel B. Wallace, *Reinventing Jesus: How Contemporary Skeptics Miss the Real Jesus and Mislead Popular Culture* (Grand Rapids: Kregel, 2006); 9명의 논고를 통해 Ehrman을 논박하는 Robert B. Stewart, ed., *The Reliability of th New Testament* (Minneapolis: Fortress, 2011), 특별히 이 주제에 관한 Daniel B. Wallace와 Ehrman의 대화를 소개한 pp. 13-60. 성경의 예수님의 진실성을 논증한 Craig A. Evans, *Fabricating Jesus: How Modern Scholars Distort the Gospels*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06); Timothy Paul Jones, *Misquoting Truth: A Guide to the Fallacies of Bart Ehrman's Misquoting Jesus*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07); Michael F. Bird, Craig A. Evans, et al., *How God Became Jesus: The Real Origins of Belief in Jesus' Divine Nature–A Response to Bart Ehrman* (Grand Rapids: Zondervan, 2014)을 보라.

19) 미국 Covenant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로 퇴임한 Robert I. Thomas, *The Old Testament Canon in the Old Testament Church: The Internal Rationale for Old Testament Canonicity* (Ancient Near Eastern Texts and Studies 7; Lewiston,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1990); 미국 33인의 학자들의 논고를 집대성한 Lee Martin McDonald and James A. Sanders, eds., *The Canon Debate* (Peabody, Mass.: Hendrickson Publishers, 2002); 신약성경이 완성되는 도중에 구약성경을 사용하고 있던 초대교회의 역사적 정황을 자세히 다루는 Lee Martin McDonald and Stanley E. Porter, *Early Christianity and Its Sacred Literature* (Peabody, Mass.: Hendrikson Publishers, 2000). 특별히 1987년 초판 이후 742쪽 분량의 개정3판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정경론에 관한 종합적인 주제를 가장 철저하게 논하는 필수교재인 Lee Martin McDonald, *The Biblical Canon: Its Origin, Transmission, and Authorit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3])는 정경화 과정이 "어떤 책이 언제 정경의 위치를 갖게 되었는가?"(정경 1)와 신앙공동체에서 어떤 것은 포함하고 어떤 것은 제외하는 "정경의 확정된 컬렉션을 언제 형성했는가?"(정경 2)의 두 단계로 상론한다(pp. 55-57). 신약성경이 "선지서(1분법), 율법과 선지자(2분법), 눅 24:44에 단 한 번 언급된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3분법)" 등으로 구약성경을 가리킴과 연계하여, 정경성과 정경화에 대한 문헌적·고고학적 증거들과 함께 가장 최근의 합의되는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예수님 당시에나 사도시대에는 구약성경이 지금 유대인의 히브리어정경(Tanak)처럼 완전히 율법서-선지서-성문서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제일 먼저 모세오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고, 그 뒤에 선지서, 마지막으로 성문서로 지금의 정경으로 주후 4세기에 이르러 고정되었다(p. 223).

여기서 지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당대 유대인과 초대교회가 모두 구약의 가경과 위경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고, 신약교회의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지만 히브리어 구약성경(MT)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경을 내포한 헬라어 역본(LXX)을 사용했지만, 어떤 기독교 공동체도 구약 히브리어성경과 신약 헬라어성경으로 하나의 통일된 정경을 삼지 않았으며, 신약의 정경이 27권으로 확정되는 동안 구약의 경우도 유대인 히브리성경이 가진 24권(= 현 기독교의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배후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간섭과 인도가 있었음을 믿게 되는 것이다.

비록 위경이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37이나 유다서 9, 14절에 언급되고 있지만, 결코 정경으로 인용되고 있지 않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본 논고 각주 21-22 참조).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 다양한 신학적 전통들(칼빈주의, 아르미니안주의, 오순절, 세대주의 등)의 안경을 끼고 성

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20]

가경과 위경에 관해서는 왜 구약의 13-18개 가경(Apocrypha) 가운데 소위 '제2정경'(Deuterocanon)이란 성경으로 로마 가톨릭은 7개를, 희랍정교는 10개를 각각 인정하는지와[21] 유다서 9절(위경 『모세의 유언』 혹은 『모세의 승천』의 인용)과 14절(위경 『에녹 1서』의 인용)이 보여주는 바, 구약 "위경"(Pseudepigrapha)[22] 및 신약의 가경[23]이 정경에서 제외

20) 이 주제에 대한 논의로서 참조. Ben Witherington III, *The Problem with Evangelical Theology: Testing the Exegetical Foundations of Calvinism, Dispensationalism, Wesleyanism, and Pentecostalism*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15[2]).

21) 구약의 가경(Apocrypha, "숨겨진 것들"; 주전 200년-주후 70년; 이 용어의 기원은 지혜자들을 위해 신적 지혜를 포함한 책에 대해 말하는 에스드라 2서[3-14장=에스라 4서] 14:44-47로 추정)은 장르별로 다음과 같다(앞에 위 첨자 표기한 7권은 루터가 가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1534년경] 서문에서 이것은 '성경'이 아닌 것을 밝히고 동시에 구약에서 따로 분리한 여파로 인해 Trent공의회[1546년]가 결정한 가톨릭 제2정경의 순서대로이다): ① 역사서: [6]1&2 Maccabees; 1 Esdras, ② 이야기:[1]Tobit; [2]Judith; 3 Maccabees; [7]An expanded Esther; [7]Additional tales about Daniel, ③ 지혜서: [3]Wisdom of Solomon; [4]Wisdom of Ben Sirach(= Ecclesiasticus), ④ 가명의 예언서: [5]마지막 장인 6장은 Letter of Jeremiah 7:1-72를 첨가함Baruch; Letter of Jeremiah, ⑤ 예전서: Prayer of Manasseh; Psalms 151; Prayer of Azariah and the Song of the Three Young Men; Additions to Jeremiah, ⑥ 묵시: 4 Ezra(= 2 Esdras), ⑦ 철학적 찬사: 4 Maccabees. 이 가운데 2 Esdras와 Prayer of Manasseh를 제외하고 헬라어역본(LXX)의 여러 사본에 발견되고, 쿰란의 사해사본(DSS)에서는 Ben Sirach, Tobit과 Letter of Jeremiah 등이 발견되므로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참조. David A. deSilva, *Introducing the Apocrypha: Message, Context, and Significanc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이 주제에 대한 가장 탁월한 노장 3명이 드림팀이 되어 가장 최근에 공저한 기독교 초기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가경과 위경과 사해사본을 중심으로 정경성과 정경형성에 대해 가진 견해들을 분석 종합하는 필독서로서, John J. Collins(1946-), Craig A. Evans(1952-) and Lee Martin McDonald(1942-), *Ancient Jewish and Christian Scriptures: New Developments in Canon Controvers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20).

22) "위경"(Pseudepigrapha, "가명으로 기록된 것들"): 예루살렘 성전 파괴(주후 70년) 이나 늦어도 바르 코흐바 반란(주후 132-136년) 이전의 역사적 맥락에서 알려진 22권으로 제한하여 논의한 최신판으로서, 참조. Daniel M. Gurtner, *Introducing the Pseudepigrapha of Second Temple Judaism: Message, Context, and Significanc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0.11 출간예정).

23) 구약의 가경과는 달리 숫자를 확정할 수 없는 신약의 가경은 신약 정경이 완성된 직후부터 주후 4세기까지 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따라서 "신약의 위경"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논의에서 쉽게 제외될 수 있다. 최근의 자세한 논의를 위해, 참조. 40개의 복음서 가경을 그 원문들과 함께 소개하는 Bart D. and Zlatko Pleše, *The Apocruphal Gospels: Texts and Trans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59개의 신약 가경을 소개하는 Tony Burke and Brent Landaw, *New Testament Apocrypha: More Noncanonical Scriptures,* vol. 1 (Grand Rapids: Eerdmans, 2016); 29개의 가경을 소개하는 vol. 2 (2020).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론한다. 동시에 유대인 공동체와 초대교회가 익히 알고 사용한 구약의 가경과 위경이 신약에 어떻게, 왜 인용, 인유, 혹은 반향되었는지도 고찰해야 한다.[24]

4) 고대번역본과 현대번역본 배후에 흐르는 신학사상

고대 70인경(LXX)을 비롯한 헬라어 역본(Aquila, Theodothon, Symmachus), 아람어 Targum(모세오경/Onkelos, Pseudo-Jonathan, 예루살렘; 선지서/Jonathan ben Uzziel/선지서; 성문서/후대 익명의 역자들), 사마리아 오경(옹켈로스의 여자적 번역), 시리아어 Peshitta(구약, 신약), 구라틴어 Vulgata 등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가 지닌 신학적 전제나 성향의 영향을 받게 됨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현대 번역본의 경우, 여자적(literal)인 '어의적'(semantic, formal equivalence) 번역과 '소통적'(communicative, dynamic equivalence) 번역 간의 선택과 그 배후에 흐르는 신학사상은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제와 어떤

24) 구약 가경과 위경의 신약 인용과 인유를 소개하는 Barbara and Kurt Aland et al.,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ed. 제4차 교정 인쇄,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5), 869b-878b를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1) 가경: 3 Ezra(= 1 Esdras; 3개); 4 Ezra(= 2 Esdras; 50개); 1 Maccabees(25개); 2 Maccabees(49개); 3 Maccabees(12개); 4 Maccabees(39개); Tobit(45개); Judith(15개); Susanna(3개); Bel and Dragon(2개); 1 Baruch(12개); 2 Baruch(40개); 4 Baruch(1개); Letter of Jeremiah(1개); Wisdom of Ben Sirach(153개); Wisdom of Solomon(115개). (2) 위경: Book of Jubilee(39개); Martyrdom of Isaiah(4개; 5:11-14 〉 히 11:37, "톱으로 켜는 것"); Psalms of Solomon(38개); 1 Enoch(125개; 1:9 〉 유 14; 5:4 〉 유 16; 10:4s, 6, 11-14 〉 유 6; 12:4 〉 유 6; 18:15s 〉 13; 21:6 〉 유 13; 22:11 〉 유 6; 48:10 〉 유 4; 60:8 〉 유 14; 80:6 〉 유 13; 88:1, 3 〉 유 13; 93:3 〉 유 14); 2 Enoch(1개); Joseph and Aseneth(8개); Assumption of Moses(9개); Apocalypse of Abraham(2개); Apocalypse of Elijah(16개); Testament of Job(9개); Testament of 12 Patriarchs(40개; Reuben[3개], Simeon[1개], Levi[8개], Judah[1개], Issachar[5개], Zebulun[2개], Dan[3개], Naphtali[6개], Joseph[4개], Bejamin[3개], Life of Adam and Eve[1개], Lives of Prophets[3개]). 구약의 위경과 신약의 관계를 논하는 James H. Charlesworth,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 the New Testament*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85)를 보라.

관계를 갖는가를 살펴보게 한다.[25]

25) 고대번역본과 영어·한글을 비롯한 여러 언어의 현대번역본 배후에 흐르는 신학사상은 우리의 논의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전반적인 논의로서 참조. Bruce Metzger, *The Bible in Translation: Ancient and English Versio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복음주의 구약학자요 성경번역가인 Ronald F. Youngblood(1931-)의 기념 논문집으로서 "제1부: 성경번역 이론(6명 논고); 제2부: 성경 번역사(6명 논고); 제3부: 성경 번역 실제(6명 논고)"를 편집한 Glen G. Scorgie et al., *The Challenge of Bible Translation: Communicating God's Word to the World* (Essays in honor of ; Grand Rapids: Zonvervan, 2003). (1) 고대번역본: ① 구약에 237회 사용된 '샬롬'(שלום, '완전'이란 기본 의미가 신체의 '건강', 환경의 '번영', 정신적 '평화')이란 단어는 LXX에서 16개 헬라어 단어들로 번역되었고, 거의 대부분 137회 사용된 '에이래내'(εἰρήνη, '평화')라는 의미동등어로 번역되었지만, '구원'이란 의미의 '소태리아'(σωτηρία; 창 26:31; 28:21)와 '소태리온'(σωτηρίον; 창 41:16)으로 번역된 것은, 진정한 평화는 바로 '구원'의 결과라는 신학적 이해와 결부될 수 있다; ② 메시아 예언의 정점에 놓인 사 7:14의 '알마'(עַלְמָה, '결혼 적령기 여자')를 LXX에서 그에 상응하는 '네아니스'(νεᾶνις; 다른 고대 헬라어역본인 Aquila, Symmacus, Theodotion은 이 단어를 사용)보다는 '베툴라'(בְּתוּלָה; '처녀')에 상응하는 '파르세노스'(παρθένος)로 번역하고(창 24:43도 동일한 경우이다), 마 1:23이 이 번역을 그대로 채택한 것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하신 신학적 의미를 전제하고 있지 않은가? 참조. 히 2:14는 인류는 부모의 성적 '교제'(코이노네오[κοινωνέω]로 출생된다면 그리스도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함께 가지신'(메테코[μετέχω] 것으로 분명하게 구별한다; ③ 창 3:15b, "그(הוּא[후, 3인칭, 남성, 단수]; 한글개역개정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의역)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를 종교개혁에 맞서서 로마 가톨릭이 프랑스의 두에-랭스(Douay-Rheims)에서 출간한 영어본(신약은 1582년, 1610년에 전체 성경 출간) 역시 '마리아 숭배'(Mariolatry)의 정신으로 구라틴어 벌가타(Vulgate) 번역을 따라 '그'를 '그녀'로 변개 둔갑시킨 전통을 지금까지 고수하므로, 가톨릭 병원의 입구에 뱀을 발로 밟고 있는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인 그 역사적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 (2) 현대 영어번역본: ① 다양한 성경번역에 나타난 미국 프로테스탄트 논쟁사에 관하여 참조. Peter J. Thuesen, *In Discordance with the Scriptur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인터넷복음사역 단체인 https://bible.org/ 여러 논고들; ② 미국 Kent 주립대학교 영문학 교수로서 킹제임스번역(KJV Only!)과 비교하여, 현대 영어 번역본들이 복음의 핵심교리에 대해 얼마나 교묘하게 오염과 부패(삭제, 첨가, 왜곡)를 자행해 왔으며, 이것은 결국 "단일 세계정부와 뉴에이지 운동"과 은밀하게 결탁된 사탄 숭배라고 결론짓는 Gail Riplinger, *New Age Bible Versions: An Exhaustive Documentation of the Message, Men & Manuscripts Moving Mankind to the Antichrist's One World Religion* (Ararat, VA: Authorized Version Publications, 1993[4]), 안티오크성서번역위원회 편역, 『현대성서와 뉴에이지』(서울: 안티오크, 1997); KJV의 "blood"(440회 이상)를 23-174회로 축소하고 있는 현대 번역본들의 실태를 지적하는 동일 저자의 최신 논의인 *Which Bible Is God's Word?* (Ararat, VA: Authorized Version Publications, 2007[2])를 보라; ③ 고전 6:9와 딤전 1:10의 "탐색자"(μαλακός)와 "남색자"(ἀρσενοκοίτης)란 용어는 "여성적 남성 또는 미동(effeminate)"과 "성인 남성 동성성애자(pederast)"로 각각 이해되는 바, New Internatioanl Version의 첫 번역(1973년)이 "동성애"(homosexuality)란 용어를 기피한다는 비난이 일자 1984년에 이 용어를 채택하는 개정판을 발행했다; ④ 복음/개혁주의 여섯 학자들은 여성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입장의 논지로 딤전 2:9-15의 원문주해(특별히 12절, "[남자를] 주관하는 것[αὐθεντέω])를 전개하는 Andreas J. Köstenberger and Thomas R. Schreiner, *Women in the Church: An Analysis and Application of 1 Timothy 2:9-15*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2]).

26) 본 논고 각주 3을 참조.

5) 신학분류(주경·역사·조직·실천)의 통전적 이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앙고백 하는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신학수련에 선/악 순환구조의 연쇄반응이 따라옴은 기독교 역사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성도는 목회자에 의해, 목회자는 목회 후보생 시절의 신학교수들에 의해, 신학교수들은 자신의 석박사 과정을 지도한 소위 세계적인(?) 학자들에 의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신학생 시절에 소위 진보주의 신학의 대명사와 같은 모세오경의 "문서설"(JEDP라는 4가지 독립된 문서들의 병합)[26]로 성경읽기를 강요받았다면(실제로 1970년대에도 보수·진보나 국내·국외에 상관없이 필수과목인 모세오경의 과제가 4가지 다른 색상의 연필을 가지고 187장 전체를 JEDP 문서 부분을 따라 색칠하고, 같은 색상의 본문들만 연결하여 읽고 그 자료와 독후감을 제출하라는 해괴한 수업을 역자가 한국과 미국에서 직접 경험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조이야기의 자연스런 단락(1:1-2:3) 대신 1:1-2:4a로 나누는 것은 무의식중에라도 이 단락을 가장 후대의 에스라 시대(주전 5세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들(Priests)이 작성한 P(Priestly)문서요, 2:4b-25은 가장 초기의 야웨이스트(J, Jahwist/Yahwist; 남유다 주전 850년경)가 기록했다는 문서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신학교 교과과정을 보면, "누가신학, 요한신학,

바울신학" 등의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듣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교수가 사용하는 대로 "모세/다윗이 말하기를, 바울/요한이 말하기를"과 같은 반복학습이 각인되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 그 성경이 가져오는 4중 기능인 "교훈, 책망, 교정, 의로 교육"(딤후 3:16)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소멸해지고, 마침내 "불 받아 들어와 불 꺼져 졸업한다"는 속언처럼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한 채로 신학교를 졸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상태로 목사안수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행 20:28)의 양 떼를 위한 목회현장에 생명력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됨은 자명하지 않은가?

우리는 반 성경적인 말세 현상(딤후 3:1-5; 4:3-4)을 드러내는 "동성애·동성혼(퀴어신학, 젠더이데올로기, 포괄적 차별금지법, '나다움'의 조기 성교육), 이슬람·공산주의, 이단·사교" 등의 사회 이슈들을 직면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고 표류하는 세계와 한국교회의 동향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는 이 대목에서 시의적절한 역사적 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장로교회의 세 번째 규모인 예장 백석총회(1978.9.11)와 "기독교 명문대학의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4개 대학과 7개 대학원의 백석학원(1976.11.1)과 영향력 있는 범기독교계 주간신문인 기독교연합신문(1988.2.1)을 동시에 설립하였고, 또한 현재 백석대학교 총장과 최근 백석총회에 의해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총회장으로 연임된 장종현 박사는 신학교육과 목회현장의 체험적 증인으로서, 지난 44년간 한결같이 "성경은 인간 기록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2003.10,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2차 국제학술대회 폐회 예배 설교 제목)라고 주창해 왔다.[27]

그의 논지는 매우 명확하고 감동적이다:[28] (1) "한국교회의 위기"는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이다; (2) 그 원인은 교회가 "순결과 연합"이란 본질과 속성을 잃고 "세속주의와 분열"로 오염됨에 있다; (3) "교회 회복"은 오직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함에만 있다; (4)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됨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생명화"됨으로 나타나게 된다; (5)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요, 말씀의 위기는 곧 "목회자의 위기"이며, 목회자의 위기는 "신학자의 위기"이고, 신학자의 위기는 바로 "신학교 운영자"의 위기이다; (6) 한국 신학교가 국가로부터 대학과 동 대학원의 인가를 받고(1980년), 서구에서 학위를 받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서구 교과과정이 그대로 영입되고, 성경을 쪼개고 기성교회는 쉽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을 쪼개고 먼저 자기

27) 장종현 박사는 종교개혁의 '5대 솔라'(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기초 위에 사변화된 개혁주의신학에 내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마중물로서의 실천방안인 '7대 실천운동'(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을 제시하는"개혁주의생명신학"(Reformed Life Theology)을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모인 3만 5천 명의 예장 백석총회와 백석학원의 참여자 앞에서 선포하였다(2010.5.21). 백석학원은 물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백석총회가 교회선언으로 채택하였다(2017.5.14.).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참조. 장종현,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바라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강해』 (백석연구소 총서 1;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15); 『백석학원의 설립정신』 (백석연구소 총서 2; 천안: 백석정신아카데미, 2014);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 (백석연구소 총서 3; 2017);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실천운동』 (백석연구소 총서 4; 2018); 『교회를 살리는 신학: 개혁주의생명신학과 교회회복』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14, 2019[2]); 『생명을 살리는 교육』 (천안: 백석정신아카데미, 2008, 2013[2]); 『세상을 살리는 교회』 (천안: 백석정신아카데미, 2016); 『생명을 살리는 교리: 조직신학 개론』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19).

28) 참조. 장종현, 『교회를 살리는 신학』 (2019), 7-14; 『생명을 살리는 교리』 (2019), 5-9, 13-36.

를 살피지 않으면서, 기도보다 학문을, 성령보다 지식을 앞세워, "신학자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쇠퇴하는" 역설적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⑺ 바로 이런 모순적인 현장을 목도하고, 가장 좋은 신학 체계이지만 이미 사변화된 개혁주의신학이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살리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그 체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교회를 살리기 위한 위해 "개혁주의생명신학"이 탄생된 것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두 기둥인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명제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7대실천운동의 정의에서 잘 표명된다.[29] 또한 그 내용이 가장 잘 적용되는 자리가 바로 해마다 2주간 계속되는 신학대학원 신입생 개강수련회나 봄·가을학기 개강수련회이다. 장종현 박사가 설교로 외친 메시지의 일부를 좀 더 가까이

29)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개혁주의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믿는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 개혁주의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첫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신학을 계승하는 **신앙운동**이다. 둘째,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고백하는 **신학회복운동**이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 됨을 추구하는 **회개용서운동**이다. 넷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생명운동**이다. 다섯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하나님나라운동**이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같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나눔운동**이다. 일곱째, 오직 성령만이 개혁주의생명신학 실천운동을 가능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성령운동**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오직 성경"이란 **신앙운동**과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란 **신학회복운동**의 두 기둥 위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고 **용서**하는 실천이 '나와 너'가 변화되는 출발점이며, 이에 바탕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개혁주의 문화관의 핵심 중 하나인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하나님나라운동**과 세상과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나눔운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이것은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필연성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들어보자.[30]

>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학문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중략]
>
>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신학이 학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중략]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복음이요 생명이 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
>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신학을 왜 공부하려고 하십니까?…[중략] 처음부터 고상한 학문을 배우러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지식과 학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신학 서적과 주석을 1시간 읽었다면 2시간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을 2시간 읽었다면 기도는 3시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학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석과 공부를 5시간 하고, 성경과 기도를 1시간만 한다면 우리는 학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중략]
>
> 오늘날 개혁주의신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학문과 교리는 붙들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소홀히 함으로 복음의 생명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개혁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보다 더 좋은 신학은 없습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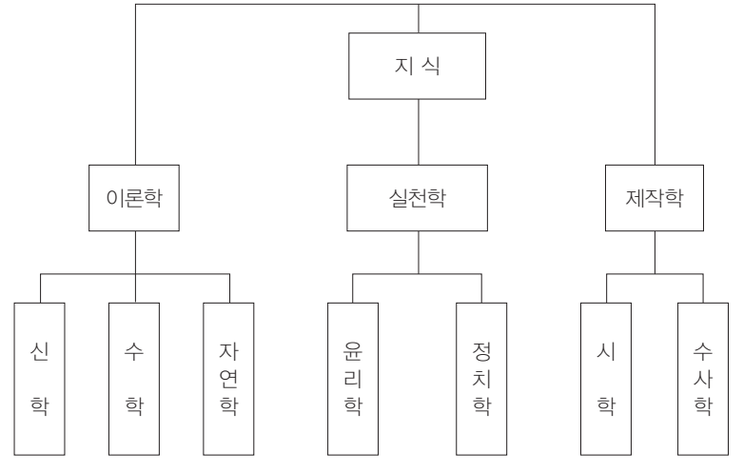
30) 65쪽으로 구성된 신학도들을 위한 소책자로서 장종현, 『개혁주의생명신학: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서울: 백석대학교대학원, 2019); 『교회를 살리는 신학』 (2019), 26-96(제1부: 개혁주의생명신학: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발췌한 것이다.

경이 최고의 권위임을 인정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자는 것입니다…[중략]

우리나라에 목회학 석사 과정이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것은 198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서구의 커리큘럼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목사님들은 다 신학교와 성경학교를 나왔습니다. 오직 성경 한 권만 부여잡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배 목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신학교들이 지금과 같은 학문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생명력 없는 서구 신학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학은 원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중략]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고대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었습니다**[역자 강조]. 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플라톤은 '테올로기아'라는 용어를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로 『국가』 2권에서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380년경입니다…[중략] 그래서 플라톤은 '테올로기아'는 학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들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신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화'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중략] 그런데 '신화'를 지칭하던 열등한 용어인 신학을 학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 도식]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신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학문은 곧 철학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세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입니다. 이론학은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고, 실천학은 올바른 행위를 추구하고, 제작학은 비례, 균형, 조화의 형식미를 갖춘 유용성을 추구합니다.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방향은 '진선미'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중략] 진리를 다루는 최고의 학문인 이론학 가운데 신학을 그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제일 철학'입니다. 신학이 철학의 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이런 신화나 인간적인 학문 연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신학이란 말이 없습니다**[역자 강조]. 신학이 완전한 계시인 성경에 기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교도들과 이단들에 맞서 신앙을 변호했던 기독교 변증가들은 이교도들을 설득하

기 위해서 그들의 방법인 철학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리를 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신앙을 변증하고,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신학이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신학은 학문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학의 학문화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은 중세 12세기와 13세기에 서구의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고 발전되면서부터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에서 '학문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에 신학이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문의 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대학에 들어오면서 학문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다른 분야들처럼 신학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철학 방법론을 신학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체계화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된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신학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계승자들입니다…[중략] 기독교는 초기부터 신학을 학문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철학자들의 사상과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신학이 학문화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세우셔서 성경을 기준으로 개혁되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신학을 공부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성경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사변화된 신학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다시 신학은 사변화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원래 신학이라는 말은 성경을 완전한 계시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 원리인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신학은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으로 분류되면서, 지금과 같은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의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각 분과의 학문들은 학문성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 중심의 연구보다는 이론적 배경과 학설에 더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학 이론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경보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때 더 권위가 있다고 느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성경보다는 학문적인 논리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신앙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신학자들이 많아지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영혼이 병들어가면서도 자신이 병든 것조차 알지 못하는 현실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게 하고, 진리 안에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신학을 학문으로 하면 깨달음을 줄 수는 있어도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다루게 되면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중략]

신학을 학문으로만 가르치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음을 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학문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과 학문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학문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복음의 도구가 될 때 학문도 살아납니다…[중략]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학이 우리의 영과 연결된다면, 학문은 우리의 육과 연결됩니다. 육도 중요합니다. 교리도 알아야 하고, 역사도 알아야 하고, 원어도 알아야 합니다…[중략] 성경의 문화나 역사적 배경이

나 문학적 방법을 이해하는 것에는 학문적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학이나 법학, 경제학과 심리학 모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익한 것입니다. 철학도, 문학도, 사회학도, 인문학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과 학문이 헛된 자랑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깨닫고,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중략]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 신학자는 절대로 신학을 학문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신학을 학문으로 하게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연구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5-6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육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학문은 우리에게 구원도, 영적 생명도 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선한 계획과 뜻을 알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실현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따를 수 없습니다. 한국 보수교단과 보수신학교에서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인데, 학문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두워지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의 학문과 철학을 예수님보다 더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학자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노회에 가서 파당을 지어 정치하고, 총회에 가서도 자기의 이권을 따라서 정치합니다. 율법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신학교가 왜 몰락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배운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만을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기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경건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 것입니다…[중략]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와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 신학은 영적인 지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께

서 말씀하신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화나 헛된 우상을 연구하던 고대 철학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라는 의미로 신학을 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자들과 신학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런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신학 책이나 신학 논문을 볼 때 새롭고 독창적인 것만을 찾습니다. 목회자들도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성도들이 기존에 듣지 못했던 새롭고 독창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새로운 것과 독창적인 것이 그들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것과 독창적인 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 쪼개는 것은, 학문성을 높이 드러내려는 인간적 교만입니다. 신학교 강의실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강조하고, 교회 강단에서 성경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학문을 우상화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인간의 교만에 불과합니다…[중략]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할 때, "모세가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말, 바울의 말이라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말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말을 믿어야 합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의 생명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중략]

목회자에게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신학을 하게 하신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된 신학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학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영혼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학업과 가정, 그리고 훈련과 사역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 유대인성경(Tanak)과 기독교 구약성경[31]

1) 삶의 표준(딤후 3:12-17): "오직 성경대로"(Sola Scriptura)

31) 가장 오래된 유대적 정경 목록은 탈무드 전통(Baba Batra 14b)의 배열 순서를 따라 구약 정경(canon)인 "히브리어 성경(Hebrew Bible)"은 "**토라**(Torah; 모세오경 5권[창~신])·**네비임**(Neviim; **전기선지서**[4권; 수, 삿, 삼, 왕] + **후기선지서**[4권; 렘, 겔, 사, 단권으로 이해하는 12소선지서])·**케투빔**(Ketuvim; **전기성문서**[7권; 룻, 시, 욥, 잠, 전, 아, 애] + **후기성문서**[4권; 단, 에, 스-느, 대]의 첫 자음들(t-n-k)에 모음을 붙여 타나크(Tanak; 24권)"라 부른다. 주전 20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72명의 학자들에 의해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그 당시 국제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Septuagint)의 전통을 따른 오늘날의 영어/한글 구약성경(39권)과는 배열 순서나 권수가 사뭇 다른 이유와 가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디모데후서 3:12-17은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핵심 요약이다. 본문이 말하는 "성경, 모든 성경"의 실체는 사도 바울이 로마 네로 황제 하에서 재수감되는 시기(주후 66-67년경)에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었기에[32]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을 가리킨다는 것은 자명하다(참조. 딤전 5:18).

[시대정신 분별] [12]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33]

32)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수감(주후 62년경)에서 풀려나(행 28:30-31), 제4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동안 기록되었다. 이때는 "셋집"에 살 수 있었다면, 재수감 시에는 일반 죄수들처럼(딤후 1:16; 2:9) 쇠사슬에 묶여 차가운 감옥에서 고생했으며, 친구들조차 그 장소를 찾기 힘들었으며(딤후 1:17), 임박한 순교를 감지했다(딤후 4:6-8). 신약의 최종 책인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후반)에 쓰였다면 적어도 아직 약 30년의 기간이 더 남아 있는 셈이다.

33) 반(反) 기독교 정서의 시대정신을 분별해야 한다. (1)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시대: 종교적 구루(guru)들이 추구하는 소위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유세보스; 경외는 회개의 출발[눅 23:40], 영적 하루살이[벧전 1:17], 예수님 만날 소망[요일 3:2-3]) 살려고 '소원하는'(쎌론테스, 빌 2:13) 자는 '누구든지 핍박을 받으리라'(불가피한 충돌[계 22:11])." (2) "악하고 속고 속이는 자들"인 불신자: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고 빛에 오지 아니함(요 3:19-20); 종교 창시자/교주들은 다 절도·강도·도적(요 10:8-10);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요(요 16:9), 그 결과는 지옥형벌이다(계 21:8, 27; 22:11, 15, 18-19); ① '안티기독교'(예: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 www.antichrist.or.kr)와 '기독교 지능형 안티'의 교활성: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고, 네티즌들의 불쾌한 감정을 자극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반(反) 기독교 정서를 퍼뜨릴 수 있으므로 기독교인의 가면을 쓰고 악플 달기; ② 인터넷을 좀먹는 이단종파: '지식검색'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그럴듯한 '질문'을 올려놓고, 스스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거짓 진리를 인터넷에 퍼뜨린다; 중국의 이단 "동방번개, 전능신교(Eastern Lighting, The Church of Almighty God)"의 유튜브 공략(영화 "낙인"); ③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질서로서의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주범으로서 헌법(법률, 대통령령, 조례)이 명시한 '양성' 평등을 '성' 평등이란 단어로 바꿔 하나님의 창조적 성(sex) 구별인 남성-여성(male-female; 창 1:27, 5:2)을 71개 종류의 사회적 성(gender)으로 구별하여, 남성은 14번째로, 여성은 21번째로 각각 놓고 있다; ④ 미신문화 확산되는 한국사회: 시장규모는 4조 원에 달하는 '점술공화국'과 역술인과 무속인 100만 시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적지 않은 무속인; 2003년부터 국립대학에도 역술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역리학과(국립공주대), 풍수명리과(서라벌대), 얼굴경영학과(원광디지털대), 혹은 동양학과, 동양문화학과, 동양사상학과, 국학과, 미래예측학과 등의 역술 관련 학위과정을 주로 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의 위력: 성경 말씀으로 진리에 견고히 서지 못하면 온갖 형태의 거짓(위장, 잠복, 반격, 혼란, 타협)에 따라 사회적 혼란과 영혼이 병들게 된다; ⑥ 종교다원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4대 속임수(참조: 창 3:4-5): 죄, 사망(천국/지옥),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유일 중보자에 대한 교활한 부정. (3) "고통하는 시대"(카이로이 칼레포이; 딤후 3:1-5; 마 8:28, "[귀신 들려] 사나운, 다루기 힘든, 고통하는"); 진리 부재 시대(암 8:11-13; 딤후 4:3-6): ① 귀신 들린 4대 주요 특징: 자기 사랑, 돈 사랑(돈 귀신에 돈 사람; '딤전 6:6-10, 17-19), 쾌락 사랑, 능력 없는 경건 모양(딤전 6:5,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② 16가지 특성: 자긍, 교만, 훼방, 부모 거역, 감사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 원통함 풀지 않음, 참소함, 무절제함, 사나움, 선한 것 좋아 않음, 배반, 팔아버림, 조급, 자고; ③ 거짓 예언자와 교회 내의 사탄의 역군: 구약의 거짓 예언자(참 예언자 미가야와 대조된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왕상 22장]; 사 30:10-11; 렘 6:4-15; 14:13-14; 겔 13:10; 33:30-33); 신약의 교회 내의 사탄의 역군(행 20:29-30; 딤전 1:20; 딤후 2:17; 4:14-15; 고후 11:13-15; 계 2:13); ④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혼돈: '돈과 쾌락'을 성공의 척도로 놓는 세속 시대정신을 '거부하는'(딛 2:12, NIV: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and to live self-controlled, upright and godly lives in this present age) 경건한 삶이 요구된다.

[성경에의 태도] [14]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a]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34]

34) (1) "배워 오는 것"(진리): 언어심리학은 알려는 열망이 건망증과 치매를 억제하는 것으로 봄; 많이 배울수록 많이 모른다는 사실을 많이 아는 '절대 겸손'을 낳는다(암 8:11-13; 마 7:14; 요 5:39; 행 17:11; 히 5:11; 6:1-2; 벧후 3:16). (2) "확신하여 오는 것"(은혜): 기계적, 애용 관념적, 편견적 성경공부를 향한 경고; 많이 배울수록 그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절대 '회개와 순종'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눅 5:5) "말씀에 의지하여"(요 2:5)라는 전적 순종을 통한 체험적 앎(마 5:19; 요 7:17; 롬 2:21-24; 고전 9:27; 엡 4:20; 약 1:21-25; 요일 3:17-18; 계 1:3; 시 23; 삼상 3:9). (3) "누구에게 배워 온 것 알며": 멘토링과 '제자'(마쎄테스=만싸노, '배우다' + 테스, '[직업으로] 하는 사람'; 행 6:1) 훈련, 코칭 리더십의 중요성; 좋은 부모/형제/스승/선배/친구/후배/제자/책/환경에 대한 9대 간구(잠 27:9, 17; 딤후 2:22; 고전 15:33-34; 히 10:24-25). (4)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3대로 대대로): ① 3대의 신앙계승("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출 3:16; 행 3:13; 7:32];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신 4:9; 6:2; 사 44:3; 59:21; 욜 1:3])은 대대로를 이룬다; ② 유대인 쉐마교육(만 3세[눈, 귀, 입이 열리는 나이]부터 매일 기상과 취침 시 신 6:4-9; 11:13-21; 민 15:37-39를 임종 시까지 3대가 함께 암송); 복 중의 복은 3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욥 42:16; 시 128:6; 잠 17:6); ③ 신약의 초대교회(딤후 1:5; 2:2"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1세대]…부탁하라[2세대]…충성된 사람들[3세대]…다른 사람들[4세대] 가르칠 수 있으리라"; 참조. 삿 3:14b-15a이 보여주는 여호수아 1세대[2:7]…그 후에 일어난 다른 2세대[2:10]…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3세대[2:11-12]…사사도 청종치 않는 4세대[2:17]; 고전 11:1; 빌 3:17[예수님 〉 바울 〉 너희 〉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영적 가족[요 19:26-27; 딤전 5:1-2; 히 13:1] 〉 교사 〉 부모[고전 4:15; 갈 4:19]); ④ 정통파 유대인들이 오늘날 그대로 전수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은 최소한 3대에 걸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일치하는가를 가족끼리 점검하고 격려하는 최소 교회공동체이다. 교회사의 애석한 교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출발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중심하는 안디옥 교회로 선교기지가 이동하면서(행 8:1; 11:19-21), 특히 바르 코흐바(Bar Kochba 〈 Simon bar Kosiba)가 로마를 대항한 반란(주후 132-135) 이후에

[성경기록 목적] [15b]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35)]

[성경기록 방법] [16a]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기능] [16b]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36)]

[성경에의 올바른 태도 결과] [17]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37)]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격감하고, 서서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로마제국에 공인된(주후 313년) 후, 오늘에 이르도록 유대교-초대기독교 공동체가 가정 중심으로 전수한 "말씀, 기도, 인성의 3대(代) 평생학습"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대체신학'(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주장)과 반유대주의(anti-Semitism)의 참상으로 치닫게 되었고, 소아시아 7교회를 예로 들어 교회의 옛 터만을 보존할 뿐인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유대인의 선민사상의 수직적 자녀교육의 성공이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약의 지상명령인 창세기 18:19가 출애굽기 19:4-6의 모세(시내 산) 언약의 '쉐마'로 이어져 오늘까지 3대(代)가 함께 '대대로' 전수함에 기인한다면, 수직적 자녀교육이 빠져버린, 즉 가정과 분리된 교회가 신약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18-20의 수평적 열방 전도(선교)만을 치중해 온 것이 그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 한국교회 역시 가정을 희생시켜서라도 교회를 성장시키려 했던 선배 목회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괄목할 만한 열매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녀들이 목회자나 사모가 되는 길을 거부하거나 신앙에서 방황하는 부작용도 가져왔으며, 아직도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가정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여 가정을 고려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의 일과표를 강요(?)하는 폐해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평생 38권의 저서와 함께 "쉐마교육과 인성교육"에 주력해 온 현용수 박사의 쉐마교육연구원을 참조하라(www.shemaIQEQ.org).

35)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성경기록의 목적에 대한 다음의 성경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눅 24:27; 요 1:45; 5:39; 14:6; 20:9, 31; 행 4:12; 13:29; 딤전 2:5; 벧전 1:10-12.

36) '교훈'(교리) 〉 '책망'(문제 지적) 〉 '바르게 함'(문제 해결) 〉 '의 안에 교육'(경건훈련)하기에 '적합'(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 성경 기능: 등과 빛(시 119:105), 샛별(벧후 1:19), 불(렘 5:14; 20:9); 방망이(렘 23:29); 칼(사 49:2; 엡 6:17; 히 4:2); 화살(사 49:2); 채찍과 못(전 12:11); 목소리(신 28:1, 15; 시 119:72); 이슬과 비(신 32:2; 사 55:10-11); 꿀(시 119:103); 금은(시 119:72; 12:6); (2) 예. 장기금식에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사형수의 근본적 변화는 성경뿐이다(한국의 희대 살인마 고재봉, 김대두, 지존파, 유영철 등의 사형 직전의 회심).

37) (1) 하나님의 사람(히, 이쉬 하엘로힘[76회]; 딤전 6:11): 선지자 엘리야(7회), 엘리사(29회)의 존재론적(Being) 별칭으로서, 따라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현대판 '선지자'이다(벧전 4:11; 요일 2:20, 27). (2)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 인격론적(Doing) 별칭으로서 교육의 이상론(엡 4:13-15; 딤후 2:21); 예. 땅콩박사 George Washington Carver(1864-1943)는 고구마로 161가지의 제품과 땅콩으로 300가지 이

2) 모세오경의 유대인 명칭: "토라, 후마쉬"(Torah[תּוֹרָה], Chum[m]ash[חֻמָּשׁ])

(1) 유대인들이 이해해 온 대로 왜 5개 분책으로 구성된 단권의 책[38)]으로 읽어야 하는가?

(2) 모세오경이 그 뒤를 잇는 구약 전체에 어떻게 인용(quotation), 인유(allusion), 반향(echo)되고 있는가?[39)]

(3) 모세오경이나 구약 전체가 신약에 어떻게 인용, 인유, 반향되고 있는가?[40)]

상의 제품을 만든 평생 독신 흑인 농예 응용학자. (3) 하나님이 '귀히, 오래 쓰시는 깨끗한 그릇'(딤후 2:20-22): 신앙 · 신앙인격 · 학문의 평균 성적(예: 요셉, 다니엘, 바울, 링컨, 조지 워싱턴 카버, 주기철, 손양원).

38)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명칭들: ① **토라**: 모세오경 187장에 '하라' 계명이 248개(신체기관의 총합), 하지 말라 계명이 365개(1년=365일), 합 613개 계명이 있으므로, '매일 온몸으로 계명을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율법"(Law)이라 이름한다; ② **오경**: Pentateuch(다섯[펜타] + 두루마리 운반통[투코이]의 합성어로서 양피지[parchment]에 오경을 기록한 것을 비슷한 분량의 다섯 운반 통에 보관함); ③ **후마쉬**: Chum[m]ash('다섯'[하메쉬]의 합성어로, 본래 '하미샤 훔쉐 토라'[율법의 1/5이 다섯]), 즉 다섯 분책으로 된 단권의 모세오경임을 강조하여, 모세오경 전체를 묶는 단일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 가능한 해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삼위일체적 복, 즉 주권·국민·영토의 팽창에 대한 언약의 점진적 성취"로 이해하여, 창세기는 국민의 복,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주권의 복, 민수기와 신명기는 영토의 복에 대한 강조점으로 역자는 이해한다.

39) 이 포괄적인 주제를 "구성적 전략"(Compositional Strategy)이라는 전문용어로 자세히 논하는 필독서를 위하여, 참조.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 A Biblical-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2), 김동진·정충하 공역,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상·하』 (서울: 크리스챤서적, 2005); *The Meaning of the Pentateuch: Revelation, Composition and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9), 김윤희 역, 『모세오경 신학: 오경의 계시와 구성, 해석과 의미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Seth D. Postell et al., *Reading Moses, Seeing Jesus: How the Torah Fulfills Its Purpose in Yeshua* (Wooster, OH: One For Israel and Weaver Book, 2018), 김진섭 역, 『모세를 읽으며 예수님을 보다』 (서울: 이스트윈드, 2020).

40) 한글 번역서는 참조. Steve Moyise,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An Introduction* (London: Bloomsbury T & T Clark, 2015[2]), 초판(2000)의 번역으로서 김주원 역, 『신약의 구약사용 입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D. A. Carson and G. K. Beale,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을 5권으로 쪼개어 여러 역자들이 번역한 『신약의 구약사용 주석 세트(전5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G. K. Beale, *Handbook on*

3) 유대인성경(Tanak)과 그리스도인 구약성경의 구조분석

신약성경은 갈라디아서(주후 48-49년, 51-53년 혹은 53-57년)나 데살로니가전서(51-52년)로 시작하여 계시록(95년)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계속 기록되는 과정 중이었으므로, 주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사용한 성경은 전적으로 구약성경이었다.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여러 용어들이 있지만,[41]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선지자들"(호이 프로페타이; 1분법),[42] "율법과 선지자들"(호 노모스 카이 호이 프로페타이; 2분법),[43] 그리고 가장 특기할 만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호 노모스 모우세오스 카이 호이 프로페타이 카이 프살모이; 3분법)[44]이다.

---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Exegesis and Interpret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이용중 역, 『신약의 구약사용 핸드북』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Kenneth Berding and Jonathan Lunde, ed., *Three views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08).

41)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용어는 ① "그 책(들)"(히, 하세페르/하세파림[출 17:14]; 헬, 토 비블리온[히 9:19, 한글개역개정은 '두루마리'로 번역]), ② "두루마리 책"(히, 메길라트 세페르[렘 36:6]; 헬, 케파릴스 비블리우[히 10:7]), 한글개역개정에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49회 사용된 "성경"(원문에 없는 '성경'이란 번역 5회[눅 4:16; 요 2:17; 5:39a, b; 행 13:29]를 제외)의 원어적 분석은 ③ "그 글"(헬, 헤 그라페; 요 2:22 등 26회); ④ "그 글들"(헬, 하이 그라파이; 마 21:42 등 18회), 참조로 ⑤ "그 거룩한 글들"(the Holy Scriptures; 헬, 타 히에라 그람마타; 딤후 3:15); "구약 = 옛 언약"(헬, 헤 팔라이아 디아쎄캐; 고후 3:14).

42) 모든 구약성경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였다는 점(롬 1:2; 히 1:1; 벧전 1:10-11; 벧후 1:19)에서 선지자들이다. 특별히 한글개역개정이 '성경'이라 번역한 원어는 "선지자들의 글"(하이 그라파이; 막 14:49)이며, "율법에 기록된 바"(고전 14:21)는 실제 "선지서에 기록된 바"(사 28:11-12)이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마 13:35) 역시 실제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시 78:2)이며, "선견자 사무엘의 글"(대상 29:29)은 사무엘서와 역대서를 선지서로 보게 한다.

43) ① "율법과 선지자들"(10회; 마 5:17[율법이나 선지자들]; 7:12; 11:13 = 눅 16:16; 마 22:40; 눅 16:16; 요 1:15; 행 13:15; 24:14; 28:23; 롬 3:21). ② "모세와 선지자들"(눅 16:29, 31; 24:27[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비교: 행 26:22, "선지자들…과 모세"). ③ "선지자들과 율법"(마 11:13). ④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행 28:23[~의 말]; 고후 9:9; 히 10:28). ⑤ 참조.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모세의 글"(고후 3:15, 원문, "모세가 읽혀질 때에"); "모세의 책"(막 12:26); "모세의 율법"(눅 24:44; 요 7:23; 행 13:39; 15:5; 28:23; 고전 9:9).

44)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눅 24:44(주후 65-70년경)에 사용된 이 3분법적 표현은 현재까지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3분법 전통인 "타나크"(Tanak)가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여기 '시편'이란 명칭은 유대인 히브리어성경의 마지막 세 번째 범주인 '성문서'의 대표명이라기보다는 앞의 이미 확정된 두 범주(율법과 선지자)에 반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것은 심지어 후대 탈무드 시대에도 성문서의 각 권의 위치가 다양함에서 그 흔적을 본다; 참조. 본 논고 각주 46). 따라서 유대인 전통에 구약의 정경 수가 22개(Josephus, *Jubilees* 2:23-24), 24개(4 *Ezra* 14:22-48, 탈무드 *Baba Batra* 14b-15a)를 보여준다. 참조. 3분법을 명시하는 벤 시락(*Ecclesiasticus*, 주전 180년경) 49:8-10; Prologue to Sirach(주전 116-110); 2 *Maccabees* 2:13-15(주전 104년과 63년 사이); Philo, *On the Contemplative* (주전 20년과 주후 40년 사이), 25-29; 4QMMT(4Q394-99, 혹은 4QHalakic Letter, "A Sectarian Manifesto"; 주전 150년)이 눅 24:44, 마 23: 35=눅 11:51의 전통과 어떤 관계인지를 상론한 MacDonald, *The Biblical Canon*, 80-99.

주 예수님(대표적 실례: 마 5:17-48; 눅 24:26-27, 32, 44-49), 사도들과 초대교회(사도행전의 설교/연설 실례: 베드로[2:14-40], 스데반[7:1-53], 바울과 바나바[13:13-41, 46-47, 비시디아 안디옥; 14:14-17, 이고니온]; 마 5:17-48; 눅 24:26-27, 32, 44-49)가 보여준 구약 성경 읽기 방식은 우리가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살핀 대로,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들, 즉 "책, 두루마리, 두루마리 책, 성경(원어 직역은 "그 글, 그 글들, 그 거룩한 글들, 옛 언약[구약], 기록되어진 것, 기록되어진 것들, 그것들, 이것들")"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나 초대교회 사도들의 구전이나 신약성경 기록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한 것과 구별되는 구약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롬 10:17; 골 3:16; 딤전 6:3), "그리스도의 교훈"(요이 1:9-10), "경건에 관한 교훈"(딤전 6:3),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호사 프로에그라페; 롬 15:4) 등의 표현은 구약성경을 가리킬 수 있다.

초대교회가 사용한 구약성경은 두 가지 종류, 즉 유대인 히브리어성경(Masoretic Text; MT)과 신약성경과 초대교회, 그리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헬라어성경(Septuagint; LXX)이 있고, 각각의 특

성을 다음과 같이 대조된다.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 [24권]			그리스도인 성경 [39권]	
토라 (5)	베레쉬트(Genesis; 50장) 쉐모트(Exodus; 40장) 바이크라(Leviticus; 27장) 베미드바르(Numbers; 36장) 데바림(Deuteronomy; 34장)			율법서 [모세오경] (5)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비임 (8)	전기선지서 (4)	예호슈아(Joshua; 24장) 쇼페팀(Judges; 21장) 샤무엘(1–2 Samuel; 31장–24장) 멜라킴(1–2 Kings; 22장–25장)		역사서 (12)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후기선지서 (4)	대 (3)	예샤야후(Isaiah; 66장) 이르메야후(Jeremiah,52장) 에헤즈켈(Ezekiel; 48장)	시가·지혜서 (5)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소 (1)	호쉐아(Hosea; 14장) 요엘(Joel; 3장) 아모스(Amos; 9장) 오바드야(Obadiah; 1장) 요나(Jonah; 4장) 미카(Micah; 7장) 나훔(Nahum; 3장) 하박쿠크(Habakkuk; 3장) 쩨판야(Zephaniah; 3장) 학가이(Haggai; 2장) 제카르야(Zechariah; 14장) 말레아키(Malachi; 4장)	대선지서 (5)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 [24권]		그리스도인 성경 [39권]	
케투빔 (11)	지혜서 (3)	테힐림(Psalms; 150장) 이요브(Job; 42장) 미셜레(Proverbs; 31장)	소선지서 (12)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오축 (5)	쉬르 하쉬림(Song of Songs; 8장) 루트(Ruth; 4장) 코헬레트(Ecclesiastes; 12장) 애카(Lamentations; 5장) 에스테르(Esther; 10장)		
	기타(3)	다니엘(Daniel; 12장) 에즈라–네헴야(Ezra–Nehemiah; 10장–13장) 디브레 하야밈(1–2 Chronicles; 29장–36장)		

이 대조표가 보여주는 아래의 질문들은 필요한 경우만 간략히 답하기로 한다.[45]

(1) 왜 유대인 구약 히브리어성경(MT)은 24권이며, 기독교 구약성경은 구약 헬라어역본(LXX)을 따라 39권인가?

(2) 왜 역사서(수, 삿, 삼, 왕)는 MT에서 '전 선지서'인가?

(3) LXX의 대선지서인 다니엘서가 왜 MT의 성문서에 있는가?

(4) '고아의 책'[46]이라 불리는 룻기서가 왜 사사기(LXX), 잠언(MT) 뒤나 시편 앞(MT)에 붙어 있는가?

(5) 왜 예레미야 애가는 아가서 뒤에(MT), 예레미야서 뒤에(LXX) 각각 있는가?

45) 자세한 논의를 위해 참조. 김진섭, 『파노라마 구약개론』 (서울: 이스트윈드글로벌, 2019), 21-31.

46) 룻기서의 정경적 위치나 '성문서'의 권수나 배열순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① 룻-시-욥-잠-전-아-애(탈무드 *Baba Batra* 14b); ② 시-욥-잠-룻-아-전-애-에-단-스-느-대(Codex Leningradensis); ③ 시-욥-잠-아-룻-애-전-에(절기용의 계절 순서를 따른 메길로트); ④ 수-삿-룻-삼-왕(그리스도인의 구약성경).

(6) **왜 12권(LXX)의 소선지서가 1권(MT)의 선지서인가?**[47]

A. 호세아-언약 위반과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

B. 요엘-포로귀환과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에서 열국 심판

C. 아모스-여호와의 날, 언약의 저주(암 5:11-12), 하나님의 공의, 남은 자 사상

D. 오바댜-에돔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

E. 요나-니느웨의 심판(구원)

F. 미가-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 실현, 메시아, 남은 자의 죄 용서, 언약성취

E′. 나훔-니느웨의 심판

D′. 하박국-유다와 바벨론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

C′. 스바냐-여호와의 날, 언약의 저주(습 1:13), 하나님의 공의(습 3:5), 남은 자 사상

B′. 학개/스가랴-포로귀환과 성전 재건, 시온에서 열국 심판

A′. 말라기-언약 회복과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

미가서는 소선지서의 모든 주제들을 골고루 포함하면서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미가 동시대의 선지자들인 **아모스**가 강조한 "공의"(암 5:24)와 **호세아**가 강조한 "인애"(호 6:6)와 **이사야**가 강조한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사 29:19)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미 6:6-8; 참조. 마 23:23).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공의와 인애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미가서는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한 죄 사함임을 명시한다(미 7:18-20). 그래서 남은 자는 죄 용서의 은혜를 통해 공의와 인애와 의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암시한다.

47) 이 질문에 대한 탁월한 답변서로서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소선지서』 (서울: IVP, 2013)의 필독을 요한다. 이하의 요약된 설명은 그의 책 39-44를 발췌한 것이다.

요나서는 미래의 남은 자들을 향해 요나처럼 대적자들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교훈한다. **나훔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자들의 죄를 간과하는 분이 아니심을 드러낸다. **하박국**은 대적자들의 승리와 성공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요나서**에서 **하박국**까지 연결해서 읽을 때 신앙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교훈한다. 요컨대 종말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남은 자 앞에는 세 종류의 장애물이 있다: (1) **요나서**에서 외부적으로 대적자에 대한 과도한 의식; (2) **미가서**에서 자신의 내적 죄의 문제; (3) **하박국**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그것이다.

소선지서의 구조에서 초두와 말미의 **호세아서**와 **말라기**는 중요한 신학적 평행을 이룬다. 호세아서와 말라기 모두 "여호와, 이스라엘의 남편"이란 사랑의 관계와 신부 이스라엘의 배교와 음행의 관점에서 언급한다(호 1:2; 3: 1; 말 2:10-16).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역시 제시된다(호 11:1; 14:3; 말 1:6). 둘 다 종말에 하나님의 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설 것을 전망한다(호 14:4; 말 4:2). '치료'라는 동일 낱말을 언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소선지서를 수미쌍관법(inclusio) 구조로 만든다.

요엘서는 종말의 시온이 그 초점이다(욜 3:17-18). 이 점은 요엘서와 짝을 이루는 **학개-스가랴서**에서 보여주는 성전에 대한 관심과 평행을 이룬다. 또한 **요엘서**와 **학개-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영(루아흐)을 공통적으로 언급한다.[48] 요엘 3장의 열국의 심판 내용은 스가

48)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는 소선지서는 요엘서와 학개-스가랴서 외에 그 중심에 있는 미가서(미 2:7; 3:8)에도 등장한다.

랴 14장에서의 열국과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스가랴 14:8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오며, 요엘 3:18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두 책 모두 금식과 애통의 문제를 다룬다(욜 1:14; 2:12, 5; 슥 7: 5; 8:19). 스가랴서는 금식과 애통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요엘서의 금식과 애통의 주제를 더욱 발전시킨다. 예루살렘 안에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욜 3:17)라는 예언과 유사한 말씀이 스가랴서 9:8; 14:21에 나타난다.

아모스서와 **스바냐서**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다는 데에 있다. 그 외에도 "사로잡힘을 돌이킨다"(슈브 쉐부트)라는 특정 어구가 반복해 나타난다(암 9:14; 습 2:7; 3:20; 참조. 호 6:11; 욜 3:1). 언약의 저주로서 창조질서의 파괴가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신명기 28:30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바, 아모스 5:11-12과 스바냐 1:13에서 동일한 어구를 발견할 수 있다.

오바댜서는 "여호와의 날" 주제와 관련해서 그날을 "형제의 날, 고난의 날, 제비 뽑던 날"로 묘사한다(옵 1:11-14). 짝을 이루는 **하박국**도 여호와의 날을 "환난 날"로 그리면서(합 3:16), 두 책 모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사건과 여호와의 날을 연결시킨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의 주제가 두 책에 나타난다.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하박국은 오바댜서와 많은 유비점이 있다. 여러 나라를 노략하고 강포를 행한 바벨론(합 2:8)에 대한 묘사는 예루살렘을 노략하고 불의를 행한 에돔(옵 1:10-11)의 묘사와 매우 비슷하다. 또한 바벨론이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합 2:9)는 진술은 에돔을 향하여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옵 1:3)로 비유한 말을 연상시킨다. 종말에 하나님의 임재를 불덩이(합 3:5; 옵 1:18)로 비유한다. 두 책 모두 하나님의 공의가 시온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다(합 2:20; 옵 1:17, 21).

요나서와 **나훔서**의 경우 주제 면에서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 외에도, 두 책의 끝이 의문문으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 나아가 12소선지서들 중에서 유독 요나서와 나훔서에는 여호와의 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7) **절기용의 계절 순서를 따라 왜 "메길로트"(오축[五軸]), 즉 "아-룻-애-전-에"인가?**

① 아가: 유월절(아 2:11-12; 렘 2:2, Nisan 14-21[3-4월])

② 룻기: 맥추절(출 23:16; 보리추수 시작[1:22]~밀 추수 끝[2:23], Sivan 6[5-6월])=칠칠절, 초실절(출 34:22)=오순절(레 23:16 LXX, '50'[펜테콘타]; '50번째'[펜테코스테 〉 Pentecost; 토비야 2:1; 마카비하 12:32; 행 2:1; 20:16; 고전 16:8])

③ 예레미야애가: 예루살렘 제1(주전 586년), 2성전(주후 70년) 파괴의 날(Tishah B'Av, Ab 9일[7-8월]); 하나님과 랑데뷰의 날, 1492년 스페인에서의 추방, 제1차 대전, 메시아 탄생일

④ 전도서: 장막절(Tishri 15-21[9-10월])=즐거움의 날=하나님 경외의 날(전 1:2; 7:4; 11:9; 욥 1:5)

⑤ 에스더: 부림절(에 9:17-18, 21, Adar 13-15[2-3월])

(8) **왜 구약성경이 역대하**(MT)**나 말라기**(LXX)**로 각각 끝나는가?**

① **역대하**(MT): 구약 정경화 과정에 유대인 히브리어성경은 역대기로 마감된다. 역대서는 모든 이전 성경(창-신, 삿-룻, 시, 사, 렘-애, 슥; 삼-왕과 관련된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오랜 역사를 재진술하여,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과거의 연속성(성전과 성전 예배 회복)과 현재의 결단(즉각적 보응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순종에 따른 평안과 복)과 미래의 메시아를 소망한다. 구약은 창 1:1의 첫 단어인 "베레쉬트"("[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시작에 있어서"; 참조. 여호야김[렘 26:1]; 시드기야[렘 27:1; 28:1; 49:34])는 모세오경의 이음새인 "베아하리트 하야밈"("후일에"; 창 49:1; 민 24:14; 신 4:30; 31:20)로 연결되며, 그 정점에 메시아의 도래로서의 성육신이 있다(단 9:25-26). 또한 '아벨의 피'(창 4:8)로부터 '사가랴(여호야다의 손자, 바가랴의 아들)의 피'(대하 24:20-22; 히 11:37, "돌로 치는 것")까지 구약 순교역사의 시종을 예수님이 요약하신다(마 23:35).

② **말라기**(LXX): 구약시대의 최후 선지자(주전 432년경)인 말라기가 예언하는 바, 3:1의 '내 사자'(마 11:7-10; 막 1:2-4; 눅 1:76)와 4:5의 '엘리야'(눅 1:17; 마 11:13-14; 17:12-13; 막 9:11-13; 9:13)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키며, 말라기 4:6을 세례 요한이 성취한다(눅 1:17).

3:1의 "너희가 구하는 바 주(학 2:7,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사 42:6,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은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③ **에스라-느헤미야-역대기**(MT), **혹은 역대기-에스라-느헤미야**(LXX): 구약역사의 종결은 에스라-느헤미야서(LXX)인가, 아니면 역대기(MT)인가? 즉 역대기가 시편의 앞(대-스-느), 뒤(스-느-대) 어디에 있는가? 역대기가 시편 앞에 배치되면, 바벨론 포로 귀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포로'의 '과거적' 성취로 이해한다. 이는 역대하의 종결인 36:22-23이 에스라 1:1-3로 그대로 중복되어, 고레스 칙령과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의 명령(단 9:25,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잘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니엘 9:24의 메시아는 바벨론 포로 귀환자 중에 존재하며, 그렇다면 신앙개혁과 예루살렘 중건으로 역사적 성취의 '과거'가 된다.

그러나 시편 뒤에 배치되면 에스라-느헤미야가 구약을 마감하는 역대하와 연결되면 새로움과 미확정의 미래를 향해 열린 종결이며, 예레미야의 '70년 성취'는 바벨론 유수에서의 귀환이 아닌 '많은 이레' 후의 메시아 오심을 본 단 9:25-26과 일치한다.

예레미야의 MT와 LXX(MT보다 1/7이 더 짧고, 배열순서도 다름; 4Q Jerb 역시)가 사본학적으로 상이한 부분은, 예레미야 25:9("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의 예언에 따라 이미 성취된 성전파괴(주전 586년)에서 성전재건(주전 516년)의 70년을 MT는 지지하지만, LXX 예레미야 25:9은 "북방의 모든 민족에 의한 영원한 폐허"라는 '미래'의 사건으로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MT 전통을 따르면, 역대기가 구약의 종결인 바, 인류의 조상 "아담-셋-에노스"(대상 1:1)로 출발하여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막 시작하는 것(대하 36:22-23)으로 끝난다. 다니엘 11장처럼 몇백 년 거의 완전한 침묵 속에 더 계속되므로, '과거'의 성취를 보여주는 에스라-느헤미야서와는 달리 역대하 36장은 이스라엘 후속 역사에 기대되는 중요 사건은 없지만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69이레 후에 '메시아 오심'(단 9:25), '메시아 죽음'(단 9:26), '성전 파괴'(단 9:26b)의 사건들인 주후 1세기로 인도한다.

다니엘 9:25("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은 70이레의 '때가 찰 때', '메시아의 도래'라는 새로운 시작의 초읽기가 출발한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 사건 외에 기다릴 것은 어떤 것도 보

류되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진정으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연결이 있음을 암시한다. "세례 요한, 시므온, 사가랴, 안나"(눅 1-2장)와 복음서 초기에 등장인물들은 누가복음 24:44의 타나크(3분법) 전통(주전 2세기 '집회서', 4Q398 frags. 14-17, col.1:2-3, "모세의 책과 선지자들과 다윗의 책")과 함께 '기독교 이전' 신자들과 동일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결말은 둘 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요 6:14)에 초점을 맞추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수 34:10-12)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자]'(말 4:4-6[MT 3:22-24]; 세례 요한/예수님[눅 1:17; 마 11:13-14; 17:12-13; 막 9:11-13])라는 '두 증인'(계 11:3)의 하나 됨을 드러낸다.

MT 전통을 따르면, "지혜롭고 형통하게" 사는 수단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수 1:8; 시 1:2-3)이란 공동주제는 선지서(수 1:1)와 성문서(시 1:1)를 정경적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 동일 언어(율법, 묵상, 형통)의 구성적 전략(지혜[신 4:6]의 원천인 율법의 묵상[수 1:7])과 '교차 인용'의 실례가 된다. 율법의 역할은 따라서 현재의 '지혜'와 미래의 '예언'으로 대조적 이해를 가져, 독자로 하여금 다른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말 4:5)에 의해 길이 예비 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신 34:10; 참조. 말 4:4)의 '새로운 선지자와 회복될 예언의 도래'라는 미래 출현에 집중하게 한다(벧전 1:10-12; 벧후 1:19).

4) 예수님이 읽으신 구약성경의 7대 주제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최상의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살피는 것이다.[49] 이것은 또한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50]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한 신약성경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quotation), 인유(allusion), 반향(echo)"하고 있는가의 문제도 결부된다.[51] 특별히 창세기(원시론)와 짝을 이루면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인유, 반향)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종말론)의 비교 연구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404절 가운데 278절이 구약을 인유(allusion)하고 있으며,[52] 이사야를 122회, 시편을 97회, 에스겔을 83회, 모세오경을 82회, 다니엘을 74회, 소선지서를 73회, 예레미야서를 48회 인용하고 있다.[53]

우리는 부활절 당일에 엠마오로 가던 실의에 찬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며 구약성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시고(눅 24:25-27, 30-35), 특별히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단숨에 돌아가 열한 제자와 그들의 동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 동안,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신(눅 24:36; 참조. 요 20:19) 예수님이 밝히신(눅 24:44-49) 구약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당신 자신에 관한 7개의 주제를

49) 참조. 표준서인 R. T. France, *Jesus and the Old Testament: His Application of Old Testament Passages to Himself and His Mission* (London: Tyndale, 1971); Charles A. Kimball, *Jesus' Exposition of the Old Testament in Luke's Gospel* (JSNTSupp 94; Sheffield: JSOT Press, 1994); Philip Yancey, *The Bible Jesus Read: Why the Old Testament Matters* (Grand Rapids: Zondervan, 2002);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컨텍스트 이해를 내포한다. 참조. Matthias Henze, *Mind the Gap: How the Jewish Writings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 Help Us Understand Jesu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7); Michael L. Brown, *The Real Kosher Jesus* (Lake Mary, FL: Frontline, 2012), 이상준 역, 『리얼 코셔 예수』 (서울: 이스트윈드, 2019); Joel B. Green and Lee Martin McDonald eds.,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50) 본 논고 각주 39를 보라.

51) 본 논고 각주 40을 보라.

52) Robert L. Thomas, *Revelation 1-7: An Exegetical Commentary* (Chicago: Moody, 1992), 40.

53) Steve Moyise,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London: T&T Clark, 2004), 16.

요약할 수 있다(참조.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에 사용한 구약성경[행 24:14-15; 28:23]).[54]

〈1〉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4복음서(예수님의 삶과 교훈)와 나머지 신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한글성경에 빨강색으로 표기한 글들을 읽어보라.

■ 행 1:4-5, 7-8; 9:4-6(시리아 Kaukab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 11-12, 15-16; 10:13, 15; 11:7, 9, 16; 18:9-10; 20:35("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것'인 '십일조와 헌물'[말 3:1]은 하나님께 드리라[막 12:17; 눅 20:25]); 22:7-8, 10; 26:14-18.

■ 고전 11:24-25, 26("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 갈 1:12("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 계 1:8, 11, 17-3:22; 16:15; 22:7, 12-16, 20.

〈2〉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구약성경의 주제)**: 눅 24:27; 요 5:39; 20:9, 31; 행 13:29; 롬 1:2-4; 고전 15:3-4('[구약]성경대로'); 고후 1:20; 딤후 3:16; 히 10:7, 9("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 시 40:7-8);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기 위해(히 1:5-14) 인용된 구약의 7개 본문(시 2:7; 대상 17:13; 신 32:43; 시 104:4; 45:6-7; 102:25-27; 110:1) 인용.

〈3〉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구약의 예언, 즉 7대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7,148개)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도록(고후 1:20) 성취되어야 한다(마 16:21; 26:2, 54, 56[〈 슥 13:7; 요 19:28[〈 시 69:21; 참조. 22:15], 30[시 22:31],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히, 키 아사). [실례] 요 19:28-30,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시 69:21),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다 이루었다"(십자가 6번째 말씀 〈 시 22:31,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키 아사]); 참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시 22:1 〉 십자가 4번째 말씀).

40일 동안 유대 광야 시험에서 마귀는 "기록되었으되"(게그랍타이; 시 91:11-12 인용[마 4:6b; 눅 4:10-11]; 참조.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라는 마귀 자신의 멸망에 대한 바로 다음 구절은 생략)로 유혹했으나, 예수님은 3차례 유혹 모두 동일한 "기록되었으되"(게그랍타이; 신 8:3 〉 마 4:4, 신 6:16 〉 마 4:7, 6:13 〉 마 4:10)로 물리치셨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187장을 54등분을 해서 매 주일마다 또 다시 7등분하여 매일 읽을 것을 정해놓고(파라샤트 하샤부아; 영어로 토라 포션[Torah Portion]), 3대가 함께 가정에서 1년에 1독 모세오경을 읽는다. 신명기 31:10-13에서 시작하여 포로에서 귀환한 학사 에스라에 의해 확실한 전통으로 자리매김한다(느 8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성경의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였다(참조. 시 40:6-8의 히 10:7-9 인용; 눅 24:44-49; 고전 15:3-4, "성경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하게 세 번 기도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대로이다(마 26:39, 42, 44; 막 14:36, 39, 41; 눅 22:42). 그 아버지의 뜻은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목소리요, 하나님의 뜻

54) 자세한 논의를 위해, 참조. 김진섭, 『파노라마 구약개론』, 32-39.

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었다(눅 10:25-26). 놀라운 것은 27절("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에서 율법사마저도 613계명들의 핵심을 예수님처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28절)고 권면하셨다. 우리는 잘 모르니 그냥 듣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타르야그 미쯔보트'(Taryag Mitzvot['타르야그 계명들']; 여기 '타르야그'의 t=400, r=200, y=10, g=3의 수치로서 총합 613), 613개의 계명을 늘 공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55]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248개 '하라' 중에 세 번째로서 신명기 6:5을 인용하는 것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206번째로서 레위기 19:18에 있기 때문이다.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42개가 모두 얽혀 있다. 흔히 율법을 제사법, 윤리법, 시민법 이렇게 나누려 하지만, 율법을 절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거기 18절에 206번째의 '하라' 명령으로 놓여 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철저히 순종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 10:7). 이것은 시편 40:7-8의 인용인데,

55) 참조. 613개 계명의 자세한 분석과 신약과의 관련성을 상론한 김진섭, "토라 '613계명'(타르야그 미쯔보트)의 현대적 의미와 적용", 「군선교신학」 14 (2016 봄): 1-44.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은 구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4〉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행 17:3, '뜻을 풀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27, 32절; 벧전 1:10-12; 벧후 1:19); '깨닫지 못한'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마 13:19).

〈5〉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메시아)의 예언 성취에 대한 7개 주제**

(1)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 창 3:15(최초복음, 아담언약), 21(인간 자력 구원과 능동적 의를 상징하는 무화과 앞가리개[7절]와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과 보혈에 의한 수동적 의를 상징하는 양 가죽옷의 대조); 시 22(1a 〉 마 27:46; 막 15:34), (31b 〉 요 19:30); 시 31(5a 〉 눅 23:46); 시 69(21 〉 요 19:28); 사 53장.

◆ 적용: 눅 9:23; 14:27; 행 17:3; 20:28; 롬 6:6; 고전 15:31; 고후 11:23-26; 13:4; 갈 2:20; 3:10(〈 신 27:26), 13(〈 신 21:23); 5:24; 6:14; 엡 2:16; 빌 2:8; 딛 2:14; 히 7:27; 9:12.

(2)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창 2:16-17(영생의 실과, 주의 만찬[요 6:53-58]); 시 16:8-11〉 행 2:25-28); 110:1〉 행 2:35); 마 16:21; 26:2(유월절과 초실절); 요 20:9("그들은 성경[시 16:10; 사 53:10-12; 호 6:2 등; 혹은 눅 24:25-27, 44-47처럼 성경 전체]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고전 15:3-4("…성경대로…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 적용: 고후 1:9, 20; 4:7-12; 빌 3:10-11; 살전 4:13, 18.

(3)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참회시(시 32, 38, 51, 102, 130, 143); 히 1:3; 7:27; 9:12, 14; 세례 요한(마 3:2, 8, 11; 눅 3:3); 예

수님(마 4:17; 막 1:15; 눅 5:32; 13:3); 제자들(막 6:12); 행 2:38; 3:19; 5:31; 8:22; 11:18; 13:24; 17:30; 20:21; 26:20; 히 6:1.

◆ 적용: 눅 23:40-43; 고후 7:9-10; 12:21; 딤후 2:25; 벧후 3:9; 요일 1:9; 계 2:5, 16, 21-22; 3:3, 19; 회개의 열매(대하 7:14; 마 3:8=눅 3:8; 행 26:20); 회개하지 않음(레 26:14-15, 18[7배 징계], 21[7배], 23-24[7배], 27-28[7배]; 회개[40-41]; 롬 2:4-5; 고후 12:21; 히 6:6; 12:17; 계 9:20; 16:9, 11).

(4)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 수단의 특정성과 목표의 보편성).

모세오경: 창 18:18; 22:18; 26:4-5; 28:14; 35:11(나라, 열방들의 회중, 왕들); 출 9:16(온 땅에 전파 〉 롬 9:17); 민 23:10; 신 28:10.

역사서: 수 4:24; 삼상 17:46; 삼하 7:25-26, 29; 왕상 8:41-43, 60-61(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땅의 모든 백성들); 왕하 19:19(땅의 모든 왕국들).

시편: 22:27-28(땅의 모든 끝, 열방들의 모든 족속들, 왕국, 열방들의 통치자; 참조. 1, 31절); 47:2(모든 백성들), 9(민족들의 방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67:1-2(민 6:24-26의 확대해석; 땅, 모든 열방들); 72:17; 86:9; 145:8-12('모든 것'이 17회)

선지서: 사 2:2-4 = 미 4:1-3; 11:9; 사 19:23-25(이스라엘, 애굽, 앗수르가 한 백성이 됨); 25:6-8; 27:13; 45:22-23(땅의 모든 끝, 모든 무릎, 모든 혀 〉 빌 2:10-11); 48:18-19; 56:7; 57:13; 59:19; 60:3-5, 12(시온 = 아브라함); 65:25; 66:20; 렘 4:1-2(이스라엘의 회개는 열방들의 복을 가져온다); 슥 8:13([이스라엘이]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복이 되게 하리라); 14:16.

복음서-행전: 마 1:1(예수님→아브라함), 2-16(아브라함→예수님); 8:11(=

막 6:6, 동서로부터[〈 시 107:3; 사 43:5-6; 49:12]; 많은 사람, 천국[연회]에 앉음 〈 사 25:6); 28:19(모든 민족); 눅 1:55, 73(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 탄생); 2:29-32(만민을 위한 구원 = 24:47); 3:4-6(모든 육체가 보리라 〈 사 40:3-5); 4:5-7(예수님께 약속된 세상의 모든 왕국의 권세와 재물과 영광에 대한 사탄의 유혹을 신 6:13으로 이김 〈 시 2:8-9); 신앙공동체에 배제된 자들의 '아브라함'의 복 회복: 18년 귀신 들린 병자(13:16), 거지 나사로(16:22, 23, 24, 25, 29, 30), 세리 삭개오(19:9), 앉은뱅이(행 3:13, 25-26[〈 창 12:3]).

서신: 롬 1:5(모든 민족 = 16:26 갈 3:8; 믿어 순종[= 스스로를 축복]); 3:29-4:25(아브라함처럼 이신득구의 보편성); 4:11-12; 10:12-13(유대인과 헬라인의 주 예수님 〈 욜 2:32); 갈 3:6-9, 14, 16; 26-29(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녀가 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계시록: 5:9-10; 7:9-10.

◆ 적용: 아브라함에게 약속; 예수님의 성취; 새 창조에서 완성(마 24:14; 28:18-20; 행 1:8).

(5)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초대교회(행 1:8; 2:22, 32; 3:15; 5:32; 10:39, 41; 13:31; 22:5, 15, 20; 26:16); 딤전 6:12; 딤후 2:2; 히 12:1; 증인(martus)은 결국 순교자(martyr)이다(행 7:58-60; 20:24; 계 2:13; 17:6).

◆ 적용: 벧전 2:9; 3:15; "전도란 한 거지가 생명의 떡-물을 공짜로 어디서 얻는지를 다른 동료 거지에게 결사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왕하 7:9).

(6)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눅** 24:49; **행** 1:4): =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짐"(눅 24:49) =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행 1:5).

(a) **오순절에 시내 산에 강림하신 성령님**: 출 19:11("셋째 날[오순절]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6("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19("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18("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b) **오순절 시내 산 강림을 사모함**: 사 64:1-3("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섶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장로교감리교 선교사연합 성경연구 모임의 토마스 하디와 원산부흥운동(1903 여름); 평양대부흥운동(1907. 1.2-15; 한국 오순절)과 100만 구령 전도.

(c) **내가…너희에게 보내리니**: 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롬 8:9; 벧전 1:11), '예수님의 영'(행 16:7), '예수 그리스도의 영'(빌 1:19), '그의 아들의 영'(갈 4:6); ② '성령-그리스도론'(Spirit-Christology): 눅 1:35(성령님으로 잉태); 3:22(공사역 시작 전; 아들의 인치심[공 사역 구별 표지; 요 6:27; 요일 5:7]); 4:1(광야 시험), 14(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심), 18, 21(〈 사 61:1-3; 공사역 시작); 요 3:34(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심); 행 10:38(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 요 14:12("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히 9:14(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 롬 8:11; 벧전 3:18(성령님에 의해 살리심); ③ 성령세례 약속: 마 3:11=눅 3:16("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막 1:8("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 1:33("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행 1:5, 8; 2:4, 16-21(〈 욜 2:28-29), 38; 11:16; ④ 너희='모든 육체…누구든지'(욜 2:28…32): 민 11:29; 갈 3:28; 요 14:26; 15:26-27; 16:12, 13; 20:22; 행 2:17, 39(모든 먼 데 사람); 롬 11:11-24.

(7)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a) **위로부터 능력**(〈 사 32:15): 욜 2:28-29; 사 32:15; 44:3; 겔 39:29; 슥 12:10; 13:1; 눅 1:35; 행 1:8; 2:4, 17; 4:8, 31; 5:3; 6:3, 5; 7:55; 8:16; 9: 17, 31; 10:44; 13:2, 4; 15:28; 16:6; 19:2, 6; 행 8:4-8(사마리아, 12[세례], 14[성령 받기를 기도], 16[성령 내리신 일이 없거늘], [17-18] 안수로 성령 받는 것 보고); 행 11:14-15(고넬료 집; 성령님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같이); 행 18:24(에베소, 요한의 세례만[아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 행 19:1(에베소;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안수하여 12명쯤에 성령 임하고 방언 예언[4-6절]); 마 16:16(신앙고백) 후 성령세례 약속.

(b) **입혀질 때까지**: 삿 6:34(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혔다); 대상 12:18("[여호와의] 영이 아마새를 옷 입혔다"); 옷이 날개, 권위 사명 표지; "내 소유/보물"(출 19:5), "제사장 왕국, 거룩한 백성"(6절); 출 28:12, 21, 29(12보석 판결 흉패, 어깨 2 보석), 청색 겉옷(31), 금방울(33), 머리 패(36, 여호와께 성결-죄책 기억); 계 22:14(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3:4(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3:18(흰옷), 6:11(흰 두루마기); 7:9, 13(흰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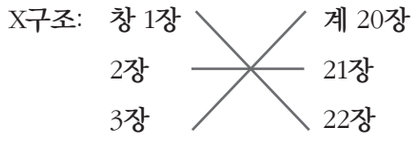
(c) **이 성에 머물라**: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님처럼 죽음(순교)으로 복음 전할 능력; 사 44:3; 욜 2:28-32; "몇 날(= 10일)이 못 되어"(행 1:5);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행 2:1; 유월절-초실절-오순절).

◆ 적용: 눅 11:13; 행 15:28("성령님과 우리는"); 16:31; 엡 5:18; 4:30; 살전 5:19; 약 4:3, 5;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5) 구약·신약 성경의 대하이야기(Big Picture, Grand Story, Metanarrative)

주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사용한 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약성경이라면, 오늘 여기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 구약성경이 동일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약성경으로 맥을 이어 전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다면 이 구·신약성경을 관통하는 보다 더 "큰 그림, 장엄한 이야기, 대하(大河)이야기"(Big Picture, Grand Story, Meta-Narrative)는 무엇인가라는 자연스런 질문이 생긴다.[56]

그 해답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도표로 요약할 수 있다.



간략히 요약한다면, ① 서론: 하나님의 우주/인간 창조(창 1-2장); ② 본론: 인간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창 3장-계 20장); ③ 결론: 하나님의 우주/인간(은혜왕국) 완성(계 21-22장)으로 구성되며, 창세기 1장과 22장이 대칭이 되어 "태초에"(창 1:1)로 시작된 시공간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로 완성될 것이며, 창세기 2장의 에덴동산이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성취될 것이다. 성경의 본론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창 3:1) 뱀으로 시작하여, "용, 옛 뱀, 마귀, 사탄"(계 20:2)의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종결될 것이다.[57]

서론에서 우주/인간 창조에 나타난 ① 3위 1체 하나님의 동역(창 1: 1-3, '하나님'[성부], '하나님의 영'[성령], '이르시되'[성자][58]; 창 1:26, '우리', '하

56)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로 통전적 이해를 돕는 김진섭, 『파노라마 구약개론』, 48-74; Vaughan Roberts, *God's Big Picture: Tracing the Storyline of the Bible*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02); Craig G. Bartholomew and Michael W. Goheen, *The Drama of Scripture: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Wayne Grudem, C. John Collins, and Thomas R. Schreiner, *Understanding the Big Picture of the Bible* (Wheaton, IL: Crossway, 2012); David Limbaugh, *The Emmaus Code: finding Jesus in the Old Testament*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2015), 주지현 역, 『슬기로운 구약읽기』 (서울: 좋은씨앗, 2018)를 참조하라.

57)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언약, 새 이스라엘, 새 피조물"의 관점에서 살핀 William J. Dumbrell, *The End of the Beginning: Revelation 21-22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The Moore Theological College, 1983)를 참조하라.

58)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는 지혜"(딤후 3:15b)라면, 우주/인간 창조를 밝혀주는 서론(창 1-2장)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구원을 만끽할 수 있는가를 간략히 살펴보자. ① '하나님이 가라사대'(바요메르 엘로힘; 12회[1:3, 6, 9, 11, 14, 20, 24, 26, 28, 29; 2:18, 23]; 요 1:1-3, "[1]태초에 말씀이…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with)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만물이 그로 말미암아(through)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 1:16, "만물이 그에게서(in)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through) 그를 위하여(for) 창조되었고." ② 히브리어 '다바르'는 '말씀'과 '사건'이란 이중 의미가 있다(예수님의 성육신,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수 21:45,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말'로부터 어떤 '일/말'도 '떨어지지 않았다'(동일 표현인 삼상 3:19)"; 사 40:26; 44:24-28; 48:13; 50:2; 55:11; 렘 36:1-7[주전 609년 가을; 7:1-7 참조]; 20-26, 27-32[주전 601년 가을]; 겔 37:4; 시 33:6, 9; 104:7; 147:4, 15-18; 148:3-5. 참조. 고후 1:20; 딤후 2:9; 롬 4:17; 히 11:3; 벧후 3:5. ③ '아름다운 세상성'(딤전 6:17b): "예수님 안에서, 통해서, 위해서"(골 1:16) 지음 받은 자연세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롬 1:20)은 찬송가 32장의 가사처럼 비교할 수없이 "더 아름답고 순전하며 찬란한" 주 예수님을 찬양하게 한다(참조. '창조주' 찬양[63-77],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478장, "참 아름다워라"). ④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하나님 형상'인 사람(창 1:26-28; 2:21-25; 참조. 5:2; 고후 5:17; 엡 4:24):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이르시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유독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 사람(몸)을 손수 빚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이루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형상의 본체(고후 4:4; 골 1:15; 히 1:3)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랑)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신부)가 '한 새사람'(엡 2:14-15)을 이루는 원리이다. 이것이 바로 신적 기관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엡 5:22-6:4, 아내-남편-자녀-부모의 중심점), 몸된 교회의 머리와 구주도 예수님이시다(엡 1:22; 5:23; 골 1:18). ⑤ 사람 중의 사람이신 주 예수님(창 1:27; 2:7, 21-24; 5:2): 히 2:14-15,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코이노네오; 남편과 아내의 성적 '교제함'[코이노네오]으로 자녀 출생이 자연법칙),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메테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님에 의해[마 1:18; 눅 1:35; 갈 4:4; 참조. 창 3:15, '여자의 씨'; 미 5:3,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요 19:26, "여자여…"] 탄생하신 초자연법칙) 사람 중의 사람이요, 참 사람이시다. 성령님에 의하여 흙의 먼지로 빚은 아담(창 2:7)과 아담의 갈빗

대로 만든 하와(창 2:21-23)로 구성되는 인간 창조(창 1:27; 2:24; 5:2)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참 사람'은 주 예수님이다(참조. 예수님의 성육신의 계보의 궁극적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이심을 보여주는 눅 3:38,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포로 귀환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의 기원과 목표를 하나님의 인간창조에 두는 대상 1:1, "아담, 셋, 에노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죄성, 죄행위, 죄습관, 죄오염)는 전혀 없으시며(히 4:15; 마 4:1-11), [십자가 대속] 죽음을 통하여 [영적-육적-영원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이긴 전쟁의 게릴라 소탕전),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고전 15:45-47, 십자가 죽음으로 범죄한 옛 인류, "'첫 사람 아담', '생령'[프쉬케 조사=창 2:7, 네페쉬 하야], '육의 사람'[프쉬키코스, 고전 2:14; 유 1:19, '그 속에 성령님은 없는' 불신자], '땅에서 [났으니; 원문에 없음] 흙에 속한 자[코이코스, 티끌]'"의 종지부를 찍은 마지막 아담인 동시에 부활로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시는 "'살려주는 영'[프뉴마 조오포이운], '신령한 사람'[프뉴마티코스, 고전 2:15], '하늘에서 [나신'; 원문에 없음]; 참조. 골 1:15, 18('먼저 나신 자'[프로토토코스]); 요일 5:18,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호 겐네쎄이스 에크 투 쎄우]'" 둘째 사람이시다(참조. 롬 5:12-21). ⑥ '참 빛'이신 예수님(창 1:3): 요 1:9-10,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 첫날에 "빛이 있으라"(창 1:3)는 명령에는 성부('하나님이')와 성자('이르시되')의 내재적이며 경륜적인 신비가 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는"(사 9:2; 마 4:16; 눅 2:32) 메시아 예언은 놀랍게도 '이방의 빛'(사 42:6; 49:6; 행 26:23)과 '세상의 빛'(요 8:12; 9:5)으로 오신 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고(마 4:15-16; 눅 2:32; 요 1:4-5, 7-9; 3:19; 9:5; 11:9; 12:35-36, 46; 고후 4:6), 마침내 빛이신 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만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요 14:6)을 분명하게 밝히며 안내하는 세상의 빛이 될 수밖에 없다(마 5:14, 16; 13:43; 눅 16:8; 요 8:32; 행 13:47; 고후 4:6; 6:14; 엡 5:8-9; 빌 2:15; 살전 5:5; 벧전 2:9; 요일 2:10). ⑦ '계명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창 2:16-17; 롬 10:4):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주신 계명(미쯔바 〈짜바, 창 2:16, '명하여')의 본질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창 3:22) 것이었으나, 창조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왕 노릇 하게 되었다(롬 5:12). 모세를 통해 주어진 613개('하라' 248개 + '하지 말라' 365개)의 율법(계명)은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갈 3:10; 참조. 약 2:10-11)는 정신을 따라, "범죄를 더하게 하는"(롬 5:20, 참조. 롬 3:19-20; 4:15; 7:7-9; 고후 3:6; 갈 3:19; 즉 인간의 본성은 '하라'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영적 청개구리 같으므로, 율법이 죄인을 더욱더 죄인 되게 함) 결과로 인해, 율법의 저주로 "나무(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다"(갈 3:13 〈 신 21:23).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갈 3:13) '율법의 마침'(텔로스 노무, 롬 10:4), '율법의 완성'(플레로마 노무, 롬 13:10; 마 5:17; 롬 8:34; 갈 4:4-5)이 되셔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롬 3:28; 갈 2:16; 3:2, 5, 11; 빌 3:9),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자기 안에서 한 새사람을 만드셨다"(엡 2:15). ⑧ '참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님(창 2:16; 3:22): 에덴동산의 각종 실과들을 '먹고 먹어라'(아콜 토칼, 창 2:26)는 복된 계명의 절정은 말할 것도 없이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였다. 범죄한 인류에게 제공된 최상의 음식은 이스라엘 광야여정에 예표로 제공된 '만나'(출 16:4; 민 11:7; 요 6:31; 고전 10:3)와 '생수'(출 16:2-36; 17:1-7; 민 20:2-11; 21: 16; 고전 10:4)의 실체로써 영생하게 하는 참된 양식이요 음료인 주 예수님의 '살과 피'(요 6:53-58)이며, '주 예수님의 나님 형상'; 창 2:7, '생기'[성령]를 땅의 티끌로 빚은 인간의 코에 불어 '생물'이 되게 하심); ② 창조언약 아래 창조의 문화-선교적 제도로서의 '노동'(창 1:28; 2:5, 15)-'안식'(창 2:2-3)-결혼(창 2:24-25); ③ 창조언약 아래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인 '하라'와 '하지 말라'(창 2:16-17)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본론인 "인간 타락과 하나님 구속(救贖)"은 '뱀'(창 3:1; 계 20:2)을 중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이 아니면(요 3:5; 롬 8:9; 고전 2:14; 12:3) 절대 해답이 없는 인류 역사 전체를 조망한다. 뱀(용,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하와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불순종하였던 인류 타락(죄-사망)의 기원과, 동시에 아담을 은혜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찾아오시고, "여자의 씨"로 오실 주 예수님을 중심한 구속역사가 창세기 3:15(아담언약, 최초복음)에서 전개된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여자의 씨와 뱀 사이에 확정하신 3중 '원수관계'(히, 에바, enmity)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롬 5:12-21; 계 22:11; 참조. 창 2:16-17).

구약(창 3장-대하 36장/말 4장)은 사탄의 "죄와 사망의 왕국" 건설을 향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사 59:1-8), 무능(사 59:9-15a)과 하나님의 "은혜(칭의-생명) 왕국" 건설을 향한 무조건적, 제한적, 불가항력적, 영단번적 구속(사 59:15b-21)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선택한 특정한 수단인 '네[아브라함, 이스라엘, 예수님] 안에서' 보편적 목표인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창 12:1-3; 갈 3:6-14)[59] 긴장과 기대, 성취와 미

만찬'(고전 11:20, 23-32)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감각적 은혜로 기억하게 된다.

59)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며, 너를 깔보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원

성취의 이야기이다.

신약(마 1장-계 20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마 1:1)인 주 예수님의 성육신(요 1:14; 갈 4:4; 히 2:14)으로 말세가 시작되었고(히 1:2),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과 "땅 끝까지"의 성장을 통하여 사탄의 "견고한 진이 파괴되고"(고후 10:4), 마침내 사탄과 불신자들이 지옥 즉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계 20:10, 15)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승리를 확신한다. 말세의 끝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는 인간타락과 하나님 구속의 양극화 현상을 목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아니면 파멸이라는 경고를 체득하고 있다.

성경의 결론은 역사의 완성("영화, 재창조"라고도 부르는)에 대하여 계시록 21-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문 사역)는 선언이 "'네 안에서'(베카[בָּךְ]; 수단의 특정성) '땅의 모든 족속'(콜 미셔페호트 하아다마[כֹּל מִשְׁפְּחוֹת הָאֲדָמָה])이 '복을 얻을 것이라'(베니브레쿠[וְנִבְרְכוּ]; 목적의 보편성)"는 변개할 수 없는 이중 구도로 약속되었고, 역사가 흐름에 따라 그대로 성취되어갔다: 아브라함(창 12:3; 13:16; 15:5; 17:4-8; 18:18-19; 22:17-18); 이삭(26:2-4); 야곱(28:13-15; 32:12; 35:11-12; 46:3; 48:4); 모세(출 3:6-8; 6:2-8). '큰 나라'(고이 가돌[גּוֹי גָּדוֹל]; 창 12:2; 출 32:10; 신 4:6-8)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은혜왕국"(참조. "[설계 도면을 따라] '잘라서 모양을 내는' 왕국의 심장부인 신전/왕국의 건축 진행 과정으로 묘사되는 우주창조[창 1:1-2: 3]; 우주창조와 평행본문을 이루는 성막 설계와 완성[출 25-30; 35-40])의 건설을 위해서 총체적이며 보편적인 '목표'(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복 주시려는 의도)와 특별한 '수단'(그 목표 성취를 위해 '네[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앙공동체[이스라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균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창 12:3)는 아브라함 언약을 신약은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진 복음**"(갈 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프로이두사]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프로유앵겔리사토], '모든 족속'[판타 타 에쓰내]이 '네 안에서' [엔 소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으로 이해한다. 열방에게 보편적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교의 수단("네 안에서")로 선택하시는 특정성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눅 24:47; 참조. 행 4:12). 아브라함에게 "미리 선포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성취되었고, 새 창조에서 '한 새사람'(엡 2:15)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묘사된다. 타락과 구속이 뒤엉킨 인류역사에서 쓰라리게 맛보던 것들—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해와 달, 밤, 등불; 눈물, 병, 사망, 애곡; 불신자, 불경건자, 불의한 자, 공포자,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개 같은 자, 거짓말쟁이; 속된 것, 가증한 일, 저주—은 다 없어지고, "태초에…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창 1:1, 31) 창조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계 21:11, 23)을 완성하는 것이다.

계시록 21-22장은 인간이 사후에 갈 곳이 양자택일적인 '지옥행'과 '천국행'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받는 자에게는 '마라나 타'(주여, 오시옵소서)이나, 심판받는 자에게는 '아나쎄마'(저주를 받을지어다)임을 천명한다.[60]

60) (1) 천국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계 21:16, 정육면체): ① 정육면체, 12,000스다디온(192m) = 2,302km(16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11절);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18절) ② 크고 높은 성곽(12절); 높이 144규빗=65m(17절) ③ 성곽 12기초석(19-20절;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과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14절) ④ 12천사의 12문(4방향 각 3개; 각 문마다 한 진주)과 그 위에 12지파(12-13절) ⑤ 성의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길(21b) ⑥ 해/달(23절)-밤(25절; 22:5)-속된 것과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자(27절)-저주(22:2)-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21:4) ⑦ 생명수 샘물, 생명수 강(수정같이 맑은), 강 좌우(달마다 12가지 열매;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의 생명나무(22:2) (2) 지옥행(16:12-16; 17-18장; 19:19-20; 20:10-15): 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8 범주의 불신자; 21:8). ②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3 범주의 불신자; 21:27).③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6 범주의 불신자; 22:15). ④ "[18]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2 범주의 불신자; 22:18-19). ⑤ "[1]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성경적 창조사관은 인간이성(理性)이 사유(思惟)해 낸 허무한 동양적 윤회사관이나, 가나안 바알 종교적 윤회사관이나(사사시대 310년간 바알 종교와의 혼합 후[삿 3:5-6; 10:6] 신앙의 '되돌이' 걸음 참조), 맹랑한 서구의 진화론적 직선사관과 결코 공존할 수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조로 시작되어(창 1-2장),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 노릇 하였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것이다"(롬 5:17)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인간 타락과 하나님 구원으로 진행되어(창 3장-계 20장), 인간은 언제나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계 22:11상) 타락의 역사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 되게 하시는"(계 22:11하) 구원의 역사이다. 역사는 마침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마라나 타; 계 22:20)라는 완성으로 분명히 마감될 것이다(계 21-22장).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History is His Story)라는 말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계 22:13)고 선포하시는 주 예수님 중심의 언약적 구원사관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헬, 에크; 창조-재창조), 주로 '말미암고'(헬, 디아; 섭리-성화), 주'에게로'(헬, 에이스; 심판-영화) 돌아가기에"(롬 11:36),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연대(年代)"로 역사를 조명해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창조사관과 구속역사 및 언약신학에 기초한 모든 학문의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6 범주의 불신자; 골 3:1-6).

통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주 예수님은 모든 학문의 영역에도 주인되심을 주장할 "분야주권"(sphere sovereignty)의 개혁주의 문화관-세계관을 가지고, 진화론적 인본주의와 종교다원화의 세속정신이 팽배한 학계와 교계 앞에서 복음진리의 나팔수 역할을 계속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5대 솔라와 7대 실천운동으로 "중생한 학문수행"의 올바른 질문과 그 신앙고백적인 해답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6) 구약성경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주 예수님(대표적 실례: 마 5:17-48; 눅 24:26-27, 32, 44-49)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사도행전의 설교/연설 실례: 베드로[2:14-40], 스데반[7:1-53], 바울과 바나바[13:13-41, 46-47, 비시디아 안디옥; 14:14-17, 이고니온])가 보여준 구약 성경 읽기 방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 중요한 주제는 설교학적 관점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최근 진행되어 왔다:[61] 미국 Calvin 신학대학원 설교학 은퇴교수인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 1935~)의 "그리스도 중심적(Christocentric) 해석, 7가지 통로, 구약본문에서 설교 작성까지의 10단계"와[62] 피부과

61) 이 논제에 대하여 Eric S. Price, "Comparing Sidney Greidanus and Abraham Kuruvilla on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Trinity Journal* (2018): 69-93의 도움을 크게 입었으며, 그 내용을 발췌 요약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인용 페이지를 생략했음을 밝힌다.

62)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A Contemporary Hermeneutical Method* (Grand Rapids: Eerdmans, 1999), 김진섭 외 공역,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나의 현대적 해석학 방법론』 (서울: 이레서원, 2002). (a)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7가지 통로**: ① **점진적 구속사**: 창조, 타락과 구약의 구속 사건들을 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의한 완성에 연결;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녀로 소개되는 예수님의 족보(마 1:1)로 시작되는 신약. ② (오실 메시아) **약속**과 (다중) **성취**: 예. 마태복음에 10회 사용된 구약 인용 형식인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③ **모형/예표**(type):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제로 유비와 확대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원형"(antitype)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구약의 구속적 사건, 인물, 제도들; 예. 교회의 모형인 이스라엘의 광야생활(고전 10:11);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롬 5:14). ④ **유비**(analogy): 구약의 교훈과 예

전문의이자 댈러스 신학대학원 "설교와 목회" 분과의 연구교수인 **쿠루빌라**(Abraham Kuruvilla, 1962-)의 "문단신학(Pericopal Theology), 그리스도 형상적(Christiconic) 해석과 적용"이 그것이다.[63]

수님의 교훈 사이, 혹은 구약의 메시지의 목표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하나 이상의 목표 사이를 연결: 예. 새 아담인 아브라함; 노아와 요셉; 노아 '방주'[테바]와 모세의 갈대 '상자'[테바]; 모세와 사무엘; 여호수아와 다윗; 이스라엘의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과 교회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등. ⑤ **통시적**(성경신학적) **주제들**: 신약의 예수님께 이르는 하나님의 왕국과 섭리, 언약,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의, 특정 율법들, 구속, 어린양의 피, 제사제도 등. ⑥ (신약의) **구약 사용**: 참조. 본 논고 각주 40. ⑦ **대조**: 구약 메시지와 예수님의 교훈의 불연속성: 예. 가나안 7족속 진멸 명령(신 7:1-6)과 대조된 모든 족속의 제자화 명령(마 28:19-20); 산상설교에 5개 실례로 지적된 랍비들의 토라 해석에 대조된 예수님의 교훈(마 5:21-48). (b) 구약의 다양한 **장르 실습**(내러티브, 지혜문헌, 묵시문헌, 시가서)을 통한 "설교문단"(pericope)에 따라 본문을 선택하여 "구속적-역사적-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작성함에 이르는 **10단계**: ① **창세기(내러티브)**: 문단을 따른 23개 설교인 *Preaching Christ From Genesis* (Grand Rapids: Eerdmans, 2007), 강정주 외 공역, 『창세기 프리칭 예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② **전도서(지혜문헌)**: 문단을 따른 15개 설교인 *Preaching Christ From Ecclesiastes* (Grand Rapids: Eerdmans, 2010), 전의우 역, 『전도서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포이에마, 2012). ③ **다니엘서**(묵시문헌): 6개 내러티브와 4개의 환상과 함께 11개 설교 문단으로 구성된 *Preaching Christ From Daniel: Foundations for Expository Sermons* (Grand Rapids: Eerdmans, 1989). ④ **시편(시가서)**: 성서정과(*Revised Common Lectionary* [Nashville: Abingdon, 1992])에 맞추어 교회 절기력에 유용한 22개 설교인 *Preaching Christ From Psalms: Foundations for Expository Sermons in the Christian Year* (Grand Rapids: Eerdmans, 2016).

63) 독신의 은사를 지닌 쿠루빌라는 그레이다누스와 유사하게 먼저 "이론적 정립과 설명"을 위해 4권의 책을 출간했다. 그는 설교하려는 의미 단락의 본문을 "문단"(pericope)이라 부르고, 각 문단이 갖는 "문단신학"을 추출하고 "요지"(thrust)로 정리하여 청중의 필요를 향한 "그리스도 형상적 해석과 적용"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다. (a) **문단신학**: *Privilege the Text!: A Theological Hermeneutic for Preaching* (Chicago: Moody Publishers, 2013). "문단신학은 ⓐ 어떤 특정한 문단이 갖는 구체적인 신학으로, ⓑ 정경의 본문 앞에 있는 완전한 세상의 한 조각을 설명하는 ⓒ 하나님과 또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그것은 역사를 초월하는 의도를 지니고 본문에서 실행으로 설교학적 이동을 함에 있어서 본문의 권위와 청중의 환경 모두를 존중하는 결정적인 매개로서 기능한다"(p. 111). "문단신학"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해 보자. ⓐ 이것은 구약의 주어진 문단의 독특한 신학적 메시지가 설교학의 초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쿠루빌라의 핵심이다(pp. 27-28). 설교를 위한 주어진 문단의 신학을 경시함은 먼저 신학교육에서 성경학 교수와 설교학 교수 사이에 간극을 초래하며, 설교자 역시 본문에서 설교로 이동하는 과정이 불투명해진다고 지적한다(p. 28). ⓑ 여기서 그는 "어떤 본문이라도 해석하는 학문"(p. 32)인 일반해석학을 도입하여 문단신학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밝힌다. 어떤 작가는 삶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의 비전을 소통하기 위해 어떤 본문을 작성한다. 이 비전이 "본문 앞에 있는 세상"(p. 39)이다. 이 세상을 통하여 "본문의 제한들 너머 어떤 세상을 독자에게 투사하는 삶의 견해가 묘사된다"(p. 41). 이 삶의 견해는 "독자가 어느 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그 세상의 요구들에 부응함으로 반응하도록"(p. 41) 부른다. 이리하여 모든 본문은 암묵적으로 독자에게 어떤 요구를 부과한다. 정경으로서의 성경은 그 궁극 저자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를 묘사한다. 성경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일치하여 살도록 부르신다. ⓒ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정경적 세상의 주된 내용이다. "하나님과 또한 자신의 피조물과의 관계"가 모든 성경의 주제이므로 모든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부르신다(p. 32). "문단신학은 본질적으로 신적 요구를 지닌다"(p. 28). 각 문단에 내포된 신적 요구는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며, 이리하여 해석학과 설교학의 가교 역할을 한다. 그는 이 신적 요구들이 구원론의 맥락 내에 위치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절대적인 의지력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아니다(p. 203). 오히려 순종이 하나님과의 사전의 관계라는 맥락 안에서 발생하며 성령께서 순종할 능력을 그 안에서 부여하신다(p. 209). 요약하면, "관계성이 책임을 선행(precede)하지만, 관계성이 책임을 배제(preclude)하는 것은 아니다"(p. 190). ⓓ 문단신학은 다양한 정황들과 환경들에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경 본문은 그 본문이 생성된 원래의 역사적 상황 너머 상황들에서 독자들에 영향을 끼치므로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는 "술 취하지 말라"(엡 5: 18a)의 원래의 문화적 정황에서는 그 당시 유일한 술인 포도주였지만 그 명령의 역사를 초월한 의도는 만취(inebriation)를 방지하는 것임을 실례로 들어(p. 58) 이 개념이 설교 적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리하여 본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맥주나 보드카로 만취되는 것을 금하는 것은 그 본문 앞에 있는 세상과 일치하는 것이다(p. 58). 요약하면, 문단신학은 성경의 어떤 특정 본문에 구체적인 신학이다. 이 신학을 이해함은 설교 적용의 근거를 제공한다. 새로운 환경들을 다루기 위해 어떤 성경 본문을 설교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단신학이 묘사하는 본문 앞의 세상과 일치해야만 한다. (b) **그리스도 형상적 해석과 적용**: 그는 "특별히 구약 본문들의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꼭 맞는가?"(p. 238)를 질문한다. 그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학자들이 모든 구약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유들을 개관한 후 그것들이 설득력이 없음을 발견한다. 특히 구약 인물들을 도덕적 본보기들로 사용하기를 금지하는 그들의 태도는 신약 자체가 구약 인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롬 15:4; 고전 10:6; 눅 4:23-27[〈 왕상 17:8-24]; 롬 4장과 9장[〈 창 15, 17, 18, 21, 25장 등]; 딤전 2:12-15[〈 창 2-3장]; 히 3: 7-4:11[〈민 14-21장]; 약 2:12-26; 5:10-28[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엘리야]) 반대되기 때문이다(p. 242). 그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에 대해 가하는 주된 비평은 각 문단을 신약 구원론에 부적절하게 연결시킴으로 문단신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이 감지된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그리스도 형상적 설교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고후 5:21; 히 4:15; 7:26), 성경의 각 문단은 그리스도를 닮음의 한 단면, 그리스도의 형상의 한 부분, 즉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그 문단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을 성취함을 실제로 묘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pp. 259-60과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해설인 각주 120). 말하자면 각 문단신학은 신적 요구의 한 국면을 보여주며 우리로 그것에 맞추어 살도록 부르신다. "이리하여 문단들의 신적 요구들이 순서적으로 부응하므로 각 문단의 신적 요구를 성취함에서 신자는 점진적으로 더욱 그리스도같이 된다"(p. 260). 이 접근법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요구들에 순종하신 모델로 강조한다. 이런 방식으로 설령 칭의나 영화와 같은 전통적인 구원론의 범주들에 설교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도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다. 쿠루빌라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함은 이것보다 더 광범위하여 우리가 구약 문단들의 신적 요구들을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그의 저서들로서 참조. 영국 Aberdeen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단행본인 *Text to Praxis: Hermeneutics and Homiletics in Dialogue* (London/New York: T&T Clark, 2009); *A Vision for Preaching: Understanding of the Heart of Pastoral Ministry*

우리는 다음과 같은 평가로써 두 접근법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함으로 보완적 종합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두 접근법의 다른 강조점들

[그레이다누스]	[쿠루빌라]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리스도 형상적 설교
하나님–인간 관계의 하나님 편 강조	하나님–인간 관계의 인간 편 강조
하나님의 대표자인 그리스도	참 인간의 대표자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적 연결들	도덕적 명령들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반응

그레이다누스는 설교에 개별 본문은 거의 고려 않고 전체 정경의 역할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강조한다면, 쿠루빌라는 설교에 정경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본문의 유일성의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강조한다. 그레이다누스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아닌 것에 대해 논쟁적이라면, 쿠루빌라는 최소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 비평적이다. 따라서 둘의 양립은 불가능한 듯이 보이지만, 양자택일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두 접근법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두 학자 모두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인식하므로 신적 관점의 '수동적 의'(그레이다누스)와 인간적 관점(쿠루빌라)

(Grand Rapids: Baker, 2015), 곽철호·김석근 공역,『설교의 비전: 목회 사역의 심장을 이해하기』(이천: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8); *A Manual for Preaching: The Journey from Text to Sermon* (Grand Rapids: Baker, 2019). 그가 주창하는 매우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문단신학"과 "그리스도 형상적 해석과 적용"이 구약과 신약의 각 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예시하기 위하여 각 문단마다 2편의 설교 개요와 함께 4권의 신학 주석을 출간했다: **창세기(35 문단)**: *Genesis: A Theological Commentary for Preachers* (Eugene, OR: Resource Publications, 2014); **사사기(14 문단)**: *Judges: A Theological Commentary for Preachers* (Eugene, OR: Cascade Books, 2017); **마가복음(25 문단)**: Mark: A *Theological Commentary for Preachers* (Eugene, OR: Cascade Books, 2014); **에베소서(12 문단)**: *Ephesians: A Theological Commentary for Preachers* (Eugene, OR: Wipf & Stock, 2015).

의 '능동적 의' 모두를 설교자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것은 구약을 설교할 때에 신적 요구와 하나님의 성품 양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며, 그리스도 중심적 연결들과 개별 문단들의 독특한 특성 모두에 초점을 두는 것 역시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때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에, 다른 때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편의 설교에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항상 적용한다는 것은 현명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관계에서 신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 양자를 잘 병합할 수 있는 방법을 설교 내용의 통일성을 잘 유지하면서, 문단신학과 성경신학 양자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교마다 두 방법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줄이면서 다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3. 새 언약을 위한 한 권의 새 정경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질문을 반복한다면, (1) 왜 우리의 성경(Bible, Holy Scriptures)은 구약(Old Testament)의 경우에 15개 가경과 22권의 위경[64]을 제외하고 39권으로, 신약(New Testament) 역시 59권 이상의 가경[65]을 제외한 27권으로 한정되어 있는가? (2)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 90% 이상이 헬라어역본 70인경(LXX; Septuagint)을 따르고 있지만,[66] 왜 신약의 배열순서는 유독 탈무드 전통(Baba Batra 14b)이 말하는 유대인의 구약성경(MT)[67]의 배열순서와 평행되는 다섯 장르로

64) 참조. 본 논고 각주 21-22.

65) 참조. 본 논고 각주 23.

66) 자세한 논의를 위해 참조. McDonald, *Biblical Canon*, 224-242.

67) 참조. 본 논고 각주 31.

짝을 이루고 있는가? 구약(옛 언약)과 신약(새 언약)이란 성경의 명칭의 공통어로서 '언약'이란 용어가 이 질문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 과정에는 구약과 신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어떤 오묘하신 섭리가 있는가?[68]

구약(옛 언약)성경과 신약(새 언약)성경이란 명칭 안에 있는 공통어인 '언약'이란 용어가 이 질문에 어떤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흥미로운 것은 영어 명칭은 '언약'을 가리키는 "Covenant"란 용어 대신 '유언'이란 뜻의 "Testament"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구약의 히브리어 "언약"(베리트, בְּרִית)이란 단어를 구약 헬라어성경(LXX)이 번역할 때 '언약'이란 뜻의 '순쌔캐'(συνθήκη)와 '유언'이란 뜻의 '디아쌔캐'(διαθήκη) 중에 디아쌔캐를 선택했다. 헬라어 접두어 '순'은 '동등'한 지위의 당사자(parity)를 가리키는 반면에 '디아'는 상하(종주-봉신[suzerain-vassal])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간에 맺는 종주권 언약은 비록 '유언'의 뜻을 가지지만 '상하' 관계를 더 강조하는 '디아쌔캐'로 번역하게 되었고, 이 전통을 신약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에서 '유언'(갈 3:15; 히 9:16-17)을 의미하거나 '언약'(갈 3:17; 히 9:15)을 의미해도 모두 '종주권'의 상하를 강조하는 '디아쌔캐'로 번역했음을 이해해야 한다. 신약은 "옛 언약(구약, 팔라이오스 디아쌔캐[고후 3:14]), 첫 언약(히 9:15), 첫째 것(히 8:7; 9:18)"을 "새 언약(카이내 디아쌔캐; 눅 22:20; 고전 11:25; 고후 3:6; 히 8:8-13 〈 렘 31:31-34; 9:15; 히 12:24), 더 좋은 언약(히 7:22; 8:6), 둘째 것(히 8:7)"과 대조하여 설명한다.[69]

68) 참조. 본 논고 각주 12, 88.

69) 참조. 고대번역본 배후에 흐르는 신학사상을 논한 본고 각주 25.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들의 탈무드 전통의 순서를 따른 타나크의 배열 순서는 "모세오경(5권)+전기선지서(4권)+후기선지서(4권)+전기성문서(7권)+후기성문서(4권)"라는 다섯 장르의 24권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약 정경은 "복음서(4권)+사도행전(1권)+바울서신(13권)+일반서신(8권)+요한계시록(1권)"이라는 다섯 장르의 27권이다.

최근 성경의 "큰 그림=대하이야기=메타내러티브"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장, 절, 참고구절, 원어 풀이, 주석, 짧은 해설, 사전, 콘코단스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해설성경"[70]과는 구별되는 병렬본문의 "병렬성경"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설성경이 보여주는 참고용이 아니라, 독서용으로 병렬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을 없애고 다른 이야기책들과 유사한 영식으로 여백을 많이 두고 활자체도 좀 더 부드럽고 두터운 종이를 쓰고 두 세로 단을 한 단으로 재병렬한 성경본문으로 레이아웃하고 있다. 고스웰(Greg Goswell)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71]

> "병렬본문"(Paratexts)이란 성령 하나님의 영감된 본문 자체의 일부가 아니라 본문 자체와 구분되는 "본문에 접합된 성경 각권의 순서, 책명, 각권 내의 소제목들" 같은 특성들을 포함한다. 이런 요소들이 본문에 접합되어 있으면 읽기와 해석에 영향을 준다.

고스웰은 성경 본문은 영감되었지만 병렬본문은 아니며, 이것들은 본문에 첨가된 후대 편집자의 구조물임을 지적한다. "장과

70) 그 역사적 발전을 논하는 Tony Reinke가 Glenn Paauw와의 인터뷰인 〈http://www.desiringgod.org/interviews/a-short-history-of-bible-clutter를〉 보라.

71) Greg Goswell, "The Order of the Books in the Hebrew Bibl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1/4 (December 2008), 673.

절"[72]은 인간 기록자들이 양피지에 처음으로 기록한 후 수천 년이 될 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본래 유대인이 양피지에 기록한 유대인 마소라(Masorah, '전통') 사본은 파라샤('portion')라 부르는 문단으로 나누었고, 모세오경의 경우 "주간 토라 포션"(Weekly Torah Portion, Parashat HaShavua)이라 부르는 54개의 문단(창세기[12개], 출애굽기[11개], 레위기[10개], 민수기[10개], 신명기[11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현대 토라 두루마리나 유대인 성경에는 "열린 포션"(파라샤 페투하; 히브리어 자음 "p"[p]라는 약자를 사용)과 "닫힌 포션"(파라샤 세투마; "s"[s]를 사용)이란 두 가지 형태의 파라샤가 있다. "열린 포션"이란 대충 현대의 문단과 유사하여 바로 그 이전 포션의 본문은 그 행의 끝에 여백을 남기면서 그 칼럼의 끝 앞에서 멈추고, 새로운 "열린 포션"은 그다음 행의 시작에 들여쓰기 없이 이어진다. "닫힌 포션"은 그 본문의 행 중간에 여백을 남겨 바로 그 앞 포션은 그 여백 앞에서 멈추고, 그다음 포션은 그 본문의 행의 끝을 향해 그 뒤에 이어진다.[73]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신약(베리트 하다샤)의 관련 본문을 매주 파

72) 영어성경의 현재 장(章)의 구별은 1205년 캔터베리 대주교 Stephen Langton(c. 1150-1228)에 의해, 절(節)의 구별은 William Whittingham (c.1524-1579)의 1557년 신약성경의 번역에 의해 각각 시작되었고, 1560년 Geneva Bible에 의해 오늘의 전통이 계승되었다. 고전어 학자 겸 인쇄업자인 Robert Estienne(Robert Stephanus [1503-59])가 처음으로 각 장 안에 절을 표기한 헬라어 신약 인쇄본(1551)과 히브리어 구약(1571)을 각각 출판했다. 시편의 표제가 유대인 히브리어성경에는 1-2절로 표기되지만, 영어 한글 성경은 절수에서 삭제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73) ① "열린 포션": 새로운 주제의 시작이나 주요 부차 단락을 반영하여 항상 새 행의 시작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방식은 물론 두 포션 사이에 한 행의 여백을 남겨 따라서 바로 앞 포션이 때로는 본문의 마지막 행을 완전히 채우도록 허락한다. ② "닫힌 포션": 더 작은 단위나 부수 부차 단락을 반영하여 결코 한 행의 시작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 행의 중간에 여백을 두는) 현대 두루마리에서도 가능하며, 또한 바로 앞 포션이 그 행의 끝에서 종결된다면 다음 새 포션은 그 다음 행의 들여쓰기를 한다.

라샤에 연결하여 메시아 예슈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적용하였고,[74] 주관적인 차이들이 있기도 하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주자로서 180개 국가의 75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지닌 "제2의 유대인"으로 불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크리스천 파라샤의 계발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비슷한 토픽들을 망라하는 다양한 장르들의 느슨한 문서집이 아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통일된 증언이다. 니하우스(Jeffrey J. Niehaus)는 성경을 시작하는 우주창조(창 1:1-2:3)의 문예적 구조는 그 당시 고대근동의 국제조약 양식으로 이해한다.[75]

첫째, 제목/서언(창 1:1)

1:1("태초에 하나님이…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에 주목하라; 마찬가지로 고대근동 조약들도 위대한 왕의 '말씀들'로서 소개되었다-아주 문자적으로, 봉신이 이후로 살면서 다스려야 할 '세상'을 종주가 조직화한 말씀들. 그 유비는 하나님이 이어지는 것들에서 종주이심을 분명히 한다.

둘째, 역사적 서문(창 1:2-1:29)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해 말한다-위대한 왕이 그 수하들, 봉신 왕과 여왕을 위해 행한 모든 일들.

셋째, 법령조항들(창 1:28, 2:16-17a)

1:28("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74) 참조. www.hebrew4christians.com.

75) Jeffrey J. Niehaus, *God at Sinai* (Grand Rapids: Zondervan, 1995), 김진섭 역, 『시내산의 하나님: 고대근동과 구약의 언약과 신현』(서울: 이레서원, 2009), 198-205.

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16("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2:17a("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넷째, 공탁과 주기적 낭독

아담과 하와는 문자로 기록된 조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공탁과 주기적 낭독은 없었다.

다섯째, 증인들(창 1:31; 2:1)

1:31("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2:1(암시적으로 완성된 하늘과 땅, 이들은 후에 선지서에서 증인으로 지명된다; 신 4:26; 31:28; 사 1:2; 시 50:4).[76]

여섯째, 축복과 저주(창 1:28; 2:3, 17)

1:28("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3("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2:17b("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고대 조약문서들을 연구함으로써 클라인(Meredith Kline)은 구약이 매우 언약적 구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었다.[77] 신명기 자체가 성경의 서론격인 모세오경의 마무리 책으로서 매우 흔한 조약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 다섯 분책으로 된 모세오경(토라)은 최초의 언약 문서의 결과들을 더 이상 설명하는 구약성경 전체의 토대가 된다. 클라인은 "언약 확립의 모세오경 기록과 함께 수세기에 걸쳐

76) Meredith G. Kline, *Images of the Spirit* (Grand Rapids, MI: Baker, 1980), 19-20은 창 1:2의 성령님을 "창조 언약의 신적 증인"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원적 신현이 "후에 무지개가 하나님이 지구와 맺은 언약의 증표로 사용되는 것(창 9:12ff)"의 배경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서흥종 역,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형상』 (서울: 줄과추, 1999).

77) Meredith G. Kline,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Eugene, OR: Wipf and Stock, 1997).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문서들과 언약적 삶의 다른 국면들의 문헌적 축적들로 구성된 계속된 관계의 문서적 증언들이 결합되었다"[78]고 본다.

신명기와 고대근동 종주-봉신(suzerain-vassal) 계약 문서의 유사성: 문서설 반박의 증거물

서론(preamble; 1:1-5)-언약과 언약 당사자 소개

역사적 서론(historical prologue; 1:6-3:29)-당사자 간의 과거 관계 진술

법령 조항들(stipulations; 4:1-26:19)-봉신의 일반적, 세목적 의무규정

일반적 조항들-4:1-40; 5:1-11:32

세목적 조항들-12:1-26: 19

문서 조항(document clause; 27:1-26)

증인들(witnesses; 유일신론이므로 없음)-계약체결의 증인인 신들의 목록

축복과 저주(curses and blessings; 28:1-68)-계약조항들의 준수 여부에 따른 상벌

1) 구약성경 구조의 역사

사복음서가 구약을 그 전체로 혹은 단순히 각 권에서 인용할 때는 언제나 그들이 주요 그룹들의 조합으로 성경에 구성된 것(율법과 선지자, 때로는 다른 성문서 책들; 마 5:17; 7:12; 22:40; 눅 16:16; 24:27, 44; 요 1:45)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79] 신약성경 바깥을 보면 이 히브리어구약성경의 배열은 요세푸스(Josephus), 사해사본, 랍비 전통에서 보는 대로 제2성전 유대교에도 보편적이었음을 보여

78) 앞의 책, 67-68.

79) Roger T. Beckwith, *The Old Testament Canon of the New Testament Church and Its Background in Early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1986), 126-127.

준다.[80] 이것은 주전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배열 순서이다.[81] 사이츠(Christopher Seitz)는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 서클도 역시 이 순서를 사용했다고 제언한다. 구약의 이 순서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동행하는 두 제자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가리키는 구약성경으로 사용한 바로 그 순서이다(눅 24:44). 사이츠는 이 순서의 초기 대중성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필요한 신학적 시사점들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82]

신학적인 시사점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간략히 살펴야 한다. 드루치(Jason DeRouchie)는 선지서와 성문서가 사건들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지닌 이스라엘 역사와 그 해설 섹션을 기술하는 내러티브 섹션에서 서로를 반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도표. 1 Baba Batra 14b가 말하는 히브리어구약성경 배열순서〉[83]

모세오경	전기선지서	후기선지서	전기성문서	후기성문서
창~신	수, 삿, 삼, 왕	렘, 겔, 사, 12소선지	룻, 시, 욥, 잠, 전, 아, 애	단, 에, 스–느, 대
내러티브	내러티브	해설	해설	내러티브

구약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배열할 때 무엇을 얻게 되는가?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이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과 갖게 된 관계의 세부사

80) 앞의 책, 152. 게다가 Seitz는 현대의 "율법, 역사, 시가, 예언의 책이라는 현재 관습적인 4중 순서는 어떤 단 하나의 지배적인 고대 실례를 추적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Christopher R. Seitz, *The Goodly Fellowship of the Prophets: The Achievement of Association in Canon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58.

81) Seitz, *The Goodly Fellowship of the Prophets,* 57.

82) 앞의 책, 58.

83) DeRouchie, 『구약,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해에서 신학에 이르는 12단계』 (서울: 죠이북스, 2019). 73.

항을 보여주므로 모든 다른 본문의 토대가 된다.[84]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러한 언약적 관계에 무엇이 발생했는가를, 언약의 저주로 빠져들어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전기선지서(수~왕)와 그 타락의 이유를 제공하는 후기선지서(사~12소선지서)를 통해 설명한다. 성문서는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완성에 소망을 둔 신실한 남은 자에게 격려를 보내는 하향 나선형으로 뒤바꾼다.[85] 요약하면, 모세오경은 선지서가 심판 중에 회상하고 성문서가 전망하는 소망을 제공하는 토대가 되는 문서이다.

(1) 룻기와 역대기의 특별한 위치: 히브리어성경에 룻기와 역대기의 위치는 이런 중요한 신학적 발전을 강조한다. 구약의 헬라어역본의 순서를 따른 현대 영어/한글 성경은 이 두 책을 모두 역사서 범주에 두지만, 이것은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엄격히 연대기별로 배열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성경은 역사의 순서를 단순히 연대기로 배열하는 것 이상으로 "언약의 복과 저주"라는 신학적 관심을 가진다(레 26장[출애굽 세대], 신 28장[광야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즉시 이스라엘은 포로로 종식되는 그들의 하향곡선을 시작한다. 선지자들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회고하며,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붕괴의 이유가 율법의 불순종임을 밝힌다. 연대기적 순서와 함께 심판과 소망이 동일 분량으로 섞이지만, 다른 렌즈를 통하여 세 겹의 그룹으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기회를 제

84) Christopher Seitz는 이 "형식이 정확히 역사의 신학적 '평가'이다. 이것은 시간적 배열이나 발전의 기사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이 책들은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지만 지금 형태의 순서에서 역사의 신학적 설명을 의도한다"고 말한다. *The Goodly Fellowship of the Prophets,* 101.

85) Jason DeRouchie, *What the Old Testament Authors Really Cared About: A Survey of Jesus' Bible* (Grand Rapids, Mich.: Kregel, 2013), 47-48.

공한다. 선지서들이 심판을 회고한다면 성문서들은 같은 이야기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룻기가 비록 연대기적으로는 사사시대(선지서의 시작)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성문서의 시작에 놓여 그 남은 자의 눈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시 말한다. 이스라엘의 한 가닥 소망을 시작한 자는 의외로 신실한 모압 여자, 그러나 "현숙한 여자"(에쉐트 하일, [잠 31:10-31; 룻 3:11] 〈 첩[아마, 3:9] 〈 하녀[쉬프하, 2:14] 〈 모압 소녀[모아비야, 2:6], 이방 여인[노크리야, 2:10])인 룻(〈 레웃, "연합"; 1:14[다바크, "붙좇았더라"; 1:16,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영토]; "어머니의 백성"[국민]; "어머니의 하나님"[주권])이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오실 왕(다윗,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을 기다림으로 끝맺는다. 비록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영적 하향 나선형을 긋고 있는 동안 이 이야기가 일어났지만 성문서 기록자는 이 젊은 여성이 제공하는 소망에 자기의 눈을 고정하는 터널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종말론적 소망이 성문서의 주제이다.

역대기도 같은 주제로 끝맺는다. 그것은 왕의 이야기들을 다시 말해 주면서 과거의 실패는 급히 지나가면서 유다 왕국에 아직 살아 있는 신실함의 단면들을 포함한다. 그것은 열왕기서를 자료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훨씬 후기인 포로기 이후에 말하면서도 돌아오는 남은 자를 위해 갱신된 소망을 제공하는 역사로 재해석한다.[86]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대신 역대기는 아담으로 시작하여 세계사를 일별하고, 다윗을 지나 신실함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써 끝맺는다. "그것은 이리하여 새 시대를 향해 지목하는 결론을 가지고…창세기로부터 열왕기까지의 보다 더 초기의 성경 역사 기술학과 총체적인 평행을 구성한다."[87] 이스라엘의 완전한 역사를 새 언약의 시대를 향한 소망 넘치는 눈으로 요약하면서 구약성경은 그 적절한 종결을 가진다.

86) Sara Japhet는 역대기의 히브리어는 다른 후기성문서와 다른 제2성전 유대인 문헌들과 동일한 후기 히브리어임을 지적한다. *I & II Chronicles: A Commentary,* 1st American ed.,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3), 25.

2) 새 언약을 위한 새 정경[88]

(1) 언약 문서로서의 신약

만일 옛 언약 문서가 미래의 새 언약을 기대했고(신 30:6?; 렘 31:31-34; 겔 37:26), 그 새 언약의 첫 회원들이 유대인 역사와 풍습에 깊이 박힌 민족이었다면, 새 언약 문서도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명백하게 신약의 인간 기록자들은 성령님의 감동 아래 구약이 전망한(proleptic) 새 언약을 예수님이 시작하심을 보았다(마 26:28; 막 14:24; 눅 22:20; 고전 11:25; 히 8:6, 13).

복음서 자체는 언약들을 세우는 데 모세오경이 행한 것처럼 유사한 토대적 주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대교부들은 사도적 저작들을 언약적인 것으로 본 것 같다. 이레나이우스(Irenaeus)는 그 저작물이 마치 문서의 완전한 세트로 그것들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언약적 경고(계 22:19; 참조. 신 4:2; 12:32)를 지니고 자신에게 전수된 것처럼(주후 약 180년) 말한다: "더하거나 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완전한 컬렉션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성경의 있는 그대로

87) 앞의 책, 8.

88) 참조 본 논고 각주 11-12. 특히 Ben Witherington III, *Biblical Theology*, 288-305("타락 후 성육신 이전"), 306-338("성육신 후 오순절 전"), 339-348("성령의 종말론적 시대의 새 언약")을 보라.

의 보존."[89]

유사하게 교회역사가 유세비우스(Eusebius)는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주후 약 200년)가 "모든 정경적(언약적[엔디아쌔쿠, ἐνδιάθηκου]) 성경의 축약된 기사들을 Hypotyposes에" 기록했다고 밝혔다.[90] 초대교회는 매우 일찍부터 '신약'(New Testament)이란 호칭을 얻은 이 문서들을 언약적인 것으로 알았다.[91]

만일 신약 문서들이 언약적이라면, 구약의 뒤를 잇는 언약적 문서들의 특징을 지닐 것은 타당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살피려는 부분이다. 신약의 모든 부분이 구약처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⑵ 신약 문예적 단위들

구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약 1천 년의 기간에 걸쳐 다양한 인간 기록자들을 통해 함께 엮어져 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사고틀 안에서 그것의 중요성은 물론 그것의 영감을 증명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소수의 상관없는 자들이 100년에 걸쳐 어떤 편지들을 기록하고 그다음 수백 년을 약간의 다른 사람들이 어느 것이 유익한지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것처럼 신약에 접근하는 듯이 보인다. 이 개념에 대조적으로 트로비쉬(David Trobisch)는 그의 책에서 주후 2세기 말에는 로마제국의 어느 곳에서나 이

89) Irenaeus, *Haer.*, 4.33.8. by Robert McQueen Grant, *Irenaeus of Lyons* (London: Routledge, 1997).

90) Eusebius, *Hist. eccl.* 6.14.1 (*NPNF2* 1.261).

91) David Trobisch, *The First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Reprint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43, 106.

미 최초로 완전한 "정경본"이 존재했다는 것을 강조한다.[92]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비평보다 더 광의의 의미에서 사본들을 볼 때에 분명해진다.[93]

우리가 헬라어 코덱스(Codex) 증거를 살펴볼 때,[94] 우리는 각 권을 같은 범주의 그룹으로 묶는 서기관과 편집자들의 반복된 유형을 본다: 복음서들, 사도행전-일반서신, 바울서신, 그리고 계시록.

복음서와 계시록을 각각 시작과 끝으로 하고, 대부분 사도행전-일반서신을 시작으로 하는 그 중간에 있는 두 그룹은 다소 상호교환될 수 있다. 이 증거는 트로비쉬로 하여금 바울서신 앞에 사도행전과 일반서신을 배치하는 동방정교회를 따르게 만들지만, 다른 학자들은 사도행전 뒤에 바울서신이 따른다는 다른 증거를 지적하며 논박한다.[95] 파커(D. C. Parker)는 사도행전-일반서신의 가장 초기 결합은 주후 4세기로서 중세기까지 계속되고 그 후에는 덜 인기 있었음을 지적한다.[96] 차일즈(Brevard Childs)는 무라토리안(Muratorian), 이레나이우스(Irenaeus), 터툴리안(Tertullian), 오리겐(Origen) 같은 더 초

92) Trobisch, *The First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106.

93) Matthew Y. Emerson은 이것을 정경비평이라 부른다. "정경비평은 그 완성된 정경본 형태가 개별 구절이나 심지어 성경 전체의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Christ and the New Creation: A Canonical Approach to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Eugene, OR: Wipf & Stock Pub, 2013), 16. 정경비평은 사본들을 어디서 어떻게 각 그룹 만들기가 발전될 수 있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로 비교하는 것이다.

94) Codex란 책 형태의 저작물을 말한다. Trobisch는 코덱스가 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신약성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판된 저작물을 위해서는 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The First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20-21.

95) David Trobisch, *Paul's Letter Collection: Tracing the Origins* (Bolivar, MO: Quiet Waters Publications, 2001), 10.

96) D. C. Parker,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Manuscripts and Their Tex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85-286.

기의 목록들은 사도행전-바울서신임을 논증한다.[97]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 양자의 권위를 입증하는 독자적 증인이었다. 후대에 일반서신이 사도행전과 결합될 수도 있은 것은 사도행전-바울서신보다 사도행전-일반서신이 전체적으로 보아 출간되는 코덱스의 분량이 더 적고 경제적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98]

복음서에 관해서는 현대 비평가들과는 반대로 힐(C. E. Hill)은 후기 편집자들(과 정치가들)이 손에 얻을 수 있는 복음서들의 각종 모음에서 선택했다는 제언은 하나의 신화라고 논박한다. 오히려 그는 "4중 컬렉션으로부터 거부된 복음서들은 그 넷의 어떤 것이나 모든 것과 함께 결코 묶이지 않았다. 마태, 누가나 베드로, 혹은 요한, 마가, 도마가 말한 것을 포함하는 어떤 사본들도 없다. 오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만이 성경과 정경으로 여겨졌다"[99]는 것은 확실하다고 결론짓는다. 초대교회 확증은 물론 초기 사본 증거의 우세함은 사복음서가 신약의 첫 견고한 통일단위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사한 증거가 다른 단원들의 그룹 만들기에서 증명된다. 트로비쉬는 바울서신의 컬렉션만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서신들을 포함한다고 진술한다.[100]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바울서신이거나 바울

97) Brevard S. Childs, *The Church's Guide for Reading Paul: The Canonical Shaping of the Pauline Corpu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8), 225-226.

98) Emerson, *Christ and the New Creation*, 66.

99) Charles E. Hill, *Who Chose the Gospels? Probing the Great Gospel Conspi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17. 121쪽에서 그는 다른 초대교회 자료들(개요들, 평행대조본문들, 코덱스들)의 문헌적 증거는 주후 2세기 말에는 오직 사복음(마, 막, 눅, 요)만 우월함을 보여준다고 결론짓는다.

100) Trobisch, *Paul's Letter Collection*, 9. 바울서신들의 내적 증거를 따르면서 Trobisch는 바울 자신이 자신의 서신들을 하나의 단위로 편찬한 장본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신 중간에 삽입된 다른 서신들을 가진 컬렉션은 결코 없다.[101] 비슷하게도 일반서신 컬렉션들도 거의 항상 "약, 벧, 요, 유"의 순서로 포함한다. 사본 컬렉션들의 증거는 우리에게 다섯 단위의 신약을 보여준다: 복음서, 사도행전, (히브리서와 함께) 바울서신, 일반서신, 그리고 계시록.

(3) 추이(推移)와 내부적 연결

사본의 내부적 증거는 한 사람(내지 매우 잘 연결된 그룹의 사람들)이 모든 책을 함께 묶는 손을 가졌음을 제안한다. 트로비쉬는 모든 각 권에서 "거룩한 이름"(nomina sacra)의 일관성 있는 사용(가장 흔한 이름들의 약어들), 저작물을 그룹화하는 코덱스 형태의 비일상적 사용, 그리고 한 편집자의 증거인 명칭의 균일성을 지적한다.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많은 저자들은 문체에 있어 그러한 일관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혹자는 특별한 방식으로 신약을 모두 함께 묶음으로써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신약을 세상에 알리려 한다는 매우 신중한 제안을 내놓는다.

한 편집자가 하나의 신학적 배열을 의도했다는 그 이상의 증거는 동일 인간 기록자에 의한 명백한 연결들을 그가 분리시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동일 기록자로서 그 두 권이 한 세트임을 동일한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도입부에서 알려준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 역시 자기 이름을 지닌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기록했음을 증거한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다른 어떤 두 서신보다 중첩되는 내용이 더 많다. 그러나 편집

101) 비록 히브리서가 흥미롭게도 항상 바울과 연계되어 교회서신들의 또 다른 하나로서 데살로니가후서나 빌레몬서 후에 둠으로 그 저작자에 대한 애매모호성을 항상 남겨 놓고 있다.

자는 자신의 자료를 배열하는 다른 한 방법을 선택했다. 장르와 분량이 주요 표지인 것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만일 누가복음이 복음서의 끝부분이고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보다 더 짧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매사를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바울서신은 일곱 교회를 향한 서신과 개인을 향한 서신의 두 그룹으로 잘 나눠진다. 일반서신에는 개인을 향한 것은 없고 일곱 교회를 향해서만 있다. 많은 주석가들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한 서신은 성령께서 요한을 사용하여 전체 교회를 위한 것으로 의도하셨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그 원래 신약 편집자는 바울의 교회서신이나 일반서신과 같은 개념을 계시록에 대해서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사본의 외부적 증거가 초기부터 목적을 지닌 배열임을 제언함은 물론, 그 본문 자체들도 그러하다. 분명히 복음서는 성경 배열의 주된 위치를 얻은 "토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복음서의 순서조차도 "목적적"이다. 에머슨은 비록 마태와 요한 모두가 예수님의 구약 성취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편집자는 구약이 마태복음과 더 잘 연결됨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요한복음 1:1이 창세기 1:1에서 인유되지만,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족보는 구약 전체와의 관계를 더욱 많이 말한다. "족보의 책"(비블로스 게네세오스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이란 문구는 단지 마태복음 1:1과 창세기 2:4(LXX)과 5:1(LXX)에만 나타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여자의 씨"와 묶고 있다. 그리고 역대기와 창세기처럼 그 족보는 그 시작부터 그 주인공까지 재빠르게 이동한다. 창세기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이야기라면, 역대기는 다윗과 그 왕손들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이다(마 1:1).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이 기대하는 시작이요 끝이신 그분으로 묘사한다.

비록 요한복음이 신약으로 인도하기에 좋은 듯이 보이지만, 복음서 편집에 완벽한 최종이 되고 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매우 독특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독자가 이미 다른 세 복음서들과는 친숙하다고 가정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묘사하는 듯이 보인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신학적 시사점을 요약하려는 의도를 가진 듯이 보인다. 트로비쉬는 요한복음의 바로 그 마지막 구절이 마치 최종 편집 코멘트인 것처럼 관점을 바꾸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강조한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아 책을 써서 둘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언급한다(요 21:25). 이것을 유사한 표현인 요한복음 20:30-31과 비교하면서 트로비쉬는 이것들이 요한복음은 물론 복음서 전체를 종결하는 최종 편집자 코멘트들이라고 결론짓는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행 1:1) 것으로부터 계속한다고 말함으로 복음서들을 명백하게 뒤잇고 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바통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넘김으로 끝이 나며,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받아 어떻게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준다. 사도행전 이후의 질문은 그 뒤에 어떤 것이 뒤따름이 적절한가이다. 이미 밝힌 대로, 비록 많은 사본들에서는 일반서신이 그 뒤를 따르지만, 바울서신이 그다음에 오게 된 초기 증거들도 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서신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고, 그리고 비록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서같이 보다 더 초기에 성령께서 그를 통해 기록한 서신들이 있었지만, 그의 첫 서신을 로마서로 삼는 것과 잘 어울린다.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완전한 신학적 요약이므로 당연히 제일 먼저 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의 시작인 로마까지 이동한 것(눅 24:47; 행 1:8)을 설명하기 때문에 또한 적절하다. 바울의 임무는 자신이 이방인에게 가는 동안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로마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그분의 공정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의도를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뒤따르는 바울서신들은 골로새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진 이 새로운 통일성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시점에서 바울서신은 방향을 전환하는 듯이 보인다. 에머슨은 이 서신들이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의 맥락에서 통일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지만, 데살로니가서는 종말론적 초점으로 옮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울서신은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묶기 위하여 순서적으로 "애매한 기록자"인 히브리서로 적절하게 끝난다. 히브리서는 모든 서신들과 함께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주제들을 공유하며, 사도 바울의 기록물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다른 사도들의 기록물과 통일시키는 중요한 방향전환을 한다.

일반서신은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거룩한 삶의 주제를 계속한다. 그것들은 사도 바울 자신이 기록한 서신들에서 확정된 동일한 비전을 주후 1세기 중엽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이다(벧후 3:15-16).[102] 미래를 바라보는 삶의 주제는 계시록으로 잘 이전된다. 계시록은 단순히 마지막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정경을 끝맺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앞에 있는 책들과 잘 연결시켜 준다. 계시록은 또다시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주제를 반복한다. 일반서신이 비록 자체들의 독특한 인사말을 가지지만, 계시록은 사도 바울의 애용구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계 1:4)라는 인사말을 사용하여 이 마지막 메시지에 사도 바울의 기록물을 연결시킨다. 계시록은 단순히 계시록 자체만이 아니라, 주제적으로나 본문적으로 계시록을 성경 전체에 연결시키면서 가감하지 말라(계 22:18-19)는 언약적 경고로 끝맺는다.

(4) 구약과 신약의 배열 구조 비교

드루치 박사는 그의 책에서 구약과 신약의 배열 형태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은 5개의 더 작은 평행 단원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도표 2. 성경의 언약적 구조에서 이야기와 해설〉[103]

	언약 확립	*언약 시행*		*언약 누림*	
구약	모세오경	전기선지서	후기선지서	전기성문서	후기성문서
신약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반서신	계시록
	이야기	**이야기**	***해설***	***해설***	**이야기**

102) 이것은 모든 바울의 13서신이 그 시대에 함께 회람되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이 그것들을 조회한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103) DeRouchie, 『구약,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492에서 발췌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우 초기 사본의 증거로부터 이 단위들이 로마제국 전역에 존재했다는 것을 보았다. 내부 증거는 의도적인 주제적 배역이 있음을 제언한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제2차 성전 유대교에 보편적인 종말론적 소망을 가리키는 구약 히브리어성경의 언약적 구조에 깊이 빠져 있었다. 우리가 비록 신약 기록자들이 이 구조를 의도했다거나 어떤 편집자가 구약 구조를 마음에 두고 신약을 편집했다고 진술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제언하는 것은 많이 있다.

이 모든 증거를 고찰해 본 후 에머슨은 신약의 성경신학을 각 권의 중심 주제들과 여기에 제시된 순서 속의 단위에 단순히 기초하여 요약했다.[104] 그는 **복음서**의 배열순서가 예수님을 **'새 모세'**로서(마태복음) **'새 출애굽'**을 인도한(마가복음) 온전한 **'선지자-왕'**으로서(누가복음) **'새 창조'**를 시작한(요한복음) 분으로 설명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관계를 설정하시고 이 소망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창 1:28; 9:1; 12:3; 22:18)과 평행한다. 이것은 언약 책임들에 온전히 참여하는 백성들의 새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언약 수장으로 끝맺는다(신 34:1-12; 마 28:16-20; 요 21:15-23).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를 받아 구약의 **전기선지서**가 언약에 대한 불성실성의 결과로써 끝맺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들이 사명에 신실한 백성들임을 나타내는 기록으로 끝맺는 언약 안에서 백성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에머슨은 **바울서신의 첫 절반**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회상하여 하나님 백성의 새 방향을 위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후기선지서**는 모세오경을 회상하며 이스라엘의 역정(歷程)을 위한 설명을 제공한다. 에머슨은 **바울서신의 후 절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설명하는 미래지향적 초점으로 바꾸므로 주 예수님의 재림을 무게 있게 집중하는 **일반서신**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후기선지서** 역시 이 관점으로 이동하여 **전기성문서**가 과거의 실패에서 미래의 축복으로 그 해설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계시록**과 **후기성문서의** 끝(**역대기**)에서 다시 모든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들을 성취하는 그분의 약속의 빛 안에서 현 상황들을 재해석한다.

에머슨의 정경적 신약성경신학은 새 창조의 신학이다.

> 신약이 제시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교회를 그 수행기관으로 임명하시고 신자들과 교회가 함께 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이미 이루신 일의 빛 안에서 살도록 부름 받았으며(롬~골) 예수님의 재림에 그분이 미래에 행하실 일(살전~유)과 그것을 계시록에서 완성하신다는 것이다.[105]

신약의 개별 책을 바라봄으로 이 연결이 가능함을 인정하지만 더욱 개관적 관점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 주제와 가능한 다른 것들을 일차적인 것으로 보기를 원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이 주후 1세기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경(구약 히브리어성경)을 알았던 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임은 우연 이상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더 조사를 필요로 한다: 사도 요한이 신약의 최

104) Emerson, *Christ and the New Creation*, 167-169.

105) Emerson, *Christ and the New Creation,* 169.

종 편집자로서 가능한가?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훈련받았다. 그는 사도들 중 최장수자였고(주후 약 100년), 초대교회 예루살렘 당국의 탁월한 지도자였다. 트로비쉬에 따르면, 신약 기록물에 사도 요한의 편집자적 해설들은 최종 편집자로서의 것으로 보인다.[106] 앞에서 주장한 바, 주후 180년까지 신약 초판은 로마제국 전역에 충분히 알려지고 사용된 듯하다. 그러나 증거의 무게가 어떤 사람이(사도 요한 자신이 아닐지라도) 직접 사도들에게 관련되고,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새 언약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조직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⑸ 정경적 성경신학

우리가 전제로 제언하는 것은 신약의 구조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의 다른 순서 배열로서는 주제들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배열이 또 다른 배열보다 어떤 주제를 더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신학의 목표가 성경 자체가 강조하는 주제들을 추적하는 성경신학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 연구는 성경신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창조에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와 완성이라는 개념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신약의 구조를 통해서도 어떻게 발전되는가조차도 주의 깊게 살피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배열구조는 구약의 언약 문서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106) "게다가 만일 요 21:25이 제4복음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오늘날 크리스천 성경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독자들에게 편집노트 기능을 하는 정경적 편집에 더욱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Trobisch, *The First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100.

언약적 성격을 더욱 드러낼 것이다. 언약의 신실함은 그리스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며, 새 창조 안에서의 언약의 복들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계속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과 서로 간의 언약 관계에서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종주이신 하나님께 봉신이다.

성전 주제는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항상 가져왔다. 아마도 역대기가 계시록과 평행하게 위치한다는 것이 종말론적 소망의 원인이 물리적 성전이 아니었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히브리서가 에스겔서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위치한다는 것은 과거의 성전 개념에서 새롭고 더 나은 성전 소망으로 두 본문 모두 이전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의 에덴동산을 원형으로 아벨-셋-에노스로부터 족장들에 이르는 작은 성소인 '제단과 장막'(창 4:4, 26; 5:24; 8:20; 12:7-8; 13:4, 18; 14:18; 15:9, 17; 22:9, 13; 26:25; 28:17-18; 35:1, 7, 14),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제2성전, 에스겔의 환상성전, 신약의 성전의 본체이신 주 예수님의 몸(요 2:19; 마 26:61; 27:40; 막 14:58; 15:29; 특별히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지성소 휘장이 아래로 찢어져 그의 육체 = 지성소 휘장을 가리키는 마 27:51; 막 15:38; 눅 23:45; 히 9:14; 10:20),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개인의 몸과 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사람'으로 만드시는 주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 이어져, 시온의 성전이 모든 민족을 위한 예배와 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사 2:2-3 = 미 4:2), 열방도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큰 축제인 초막절에 참예할 것을 기대하면서(슥 14:16),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 하나님의 장막"(계 22:1-3)으로 완성되는 언약의 종

말론적 기도와 소망을 담고 있다.[107]

마태복음이 신약(새 언약) 문서들의 토대로서 맨 처음에 놓여 있음으로 저자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양자직분"(sonship)의 성경신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남성 후계자가 된다는 것 이상으로 언약적 시사점들을 가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사도 바울은 이 언약 관계를 회상하며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적으로 양자(롬 8:12-17)가 됨으로써 오게 되는 모든 권리와 책임과 함께 새 창조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을 내다본다(계 21:7).

이 논제의 목표는 정경적 배열순서가 보여주는 성경신학이 더 이상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단계를 강조함에 있다. 만일 정경비평이 계속해서 그 가치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성경신학의 논의들과 심지어 독자들이 신약 이야기 속으로 쉽게 빠져들게 하는 새로운 성경 출간에서조차 그것을 보게 되기를 시작할 것이다.

결론: 성경이 답이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매우 간단하게 보이는 질문으로 던져진 본 논고의 주제는 마치 빙산일각처럼 얼마나 수많은 주요

107) 자세한 논의를 위해 참조. Jeffrey J. Niehaus, *God at Sinai: Covenant and Theophany in the Bible and Ancient Near East* (Grand Rapids: Zondervan, 1995), 김진섭 역, 『시내산의 하나님: 성경과 고대근동학의 언약과 신현』 (서울: 이레서원, 2009); Gregory K. Beale,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Downers Grove, IL: InverVarsity Press, 2004), 강성열 역, 『성전신학: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G. K. Beale and Mitchell Kim, *God Dwells Among Us* (Downers Grove, IL: InverVarsity Press, 2014), 강성열 역, 『성전신학: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이슈들로 얽혀 있는지를 상당한 지면을 통해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로 요약되는 우리 "시대의 표적"은 친 동성애(LGBTQIA) 슬로건 아래 얽힌 "마귀의 견고한 진"(고후 10:4-5)을 파할 수 있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히 4:12) "오직 성경대로"뿐임을 강조했다.

이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본 논고의 논제가 품고 있는 3가지 큰 질문과 그에 연계된 여러 질문들에 집중했다: (1) 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인가?; (2) 왜 유대인 구약성경은 24권인데 기독교 구약성경은 39권인가? 왜 배열 순서와 권수가 다른가?; (3) 성경의 저자가 유대인(구약, 히브리어)과 이방인(신약, 헬라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엡 2:15)을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단 하나의 정경"(the single and singular canon)이 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인간 기록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유일한 표준이요, 해답임을 재확인하면서, "성경에 더욱 유식하고 굳세어"(참조. 벧후 3:16) 성경 기록의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딤후 3:15) 복음사역에 "성령님을 위하여 씨를 뿌려,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갈 6:8) "영적 하루살이"(마 6:33-34)에 "죽도록 충성함으로"(계 2:10) 풍성한 결실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이 졸고가 일말의 도전과 격려가 되기를 기원한다. 마라나타! 아멘.

Abstract

How to read the Bible

Jin Sup Kim

This paper has attempted to peruse the holistically three basic presuppositions on the question that "How to read the Bible."

Firstly, why our Bible is composed of the 24 books of New Testament (hereafter, NT) as well as 39 books of Old Testament (hereafter, OT), eliminating not only the OT Apocrypha of 13-18 book (7 books of which are accepted as the "Deuterocanon" by the Roman Catholic) but also the OT Pseudepigrapha of 22 books as well as the NT Apocrypha of more than 88 books. We investigate the following five issues. (1) Co-inherece and *communio personarum* of Trinity as the Father-Son-Spirit, (2) Inspiration of the Bible and the Holy Spirit as its author, (3) Autographs, manusripts, textual criticism, canonicity and canonization, Canon-Apocrypha-Pseudepigrapha, (4) Theological presuppositions beneath the ancient and modern versions, (5) The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ological disciplines, such as Exegetical, Historical, Systematic and Practical theology: "Theology is not a mere discipline but the Gospel of Life in Jesus Christ!"

Secondly, the following six sub-categories are discussed under the topic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Jewish Tanak of 24 books of Torah(5), Neviim(8; Former[4] and Latter[4]) and Ketuvim(11) and Protestant OT of 39 books of Pentateuch(5), Historical books(12), Poetry and Wisdom Literature(5) Prophetic books(17; Major [5] and Minor[12]), despite the same book names and contents

(1) Standard of life (2 Tim 3:12-17): S*ola Scriptura,* (2) Jewish titles of Pentateuch: Torah, Chum(m)ash, (3) Structural comparison of Tanak and Protestanant OT, (4) Seven themes of Tanak that Jesus read, (5) Big Picture, Grand Story, or Metanarrative of the entire Bible, (6) How to read the OT?

Lastly, the five marvelous parallel genre structures between Tanak (Torah, Prophets [Former and Latter] and Ketuvim [Former and Latter]) and NT (Gospels, Acts, Epistles [Pauline and General] and Revelation) under the same theme of "(Old/New) Covenant" are explain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five sub-categories under the topic on Canonical Covenant Theology with the theme of "the One New Canon for the New Covenant." (1) OT or/and NT as a covenant document, (2) Literary units of OT and NT, (3) Transition from OT to NT and their internal connections, (4) Comparison of the orders of OT and NT, (5) Canonical Covenant Theology

Key Words

Trinity and Perichoresis, Inspiration by the Holy Spirit and Canon, Canonicity and Canonization, Apocrypha(=Deuterocanon) and Pseudepigrapha, Jewish Tanak and Protestant Old Testament, Fivefold Parallel Genre Structure between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under the topic of Canonical Covenant Theology

예술심리치료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1)]

The understanding of Arts Psychotherapy and It's application in Military Counseling

» 김상만 Ph.D.*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예술심리치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군성직자에 의한 군상담에의 적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목적을 다루었다. 2장에서는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음악치료, 사이코드라마 등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심리치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술치료의 의미와 역사를 정리하였고, 미술치료를 비롯한 무용/동작치료, 음악치료, 사이코드라마 등 회기 구성에 담긴 각 치료의 주요 기법 등을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음악치료, 사이코드라마 주요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12회기 집단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소개하고, 미술치료에서 무용/동작치료로, 무용/동작치료에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로, 미술치료에서 무용/동작치료나 사이코드라마 등으로 확장되어 가는 회기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각 참여자들이 어떤 치료적 경험을 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예술심리치료가 미술치료에서, 무용/동작치료에서, 음악치료에서, 사이코드라마에서 어떻게 군상담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각 영역별로 특징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으로 군상담에서 군성직자가 예술심리치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문가적 차원에서 각 매체에 대한 유능감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실제 내담자로서의 참여 경험과 상담자로서의 풍부한 임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논문 투고일: 2020년 10월 5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6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6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 예) 군종목사, 수서교회

1) 이 글은 2019년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인기논문으로 선정된 박사논문 "상담훈련생의 집단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경험 연구-자기 인식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를 기반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중심단어

군성직자, 군상담, 예술심리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음악치료, 사이코드라마

I. 들어가는 말

명칭을 달리하는 현대 심리치료법이 현재 지구상에는 약 4백여 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도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현대 심리치료는 특정한 하나의 치료적 접근보다는 몇 개의 접근을 통합하거나 절충한 치료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2] 권석만은 네 가지 유형으로 통합과 절충의 입장을 설명한다.

첫 번째 유형은 핵심적인 공통요인을 찾아내어 이론 체계를 구성하는 공통요인 이론(common factors theory)이다. 관계(relationship), 노출(exposure), 숙달(mastery), 귀인(attribution) 등 네 단어로 구성되고 첫 글자를 따서 REMA 모델이라고 한다. 네 가지 개념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호 작용해야 한다. '관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료적 효과를 갖지만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관계를 통해 획득된 핵심 문제들은 '노출'이란 과정을 통해 치료적이 된다. 그러한 치료적 관계를 통해 노출하게 된 이슈들은 반복적인 치료 과정을 통해 '숙달'에 이르게 된다. 숙달 경험은 치료적 성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곧 자신의 노력과 역량 강화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게 될 때, 지속적인 치료적 변화가 담보된다. 이와 같이 관계는 노출로 이어지고 노출은 다시 숙달로, 숙달은 귀인으로 상호작용하며 치료를 촉진하게 된다.

2) 권석만,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2012), 524.

두 번째 유형은 내담자가 갖는 문제에 대한 최상의 치료기법을 선택하여 치료체계를 제공하는 기술적 절충주의(technical eclecticism)이다. 내담자가 갖고 있는 주요 증상에 따라 그 내담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맞는 치료기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론적 통합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치료기법들을 가장 내담자 증상에 맞게 치료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예로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감정의 해소를 위해 정서적 발산, 인지적 재구성, 행동변화를 위한 행동치료, 긴장이완을 위한 바이오피드백,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하나의 이론을 택하고 그 이론적 기반 위에서 다른 이론을 통합하거나 흡수하여 사용하는 동화적 통합(assimilative integration) 유형이다. 상담사 자신이 가장 자신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이론과 그 이론에 기초한 치료방법에 능숙하게 되고 나서 그 바탕 위에서 다른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보다 더 나은 치료효과를 이루기 위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치료를 이론적으로 결합하는 이론적 통합(theoretical integration) 유형이다. 내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이론적 통합을 이루어 이론체계와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로 성격장애나 만성적인 문제를 지닌 내담자를 치료하기 위한 심리도식치료는 구성주의 치료, 게슈탈트 치료, 애착이론, 정신분석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이론적으로 통합한 치료법이다.[3]

본 연구에서 예술심리치료는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음악치료, 사이코드라마 등의 다양한 치료기법을 관계, 노출, 숙달, 귀인이라는

3) *Ibid.*, 525-527.

범주에 묶어 진행한다는 차원에서는 '공통요인 이론' 유형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움직임을 하거나 음악을 활용한다거나 연기를 한다거나 등을 통해 내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기료기법을 선택한다는 차원에서는 '기술적 절충주의' 유형의 입장을 취한다. 또한 상담사가 자신에게 익숙한 하나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이론으로 나아간다는 차원, 즉 미술치료 바탕에서 무용/동작치료나 음악치료로, 음악치료에서 미술치료나 무용/동작치료로, 무용/동작치료에서 미술치료나 사이코드라마 등으로 이동해 간다는 입장에서 '동화적 통합' 유형에 취하고 있으며,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음악치료, 사이코드라마 등 여러 이론들을 묶었다는 차원에서는 '이론적 통합' 유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심리치료의 경향성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예술심리치료를 기반으로 구성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치료적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상담[4]에의 적용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예술심리치료의 이해

본 장에서는 예술심리치료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음악치료, 사이코드라마 등 예술심리치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치료적 효과를 밝히기 위해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구성에서 활용한 각 영역에서의 기법들을 소개하였다.

4) 본고에서 군상담이란 군성직자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반 선도 및 상담활동을 말한다. 물론 군대 내 상담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에게도 해당되지만 본 연구는 군성직자에 의한 군상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예술치료[5]

가. 예술치료의 의미

예술치료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비언어적인 미술, 음악, 무용/동작, 드라마 등 예술 매체가 효과적이라는 점이 현대 심리치료에 반영됨으로써 만들어진 새로운 정신건강 분야이다.[6] 예술치료는 미술, 무용/동작, 음악, 드라마 등 두 가지 이상의 예술 매체를 적용하는 통합적인 형태로서, 미국이 중심이 된 서구에서 조직력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심리치료 분야이다. 예술작업을 통해 심리적인 치료가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술 매체를 통해 심리 내적인 문제를 외현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 억류되어 있는 심리정서적인 요소를 표현함으로써 정신세계를 환기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예술 매체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심리적인 갈등 요소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예술작품으로 자신의 문제를 전환하여 심리 내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병리적인 정신구조를 재편성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근원적 자기실현을 향하게 하는 길목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술치료는 표현과 창작과정이 곧 치료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술심리치료가 가지는 치료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7]

나. 예술치료의 역사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예술치료가 활성화되면서, 1966년에

5) 예술심리치료는 예술치료, 표현예술치료, 통합예술심리치료, 통합적 예술치료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 또한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등도 '심리' 치료를 포함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자격증에 예술심리상담, 미술심리상담, 무용/동작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등으로 표기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6) 김진숙,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2001), 12-13.

7) *Ibid.*, 14-15.

미국 무용치료학회(ADTA)[8]가, 1967년에 미국 미술치료학회(AATA)[9]가, 1971년에 미국음악치료학회(AMTA)[10]가, 1979년에 미국드라마협회(NADTA)[11]가 창설되었다. 각 영역이 각자 차원에서 다양한 임상과 이론을 축적해 가면서 미술치료 중심 예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중심 예술치료, 음악치료 중심 예술치료 등 예술치료를 중심축으로 하는 상호 간 통합과 조화로 나아갔다. 1994년에 각 영역이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제표현예술치료학회(IEATA)[12]를 창설하였다.[13] 이러한 미국의 예술치료의 흐름과 경향이 그대로 국내로 유입되었고, 이와 함께 유럽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아시아, 남미 등 여러 나라의 예술치료 영역들이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다.

2. 미술치료

미술치료는 미술작업을 통해 정서적 갈등과 심리적인 증상을 완화시키고 원만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법이다.[14] 미술치료는 미술을 통한 창작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 우리의 외면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 속에 작품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게 하는 특성 때문에 치료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15] 또한 미술치료는 창작을 통한 내면세계의 외

8) 미국무용치료학회(American Dance Therapy Association) www.adta.org

9) 미국미술치료학회(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www.arttherapy.org

10) 미국음악치료학회(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www.musicherapy.org

11) 미국드라마치료협회(North American Drama Therapy Association) www.nadta.org

12) 국제표현예술치료학회(International Expressive Arts Therapy Association) www.ieata.org

13) 이은진 외,『표현예술심리치료의 이해』(서울: 창지사, 2008), 10.

14) 정광조 외,『표현예술심리치료』(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15.

15) 이은진 외, *op. cit.*, 12.

현화 과정 속에서 심리 내적 갈등이나 정서적 상태를 파악하게 하고, 창작을 통하여 그러한 내면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완화시키거나 병리적인 정신구조를 재편성하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다.[16] 미술치료에서 회기 구성에 사용한 기법은 미술 매체, 색채 선택하기, 별칭 짓기, 이름 그림, 소시오그램(sociogram), 투사적 그림검사, 자유연상그림이다.

가. 미술 매체

미술치료에 사용되는 매체로서 크레파스부터 조각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매체마다 특징이 있고 내담자의 특징과 에너지 레벨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크레파스는 다양한 색상을 제공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표현에 자유로우며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 미술 매체가 치료적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17]

나. 색채 선택하기

워밍업 단계에서 내담자의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기에 적합하다. 여러 가지 색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색을 고르게 한다거나 현재 마음을 대변하는 색을 고르라고 해서, 왜 그 색을 고르게 되었는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재 마음 상태가 드러난다. 심지어는 핵심 문제에 바로 접근할 수도 있다. 도입 단계나 준비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작업 단계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먼저 세 가지 색을 고르게 한 다음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심층 내면의 문제에 이르게 되는 유용한 기법이라

16) 이근매,『미술치료 이론과 실제』(서울: 양서원, 2008), 8.

17) 주리애,『미술치료학』(서울: 학지사, 2010), 10.

고 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자유를 부여하면 책임의식이 높아진다는 임상원리를 활용한 것이다.[18)]

다. 별칭 짓기

도입 단계에서 거의 필수적인 과정이다.[19)] 주로 검정색 계통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는데 미술치료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색이나 현재 마음을 대변하는 색으로 별칭을 적게 하고, 여러 가지 색으로 꾸미도록 하여 별칭의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도입 단계에서 별칭으로 서로를 호칭하게 함으로써 수직적 관계구조가 아닌 수평적 관계 구조로 전환하게 하여 상호 친밀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20)]

라. 이름그림

이름 그림은 자신을 표현하는 기법 중 하나이다.[21)] 현재 마음을 대변하는 색이거나 크게 보이는 색을 하나 골라서 종이에 이름을 적게 한 후, 이름과 관련된 어떤 그림이든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그리도록 한다. 단순한 이름을 꾸미는 것이지만 그린 그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해결 받고 싶은 문제나 삶의 여정에 담긴 상처의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마. 소시오그램

소시오그램은 가족치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계도를 미술치료에서 활용한 기법이다.[22)] 남자는 네모로, 여자는 동그라미로 그려서

18) 이은진, 『미술치료』 (서울: 동문사, 2010), 20.

19) 이형득 외, 『집단상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2003), 123.

20) *Ibid.*, 121.

21) 이은진, op. cit., 30.

22) *Ibid.*, 30.

표현한다. 먼저 자신과 같은 성의 도형을 그린 다음, 현재 떠오르는 사람들은 누구든 도형으로 그리도록 한다. 도형의 크기와 색깔 및 거리는 스스로 판단해서 그리라고 한다. 소시오그램은 단순하지만 내담자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애증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인물 관계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바. 투사적 그림검사

미술치료는 인물화검사, 동적 가족화, 풍경구성법, 별파도 그림검사, 역동적 집사람나무그림검사(KHTP), 빗속의 사람 그리기 검사, 어항 그림검사 등 다양한 투사적 그림검사가 있다. 심리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투사적 그림검사에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낸다. 짧은 시간에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심리검사와 함께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사. 자유연상그림

정신분석적 미술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이다. 마치 낙서하듯이 현재 그리고 싶은 어떤 그림이든 그리게 한다.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없으나 정성스럽게 손이 가는 대로 그리도록 지시한다. 한 장의 그림이 천 마디의 말을 한다는 뜻이 그대로 들어나는 기법이며, 다양하게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다.[23)]

3. 무용/동작치료

무용/동작치료는 몸의 움직임을 치료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치료이다. 무용/동작치료는 통상적으로 무용치료로 불리는데 여기에서 '무용'은 넓은 의미의 춤을 뜻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형태이자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가 된다. 무용은 시대

23) *Ibid.*, 35.

와 문화를 관통하며 모든 문화권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병을 치료하고, 중요한 행사를 기념하고, 집단의 유대감을 결속하는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이처럼 인간의 몸 움직임을 통해 직접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무용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예술로서 친숙하면서도 강력한 치료의 도구인 것이다. 무용/동작치료는 개인의 정신과 신체의 통합을 위하여 신체의 움직임인 무용/동작을 심리치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4] 무용/동작치료에서 회기에 사용한 기법은 7/11 호흡법, Marian Chace 기법, 네 가지 움직임(4B), 라반 움직임 분석(Laban movement analysis), 즉흥 움직임이다.

가. 7/11 호흡법

무용동작치료의 창조적 표현 요소로 감각적 차원, 심리적 차원, 정서적 차원 등이 있다. 감각적 차원은 감각기관에 의한 감각, 공간이동, 신체 자세, 신체 동작 등을 포함한다. 감각기관에 의한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호흡'이다. 즉 신체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외현화하기 위해 가정 먼저 조율되어야 하는 것이 호흡이다. 호흡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기법이 7/11 호흡법이다. 들숨은 일곱까지 숫자를 헤아리면서, 날숨은 열한 개까지 숫자를 헤아리면서 숨을 쉬는 동작을 말한다. 들숨과 날숨의 차이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기억하도록 만든 기법이다. 전 회기 워밍업 단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반복적으로 익히도록 하고 몸을 준비시키기 위해 적합한 기법이다.[25]

24) 류분순, 『무용동작치료학』 (서울: 학지사, 2000), 9-10.

25) *Ibid.*, 25-26.

나. Marian Chace 기법

이 기법은 무용/동작치료의 기본 영역에 속한다. 원을 통한 그룹 상호작용, 원시적 리듬을 통한 구조화, 감정을 표현하는 근육운동, 움직임 따라 하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법은 움직임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몸이 생각하도록 해서 움직이는 즉흥성, 앞사람의 움직임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 하다가 한 가지만 변화시켜서 이어 움직이는 연속성, 움직임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가 움직임을 하고 싶을 때 하는 자발성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된다.[26]

다. 네 가지 움직임

네 가지 움직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또는 각성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법이다. 멈춤(brakes), 호흡(breathe), 머리(brain), 몸(body) 순으로 움직임을 한다. 멈춤은 두 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힘차게 브레이크 정지시키듯이 수평으로 힘껏 민다. 호흡은 두 손을 들어 7/11 호흡법처럼 한다. 머리는 뇌에 압력을 주는 움직임인데,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정수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세게 누르는 움직임이다. 몸동작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듯이 자신의 몸을 끌어안아 주면서 다독거려 준다. 워밍업 단계에서 주로 활용하지만 집단이 지루해하거나 집중을 안 할 때 또는 피곤해하거나 저항 행동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27]

라. 라반 움직임 분석

라반 움직임 분석은 동작평가 도구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평가하는 진단도구가 만들어졌다. 임상 현장에서 움직

26) *Ibid.*, 53-58.

27) Levy, 『무용동작치료』, 고경순 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284. 폭력예방을 위해 무용/동작치료사 Rena Kornblum이 개발한 기법이다.

임 분석을 통해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무용/동작치료 과정에서 여러 움직임의 특징들을 쉽게 기호로 표기해 변화정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등 상호 소통의 도구로 사용된다. 서로 반대가 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움직임, 강하고 가벼운 움직임, 빠르고 느리게 지속되는 움직임, 자유로운 것과 경직된 움직임 등 라반의 에포트(effort) 개념을 활용하여 심리적 이완의 경험을 하게 한다.[28)]

마. 즉흥 움직임

즉흥 움직임은 머리를 완전히 비우고, 무의식을 활성화하거나 무의식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법이다. 의식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움직여지도록 하여 움직이는 것으로서, 즉흥 움직임이 안 될 때는 즉흥 움직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29)] 미술치료의 자유연상그림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림을 의자나 벽에 붙여 놓고 즉흥 움직임을 하도록 하여 '무의식의 의식화'의 연속 과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4. 음악치료

음악치료는 음악을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심리치료이다. 음악을 결합하여 심리적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술이며 동시에 과학이라고 정의한다. 음악적 표현을 통한 감정이입, 소통, 상호관계, 역할관계, 친밀함 등의 상호 소통의 과정이며, 심신의

28) *Ibid.*, 159-163.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Laban에 의해 개발되었다.

29) 류분순,『마음치료의 열쇠 춤 · 동작치료』(서울: 학지사, 2004), 35.

변화를 도모하는 전문 분야이다.[30)] 음악치료에서 회기에 사용한 기법은 목소리, 음악, 노래치료이다.

가. 목소리

목소리는 정체성의 확립과 정체성의 표현에 관여하며, 내담자의 여러 가지 면을 대변한다. 자신에게 맞는 목소리를 찾아보기, 목소리를 크게 또는 작게 내어보기, 움직임에 맞는 목소리 내기, 의성어로 표현해 보기 등이 있으며, 여러 가지 기법과 병용해서 사용할 때 더 효과적이다. 그냥 움직임만 하는 것과 목소리를 내어서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집단에서 목소리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집단 역동이 훨씬 빠르게 활성화될 뿐 아니라 움직임의 질이 향상된다.[31)]

나. 음악

음악치료에서 음악은 개별적인 요소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의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무용/동작치료나 미술치료에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고, 개별적인 요소로 쓰인다는 것은 즉흥연주, 노래 찾기 등 음악 그 자체만으로 회기를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음악은 음악 자체로서 치료적일 뿐만 아니라 음악 경험이나 음악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치료적일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한다. 움직임을 활성화시킬 때와 그림을 그릴 때에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적절하게 틀어주는 것으로 창작활동에 도움을 준다. 또한 자기노출과 감정의 정화 단계에서의 적절한 음악은 치료효과를 높이는 데 적절하다. 사이코드라마 진행 전 과정에서도 적절한

30) 정현주,『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5), 254.

31) *Ibid.*, 255.

음악은 극의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32]

다. 노래치료

노래는 인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 둘 다를 자극한다. 그러기 때문에 노래는 더 쉽게 감정과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33] 평소에 흥얼거리는 노래,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노래, 그냥 몸이 이끌리어 가는 노래, 무의식적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등은 내담자의 핵심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집단에서 혼자 부르거나 함께 부르게 하거나 아니면 집단원 중에 누군가가 불러 주는 것만으로도 치료적이 된다. 그러한 노래 속에는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 삶을 변화시켰던 이야기, 사랑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노래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미술치료로 이어갈 수 있고, 그려진 그림을 확장해서 사이코드라마로 이끌어갈 수 있다.

5. 사이코드라마

사이코드라마는 드라마적 요소를 활용하여 심리 내적 문제를 해결하는 심리치료의 한 형태이다. 사이코드라마는 자발적으로 선택된 주인공이 자신의 문제를 드라마로 표현하며 대부분 단회기로 진행된다. 디렉터가 전체를 이끌어가며 워밍업 단계, 작업 단계, 종결 단계로 발달단계가 있으며, 디렉터에 의한 확고한 개입 전략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미 주어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34] 사이코드라마에서 회기에 사용한 기법은 몸 상태 표현하기, 관계나무(social tree), 보물 상자

32) 정현주, 『음악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10), 34.

33) *Ibid.*, 35.

34) 김수동 외, 『사이코드라마의 이론과 적용』 (서울: 학지사, 2004), 19-21.

(treasure box)이다.

가. 몸 상태 표현하기

사이코드라마에서 몸의 활성화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사이코드라마에 몰입할 수 없다. 특히 자발성이 핵심요소인 사이코드라마에서 몸의 상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35] 몸의 상태 표현하기는 자연스럽게 움직임으로 이끄는 기법이다. 현재 몸의 상태를 좋은(up), 안 좋은(down), 그저 그런(so so)으로 표현하고, 몸의 상태가 좋다고 한 사람부터 안 좋다고 한 사람까지 순차적으로 자신의 몸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게 한다. 이어 각자 몸에서 안 좋은 부분을 편하게 한 사람씩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따라 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에너지 수준을 조절하여 사이코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는 몸 상태를 갖도록 한다.

나. 관계나무

관계나무 기법은 사이코드라마 도입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특징을 알기 위해 사용한다. 디렉터의 질문에 답을 나무의 가지처럼 흩어져 표현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로부터 점점 깊이 있는 주제로, 집단을 나뭇가지처럼 나뉘게 한다. 일반적 순서로는 남녀, 나이, 생일, 해당분야 경험 정도 순으로 나뉘어 서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아가도록 한다.

다. 보물 상자

보물 상자는 사이코드라마의 마술가방과 같은 기법이다. 상자 안에 내담자가 상상하는 보물이 담겨 있고, 그 보물을 상자 안에서 꺼내는 기법이다. 자유연상그림이나 즉흥연주를 사이코드라마에 적용

35) *Ibid.*, 198.

한 기법이다. 이 기법은 자신이 의도하거나 인지하지 않았지만 심층 내면의 핵심 이슈와 관련된 물건을 꺼내게 된다. 자신이 무엇이든 고를 수 있다는 것에 몰입해서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핵심 이슈를 보물에 투사시켜 상자에서 꺼내게 된다. 사이코드라마의 텔레(tele, 정신적 교감)개념의 연속선상에 있다.[36)]

Ⅲ. 예술심리치료의 치료적 효과[37)]

본 장에서는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음악치료, 사이코드라마 주요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12회기 집단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소개하고, 미술치료에서 무용/동작치료로, 무용/동작치료에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로, 미술치료에서 무용/동작치료나 사이코드라마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각 참여자들이 어떤 치료적 경험을 하였는지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1.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구성에서는 연구방법론, 연구 설계와 절차, 회기 구성을 소개한다.

가.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진술을 분석하여 기술하였고, 동시에 각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담아내어 어떤 치료적 경험을 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연구, 또는 사례연구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로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36) *Ibid.*, 40.

37) 2020년 10월 초 기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가 제공하는 각 키워드별 석/박사 학위논문을 보면 미술치료는 5,559편, 무용/동작치료는 582편, 음악치료는 3,020편, 사이코드라마는 99편, 예술치료는 3,201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연구 설계와 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의 전문적 경험과 개인적 경험을 중요한 자원으로 하고 있다. 전문적 경험이란 2002년부터 예술심리치료 관련한 석박사 논문과 장병을 비롯한 다양한 대상으로 오랜 기간 임상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인 경험이란 예술치료를 경험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회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구조화된 12회기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현장에서의 관찰과 피드백, 참여자들의 그림을 포함한 다양한 움직임과 노래, 셀프 저널 등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신체언어와 움직임의 질, 공간 사용 방식, 소리 등 예상하지 못한 현상과 재료까지도 연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다. 회기 구성

〈표1.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주요내용〉

회기	매체[38)]	기법	내용
1	미,무	색 고르기, 별칭 짓기	집단규칙, 기대욕구, 별칭 적고 그리기
2	무,음,사	동작 따라 하기, 관계나무	규칙 확인, 친밀감, 신뢰감 강화하기 질문에 따라 움직이고 나눔하기

38) 미술치료 매체는 '미'로, 무용/동작치료 매체는 '무'로, 음악치료 매체는 '음'으로, 사이코드라마 매체는 '사'로 표기한다.

3	미,무,음	이름그림,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이름을 그림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이름 그림 피드백 하기, 움직임으로 이름 표현하고 따라 하기
4	미,무	소시오그램, 움직임하기	움직임을 확장 축소해 보기 네모와 동그라미로 관계를 표현하기
5	미,무	4B, 투사적 그림검사	평가도구 이해하기, 그림검사 후 나누기
6	미,무,사	보물 상자	심층 내면의 핵심 문제 확인하기
7	미,무	추가 그림과 나눔	추가 그림을 그리고 제목 붙이기
8	미,무,사	그림 피드백 하기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그림과 집단원의 그림 피드백 하기 움직임에 대한 느낌 나누기
9	미,무,사	움직임 따라 하기 사이코드라마	움직임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꾸민 이야기를 사이코드라마로 만들기
10	미,무,사	노래와 그림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노래 찾고 의미 나누기 노래를 그림으로 그리고 피드백 하기
11	미,무,음,사	해결 과제 선정	모든 작품을 전시하고 주제 찾기
12	미,무,음,사	후속 조치, 종결	후속 조치 논의하고 종결의식 하기

2. 치료적 효과

연구참여자 6명의 참여 경험을 치료적 효과 차원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을 연구참여자 1~6으로 하였고, 고유명사, 지명 등은 가명을 사용하거나○○으로 처리하였다.

가. 연구참여자 1의 경험분석

연구참여자 1은 1회기 연두색을 고르고 그 색으로 멋쟁이라는 별칭을 짓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 또한 2회기 관계나무를 통해 50대 후반으로 자신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타인에 대한 깊은 친밀감의 경험을 표

현하고 있다. 3회기 이름 그림을 통해 잠재되었던 무의식의 소리를 들음으로서 자기 수용의 경험을 하게 된다. 4회기 관계성 그림에 자신을 큰 사각형으로 표현하고 그 주변에 주변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강한 책임감을 표현하고 있다. 5회기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는 현재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있지만 자신을 대변하는 사람은 우산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빗속에 노출되어 있다. 어항그림검사 또한 집단에서 자신이 처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자기 수용의 길로 나아간다. 6회기 비행기, 구름, 다이아몬드 등 보물 상자의 물건은 7회기 빛과 교회, 그리고 십자가를 추가적으로 그림으로써 자기 개방의 길로 나아간다. 더 나아가 8회기와 9회기 사이코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나가 비행기를 타고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소명을 다하겠다는 자기 개방을 함으로써 심리적 격동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대변하는 열 곡의 노래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현재의 삶 가운데 펼치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 개방을 하게 된다. 11회기 핵심 주제어를 ‘동행’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현실 삶에서 실천 행동으로 펼치고자 하는 다짐과 함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기주장의 관점을 갖게 된다.

나. 연구참여자 2의 경험분석

연구참여자 2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아내와 함께 가정사역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부부를 대상으로 언어 중심 상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회기에서 예술심리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

다. 2회기 관계나무 기법을 통해 남녀로 나누라 해서 가볍고 쉽게 나누었는데 점점 더 서로를 알아가면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것으로 자기와 타인을 이해를 하고 있다. 3회기 자신의 본래 이름 속에 있는 소나무가 버릴 것이 없는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이렇게 현장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자기 수용에 이르고 있다. 4회기의 관계그림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각형을 통해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2는 핵심 이슈가 친구와의 갈등 해결에 있다는 점을 단순하게 표현한 그림이지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5회기 빗속의 사람그림검사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혼자 우산을 쓰고 어디론가 가고 있으며, 어항 속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 자기를 수용하고 있다. 6회기 보물 상자에서 초원, 하와이, 별장을 꺼냄으로써 현실 삶에서 벗어나 쉼의 순간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푸른 초원에서 친구와 함께 다정하게 낚시질하는 장면을 표현함으로써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7회기 구름과 친구를 추가로 그림으로써 자신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친구와 해결하고 싶다는 점 또한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개방하고 있다. 8회기 그림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자유함을 맛보았고, 9회기 사이코드라마의 남편 배역을 소화하면서 자기를 마음껏 타인에게 개방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나간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반응으로 남편 역을 소화했음에도 집단원의 반응이 좋았고, 자신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10회기 친구와의 만남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는데, 두 사람이 부둥켜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11회기 '갈등해결'이 주제로 드러났고, 현실 삶에서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마음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12회기에서는 실천행동으로 예술심리치료를 좀 더 공부해서 현재 부부가 언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부 세미나에 그림이나 움직임을 수용하겠다는 자기주장을 하고 있다.

다. 연구참여자 3의 경험분석

연구참여자 3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의대를 중도에 그만둠으로써 의사의 꿈이 좌절된 아픔을 갖고 있다. 1회기에서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색 고르기를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 별칭을 '잘했어'로 짓고 집단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칭찬과 인정 욕구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4회기 관계그림을 통해 자신이 자녀들에게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을 수용한다. 6회기 보물 상자에서 여행 티켓, 게임기, 박사과정 졸업장을 꺼냄으로 지금 간절히 바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수용하게 되었고, 추가로 자동차, 교회, 성경책을 그림으로 여동생과 얽힌 미해결 과제를 풀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7회기 추가그림을 그린 후에 그림 제목을 '회복과 감사'로 정함으로써 자신 내면의 역동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8회기 그림을 움직임으로 확장해 가면서 내면의 답답함이 풀리며 해소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9회기 사이코드라마를 함으로써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10회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노래를 부르며 정말 힘들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직면하자 감정이 복받쳐 올라옴을 느꼈다고 표현함으로 자기를 개방하고 있다. 11회기 모든 과정을 회상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 삶

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자기주장의 방법으로 '회복'을 결정하였다. 12회기에서는 역동적이고 재미있고 졸리지 않는 예술심리치료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하였다. 회복의 개념 속에는 미해결된 자신의 문제를 아내와 자녀들에게 투사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표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자기주장을 보여 주었다.

라. 연구참여자 4의 경험분석

연구참여자 4는 석사과정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임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이다. 1회기에서 몸도 마음도 어수선하다고 자신을 진단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을 노출하기 쉽지 않다고 정의하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불편함과 편함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다. 3회기에 그렸던 이름그림에 누군가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 불편함을 드러냄으로써 자기 수용을 하고 있다. 4회기 관계 그림을 통해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5회기 빗속의 사람에서 홀로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여주고 있고, 어항 그림검사에서는 두 딸과 남편 물고기를 그림으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회기 보물 상자에서 앨범, 조기 매운탕, 신혼여행을 꺼내고 기분이 한결 좋아졌으며, 7회기 추가로 신혼여행의 글씨에 초록색 테두리를 그림으로써 남편과 자신과의 문제를 노출함으로 자기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다. 8회기에 집단원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강하게 경험하였고, 9회기에 사이코드라마 주인공이 되어 남편과의 문제를 집단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기 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10회기 음악치료의 놀라운 역동들을 경험하고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느끼는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11회기 핵심 과제로 남편과 신혼여행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대안 행동을 표현함으로써 자기주장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12회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에 대한 든든함을 표현하고 있다.

마. 연구참여자 5의 경험분석

연구참여자 5는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이다. 모든 그림에 빨간색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신을 열정적이고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다. 색으로 대변되는 자신의 삶을 복덩이라고 별칭을 정함으로써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 4회기 관계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타인에 대해 포용하고 담아냄으로써 강력한 자기 수용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포용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5회기 빗속의 사람그림에서 비가 아닌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삶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항 그림검사를 통해서는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집단에 대한 안정감을 표현하고 있다. 6회기 보물 상자에서 솜사탕, 사진기, 책을 꺼내고 그것이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자기 개방을 하고 있다. 추가로 햇빛과 풀밭, 그리고 스마일을 그려 넣고 햇빛이 있는 가운데 풀밭에서 솜사탕을 먹고 책을 읽으면서 사진기로 자신을 찍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8회기에서 그림의 특징을 살려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4장의 그림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고 상상력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것으로 창의성과 독창성이 느껴진다는 자기 개방을 하고 있다. 9회기에는 즉흥성과 자발성으로 무대에 나가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기쁨과 감동

이 있었다고 하였다.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관객과 연기 당사자 모두가 치료적 경험을 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 주장의 힘을 얻게 되었다. 10회기 대학 때 불렀던 "모닥불 피워 놓고"를 부르며 함께 손뼉 치고 수건돌리기를 하며 옛 추억으로 돌아간 느낌이 좋았고, 그때 느꼈던 추위와 불 앞에서의 따뜻함이 그대로 펼쳐지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11회기는 보물 상장에서 꺼낸 것처럼 '자유'를 문제 해결의 주제로 삼았다. 자기주장으로서 유머를 구사하며 앞으로 폭넓은 사귐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12회기에는 예술심리치료 전 과정을 통해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통찰과 함께 스스로 멘토와 멘티로, 코치와 코치이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바. 연구참여자 6의 경험분석

연구참여자 6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슈퍼맨'이란 별칭처럼 다방면에서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1회기 실행 단계에서 별칭을 기억하며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고 별칭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별칭 안에 그 사람의 생각과 현재의 감정, 그리고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담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회기 관계나무를 통해 집단 안에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양한 정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3회기 이름그림을 통해 단순한 이름을 그리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도 모르게 이름그림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담고 있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자기 수용으로 나아가고 있다. 4회기 관계그림을 통해 평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성향이 가족과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5회기 빗속의 사람그림 검사에서 비춰진 대로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자기 위치를 선정하고 충분히 안전감을 갖고 피해 있으며, 집단 속에서 주요한 공급자로의 자기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6회기에서 주어진 현실을 초월해서 소망하는 바를 얻어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현재의 삶에서 탈출하고 싶고,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고 싶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7회기에서 추가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쉼'으로 정함으로 자기 개방을 하고 있다. 자신이 현재 물질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곳의 대표와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서 쉼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였다. 8회기 4장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들면서 현상 너머에 숨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직면하게 되고, 그것이 전이와 역전이 구조 속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집단원의 그림 속에서 자신의 핵심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통찰이었다. 9회기 사이코드라마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지만 정작 드라마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이 드러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대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상호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10회기 노래에 사람의 마음, 무의식의 상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도구로서 노래가 갖는 힘을 알게 되었다. 11회기 실천 계획으로 역시나 '쉼'을 택하였고, 쉼을 현실화하기 위한 묵상과 운동, 그리고 깊은 잠을 취하는 것으로 실천 계획을 삼았다. 12회기 새롭게 접한 예술심리치료가 내담자를 깊이 있게 이해

하는 훌륭한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고 능동적인 자기주장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레크리에이션 강사 경험을 통해 자신이 행했던 것과 예술심리치료가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고, 자신이 현재 일하고 있는 전 영역에서 사역의 질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주장을 하였다.

Ⅳ. 예술심리치료의 군상담에의 적용

본 장에서는 예술치료가 어떻게 군상담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미술치료 영역에서, 무용/동작치료 영역에서, 음악치료 영역에서, 사이코드라마 영역에서, 그리고 예술심리치료 영역에서 제시하였다.

1. 미술치료의 군상담에의 적용

미술치료는 1회기 색 고르기, 3회기 이름그림, 4회기 관계그림, 5회기 그림투사검사인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와 어항 그림검사, 6회기 보물 상자 꺼낸 물건을 포함한 자유 연상그림, 7회기는 6회기 그림에 추가 그림, 8회기에서는 그림 피드백, 4장 그림으로 이야기 만들기, 그림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9회기에서는 4장의 그림 이야기를 드라마로 표현하기, 10회기에서는 노래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11회기에서는 작품을 벽에 걸고 실천 과제 선정하기, 12회기에서는 실천 과제 이행하기 등 두 번째 회기를 제외하고 전 회기에 걸쳐 기법을 활용하였다.

미술은 매우 치료적이다. 아니, 치료를 위한 매체로서 강력한 도구이다. 결국 무의식을 의식으로 끄집어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에서 미술이 가지는 힘은 크다. 일단 색깔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다. 1회기의 집단원이 불러 주는 별칭을 지

을 때도 그냥 이름을 적으라 하지 않고 좋아하는 색을 고르게 해서 그 느낌으로 이름을 짓는 것은 색다르며, 의미를 담고 있는 별칭을 짓게 된다. 3회기 자신의 본래 이름을 그림으로 묘사할 때 단순히 이름만을 묘사하지 않는다. 이름과 엮여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기게 된다.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름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5회기 그림투사검사는 심리 내적인 문제를 빠르게 외현화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고 검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 그렸지만 당사자들은 그림 자체를 그린다. 그림을 통해 마음을 대변하고 그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를 담는다. "현재 마음을 대변하는 색을 고르시오"라든가 "가장 크게 보이는 색이 무엇입니까?" 이 한 질문으로 내담자는 편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내면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한 장의 그림이 천 마디의 말을 한다"라는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낙서하듯이 그린 그림이 그 사람의 심층 내면의 깊은 문제를 드러내게 한다. 마음으로 가는 문이면서 동시에 그 속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한 그림을 벽이나 바닥에 놓고 "편하게 보이는 것을 말해 보세요"라고 할 때 집단원들은 그들 내면의 이야기를 '전이와 역전이' 관계를 통해 무의식의 이야기를 외현화한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러한 작업이 어떠한 저항도 없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림을 통해 분석하고 분석되는 과정에 몰입한다. 그림에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삶의 소망이 자연스럽게 담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 미술치료 기법은 언어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문(gate)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2. 무용/동작치료의 군상담에의 적용

무용/동작치료는 1회기 별칭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집단원이 따라 하기, 2회기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따라 하기, 3회기 이름그림을 자신만의 고유한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따라 하기, 라반 동작분석으로 빠르고 느리게, 강하고 약하게, 무겁고 가볍게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의 효과를 경험하고 따라 하기, 6회기 그림이 움직이도록 하기, 7회기 추가 그림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8회기 자신의 그림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집단이 따라 하기, 9회기 여러 가지 움직임을 집단 또는 개인으로 해보기, 10회기 노래 그림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11회기 움직임 따라 하기, 12회기 움직임으로 종결하기 등등 전 회기를 통해 무용/동작치료 기법을 활용하였다.

움직임을 치료적으로 경험해 보고 움직임을 통한 내담자의 변화 경험의 정도를 본다면 움직임은 주요한 치료 동인이라 할 수 있다. 충분히 몸을 움직였을 때 내담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인위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 의식적으로 규격과 조건에 맞추어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냥 즉흥적으로 편하게 상대의 움직임을 따라 했을 때 몸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곳에 놀이적 요소가 가미되면 움직임의 활성화는 촉진된다. 어떻게 보면 몸 그 자체가 놀이 도구일 수 있다. 상대 몸의 움직임을 따라 하든 반대로 하든,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움직임 그 자체로서 치료적이며 동시에 치료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필수적이다. 충분한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이 그림으로 가든지 소리로 가든지 드라마로 가든지 심층적으로 이어진다.

무용/동작치료는 개인치료에도 의미를 갖지만 집단으로 할 때 그 파괴력은 크다. 집단 전체가 한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작업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 마리안 체이스 기법은 집단을 하나로 묶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 집단원이 내향적 성향이 강하다면 아주 천천히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외향적 집단이라면 집단이 지나치게 에너지가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향적 집단을 운영할 때 속도감을 내면 바로 저항이 찾아온다.

또한 무용/동작치료의 효용성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즉흥성에 있다. 춤이나 무용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정형화된 춤을 추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춤과 무용에 대한 저항이 크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즉흥성이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뇌가 깡통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도록 하면 처음에 어색해하기도 하고 움직임을 따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흥적으로 움직여야만 춤과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동화될 수 있다. 장병들의 에너지 레벨을 조율할 때, 또는 장병 상호 간 집단 역동을 일으키고자 할 때 무용/동작치료는 매우 유용한 기법이 된다.

3. 음악치료의 군상담에의 적용

음악은 전 회기에 걸쳐 사용된다. 워밍업단계나 실행단계에서 음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회기는 노래치료 중심의 음악치료로 구성하고 진행하였다. 미술이나 무용보다 음악의 치료적 효과는 보편적이다. 영성적 차원에서도 음악의 치료적 기능은 필연적이다.

모든 종교 행위의 시작은 음악이다. 소리를 들음으로써 반응하고, 반응함으로써 치료적 경험의 영역으로 가게 된다.

음악은 인간 삶의 여러 영역에 깊이 있게 관여한다. 갓 태어난 아이는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다. 그리고 정교하면서도 잘 짜인 음악을 통해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다. 음악 없는 인류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은 없다. 치료에서 음악은 배경이 되기도 하고 촉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노래는 자신의 삶을 대변하기도 하고, 핵심문제를 인식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목소리는 사람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한다. 목소리가 가지는 힘은 크다. 집단원의 목소리가 집단 역동의 동인이 된다.

예술심리치료는 예술의 영역을 넘나들기에 음악에서 그림으로, 그림에서 음악으로, 움직임에서 그림으로, 움직임에서 음악으로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은 이야기보따리다. 자신이 살아온 삶만큼 이야기가 담겨 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살아온 만큼의 노래를 가지고 있다. 노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노래 찾기는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말하지 않는다. 노래는 삶을 말한다. 노래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 신념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고민과 방황의 이야기, 현재 삶의 이야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추억 이야기,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 그리움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음악의 특징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성격의 공동체일 경우, 나이대가 비슷할 경우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다.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노래와 함께 박수를 치면서 움직이면서 쉽게 집단은 하나

됨의 기억을 갖는다. 장병들에게 음악치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군가를 비롯해 군기의 정도를 목소리로 표현한다. 하루의 일과를 노래로 시작해 노래로 마치는 것이 군생활이다. 따라서 상담뿐만 아니라 병영생활 전 영역에서 음악이 갖는 치료적 효과를 교육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다.

4. 사이코드라마의 군상담에의 적용

사이코드라마는 한 회기가 전체 회기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크다. 사이코드라마는 디렉터의 힘이 크다. 사이코드라마의 디렉터는 유능감과 전능감으로 집단을 이끌어야 한다. 한 회기에 특정한 사람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핵심문제를 찾아가는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집단 전체를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민감하게 집단원의 반응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극도의 민감성을 갖고 있다. 집단 리더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이코드라마는 낭패를 보기 쉽다. 그러므로 사이코드라마의 디렉터는 전문가적 기질을 배양해야 한다. 주인공의 문제를 해부하는 시간과 관심만큼 그것을 봉합하는 힘도 있어야 한다. 디렉터는 해부와 봉합의 상호간의 긴장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이코드라마의 역동성을 발휘하려면 워밍업의 단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보통 사이코드라마 현장에서는 급한 마음에 워밍업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드라마 작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움직임을 가져야 한다. 사이코드라마의 관계나무 기법은 아주 짧은 시간에 집단원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한다. 쉽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고, 서로가 틀린 조건으로 만나

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만나기 때문에 쉽게 친숙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집단 결속이 생기면서 내면의 문제를 표현하게 한다.

보물 상자 기법은 사이코드라마 무의식 탐색 도구로서 여러 번에 걸쳐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도록 해서 심층적인 목소리를 듣게 하는 힘이 있다. 짧은 시간에 놀이적 기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이 기법은 자유연상 그림으로 옮겨 갈 수 있고, 다시 움직임으로 그림이야기로 그리고 사이코드라마로 이어지는 정신역동 예술심리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장병들은 정체성, 진로, 이성 문제가 핵심 이슈이지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보물 상자를 활용한 사이코드라마 기법은 아주 가볍고 쉽게 장병들의 핵심 이슈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예술치료의 군상담에의 적용

예술이 갖고 있는 치유적 힘에 대한 신뢰가 높아가고 있다. 예술이 갖고 있는 치유적 힘이 무엇보다도 예술적 역동성이 강한 우리 민족에게 유용하다. BTS 현상이나 영화 “기생충” 현상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심리치료 영역에서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예술치료 기법들이 세션 안으로 옮겨 오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물론 미술, 음악, 무용/동작, 연극 4개의 영역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펼쳐서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짠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닐 뿐 아니라 집단 리더가 소화시켜야 할 예술 영역의 범주가 넓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게 된다. 하지만 개별적 관점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종합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그 내용과 의미가 확대된다는 점은 의미를 갖는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다 더 유의미한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V. 나가는 말

군상담에서 군성직자가 예술심리치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문가적 차원에서 각 매체에 대한 유능감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연구자가 직접 만났던 세계적인 여러 예술심리치료사들은 하나같이 예술매체에 대한 치료사의 유연성과 친근감을 강조하였다. 적어도 치료사가 예술매체를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매체에 대한 유능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매체에 대한 감각적 민첩성은 선천적인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학습과 부단한 매체에 대한 노출이라고 하였다. 그래야만 각 매체를 치료에 활용할 때에 각 매체가 주는 치료적 특징을 체득할 수 있고,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예술심리치료를 군상담에 활용하기 위해 군성직자는 내담자로서의 참여경험과 상담자로서의 풍부한 임상경험, 그리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일에 민감해야 한다. 김계현은 전문적인 상담사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39] 첫째는 이론에 대한 유능감이다. 마치 저글링 하듯이 자신의 상담에 대한 이론적 맥락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풍부한 임상경험이다.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대한 임상경험과 가벼운 증상부터 좀 더 무게감 있는 증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임상경험을 갖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로 이론과 임상경험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이론을 바탕으로

39) 김계현, 『심리상담학 연구』 (서울: 학지사, 2000), 5-7.

한 임상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많은 상담사들이 이론에만 치우치거나 또는 임상에만 치우치기도 하고, 이론과 임상경험에만 몰두하면서 그것을 글로 정리하는 습관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 전문 상담사로의 성장이 없다고 보았다.

예술심리치료는 언어 중심으로, 또는 글쓰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제반 군상담에 유의미한 도구가 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말로 표현하는 데 멈추지 않고, 그것을 그림이나 움직임, 또는 노래나 드라마로 표현할 때에 어떤 치료적 효과가 있는지, 글로 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그림이나 움직임, 또는 노래나 드라마로 표현할 때에 어떤 치료적 효과가 있는지를 이론적 맥락에서, 연구참여자의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바라건대 군성직자에 의한 군상담의 영역에서 이러한 예술심리치료의 치료적 효과가 활발하게 접목되어 실용화되었으면 한다.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Arts Psychotherapy and It's application in Military Counseling

Sang Man Kim

This study deals with the understanding of Arts Psychotherapy and it's application in Military Counseling. First, Chapter 1 dealt with the significance and purpose of the research. About 400 modern psychotherapy theories are widely used in the name of integration and compromise, divided into four types: common factors theory, technical eclecticism, assimilative integration, and theoretical integration. In this study, aims to an art psychology therapy the program was composed of a common factor theory from the point of view of tying the treatment technique, a technological eclecticism from the point of view of choosing the most effective best treatment technique, an assimilation integ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moving forward to another theory based on one theory, and a theoretical integ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bining various theories. The therapeutic effects of research participants are analyzed, and the application to military counseling is dealt with based on the results. To this end, Chapter 2 outlines the meaning and history of arts therapy to help understand arts psychotherapy based on art therapy, dance/movement therapy, music therapy, and psychodrama. The main techniques of each treatment included in the composition of the session, including art therapy, dance/movement therapy, music therapy, and psychodrama, were introduced. Chapter 3 introduced how the sessions arts psychotherapy program

was organized based on art therapy, dance/movement therapy, music therapy, and psychodrama major techniques. The participants in the program analyzed and described what therapeutic experiences they had. Chapter 4 presented some characteristics of how arts psychotherapy can be applied to military counseling. In Chapter 5, military chaplain should strive to have a sense of competence for each media at an expert level in order to effectively use arts psychotherapy in military counseling. The military chaplain should have extensive clinical experience as a counsellor and participation.

Key Words

Military Chaplain, Military Counseling, Arts Psychotherapy, Art Therapy, Dance/Movement Therapy, Music Therapy, Psychodrama

키릴로스의 세례교육[1)]

Cyril's Baptismal Catechesis

» 김선영 Ph. D.*

국문초록

본 논문은 4세기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키릴로스의 입교절차(initiation process)에 나타난 세례교육을 살펴보고, 그 신학적 메시지와 교육적 가치를 탐구하며,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키릴로스의 입교절차를 세례 전 사순절 카테케시스, 세례예식, 그리고 세례 후 미스타고지, 그리고 에제리아의 증언에 도움을 받아 재구성한다. 세례교육은 세례예식 전, 세례예식, 세례예식 후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가르침과 예식이 치밀하게 짜인 거룩한 사회화 과정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주된 신학적 메시지는 사탄의 통치에 대한 포기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수용, 그리고 그에 따른 세계관과 가치관, 윤리관과 삶의 양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회심과 성화다.

중심단어

예루살렘의 키릴로스, 입교절차, 카테케시스, 미스타고지, 교육적 가치

• 논문 투고일: 2020년 9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5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6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 본 논문은「한국교회사학회지」54권(2019)에 게재된 글을 줄이고 수정하여 재작성한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4세기는 성인 세례후보자들을 위한 입교절차(initiation process)가 매우 발전했던 시기다. 특히 서방 교회에 속한 밀라노(Milan)의 암브로시우스(Ambrosius), 동방 교회에 속한 예루살렘(Jerusalem)의 키릴로스(Cyril),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르(Theodore of Mopsuestia), 그리고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John Chrysostom)가 미스타고지(mystagogy) 분야의 대가로 손꼽힌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도 당시 그리스도교에서 예루살렘이 차지한 위상을 고려하여 키릴로스에 먼저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특히 키릴로스의 세례교육이 보여주는 신학적 메시지와 교육적 가치를 분석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일차자료를 위주로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일차자료로는 키릴로스의 사순절 카테케시스(카테케시스 서언인 procatechesis와 18편의 카테케시스)와 미스타고지(5편)를 사용한다.[2] 이와 함께 에제리아(Egeria)가 380년대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쓴 순례 일기도 보충 자료로 사용한다.[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키릴로스는 동시대 인물인 암브로시우스나 히에로니무스 등과 같은 동시대 인물들에 비해 연구가 적고, 키릴로스를 연구하더라도 그의 신학, 교리적 입장, 카테케시스, 그리고 미스타고지의 저자 문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세례교육 전체를 신학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교육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가치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갖는다.[4]

2) 이 미스타고지에 관해서는 저자에 대한 논의가 있다. 최근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도발(Doval)은 미스타고지가 키릴로스의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Alexis J. Doval, *Cyril Of Jerusalem, Mystagogue: The Authorship of the Mystagogic Catecheses*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1), 특히, 2-8, 239-243. 데이(Day)는 키릴로스의 후계자인 존(John)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Juliette Day, *The Baptismal Liturgy of Jerusalem: Fourth-and Fifth-Century Evidence from Palestine, Syria and Egypt* (Aldershot: Ashgate, 2007).

3) 일반적으로 스페인에서 온 수녀로 알려진 에제리아는 에데리아(Etheria)로도 불린다. 에제리아가 남긴 문서에는 제목도, 저자도, 정확한 여행 일정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에제리아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시기에 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략 381년에서 384년이었다는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글 참조, Egeria, *The Pilgrimage of Egeria*, trans. Anne McGowan and Paul F. Bradshaw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18), 2-3, 15-27. 에제리아의 여행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John Wilkinson, *Egeria's Travels,* 3rd ed. (Havertown, PA: Oxbow Books, 2015), 35-44.

Ⅱ. 세례교육의 신학적 메시지

키릴로스가 활동했던 4세기 예루살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스탄티누스(Constantine)가 리키니우스(Licinius)와 함께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을 공표한 해가 313년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회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이 사건으로 인해 이교 문화에 맞서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 전체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했다. 그리스도교는 명실공히 순교와 박해의 종교에서 공인된 종교로 변모했다. 이 와중에 예루살렘은 이교 문화의 흔적을 지워가며 그리스도교 성지로서의 위상을 굳혀 갔다. 349/350년에 감독이 된 키릴로스(c. 313/5-386/7)는 아리우스파와의 갈등 속에서 세 번이나 추방(357-359, 360-361, 367-378)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변화를 주도했고, 이 변화로 인해 발생한 많은 목회적 문제에 잘 대처했다.[5] 그 대표적인 예로서 키릴로스는 감독이 되었을 때 물려받은 기

4) 키릴로스를 다루는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 사용된 책과 논문 및 다음 글 참조, Jan W. Drijvers, *Cyril of Jerusalem: Bishop and City* (Leiden: Brill, 2004), xii-xiii. 우리말로 출간된 연구로는 다음 글 참조, 김정, "4세기 예루살렘교회의 세례예식: 씨릴 감독과 에제리아 수녀의 증언," 「신학과 실천」 38 (2014), 97-119; 나형석, "3-5세기 그리스도교 입교의식의 분석과 평가," 「종교연구」 57 (2009), 229-252.

5) Jan W. Drijvers, *Cyril of Jerusalem*, 1-30, 153-176.

존의 세례후보자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켰고, 이러한 업적을 통해 예배와 카테케시스 전통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6)]

키릴로스의 세례교육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입교절차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입교절차는 세례 전 사순절 카테케시스, 세례예식, 그리고 세례 후 미스타고지에 근거해 재구성할 수 있으며, 에제리아의 증언이 도움이 된다. 세례 전 카테케시스, 세례와 성찬에 관련된 예식, 그리고 세례 후 미스타고지는 예루살렘 성묘교회(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또는 주님 부활 기념교회에서 진행되었다. 335년에 봉헌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망한 골고다 위에 세워진 건물인 마르티리움(Martyrium)과 매장되었다가 부활한 무덤 위에 세워진 건물인 아나스타시스(Anastasis)로 이루어져 있다.[7)]

1. 입교절차의 구조와 내용

1) 세례예식 전: 사순절

(1)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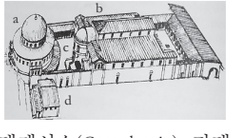
카테쿠멘(catechumen)으로서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순절 전에 이름을 제출한다.[8)] 그러면 장로가 모든 이름을 기록한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그다음 날, 즉 첫 월요일에 자격심사를 위해 감독이 마르티리움 한가운데 마련된 의자에 앉는다. 지원자는 한 명씩 부름을 받는다. 남성인 경우 남성 후견자들이, 여성인 경우 여성 후견자들이 동행한다. 그러면 감독이 후견자를 포함하여 이웃에게 후보자가 선한 삶을 살았는지, 부모에게 순종했는지, 주정뱅이나 거짓말쟁이는 아닌지, 특정한 악행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물어본다. 이 모든 일에 비난할 점이 없다면 감독은 그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적는다. 하지만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감독은 삶을 개선하고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오라고 요청한다.[9)] 심사를 통과한 자는 세례후보자로 등록되고 카테쿠멘의 신분과는 달리 "조명을 받을 자"(photizomenoi)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게 된다.[10)]

(2) 금식, 구마, 카테케시스

세례후보자가 되면 사순절에 매일 카테케시스에 참여한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구마예식에 참여한다.[11)] 키릴로스는 이들에게 구마예식과 카테케시스에 진지하게 임하라고 당부한다.[12)] 감독은 마르티리움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한 상태에서 빙 둘러앉은 후보자들에게 강의한다. 후견자들도 그곳에 서 있고,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들 중 강의를 듣기 원하는 자들 역시 동석할 수 있다. 하지만 카테쿠멘은 들어올 수 없다.

---

6) 3세기와 비교해 볼 때 4세기와 5세기 성인 세례후보자교육이 드러내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Michel Dujarier, *A History of the Catechumenate,* trans. Edward J. Haasl (New York: Sadlier, 1979), 107-111.

7) 

Alexis J. Doval, *Cyril Of Jerusalem, Mystagogue*, 26.
도발이 설명과 함께 제시한 4세기 성묘교회 그림이다.
a. 아나스타시스, b. 마르티리움, c. 골고다, d. 세례당

8) 카테케시스(Catechesis), 카테쿠멘(Catechumen), 카테쿠머네이트(Catechumenate), 카테키즘(Catechism), 세례 카테케시스, 미스타고지(Mystagogy)의 개념은 다음 글에 간략히 잘 정리되어 있다. 김정, 『초대교회와 오늘의 예배』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7), 17-21.

9) Egeria, 45. 1-4(188-189쪽).

10) Cyril, *The Catechetical Lectures of St. Cyril of Jerusalem,* ed. Paul A. Böer, Sr. (Veritatis Splendor Publications, 2014), 11. 9(378쪽). 이후로는 Cyril, *Cat.* 11. 9(378쪽)와 같이 표기한다. 카테케시스의 서언인 Procatechesis의 약어는 *Procat.*로, *Mystagogic Catecheses*는 *Myst. Cat.*로 표기한다.

11) Cyril, *ProCat.* 9, 13, 14(161, 163-164쪽).

12) Cyril, *ProCat.* 9-11(161-1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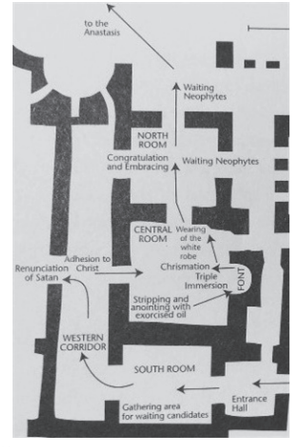
감독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훑는다. 먼저 각 구절의 문자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영적 의미를 해석한다.[13] 에제리아는 매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강의가 진행되었다고 기록한다.[14] 키릴로스는 카테케시스 서언(Procatechesis)을 제외하고 6번째부터 18번째 강의까지 그가 *Pistis*(Faith)라 부르는 신경(the Creed)을 해설한다.[15] 후보자들은 키릴로스가 신경을 가르치는 동안 가슴에 새기고 외워야 한다. 이것을 종이에 기록해서는 안 되고, 암송하는 동안 카테쿠멘이 엿듣게 해서도 안 된다.[16] 키릴로스는 신경 역시 성경처럼 각 조항을 따라 먼저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사순절 여덟째 주에는 강의가 없다.[17] 세례를 받기 위한 마지막 자격심사로서 세례후보자들은 신경을 외워야 한다. 마르티리움의 후진(apse) 뒷부분에 마련된 의자에 감독이 앉으면 후보자들이 후견자들과 함께 한 명씩 나와 신경을 외운다. 이로써 세례 전 사순절 준비교육은 끝난다.

2) 세례예식: 부활주일 전야와 부활주일 새벽

사순절 금식과 도유와 카테케시스가 끝나면 후보자들은 부활주일 전야에 세례당에 모인다. 세례예식은 세례반에 들어가기 전, 세례반 안, 그리고 세례반에서 나온 후 예식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순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8]

(1) 세례반에 들어가기 전 예식

후보자들은 세례당으로 들어가는 통로에서 서쪽을 향해 선 채 명령에 따라 손을 앞으로 뻗고 "사탄아, 나는 너를 버린다"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사탄의 일과, 사탄의 모든 거만함과, 사탄과 관련된 모든 의식(services)도 버린다고 선포한다. 그다음에는 동쪽을 향해 몸의 방향을 180도 바꾼다. 그리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회개의 한 세례를 믿습니다"라고 말한다.[19]



성묘교회 세례당

이 순서가 끝나면 후보자들은 세례반으로 이동한다.[20] 세례반 안으로 들어가기 전 옷을 벗고 구마한 기름(exorcised oil)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르는 도유예식을 거친다.[21]

(2) 세례반 안에서의 예식

도유예식이 끝나면 후보자들은 세례반 안에 들어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믿는지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각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 번 입수했다 나온다.[22]

(3) 세례반에서 나온 후 예식

13) Egeria, 46. 1-2(189-190쪽).

14) Egeria, 46. 3(190쪽).

15) 이 예루살렘 신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T. Herbert Bindley, "On Some Points, Doctrinal and Practical, in the Catechetical Lectures of St. Cyril of Jerusalem," *The American Journal of Theology* 21/4 (1917), 601.

16) Cyril, *Cat.* 5. 12(257-258쪽).

17) Egeria, 46. 4(190쪽).

18) Alexis J. Doval, *Cyril Of Jerusalem, Mystagogue,* 87.

19) Cyril, *Myst. Cat*. 1. 2-9(646-650쪽).

20) Cyril, *Myst. Cat*. 1. 11(650쪽).

21) Cyril, *Myst. Cat*. 2. 2-3(657-658쪽).

22) Cyril, *Myst. Cat.* 2. 4(658-659쪽).

수세자들(neophyte)에게 또 다른 도유예식이 행해진다. 기름은 이마, 귀, 코, 가슴 순서로 바른다.[23] 이제 수세자들은 "그리스도들"(Christs),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불린다.[24] 도유예식 후 수세자들은 새 옷을 입고 성찬예식을 위해 곧바로 예배당 안으로 이동한다.[25]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신자들과 평화의 키스를 나눈다.[26] 이후 사제가 "주님께 감사드립시다"라고 말하면 수세자들은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응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27] 곧이어 빵과 포도주를 성화하고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만들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다.[28] 이 기도는 "교회의 평화와 세상의 안녕,…즉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및 이전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진다.[29]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을 하고 "아멘"으로 마친다.[30] 이후 수세자들은 성찬에 참여하고, 감사기도를 드린다.[31]

3) 세례예식 후: 부활주일 다음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부활주일이 되면 그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그다음 주일까지 감독은 매일 아나스타시스에서 미스타고지를 행한다. 그리고 세례 및 성

23) Cyril, *Myst. Cat.* 3. 1, 4(664, 666쪽).

24) Cyril, *Myst. Cat.* 3. 1, 5(664, 666쪽).

25) 이 입교절차 안에 세례와 성찬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정, "4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세례예식: 씨릴 감독과 에제리아 수녀의 증언," 『신학과 실천』 38 (2014), 115.

26) Cyril, *Myst. Cat.* 5. 3(680쪽).

27) Cyril, *Myst. Cat.* 5. 4-6(680-681쪽).

28) Cyril, *Myst. Cat.* 5. 7(681쪽).

29) Cyril, *Myst. Cat.* 5. 8-9(681쪽).

30) Cyril, *Myst. Cat.* 5. 11, 18(682, 684쪽).

31) Cyril, *Myst. Cat.* 5. 20-22(685-686쪽).

찬예식과 관련해 행한 모든 신비를 설명하며 강의한다.[32] 이때 카테쿠멘은 아나스타시스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 놓는다. 오직 갓 세례를 받은 자들과 이 신비에 대한 강의를 듣기 원하는 신자만 들어올 수 있다.[33]

2. 세례교육의 신학적 차원

1) 신학적 목적

키릴로스의 세례교육을 따라가다 보면 강의와 예식이 매우 정밀하고도 견고하게 짜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는 예식의 의미를 알려주는 신학적 메시지이고, 예식은 신학적 메시지의 드라마와도 같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가능케 하고 이끌고 나가는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 드라마에서 주역을 맡아 드라마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인물은 세례후보자다. 그렇다면 이 세례교육이 성취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교육을 디자인하는 데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신학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핵심적인 신학사상은 세례반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후보자가 서쪽을 향해 손을 뻗친 상태에서 사탄에 대한 소속과 충성을 단적으로 거부하고 동쪽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소속과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에서

32) Cyril, *Cat.* 18. 33(632쪽); Egeria, 47. 1(191-192쪽). 키릴로스는 부활주일 다음 월요일부터 그다음 주일까지 매일 강의를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강의는 단지 다섯 편뿐이다. 학자들은 감독이 아나스타시스에 있을 때만 강의를 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Leonel L. Mitchell, "The Development of Catechesis in the Third and Fourth Centuries," in *A Faithful Church: Issues in the History of Catechesis,* ed. John H. Westerhoff III and O.C. Edwards, Jr. (Wilton, CT: Morehouse-Barlow Co., 1981), 64.

33) Egeria, 47. 2(192쪽).

잘 드러난다.[34]

이 행위는 인간이 속할 수 있는 두 개의 현실(reality)을 제시한다. 하나는 사탄이 통치하는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실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180도 방향을 바꾸는 행위의 핵심적인 의미는 메타노이아(metanoia), 즉 회심이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의 이전 및 사탄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형을 의미한다. 새로운 주인에 대한 충성의 맹세에는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삶의 양식도 180도 바꾸겠다는 결단이 포함된다.

키릴로스의 세례교육에서 이 메타노이아는 옛 실재와 새 실재, 옛 주인과 새 주인, 옛 사람과 새 사람, 옛 종교와 새 종교, 탈퇴와 가입, 이탈과 입회, 불신앙과 신앙, 더러운 옷과 흰 옷, 옛 옷 벗기와 새 옷 입기, 물에 침수하기와 물에서 올라오기, 죽음과 새 탄생 등과 연결된 형태로 나타난다. 상호 대립되는 이 개념들은 일종의 환골탈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잘 믿고 죽은 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문제만이 아니다. 이 구원은 좀 더 근본적으로 이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탄의 통치에 지배받는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충성을 맹세한 자로서의 삶,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누리는 특권적 삶, 즉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문제다.

키릴로스의 세례교육은 그 전체가 이 신학적 메시지를 체험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 말(강의)과 행위(예식), 가시적 상징물과 영적 실

34) Cyril, *Myst. Cat.* 19. 2-9(646-650쪽).

체, 전인적으로 머리와 가슴과 오감을 포함한 몸 전체 또는 지·정·의 모든 차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 세례교육은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새로운 현실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깨닫고 체험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옛 삶의 세계를 버리고 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면에서 이 세례교육은 참여자들에게 일생에 유일무이한 "새 탄생"의 영적 통과의례를 체험케 하도록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신학적 메시지

세례교육의 강의와 예식에 근거해 이 구원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키릴로스는 우선 인간은 죄인임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례후보자들에게 그들은 왜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영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다루기 위해 키릴로스는 후보자들에게 인간이 처해 있는 처지를 먼저 내세운다.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성부는 구세주요 치유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35] 그 독생자는 인간의 죄를 지고 보혈을 흘림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인간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 수 있게 되었다(벧전 2: 24).[36]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의의 행위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지 않았다. 구

35) Cyril, *Cat.* 12. 7-8(404-405쪽).

36) Cyril, *Cat.* 2. 5(184쪽).

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의 행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됨으로써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37]

키릴로스는 특히 모형론(typology, 유형론, 예표론)에 입각하여 구약의 모형(type)과 신약의 대형(antitype)에 주목하면서 이 구원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담의 죄는 온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온 세상에 생명을 가져왔다. 선악과 때문에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그리스도의 나무, 즉 십자가 덕분에 믿는 이들은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38] 에덴동산에서는 타락 사건이 일어났지만 또 다른 동산인 갈보리(골고다)에서는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 선악과라는 나무를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지만 십자가라는 나무를 통해서는 죄가 사해졌다.[39] 선악과는 죄와 죽음과 저주와 단절을 뜻하지만 십자가는 의와 생명과 용서와 화해를 의미한다. 이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다.[40] 이 십자가가 망상이라면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구원도 다 망상에 불과하다.[41]

그렇다면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에서 세례와 성찬은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갖고 있는가? 세례와 관련해 키릴로스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42] 반면에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37) Cyril, *Cat.* 18. 35(633-634쪽).

38) Cyril, *Cat.* 13. 2(437쪽).

39) Cyril, *Cat.* 13. 19(448쪽).

40) Cyril, *Cat.* 13. 35(459쪽).

41) Cyril, *Cat.* 13. 4, 37(438, 459-460쪽).

42) Cyril, *Cat.* 3. 10(206쪽).

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말한다.[43] 세례란 "사로잡힌 자들을 위한 몸값이요, 면죄요, 죄의 죽음이요, 영혼의 새 탄생이요, 빛의 의복이요, 거룩하고 확고한 인장(seal)이요, 하늘로 가는 마차요, 낙원의 기쁨, 천국으로의 환영, 입양이라는 선물"이라고 기술한다.[44] 세례를 이해하기 위해 키릴로스가 부각하는 성경구절은 로마서 6: 3-14이다.[45] 이 말씀에서 특히 3절과 5절에 주목하게 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세례는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인인 인간은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수는 "구원의 물"이다. 이 세례수에 잠김으로써 죄인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몸의 새로운 탄생이 아니라 "영혼의 영적인 새 탄생"이다. 우리 몸은 부모를 통해 태어나지만 "우리 영혼은 믿음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다."[46] 이 때문에 키릴로스는 "세례반의 물을 단순한 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대신 물과 함께 주어진 영적 은혜를 보십시오"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성령과 그리스도와 성부께 기원했기에 이 단순한 물은 거룩함의 새로운 능력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한다.[47] 세례는 "신비한 인장"으로서,

43) Cyril, *Cat.* 3. 15(208쪽).

44) Cyril, *ProCat.* 16(165쪽).

45) Cyril, *Myst. Cat.* 2. 2(657쪽).

46) Cyril, *Cat.* 1. 2(175쪽).

47) Cyril, *Cat.* 3. 3(201-202쪽). 야놀드는 키릴로스의 성례신학을 다루면서 (1) 세례수,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적인 양 떼를 쉽게 분별하고, 그분의 오른편에 서고 영생을 상속받게 해준다.[48] 더 나아가, 키릴로스는 왜 하필 물을 통해 은혜가 주어지냐는 의문이 들면 성경을 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홍해 사건, 노아의 홍수, 요단강에서의 세례 등 물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열거한다.[49]

하지만 물 세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 3: 5)고 말했기 때문이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약속받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오순절 사건이 이것을 증명한다.[50]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에 의해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몸이 아닌 마음에 영적인 인침을 받는다.[51]

여기서 키릴로스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 필요한 이유, 즉 물질적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다 필요한 이유를 신학적 인간론을 통해서도 설명한다.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52] 따라서 정화 역시 몸을 위한 신체적 정화와 무형의 부분을 위한 무형적 정화가 있다. 물은 외적으로 몸에 세례를 베풀고, 성령은 내적으로 영혼에 세례를 베푼다. 이처럼 물은 몸을 씻고, 성령은 마음을 씻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53]

성찬의 빵과 포도주와 관련해 키릴로스는 성령 강림을 구하는 기도(epiclesis) 전에는 단순한 빵과 포도주이지만, 기도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됨을 강조한다.[54] 이러한 성찬의 신비는 고린도전서 11: 23-25이 확증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했기 때문이다.[55] 이 말씀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과 피로 만들어지고, 그분의 몸과 피가 지체로 퍼져나감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지니게 되고,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벧후 1: 4)이 된다.[56] 여기서 키릴로스는 그리스도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 6: 53)고 했을 때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한 말이었음을 역설한다.[57]

3) 행위의 신학적 의미

키릴로스의 세례교육에는 성경에 입각한 교리의 분명한 정립과 함께 예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예식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는 상징물과 더불어 인간의 행위다. 이 행위의 신학적 중요성을 파악하려면 실제(reality)와 모방(mimesis) 또는 닮음(likeness)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특히 세례예식에 대한 신학적 해설에 잘 나타난다. 키릴로스는 세례를 받는 자들이 하

(2) 빵과 포도주, 그리고 (3) 세례 후 바르는 성유와 관련해 성령 강림을 구하는 기도(epiclesis)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Edward Yarnold, *Cyril of Jerusalem* (New York: Routledge, 2000), 62-63.

48) Cyril, *Cat.* 1. 2(175쪽).

49) Cyril, *Cat.* 3. 5(203쪽).

50) Cyril, *Cat.* 17. 11, 13(587, 589쪽).

51) Cyril, *Cat.* 5. 6(254쪽).

52) Cyril, *Cat.* 3. 4; *Cat.* 4. 17; *Cat.* 8. 3(202, 224, 321쪽).

53) Cyril, *Cat.* 3. 4(202쪽); *Cat.* 17. 14(589쪽).

54) Cyril, *Myst. Cat.* 1. 7(648-649쪽).

55) Cyril, *Myst. Cat.* 4. 1(672쪽).

56) Cyril, *Myst. Cat.* 4. 3(672-673쪽).

57) Cyril, *Myst. Cat.* 4. 4(673쪽).

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실제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는 행위임을 부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모방은 단순한 흉내 내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실제로 성취한 것, 즉 구원이 그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실제로 베풀어진다. 이에 대해 키릴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방은 그림자(figure)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실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정말로 무덤에 안치되었고, 진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방에 의해 그분의 고난을 나눔으로써 실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키릴로스에 의하면 이것은 "이상하고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의 "놀랄 만한 자애심!"이다.[58]

따라서 키릴로스는 세례를 이해할 때 단순히 죄 사함의 은혜와 입양의 은혜가 다가 아님을 강조한다. 세례는 죄를 제거하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응 관계에 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롬 6: 3). 따라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다."

키릴로스는 이 점을 부각함으로써 세례가 단지 죄의 용서와 입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방을 통해 그리스도가 정말로 겪었던 고

58) Cyril, *Myst. Cat.* 2. 5(659쪽). 참조, 히 9: 24; 10: 1.

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역설한다.[59]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가 견딘 고난은 정말로 당한 고난이며, 우리 또한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항은 그리스도는 정말로 고난 받고 죽고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과 고난을 모방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방에 의해 그리스도가 베푸는 구원은 실제다. 세례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 확증으로 키릴로스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 6: 5)는 바울의 말을 인용한다.[60]

(1) 세례반에 들어가기 전 예식: 사탄의 통치 vs. 하나님의 통치

세례반에 들어가기 전 세례후보자가 암흑의 장소인 서쪽을 향했다가 빛의 장소인 동쪽을 향하는 행위는 사탄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는 상징적 행위다. 세례후보자는 마치 사탄이 눈앞에 있는 듯 서쪽을 향해 손을 뻗은 채 다음과 같이 외친다. "사탄아, 나는 너를 버린다." 서쪽은 암흑의 지역을 상징하기에 이 외침은 일만 악의 고안자인 암흑의 통치자에 대한 충성의 포기를 의미한다. 또 이 외침은 "이제 나는 너의 세력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선포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파괴하고 어둠의 권세인 사탄을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히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날

59) Cyril, *Myst. Cat.* 2. 6(659쪽).

60) Cyril, *Myst. Cat.* 2. 7(659-660쪽).

수 있다.[61]

그러고 나서 "너의 모든 일", "너의 모든 거만함", 그리고 "너에 대한 모든 의식"도 버린다고 말한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결단이 아니다. "너의 모든 일"과 "너의 모든 거만함"과 "너에 대한 모든 의식"은 세례후보자들이 당시 사회에서 정말 경험하고 있던 것들이다. 악마의 거만함에는 극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경마, 사냥, 그리고 온갖 허영에 가득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악마와 관련된 모든 의식에는 우상 신전에서 드리는 기도,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며 하는 모든 일, 램프에 불을 켜는 것, 분수나 강가에서 향을 피우는 것, 점치기, 부적, 주술 등이 포함된다.[62] 세례후보자는 사탄을 버린다고 선포한 뒤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회개의 한 세례를 믿습니다."[63]

세례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례후보자들은 입고 있던 옷을 벗도록 요구받는다. 이것은 그때까지 강의를 통해 끊임없이 들은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는" 신학적 의미를 지닌 상징적 행위다.[64] 이것은 사순절 강의를 통해 "벗어 버리라"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들으며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은 후보자들이 마침내 옷을 벗는 행위를 통해 옛 사람을 벗어 버리는 체험을 하도록 의도된 행위다.

키릴로스는 사순절 첫 강의에서부터 "너희의 구습을 벗어 버리라"고 명했다.[65] 키릴로스는 "벗어 버리라"가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그 명령의 긴박성을 다양한 표현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세례를 당장 코앞에 둔 이들에게 이 명령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촉구한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으면 바로잡으라. 영혼이 탐욕과 간음과 부정함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을 벗어 버리고 새롭고 밝은 순결의 옷을 입으라.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즉시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키릴로스는 영혼을 위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즉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씻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40일의 시간이 있으니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강권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몸을 물에 적실 수는 있겠지만 성령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66] 내면의 동기를 순화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67]

옷을 벗고 나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역시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위에서 적대 세력을 물리쳤기 때문이다.[68] 세례후보자들이 옷을 벗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구마한 기름으로 바르는 도유예식이 거행된다. 구마한 기름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의 참여를 상징하며, 적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의 흔적을 모두 몰아내는 부적과도 같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름은 죄의 흔적을 태워 버리고 씻어 버림으로써 영혼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악의 보이지 않는 세력을 내쫓

61) Cyril, *Myst. Cat.* 1. 4(647쪽).
62) Cyril, *Myst. Cat.* 1. 4-8(647-649쪽).
63) Cyril, *Myst. Cat.* 1. 9(649-650쪽).
64) Cyril, *Myst. Cat.* 2. 2(657쪽).
65) Cyril, *Procat.* 4(159쪽).
66) Cyril, *Procat.* 4-5; *Cat.* 1. 5(159, 177쪽).
67) Cyril, *Procat.* 8(161쪽).
68) Cyril, *Myst. Cat.* 2. 2(657-658쪽).

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69]

⑵ 세례반 안에서의 예식: 죽음과 새 탄생

세례반 안에서 물속에 세 번 잠겼다 일어서는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에 계셨던 3일과 죽고 태어남을 상징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물은 무덤이자 엄마"이다.[70]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죄를 정복하고 부활하심과 같이 세례후보자들 역시 수장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71] 세례를 통해 수세자들은 이제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구원의 옷을 입었다."[72] 그리고 "세례의 영광으로서 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갖게 되었다."[73]

⑶ 세례반에서 나온 후 예식: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새 사람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그분 위에 임했듯이 세수자들은 세례 직후 또 다른 도유예식을 거친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세례 후 도유는 성령의 대형(antitype)이 된다.[74] 그리스도가 성부에 의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수세자도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75] 성령 강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

69) Cyril, *Myst. Cat.* 2. 3(658쪽).

70) Cyril, *Myst. Cat.* 2. 4(658-659쪽).

71) Cyril, *Cat.* 3. 12(207쪽).

72) Cyril, *Myst. Cat.* 1. 10(650쪽).

73) Cyril, *Cat.* 3. 9(205쪽).

74) Cyril, *Myst. Cat.* 3. 1(664쪽). 세례 후 도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Arthur A. Just, Jr., "An Analysis of Cyril of Jerusalem's use of Scripture in the third mystagogical catechesis on the holy chrism," *Lutheran Theological Journal* 43/2(2009), 87-96.

75) Cyril, *Myst. Cat.* 3. 2(665쪽).

이 기름은 더 이상 단순한 기름이 아니다. 이 성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요,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해주는 데 적합하게 된다. 몸에는 보이는 기름을 바르지만 영혼은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 성화된다.[76] 기름은 이마부터 바른다. 이것은 죄를 범한 첫 인간이 지녔던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베일을 벗긴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신비를 신속히 듣는 귀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귀에 기름을 바른다. 그다음에는 신성한 기름을 바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라고 말할 수 있도록 코에 기름을 바른다.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은 자들로서 악마의 책략에 저항할 수 있게 가슴에 기름을 바른다.[77]

"벗어 버리라"와 함께 키릴로스의 강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입으라"는 명령이다.[78] 키릴로스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촉구한다.[79] 수세자는 도유 예식 후 "영적으로 흰" 새 옷을 입는 상징적 행위로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 세례를 받기 전의 행위는 헛되고 헛된 것이었지만 이제 옛 옷을 벗어 버리고 흰 새 옷을 입은 상태에서 수세자들은 계속 흰 옷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진짜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얗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함을 의

76) Cyril, *Myst. Cat.* 3. 3(665쪽). 키릴로스의 성유 신학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Hugh M. Riley, *Christian Initi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aptismal Liturgy in the Mystagogical Writings of Cyril of Jerusalem, John Chrysostom, Theodore of Mopsuestia, and Ambrose of Milan*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74), 370-375.

77) Cyril, *Myst. Cat.* 3. 4(666쪽).

78) Cyril, *ProCat.* 4(159쪽).

79) Cyril, *Cat.* 1. 2(175쪽).

미한다.[80]

성찬에 대한 키릴로스의 설명에서 주목할 점은 빵과 포도주를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빵의 그림자(figure)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포도주의 그림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몸과 피로 만들어진다. 그분의 몸과 피가 지체로 퍼져나감으로써 우리는 내면에 그리스도를 지니게 되고,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벧후 1: 4).[81] 이와 함께 키릴로스는 시편 23편과 연계하여 성찬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 상은 "신비하고 영적인 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위해 차려 주신 상이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82]

키릴로스는 평화의 키스란 특별한 것으로서 서로 영혼을 섞고 그 영혼들을 전적으로 용서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입맞춤은 우리의 영혼이 서로 섞였고 잘못한 일들에 대한 기억을 사라지게 한다는 표시(sign)다. 이 입맞춤은 화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입맞춤은 거룩하다.[83] 이후 주기도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도를 하고, 성찬에 참여한다.

80) Cyril, *Myst. Cat.* 4. 8(674쪽).

81) Cyril, *Myst. Cat.* 4. 3(672-673쪽). 이로 인해 신자는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 즉 Christ-bearers(Χριστοφόροι)라 불린다. Henry Bettenson, ed., *The Later Christian Fathers: A Selection from the writings of the Fathers from St. Cyril of Jerusalem to St. Leo the Great,* trans. Henry Bettens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2005), 5.

82) Cyril, *Myst. Cat.* 4. 7(674쪽).

83) Cyril, *Myst. Cat.* 5. 3(679-680쪽).

Ⅲ. 세례교육의 교육적 가치

1. 거룩한 사회화로서 변형의 기간 확보

키릴로스의 세례교육의 절차를 보면 치밀하게 짜인 구성과 함께 이를 위해 확보해 놓은 오랜 기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키릴로스의 입교절차는 사탄이 독재하는 현실에 매여 있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실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절차는 단순히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에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만물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한다는 결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이 속할 수 있는 완전히 상치된 두 현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에는 우주관과 세계관, 가치관과 윤리관, 그리고 삶의 양식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구원에 관한 것이요,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거룩한 사회화 또는 회심/변형과 양육에 관한 것이다.[84] 이를 위해 입교절차는 예전과 교육과 금욕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영적인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지·정·의 차원도 고루 고려하고 있다. 이것을 키릴로스는 앎과 삶의 두 차원으로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깊은 신앙심의 방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경건한 교리요, 다른 하나는 도덕적 실천이다. 하나님은 선행 없는 교리를 용인하지 않으며, 경건한 교리로 완성되지 않은 행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잘 알

84)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글 참조, John H. Westerhoff, III, "The Challenge: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Faithfulness," in *A Faithful Church*, 1-9.

지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나, 고귀하고 절제된 삶을 살지만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로 전혀 유익하지 않다. 키릴로스는 특히 "가장 소중한 재산은 교리에 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철학과 헛된 거짓말로 망쳐놓는 것들이 많으므로 깨어 있는 영혼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교리에 대한 앎을 강조한다.[85]

2. 성령에 대한 열망 고조

교육적 관점에서 키릴로스의 세례교육을 볼 때 주목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성령에 대한 강조다. 인간이 철저히 준비하고, 가르치고, 배운다 해도 성령이 부재하면 모든 것이 인간적 수고로 끝나고 만다. 세례교육은 물론이고 삶 전체를 위해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모두를 성령이 주관한다는 키릴로스의 입장은 특히 성령을 다루는 강의 17에 잘 표명되어 있다. 다른 강의보다 상대적으로 더 긴 이 강의에서 키릴로스는 세례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성령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특히 키릴로스는 예루살렘 신경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자연스레 연결시킨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둘 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한다.[86]

더 나아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어 제자들의 영과 몸이 모두 구원이라는 천상의 옷을 입게 되었는지를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때 임한 성령의 불이 지금도 임할 수

85) Cyril, *Cat.* 4. 2(216-217쪽).

86) Cyril, *Cat.* 17. 11(587쪽).

있음을 호소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성령 세례를 절실히 갈망하게 만든다. 또한 키릴로스는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이 임할 때 들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행 2: 2)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마 11: 12)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열망하게 만든다.[87] 그러면서 키릴로스는 후보자들에게 세례를 집례하는 자에게 나아갈 때 그의 얼굴이 아닌 그때까지 배운 성령을 기억하라고 권면한다.[88] 그리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세례에 임할 것을 명한다. 왜냐하면 후보자가 위선자일 경우 사람이 물로 세례를 줄 수는 있어도 성령은 세례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으로 세례에 임하면 성령이 세례를 주고 영혼을 인칠 것이요, 악한 영은 쫓겨나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평생 성령이 돌보실 것이다.[89]

3. 믿음의 상상력 자극

성령에 대한 키릴로스의 강조는 물질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잘 나타난다. 키릴로스는 세례수와 세례 후 바르는 성유와 빵과 포도주가 일상생활에서 대하는 그런 단순한 물질이 아님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성령의 강림을 간구하는 기도로 인해 이 물질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신성하고 영적인 차원이 추가된 물질이 된다. 성령의 강림을 간구함으로써 세례반의 물은 더 이상 단순한 물이 아니다. 이 물은 거룩함의 새로운 능력을 얻었고, 영적 은혜를 베푼다. 세례 후 바르는 성유도,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

87) Cyril, *Cat.* 17. 13-15(589-590쪽).

88) Cyril, *Cat.* 17. 35(602쪽).

89) Cyril, *Cat.* 17. 36-37(603쪽).

주도 마찬가지다. 유형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사역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물질에 작용하는 성령은 "모든 것을 성화하는 존재요 신적으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이다.[90]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성화하는 원리"요, "의로운 자들의 영혼을 조명하는 분"이다.[91] 키릴로스는 이러한 성령의 사역과 함께 이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92] 한 예로, 주님의 선포에 의하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설령 우리의 오감은 빵과 포도주라고 고집할지라도 믿음은 의심치 않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제공되었음을 확신한다.[93] 여기서 키릴로스는 믿음의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말하는 바에는 물질을 통해 일하는 성령의 사역을 감지할 수 있는 믿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성경과 신경 강조

키릴로스는 신앙의 신비에 관한 한 모든 신학적 해석과 주장은 물론이거니와 평상시에 그냥 내뱉는 진술조차도 성경에 철저히 근거해야 함을 강조한다.[94]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말도 세례후보자들이 성경에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믿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럴듯한 말재간이나 언어적 기교 또는 영리한 추론이 아닌, 성경이 증명하는 바에 달렸기 때문이다.[95] 이러한 키릴로스의 입장은 세례 전 사순절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례후보자들이 세례를 받고 첫 성찬에 참여한 뒤 받게 될 강의에서 세례와 성찬 예식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한 이유와 함께 이 모두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한 언급에서도 잘 나타난다.[96] 키릴로스를 통해 세례후보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배웠는지는 사순절 기간에 매일 세 시간씩 성경을 배운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경을 봉독하면 신자들이 그것을 무리 없이 따라갔다는 에제리아의 진술에 잘 나타난다.[97]

성경과 함께 신경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키릴로스에게 신경이란 성경에 근거해 교리 전체를 요약한 신앙의 핵심이다. 신경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리 전체를 몇 줄로 만들어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들이 무지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키릴로스는 후보자들에게 신경을 외우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신경을 강의의 기본 골격으로 사용함으로써 신경을 외우고 있으면 긴 강의를 쉽고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신경을 중시하는 것은 후보자들이 세례를 받기 직전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자격심사가 감독 앞에 서서 신경을 암송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98]

5. 체험 후 설명

4세기 문헌들을 보면 세례와 성찬 전이 되었든 후가 되었든 시기

90) Cyril, *Cat.* 4. 16(224쪽).

91) Cyril, *Cat.* 16. 3(551쪽).

92) Cyril, *Cat.* 1. 3(176쪽).

93) Cyril, *Myst. Cat.* 4. 6(673쪽); *Myst. Cat.* 5. 20(685쪽).

94) 키릴로스가 카테케시스에서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Pamela Jackson, "Cyril of Jerusalem's Use of Scripture in Catechesis," *Theological Studies* 52/3(1991), 431-450.

95) Cyril, *Cat.* 4. 17(224쪽).

96) Cyril, *Cat.* 18. 33(632쪽).

97) Egeria, 46. 3-4(190쪽).

98) Cyril, *Cat.* 5. 12(257-258쪽).

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세례와 성찬에 대한 강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적 근거를 명시한다. 키릴로스의 경우 미스타고지 첫 강의에서 수세자들에게 오랫동안 "이 영적인 천상의 신비"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원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참고 기다린 이유는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99] 여기서 "보는 것"은 단순히 시각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서 머리와 가슴은 물론 오감도 최대한 활용한 전인적 체험을 의미한다.[100] 강의를 먼저 들음으로써 선이해를 갖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입장과는 달리 키릴로스는 강의에 참석한 자들이 체험을 하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 자신이 하는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6. 동기 검토 및 결단 촉구

키릴로스의 세례교육을 따라가다 보면 지적인 차원에서 성경 말씀과 신학적 교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듣는 이의 결단을 호소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의지를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단 촉구와 관련해 주목할 사항은 키릴로스가 죄를 자유의지와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죄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는 악한 싹이다.[101] 죄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악이요, "의지의 자식"이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다."[102] 그러나 인간이 악의 유일한 원인 제공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악마라는 "또 다른 가장 사악한 촉발자"가 있기 때문이다.[103] 악마는 "죄의 첫 번째 원인 제공자요 사악한 자들의 아버지"다.[104] 하지만 악마는 제안은 할 수 있어도 인간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105] 이와 함께 키릴로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임을 역설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들,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었다. 이에 대해 키릴로스는 "그들이 믿기 전에가 아니라 믿는 그때부터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다"라고 말한다.[106] 이런 맥락에서 키릴로스는 사순절 카테케시스에서 세례후보자들에게 그들의 동기를 검토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라고 촉구한다.[107]

7.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강조

교육적 관점에서 키릴로스의 세례교육은 동기를 부여하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한다. 서쪽을 향해 사탄과 그의 모든 일, 그의 모든 거만함,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의식을 버리겠다고 선포하고, 동쪽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99) Cyril, *Myst. Cat.* 1. 1(646쪽).

100) 오감의 교육적 활용과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Ronald K. Bullis, "Applying St. Cyril's Pedagogy to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Journal* 15/3(2018), 369-370.

101) Cyril, *Cat.* 2. 2(182쪽).

102) Cyril, *Cat.* 2. 1(181쪽).

103) Cyril, *Cat.* 2. 3(182쪽).

104) Cyril, *Cat.* 2. 4(183쪽).

105) Cyril, *Cat.* 2. 3(182쪽); *Cat.* 4. 21(226쪽).

106) Cyril, *Cat.* 7. 13(313쪽).

107) Cyril, *ProCat.* 1(157쪽).

을 맹세하는 행위에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비롯해 윤리관과 삶의 양식도 180도 바꾸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 4세기 예루살렘은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이후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되어 가고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교 문화, 비도덕적인 삶의 방식, 우상숭배, 그리고 폭력적 오락이 만연했다. 세례후보자가 사탄을 버린다고 하면서 사탄과 관련된 세 가지를 함께 버린다고 외칠 때 이 세 가지에는 다분히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단호히 포기한다는 결단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키릴로스는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들을 주님이 카테쿠멘에서 신자의 신분으로 옮겨 주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칭호에 걸맞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권한다.[108] 또한 키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특권을 주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받은 만큼 이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하고,[109] 이 이름을 "새로운 탄생"으로 입증해야 한다.[110]

I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4세기에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키릴로스의 세례교육

108) Cyril, *Cat.* 5. 1-2(251쪽).

109) Cyril, *Cat.* 10. 16, 20(356, 360쪽); *Cat.* 15. 26(528쪽).

110) Cyril, *Myst. Cat.* 3. 5(666쪽).

을 입교절차에 근거해 살펴보고, 그 신학적 메시지와 교육적 가치를 분석해 보았다. 진중세례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현재 진중세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 병행되지 않는 집단세례는 피상적이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키릴로스의 입교절차를 통해 볼 수 있는 세례교육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그중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제시해 보고자 한다.[111]

첫째, 세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세례신학을 올바로 정립하고, 세례교육을 진지하게 진행하고, 세례예식을 의미 있게 집례할 필요가 있다. 키릴로스의 세례교육을 보면 세례는 결코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었다. 더 나아가, 키릴로스의 세례교육은 입교와 세례가 단순히 한 지역교회나 교단에 들어가는 절차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입교와 세례는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의 통치에 매여 있는 인간이 그 통치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입교와 세례는 우주적 차원에서 사탄을 통치자로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우주관과 세계관, 가치관과 윤리관, 그리고 삶의 양식조차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는 법에 따라 바꾸는 일이었다. 이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체험하고 몸에 배게 하기 위해 입교절차와 세례교육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전문성과

111) 손삼권과 김정은 초기 입교절차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과 예배를 위한 모형 또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손삼권, "초기 카테키시스 체제의 과정과 변화," 「기독교교육정보」 1 (2000), 219-265; "카테키시스 체제의 새신자 교육 모형개발," 「기독교교육정보」 4 (2002), 168-190; 김정, 『초대교회와 오늘의 예배』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7); "Mystagogy of Cyril of Jerusalm: Methodology of Baptismal Faith Formation," 「신학과 실천」 60 (2018), 7-32.

영성을 갖춘 감독이 직접 입교절차와 세례교육을 책임졌다.

둘째, 세례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을 벗어나 공들여 기획한 교육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영성이 갖춰진 기획, 진행, 평가, 반영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키릴로스의 경우 사순절 기간 동안의 금식, 구마예식, 카테케시스, 세례 전 도유, 세례, 세례 후 도유, 성찬, 세례 후 미스타고지가 상호 치밀하게 연결되어 잘 짜인 교육절차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교육절차는 최대한 효과적으로 참여자가 새 사람으로 형성되는 거룩한 사회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예전과 교육과 금욕의 요소를 고루 활용한다. 그리고 강의 전체를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고, 강의와 행위를 연결시켜 행위의 신학적 의미를 정확히 제공하고, 전인적으로 머리와 가슴은 물론 오감까지 활용한다.

셋째, 세례교육에 참여하는 자들을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키릴로스의 세례교육을 보면 회심/변형과 양육이 근간을 이루는 거룩한 사회화로서의 교육에 참여한 자들 역시 단단히 각오하고 이에 임했다.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지하게 이 절차를 밟았다. 이들이 거쳐야 하는 자격심사는 단순히 몇 마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세례교육에 정식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자들은 자신의 인성과 삶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 후견자와 이웃을 데려와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때로는 심지어 직업도 바꿔야 했다.

Abstract

Cyril's Baptismal Catechesis

Sun Young Kim

This paper examines the baptismal catechesis of Cyril of Jerusalem on the basis of his initiation process, inquiring into its theological messages and educational values and suggesting its implications. The initiation process is reconstructed based on Cyril's catechetical lectures, which include procatechesis, catecheses, and mystagogical catecheses, and Egeria's documents. The process consists of three stages–pre-baptism, baptism, and post-baptism, and is characterized as a sacred socialization designed with tightly organized instructions and rites. This whole process highlights metanoia and sanctification–a catechumen's renunciation of Satan's reign and acceptance of God's reign, followed by transformation of her/his worldview, values, ethical beliefs, and lifestyle.

Key Words

Cyril of Jerusalem, Initiation Process, Catechesis, Mystagogy, Educational Values

남성 군종장교와 여성 군인[1)]

Male Chaplains and Female Soldiers: Are There Gender and Denominational Differences in Military Pastoral Care?

» Daniel L. Roberts & Joann Kovacich*
번역: 전요섭 Ed. D.**

국문초록

이 연구는 미 육군의 남성 군종장교 15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남성 군종장교들이 여성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목회적 지원을 제공할 때 발생되는 실제적인 문제를 기술하려는 것이었다. 많은 군종장교들이 여성 군인들을 위해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성(gender)과 관련된 오해나 부적절한 인식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군종장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상담을 할 때 성직자들 가운데는 성별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군종장교들은 그들이 여성 군인들에게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 연구는 남성 군종장교가 여성 군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심단어

남성 군종장교, 여성 군인, 목회적 지원, 성별, 교단 차이

• 논문 투고일: 2020년 9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9월 17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6일

* 미국 Phoenix 대학교 교수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예) 군종목사, 한국기독교상담학회 이사장

1) 이 논문은 2020년 6월 미국 '목회돌봄 및 상담학회'의 학술지「목회돌봄과 상담」에 수록된 "남성 군종장교와 여성 군인"이라는 논문을 저자들의 허락을 받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Daniel L. Roberts & Joann Kovacich, (2020) "Male Chaplains and Female Soldiers: Are There Gender and Denominational Differences in Military Pastoral Care?" in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Vol. 74(2), 133-140.

미 육군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육군 군종장교는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여성 군종장교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일반 군인 대부분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은 전체 병력의 15%만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군종장교들이 여성 군인들에게 정서적, 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종교적 차원의 제한점이 있고, 또 유지해 주어야 할 비밀도 있으며, 아울러 영적 지도자로서, 장교로서 이중적인 정체성을 탐색해야만 한다. 군 상황에서 상호 성 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질적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남성 군종장교들에게 여성 군인에 대한 관점이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양한 신도들에게 효과적인 영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군종장교의 경우는 군대가 요구하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갖추어야만 할 것들이 있다. 군대에서 목사로 섬기고자 하는 인원은 인정된 교단(denomination)에서 목사안수를 받아야만 하며, 자신이 소속된 교단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국방부 지침, 2014). 또한 군종목사 후보자들은 인가된 대학에서 최소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최소 7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적어도 2년 이상의 전문적인 목회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군종장교들은 여성 군인을 대할 때, 일반 종교적인 태도와는 다른 접근을 할 수 있고, 다소의 제한이 따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유대교와 이슬람교 종교법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격리된 장소에 함께 존재하는 것을 금지한다(Bleich, 2012; Padela & Pozo, 2011). 천주교 군종단(NACC: National Association of Catholic Chaplains) 및 전문군종단(APC: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haplains)과 같은 군종단(CA: Chaplain Association)은 군종장교와 신자(내담자) 간의 성 관련 행위들을 다루는 지침을 설정했다(APC, 2004; NACC, 2014).

군종장교들이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유지해야만 하는 비밀보장의 정도이다. 주(州, state) 방위군 군종장교(National Guard chaplains)를 제외한 군종장교들은 내담자의 자살 관념, 살인 의도 또는 학대 보고에 관하여는 주(state) 법을 따르지 않는다(Norton & Soloski, 2015). 군종장교들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따른다(Norton & Soloski, 2015).

군대 문화

군종장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활동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장교로서 '군대'라는 거대 조직에 속해 있고, 특수한 문화의 일부분에 속해 있다. 그들의 소속 교단은 군종목사들의 이런 군 문화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루터교회에서 발간하는 「Lutheran Church Missouri Synod Newsletter」에 보면 군종목사는 "군에서 비전투요원이기는 하지만 전사여야만 하고, 그 문화와 소속기관의 일부여야 한다"라고 밝혔다(Muehler, 2015, p. 1). 또 복음주의 자유교회연맹(EFCA: Evangelical Free Church Alliance)에서 제공하는 「군종목사를 위한 핸드북」에는 "유능한 군종목사는 안수 받은 목사 그 이상의 존재이다. 진정한 군종목사는 군인이며 동시에 사역자이다. 그는 군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능력 있는 군인이면서 동시에 사역에 완벽하게 적응한 능력 있는 목회자일 것을

요구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EFCA, 2018, p. 16). 기본 군사훈련을 받는 일반 남녀군인들과는 달리, 군종장교들은 비전투요원이기는 하지만 장교가 되기 위한 기초소양을 갖추는 집중과정으로 8-12주 군종장교 기본교육과정[CHBOLC: 미 육군 군종센터/학교(USACHCS), 2019]을 이수하게 된다. CHBOLC는 초급 군사훈련과정으로 장교의 책무, 다종교 목회사역 및 목회기술, 리더십,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이론적 구조와 연구 목적

군대 및 대다수의 종단(교단)에서는 가부장적 구조, 남성 중심적 철학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여성 중심의 신학에 기초하였으며, 불교, 기독교와 유대교를 포함하여 많은 종교에서 발견되는 변형 운동(transformative movement)을 이론적 렌즈로 사용하였다. 여성 중심의 신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성 역학, 힘의 불균형, 여성 복지 등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으며, 가부장적 구조와 남성 중심적 철학과 관행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재검토하는 것이다(Sharma & Young, 2003; Rafferty, 2012; Ruether, 2014). 근본적으로 구성주의적, 다원적, 생태학적으로 여성 중심의 신학은 군대 목회돌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Davaney, 1991). 신자들에게 제공되는 군종장교의 목회적 지원을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 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Norton & Soloski, 2015). 때로, 군종장교의 목회돌봄을 받는 여성들은 하위에 놓일 때가 있다. 이 연구는 여성 중심의 신학을 바탕으로 군종장교의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며, 다양한 종단(교단)의 남성 군종장교들이 여성 군인들에게 정서적·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사례연구 설계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여러 종단(교단)의 남성 군종장교들이 여성 군인들에게 정서적이고 영적인 지원을 어떻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미국 피닉스(Phoenix) 대학교 연구소가 이 연구를 승인했다. 이 연구에 나타난 모든 이름들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연구에 대한 취지와 신원보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면담의 오디오 녹음을 승인하는 정보동의서에 서명했다. 본문에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이 직접 인용문으로 수록되기는 했으나 어떤 군종장교의 진술인지 식별하거나 직업적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면담내용을 출간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그것을 승인할 기회를 제공했다. 삼각분할 반구조화된 면담과 미 육군 군종센터/학교의 교범, 미 육군 규정, 군종관련 단체 및 종단(교단)의 윤리지침, 교차 성별 상담 등을 통해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및 분석

군종감실 고위장교들은 군종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 동의했고, 참여대상 육군 군종장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그들에게 참여의사를 묻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참여의사를 밝힌 군종장교들은 자원하여 이메일에 응답하거나 조사원에게 전화로 응답을 했다. 총 15명의 미 육군 군종장교들이 면담에 응했다. 8명은 개신교 군종목사, 3명은 천주교 군종신부, 3명은 유대교 군종장교(2명은 정통파, 1명은 보수파), 1명은 불교 군종법사였다.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반구조적이고 심층적인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접 면담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해외에 주둔한 인원들은 전화를 통해 두 차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은 녹음하고 녹취한 내용의 일부를 수록했으며, 평균적으로 면담 시간은 30-40분 정도 지속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군종장교들은 현역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계급과 소속부대 등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면담에서 사용된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2]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질문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두 조사원이 독립적으로 자료 분석을 수행했다.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 사례 분석을 실시했으며,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사례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Houghton et al., 2015). 귀납적 주제 생성은 이해, 합성, 이론화 및 재맥락화의 4단계 과정을 거쳤다(Houghton et al., 2015). 이해는 초기 코딩 및 작성과정이다. 각 조사원은 문구 또는 문장의 예비코드가 생성된 내용을 한 줄씩 확인하였다. 조사원은 발견된 내용, 반응 및 새로운 구조를 지적하고 기록했다. 합성하는 동안 코드가 통합되고, 중복된 코드가 제거되고 범주화하여 병합되었다. 질적 내용 분석을 위한 QCAmap(웹 기반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여 코딩 과정을 지원했다(Mayring & Fenzi, 2014).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 이외의 자료들은 출처를 범주화하여 통합하였다. 이론화는 범주 간 관계에 주석을 달아 서로 연결된 주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특징짓는 결과 진술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정립했다.

심층 면담, 육군 규정, USACHCS 가이드북, 종단(교단) 자료 및 전문협회 윤리 문서 등 여러 출처의 자료 등을 사용하여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QCAmap 웹 애플리케이션, 면담으로 구성된 자료들은 사례연구 데이터베이스 및 증거자료 사본은 공동 저자에게 결과 및 결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인구통계학적 분석

면담 당시 15명의 군종장교는 모두 미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개신교 목사 중 6명은 복음주의 교단에 속했다(미주리 루터교회; 미국 복음주의 자유교회; 나사렛교회; 클리블랜드 테네시 하나님의교회; 복음주의 자유교회연맹). 두 명의 참여자는 주요 개신교단(성공회와 연합기독교회)의 일원이었다. 유대교 군종장교 중 2명은 정통파이고, 1명은 보수파였다. 정통 유대인 중 1명은 자신이 Hasidic이라고 진술했다. 이 군종장교에 따르면, Hasidism은 유대교의 '매우 엄격한' 교파로서, 성별 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랍비의 해석을 따르며,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 모든 종교법을 준수하는 교파였다. 이 연구의 종단적 구성을 비교해 볼 때, 미 군종장교의 60% 이상이 복음주의자이고, 10% 미만이 천주교인이고, 1%만이 유대교인이다. 불교로서 법당에 출석하는 인원은 0.1% 미만을 차지한다. 다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를 설명한다.

2) 면담 질문목록: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 귀하의 소속 종단(교단) 배경은 무엇입니까? 3) 귀하가 여성 군인들에게 정서적, 영적 지원(목회적 지원)을 제공할 때 따르고 있는 종교법이나 지침은 무엇입니까? 4) 귀하가 여성 군인들에게 목회적 지원을 제공할 때 따르고 있는 종단(교단)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5) 귀하가 여성 군인에게 목회적 지원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다른 비종교적 또는 비교단적 관행이 있습니까? 6) 귀하가 따르고 있는 지침(문서 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7) 귀하는 여성 군인들에게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8) 귀하는 남성 군인과 여성 군인에게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철학이나 접근법을 사용하십니까? 9) 귀하는 지침을 지키면서 어떻게 비밀보장성을 유지하십니까? 10) 귀하는 어떤 상황에서 여성 군인을 다른 사람(기관 등)들에게 의뢰하십니까? 11) 귀하는 여성 군인을 의뢰할 때 어떤 종류의 지원 제공자를 추천하십니까?

제공된 지원

소속 종단의 대표자로서 군종장교는 자신의 종단 신자들에게 제공되는 목회적 지원에서 역사적 및 영적인 신앙자료(성경 등)들을 사용했다. 여성 군인들에게 그들의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종단의 신앙자료뿐만 아니라 남성 군종장교들이 여성 군인들에게 제시하는 7가지 범주(목회철학, 비난에 대한 민감성, 안전한 공간 조성, 전이, 상담, 비밀보장 및 의뢰 등)를 개념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목회철학

목회철학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군종장교들은 목회적 지원에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3명의 천주교 군종신부 중 2명, 3명의 유대교 군종장교 중 2명, 개신교 군종목사의 절반, 그리고 불교 군종법사 1명은 내담자를 개인으로 생각하거나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대했다고 말했다. 마이크(Mike, 기독교 군종목사)는 '성별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현재 성별이 상담에서 특정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을 군인으로 봅니다"라고 말했다. 아론(Aharon, 유대교 군종장교)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저는 그들을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이 저에게 와서 시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면, 남성 군인이거나 여성 군인이나 SAPR(성적 학대 및 폭력 대응 프로그램) 또는 EO(기회 균등) 문제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성별은 중요한 목회 철학이 되지 않았지만, 군종장교들은 여성 군인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여성의 역할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테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유대인 왕비인 에스더는 왕국의 유대민족을 대신하여 중재하고 그들의 전멸을 막았던 내용을 통해 유대전통에서 성취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 전쟁의 여신 Marishiten을 포함한 여러 여신, 그리고 사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성들의 예를 여성 군인들에게 제공했다.

비난에 대한 민감성

연구에 참여한 모든 종단의 군종장교 15명 가운데 11명은 성적 문제에 대한 비난을 피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게리(Gary, 천주교 군종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나는 여성 군인과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비난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담할 때 사무실의 문을 열어 놓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남성 군인과 상담하는 경우, 나는 더 편안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상당히 젊은 군종장교 래리(Larry, 개신교 군종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남성으로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거나 그런 내용을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와 사귀는 군종장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40-50세의 남성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얀시(Yancey, 개신교 군종목사)에 따르면, 군종목사를 위한 공식 교육센터인 USACHCS의 선임 군종장교들과 교관들에 의해 성 문제가 노출됨으로써 받게 되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그 교육센터에서 여러 여단 군종목사들과 만나 항상 그

주제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군종목사가 짐(Jim)과 같은 규탄을 했다. 그는 오늘날의 문화가 어느 특정 성(gender)에 의해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요즘 보수적인 군종장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성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을 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성과 밀착되어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만약 당신이 특정 남성과 너무 밀착되어 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혹시 동성애자가 아닌가'라고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

안전한 공간 조성

상담을 위해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중요하다. 대부분의 군종장교들은 사무실의 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정통 유대교 군종장교 1명, 천주교 군종신부 2명, 개신교 군종목사 4명은 여성 군인과의 상담에서 사무실의 문을 열어 두거나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아론(Aharon, 유대교 군종장교)은 남성들과 상담할 때도 같은 형태를 취한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군종장교를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는 있지만 대화 자체는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관행을 변호했다. 아론은 문을 열어 두면 비밀보장이 안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에 대하여 내담자가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그는 문을 닫아 버린다고 밝혔다. 이 정통 유대교 군종장교에게는 군인의 문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의 일반적인 관행은 문을 열어 두는 것이었다.

문을 열어 두거나 근처에 군종사병을 두는 방법은 유대교의 이츄드 법(yichud law) 요건과 유사했다. 유대교 군종장교를 포함하여 참여자 가운데 아무도 이 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유대교의 법은 부적절한 신체적 관계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지만(Bleich, 2012), 군종장교에게 강조되는 것은 군종장교 자신과 내담자 모두를 위해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비난을 피하는 것이었다. 빌(Bill, 개신교 군종장교)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구체적으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게 여성 군인 내담자를 만나는 보안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담자나 내담자가 모두 안전해야 하는데, 문을 열어 두면 누군가가 걸어가다가 내담자를 볼 수 있거나 상담내용을 들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내담자는 안전을 보장받고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희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고 다시는 희생되지 않을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군종장교에 대한 육군 규정(DA. 2015)이나 USACHCS 가이드 북(Hardin 2017a, 2017b)은 사무실의 문을 열어 두는 이러한 관행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안전한 공간을 물리적으로 생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성한 선(line)과 불경한 선(line)은 경계가 흐려진다(Eliade, 1957). 군 종교시설(예: 교회)에서 의식 및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비전투요원으로서 영적 지도자인 군종장교는 그들의 거룩한 공간에서 사역을 하지만 상담을 할 때는 여타의 상담자들과 동일하게 사무실을 사용한다. 벤자민(Benjamin, 유대교 군종장교)은 이 문제를 통찰력 있게 지적했는데, "우리는 군복을 입었습니다. 일반 군인들과 다르게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거리는 좁혀져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차이의 경계를 설정하려면 물리적 공간을 조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역학에 대한 인식도 적용된다. 커티스(Curtis, 개신교 군종목사)는 계급이 목회자를 만나는 데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에 대한 진술을 했다.

"군대에서 나는 계급의 역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나에게 어떻게 자신의 비밀을 말할 수 있을까요? 계급이 나보다 낮은 중위가 내게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할까요? 계급이 나보다 높은 중령이나 대령은 대위인 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문제를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계급/계층구조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더 안전하게 느끼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의 역학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이

그런 규탄 외에도 군종장교들은 직업적 경계를 넘어서거나 성적인 감정에 대한 전이(transference)에 굴복하려는 군인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개신교 군종목사의 절반과 천주교 군종신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로널드(Ronald, 천주교 군종신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회상했다.

"이런 일이 저에게도 한두 번 일어났었는데, 그들이 저에게 끌리면 그들은 실제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저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약속을 잡고, 단지 물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군종신부들은 부적절성에 대한 가능성에 민감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여성을 위해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사목적 지원을 피한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상담

면담 중에 군종장교들은 상담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토론했다. 일부 군종장교들은 자신을 상담자라기보다는 단기 문제해결사로 보았다. 유대교 군종장교 2명과 개신교 군종목사 4명은 자신을 고도로 훈련받은 상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유대교 군종장교 3명, 천주교 군종신부 2명, 개신교 군종목사 2명은 모두 상담은 군종장교가 수행해야 할 직무 가운데 중요한 것이며, 군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은 주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공통된 내용은 군인들에게 직접적인 해결책이나 답변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다른 군종장교들은 상담의 한계를 인정했다. 유대교 군종장교와 개신교 군종목사들은 문제가 3회기의 상담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고 명시했다. 다른 개신교 군종목사는 자신의 상담 한계를 5회기로 제한했다. 한 군종장교는 상담 가용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한 반면, 다른 군종장교는 내담자와 30분 이상은 상담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장기상담에 대해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거나, 군인의 문제가 너무 복잡했거나, 다른 업무로 인해 상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설정했다. 빌(Bill, 개신교 군종목사)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특정 행동문제, 중독, 뿌리 깊은 성적 외상, 대인관계의 문제 등

은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영혼은 돌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정체성을 수립하거나 그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 가치 있는 존재로서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위해서는 다른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두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군인들이 겪는 문제들은 한 번 이상의 상담회기는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모든 참여자들은 여성 군인들에게 양질의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총 11명의 군종장교들은 이런 장애물에 대한 생각을 일축했고, 여성 군인들에게 효과적인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유대교 군종장교 1명과 개신교 군종목사 3명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나단(Nathan, 유대교 군종장교)과 다니엘(Daniel, 개신교 군종목사)은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남성 군인은 상담 중에 언어가 더 단순하고 명료한 경향이 있었지만, 여성 군인의 경우에는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잘못된 인상을 준다고 생각했다.

프레드릭(Frederick, 개신교 군종목사)은 동료 군종목사들에게 여성 군인을 돕는 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비난했다. 모든 내담자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프레드릭은 사무실에서 여성 군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일부 군종장교들이 이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기꺼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시간을 더 보내고 있다.

비밀보장

군종장교와 군종병은 상담을 하러 오는 군인들에 대하여 완전한 비밀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즉, 군종장교는 상담을 받은 군인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그와 논의된 상담내용을 밝힐 수 없다(DA, 2015). 군종장교는 이 비밀보장을 군인들에게 큰 특혜로 보고 있다. 아론(Aharon, 유대교 군종장교)에 따르면, "비밀보장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저를 일반 군인과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종장교가 비밀보장에 실패하면 그 부대의 군종장교로서 생명이 끝난다고 믿습니다.…그의 부대원들이 군종장교에 대하여 '그 군종장교는 비밀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그가 그 부대에서 1년 반 더 근무할 수 있지만 그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군종장교는 사무실의 문을 열어 두면서 상담하는 방법을 요청받지만, 참여자들은 사무실의 문이 열려 있어서 다른 간부들이 통행하며 상담내용이 잘 들린다고 생각되면 다른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뢰

성폭력과 관련하여 5명의 군종장교들은 여성 군인들을 '성폭력 방지 및 대응 프로그램'(SAPR: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담당자에게 의뢰했다고 언급했다. SAPR 프로그램은 다계층이며 성폭력 생존자와 함께 일하는 여러 사람들을 포함한다. 성폭력 대응자(SARC: Sexual Assault Response Coordinator)는 각 군 시설에 배치되며,

지휘관이 부대에서 SAPR을 구현하고, 해당 부대에 성폭력 피해자가 있을 때 그를 보호하며, 생존자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처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조언한다(DA, 2014). 성폭력 대응자는 피해자를 보호, 옹호하고, 위기 개입을 제공하며, 의료 및 법률 관계자에게 의뢰하거나 생존자의 의료 및 법적 절차를 지원하기도 한다. 군종장교는 성폭력 대응자와 함께 피해자를 대상으로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여성 군인이 폭력으로부터 회복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전문지식과 자료를 제공한다.

군종장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도움이 깊이가 없거나 심층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행동 및 정신건강 전문가, 군 가정생활 상담사 및 상담 자격을 소지한 전문상담사를 포함한다. 군종장교는 또한 재향 군인관리국과 예비역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군종장교는 자신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남성 군인들을 여성 군종장교에게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레너드(Leonard, 군종신부)는 특정 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적인 문제가 있는 여성은 여성이 돕는 것이 좋으며, 성적인 문제가 있는 남성은 남성이 돕는 것이 더 낫지만 그것에 관한 절대 법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두 명의 군종장교들은 군인들을 여성 군종장교에게 추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두 명은 여성 군인들이 같은 성별의 여성 군종장교들로부터 목회적 지원을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래리(Larry, 개신교 군종목사)는 결코 군인을 낯선 사람에게 추천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다른 군종장교나 목사이든, 정신건강 전문가이든, 래리는 다른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그 사람을 충분히 잘 알고 신뢰한 상태에서만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군종장교가 군인 내담자의 문제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추천할 때, 참고사항으로 주(州, state)에서 발간한 「기본 안내서」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는 특정 제한이 있다. "문제가 상담자 자신의 수련범위나 경계를 벗어났거나, 내담자가 호소하는 특정 문제에 대해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상담자 자신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거나, 피상담 군인이 다른 전문가의 추천을 요청할 때만 의뢰한다"(Hardin, 2017b, p. 8)고 명시했다. 군종장교들은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자살, 성격장애, 기분장애 또는 살인 의도 등을 치료 및 상담하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는 않았다(Hardin, 2017b, p. 8). 이러한 경우에 군종장교는 자신이 상담을 하기 전에 상급 군종장교 또는 특별한 상담 자격을 소지한 가정생활 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Hardin, 2017b, p. 8).

토론

군종장교는 여성 군인에 대한 상담에서 성적인 차별 없이 동등성이라는 자신의 목회철학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 관행은 성별 및 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나타내야 한다. 인류학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실제 세계에서 용인된 사회적 관행을 바탕으로 한 모델과 실제 모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etrz, 1973; Shilbrack, 2005). 여성 중심의 민족지학(ethnography)에 따르면, 사람들의 경험은 상황에 맞게 반영되어야 하는데, 인종, 계급 및 국가가 성별 및 교차 성별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avis & Craven, 2016; McGuirk, 2018).

부적절한 허위 비난(고발)에 대한 우려는 거의 모든 군종장교들이 그것을 언급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군종장교들은 허위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문화적 변화에 대응했다. 일반적으로 군종장교들은 소속 종단(교단), 신학대학원 및 군대 교육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을 거의 받아 본 적이 없는 상태였다.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사회적 또는 정신건강 상담자로서 훈련을 받은 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군종장교에 관한 육군 규정은 "목회돌봄과 상담은 군종장교의 필수 능력"(DA, 2015, p.44)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군종장교들이 받는 기본 훈련과정의 「종교적 지원 안내서」에 보면, "군종장교는 자신을 군 상황에서는 전문상담사로 보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Hardin, 2017b). 모든 참여자는 영적 상담자로서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으며, 내담자의 특정 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가족지원기관 및 적절한 보고 채널에 알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여성 중심의 이론에서 볼 때 '여성'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총칭이라고 주장한다(Neuger, 2001).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독특한 개체인데, 여성 군인들을 개인으로 대하는 지침과 교육의 부족이 있었다. 많은 군종장교들의 철학은 각 여성의 독자적인 입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 중심의 상담학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있다. 여성들은 여성 부도덕에 대한 거짓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남성을 선호하는 권력구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Neuger, 2001; Rafferty, 2012; Ruether, 2014). 래리가 주장한 것처럼, 군대는 성적 의도를 가진 군인이 취약한 여성을 찾는 곳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군대를 경험한다(Roberts, Kovacich & Rivers, 2017). 여성 군인의 경험을 분석해 보면, 모두 USACHCS, 종단(교단) 및 신학대학원에서 훈련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군인으로서 여성의 삶을 형성하는 문제, 그리고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없이 여성을 대하는 것은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군종장교들은 여성 군인에 대한 성적인 감정의 전이를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과 부적절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했다. 여성 중심의 상담학에서 보면, 전이(transference)와 역전이(counter-transference)의 개념을 병리학적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Brown, 2001; Takemura, 2011). 여성 중심의 상담학에서 인정하는 것은 치료적 관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두 개인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Brown, 2001; Sherman, 2002; Takemura, 2011). 상담사 또는 내담자에 대한 성적인 감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감정이 긍정적 상담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들이 상담 및 심리치료 문헌들에 제안되어 왔다(Brown, 2001; Sherman, 2002; Takemura, 2011).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개신교 군종목사 커티스(Curtis)가 언급했다. 그는 성폭력 생존 여성을 '난잡한 여자'라고 인식하는 일부 군종장교들은 그들에게 목회적 치료를 기꺼이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존하는 여러 문헌들에 따르면, 성적으로 난잡하

다고 인식된 여자들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고, 보수적인 여성들보다 신뢰받기 어렵다는 개념을 지지한다(Harrison et al., 2008; Rebeiz & Harb, 2010; GRACE, 2014).

일부 군종장교들은 여성 군인들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성 군종장교들에게 여성 군인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군종장교의 목회돌봄과 여성 군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거나 참여자들의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여성 군인이라 하여 여성 성직자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었다(Roberts et al., 2017). 상담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성 군종장교들은 성적인 피해를 입은 군인에게 여러 종류의 심리정서적 외상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회적 지원을 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하고, 불안증과 우울증을 돌보며, 도움을 제공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Roberts et al., 2017).

추천

개신교 군종목사 커티스(Curtis)는 군종장교들을 위한 감수성훈련에 대하여 옹호했다. 그는 비디오, 비네트 및 실제 인생 시나리오 훈련 등을 활용하면 여성 군인들이 때때로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남성 군종장교들이 더욱 목회적 공감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교육은 군종장교가 그들의 신자들에게 목회적 지원을 제공할 때 여성 군인들도 참여하고 진심으로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교육내용의 일부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 속에서 적절한 상담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

어야 한다. 교육자료는 성 및 성 상담에 이미 검증받은 프로그램들을 입수하여 통합해야 한다(Kopacz et al., 2019).

군종장교의 소속 종단(교단)은 군종장교들에게 제공하는 지침을 재고해야 한다. 이 지침은 군 복무를 하는 여성 회원이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군대를 경험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군종장교는 남성과 백인이므로 여성이나 소수민족은 외계인에 속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수의 집단구성원은 다수의 집단구성원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arrison et al., 2008; Rebeiz & Harb, 2010). 군종장교는 집단 내/외의 성 편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자들은 군종장교들이 남성 중심적인 인식과 여성을 차별하는 인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에게 목회돌봄을 제공하는 종단(교단) 지침은 내담자에게 비밀보장성을 유지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완벽하게 지켜지는 환경에서 상담을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전체 표집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군종장교들이 여성 군인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인 목회적 지원을 제공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질문의 유형은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했다. 군종장교들이 여성 군인들에게 어떻게 목회적 지원을 해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남성 군인들에 대하여 목회적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점이 지적될 수도 있다. 남성과 여성의 목

회돌봄은 비교할 수 없었다. 면담에서 질문은 목회철학, 지침 및 장애물들을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질문들은 참여자의 응답을 제한했으며, 군종장교들이 목회적 지원의 다른 중요한 측면을 여성에게 설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은 문제의 주된 주제가 아니었는데, 군종장교들이 그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주제로 등장한 것이었다.

이 주제에 대한 향후 연구는 여성 군인들에게 남성 군종장교에 대한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남성 군종장교의 전반적인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Roberts(2017) 등의 연구에서 10명의 여성 중 7명은 남성 군종장교의 목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드러냈지만 이는 소수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향후 이 주제의 연구에서 조사할 두 번째 내용은 군인들이 군종장교의 목회적 지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와 같은 일부 교단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엄격하며, 군종장교들이 동성결혼을 하거나 동성애자에게 상담을 제공하거나, 동성관계 훈련을 이끄는 사람을 돕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동성애로 인정되는 목사 또는 동성애자가 이끄는 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Ebert, 2013). 참여자들은 자신의 종파적 내용을 인식하고, 예전을 집행하며, 신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구체화하는 방법들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군종장교와 신자들 간의 목회적 만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성불가침의 공간을 확립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추가연구는 경계 설정을 식별하여 영적 지원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bstract

Male Chaplains and Female Soldiers: Are There Gender and Denominational Differences in Military Pastoral Care?

Daniel L. Roberts & Joann Kovacich
trans. Joseph Jeon

In this study, 15 United States Army chaplain men described the practices they engaged in when providing pastoral support to women soldiers. Many engaged in creating safe spaces for women and themselves, particularly in regard to avoiding perceptions of impropriety. Other clergy did not consider gender a factor in counseling. Some chaplains placed limitations on the amount of support they would give. This study did not determine the degree to which chaplain men were effective.

Key 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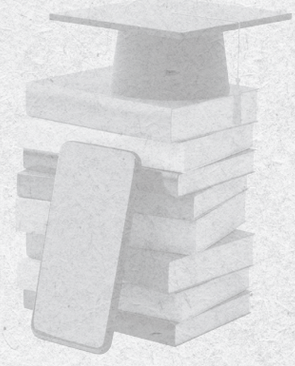
Male chaplain, women soldiers, pastoral support, gender, denominational differences

기획논문

구약성경이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역대하 **7: 11-22,**
특별히 **13-14**절이 제시하는 그 원인과 해법
| 김진섭 |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중심으로
| 이규철 |

화해의 공공신학과 군선교의 과제
| 강찬영 |



구약성경이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역대하 7:11-22, 특별히 13-14절이 제시하는 그 원인과 해법

Corona Pandemic as the Old Testament Speaks: The Cause and Remedy, focused on 2 Chronicles 7:11–22, especially Verses 13–14

» 김진섭 Ph.D.*

국문초록

이 논고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 폐렴에 기원하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pan) 사람에게(demic)" 가공할 만한 전염병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Corona Pandemic) 재난에 대해 구약성경이 말하는 그 원인 진단과 처방에 대한 통전적인 해답을 역대하 7:11–22, 특별히 13–14절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본문이 확실하게 진단하는 모든 인류의 대소사의 "원인과 처방"의 핵심은 전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이며, 둘째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라는 "십자가 해석학"(마 22:36–40)이라는 전제 아래 다음의 사실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왜 이 본문인가"에 대하여, 우리의 규범이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와 가치를 제시한다. (1) 남유다 역대 왕들(대하 10–36장)의 행적 평가 마스터키로서, 우리의 규범이 된다. (2)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순종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레 26장; 신 28장)의 요약으로서, 특별히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을 실례로 우리의 규범이 된다. (3) 모든 문제(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세계)와 그 기본 해법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출 15:26; 대하 7:13–14; 막 2:17; 고전 12:7–11)에 있으므로, 우리의 규범이 된다. (4) 이 본문의 역사적 정황은 솔로몬 왕의 13년에 걸친(주전 959–946) 왕궁 건축 직후 주어졌고(왕상 9:1–9), 최후 15년(45–60세; 주전 946–931) 동안 "왕직 매뉴얼"(신 17:14–

• 논문 투고일: 2020년 9월 28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12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백석대 평생교육신학원 학장, 아세아신학연맹(ATA) 국제이사 겸 한국회장

20)을 조직적으로 범한 죄의 결과(왕상 10:1–11:8)로서 남북 분열의 참상(왕상 11:9–13)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도 삭제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에스라 시대(주전 5세기 후반)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재해석하는 동일 원리로 적용되므로, 우리의 규범이 된다. ⑸ 특별히 북한 현대사는 본문 13절의 배경인 레위기 26장의 재적용으로 이해되므로, 우리의 규범이 된다.

둘째, 이 본문이 제시하는 4가지 연속적 단계의 해법은 우리의 규범이 된다: ①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 ② 스스로 기도하라; ③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라; ④ 자신의 악한 길들(습관)에서 돌아오라.

셋째, 이 본문이 보장하는 3중적 회복과 치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기초하여 우리의 규범으로서 제시한다: ① 내가 하늘에서 듣고; ② 그들의 죄를 사하고; ③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중심단어

코로나 팬데믹, 십자가 해석학, 역대하 7:14, 4가지 연속적 단계의 해법, 새 언약, 3중적 회복과 치유의 약속

서론: '우한폐렴 = 코비드19(COVID–19)'와 코로나 팬데믹

21세기 지구촌, 글로벌 내지 글로컬 시대에 살면서 유튜브를 위시한 온갖 형태의 IT기기들이 많다 보니 지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pan) 사람에게(demic)" 가공할 만한 전염병으로 인식되고 확산되어 온 "코로나 팬데믹"(Corona Pandemic)[1]의 진원지가 "우한 폐

1) 전염병(epidemic)과 팬데믹(pandemic, 범유행)의 차이가 무엇인가? 전염병이란 특정 지역과 집단에 급속히 퍼지는 것이라면, 팬데믹은 전염병의 더 심각한 수준으로서 지역과 집단에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실례. 1347-1351년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를 강타한 인류사상 최악의 범유행 흑사병(Black Death)은 7500만-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918/19년 Spanish flu는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전 후에 전 세계 인구의 1/5을 전염시키고 2-4천만의 생명을 앗아갔다; 1957-58년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발열인플루엔자 범유행"(H2N2)으로 1,100만 명 사망; 1968년 미국에서 시작된 "발열인플루엔자 범유행"(H3N2)으로 1,000만 명 사망; 2009년 3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10세 소아의 비인두 흡입 검체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발열인플루엔자 범유행"(H1N1)으로 284,000명 사망.

렴"이라는 사실과[2] 그 감염경로[3] 및 국내외 현황에 대한 매우 정확한 자료들[4]을 노력 여하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제19대 취임식(2017년 5월 10일)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연설문 제목대로,[5] 한국교회

2) 우한 폐렴 바이러스(SARS-COV-2)에 관한 최초 연구원으로서 미국으로 망명하여 이것이 우한연구소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임을 지적하는 홍콩 대 바이러스 전문가 예리멍(Yan Li-Meng) 박사의 논문 (https://zenodo.org/record/4028830#.X38iK2gzZPb)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share&v=b7AGWVFrpv8&app=desktop)을 보라.

3)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4번째로 약 7분간 진행된 유엔 화상연설(9월 22일)에서 "유엔 창설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거대한 국제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과 WHO가 우한 폐렴 초기에 중국은 초기에 국내여행은 봉쇄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은 허용하고, 심지어 미국에 "중국인 입국금지" 정책은 비난하면서도 자국 내 비행은 취소시키고 자국민을 집에 가두며, 사실상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WHO가 "사람끼리 감염 증거가 없으며, 무증상 감염자는 병을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선언한 충격적인 은폐와 "188개국에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적인 '**중국 바이러스**'[필자의 강조]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다"며 "인류 공동의 적"이 바로 중국 공산당임을 지적하는 https://www.youtube.com/watch?v=cFxE_acAh7o를 보라. 한국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의 실체"란 제목 아래 문재인 대통령이 반 문재인 대통령 특정집단인 "사랑제일교회와 8 · 15광화문집회 참가자"를 그 주범으로 공개 지목한 사실에 대한 종합적인 반박과 소위 현재 K방역이라 칭송되는 정부의 방역정책의 허상을 규탄하기 위해 제작된 동영상에서, 한국 언론 보도와는 전혀 다른 "대국민 사기극"의 진실들, 즉 중국에 인접한 대만, 몽골, 베트남의 실례로 중국인의 한국 입국 차단을 여섯 차례 권면한 의사들과 70만 명 이상의 국민청원을 통한 요청을 묵살하고, 지난 2월 이후 2개월간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 60만 명을 대량 허용한 정부 당국의 방역 실패(정치방역, 종교방역, 마녀사냥 방역)를 지적하는 의사(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그리고 전 국민의 약 3%에 해당하는 검사자(세계 110위) 중 신규 확진자 숫자만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비상시국으로 몰아가면서 신규 확진자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교회 탄압과 국민 개개인의 인권 유린의 현장을 드러내는 변호사(고영일, 강연재)의 증언을 위해 참조. https://youtu.be/qkbRj8hNMHM.

4)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utm_campaign=homeAdvegas1에 따르면, 2020년 10월 9일 아침 6:50 현재, 전 세계(216개국): 36,692,748(총 확진자), 27,577,898(완치자), 1,065,397(사망자); 한국(80위): 24,422(총 확진자), +69(새 확진자), 22,463(총 회복자), 427(총 사망자), +2(새 사망자), 1,532(치료 중), 97(중증), 476(1백만 명당 확진자), 8(1백만 명당 사망자), 2,388,844(전체 검사자), 46,583(1백만 명당 검사자), 51,281,182(인구).

5) 실제 연설문을 읽을 때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발언을 했다. 연설문에서 따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문구 자체는 연이은 사건 사고로 2018년 후반을 기점으로 밈(Meme)이 되어 반(反) 문재인 진영에서 문재인을 비난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 140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와 한국 사회 역시 헌법 개정과 애국가 변경 등의 정치와 이데올로기, "주적" 개념을 제거한 안보, 동성애와 동성혼을 위시한 반인륜적, 반성경적 법제화 추진과 역사의식과 건전한 가족 및 사회 개념이 실종된 교육현장 등 총체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현장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롬 11:36)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믿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을 예견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일한국과 세계선교"라는 비전과 사명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비상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필자는 구약성경이 제시하는 그 원인 진단과 처방에 대한 통전적인 해답을 역대하 7:11-22, 특별히 13-14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1. 왜 이 본문인가?

1) 역사 이해의 마스터키

이 본문은 역대기의 남쪽 유다 왕조 이야기, 포로시대, 포로후시대를 이해하는 마스터키는 물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규범이 된다. 왜냐하면 역대하 10-36장은 역대 왕들의 행적[6]을 평가함에 있어서 본

6) 르호보암(10-12장), 아비야(13장), 아사(14-16장), 여호사밧(17-20장), 여호람(21장), 아하시야(22:1-9), 아달랴(22:10-23:21), 요아스(24장), 아마샤(25장), 웃시야(26장), 요담(27장), 아하스(28장), 히스기야(29-32장), 므낫세(33:1-20; 특별히 12-13절), 아몬(34:21-25), 요시아(34-35장), 여호아하스(36:1-4), 여호야김(36:5-8), 여호야긴(36:9-10), 시드기야(36:11-21).

문 14절의 중심단어들을 아래와 같이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7대 왕 여호사밧(주전 873-848; 대하 17-20장)이 요단 동편의 적들을 격퇴시키는 역대하 20:6-12의 기도문(특별히 8-9절)[7]은 역대하의 솔로몬의 기도(대하 6:14-42; 7:11-22)에 근거할 뿐 아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신(렘 25:11-12) "70년 만에 [포로생활이] 그치리라"(주전 539년; 단 9:2)는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단 9:4-19), 특별히 소위 "주여 삼창"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세 가지 간구(19절)[8]와 그 응답(단 9:20-27)은 바로 역대하 7:12-14의 하나님 약속에 호소하는 실례로서 잘 입증된다: ① 카나(כָּנַע '겸비하다'; 12:6, 7a, b, 12; 13 18; 32:25, 26; 33:12; 33:23a, b; 34:27; 36:12); ② 팔랄(פָּלַל, '기도하다'; 32:20, 24; 33:13); ③ 자아크(זָעַק, '울부짖다'; 13:14; 32:20); ④ 할라(חָלָה, '간구

7)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가 신정왕국의 참된 왕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임을 잘 보여준다: "[6]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7]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8]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9]**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0]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11]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필자 강조). 이 기도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20절)는 메시지로 요약되는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여호사밧의 기도(5-13절), ② 여호와의 응답(14-19절), ③ 모압, 암몬, 마온 자손들의 연합군에 완전 승리(20-27절).

8)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단 9:19). //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하다'; 33:12); ⑤ 다라쉬(דָּרַשׁ, '구하다'; 12:14; 14:3, 6a, b; 15:2, 12, 15; 16:12; 17:3, 4; 19:3; 22:9; 25:20; 26:5a, b; 30:19; 31:21; 32:31; 34:3, 21, 26); ⑥ 바카쉬(בָּקַשׁ '찾다'; 11:16; 15:4); ⑦ 샤안(שָׁעַן '의지하다'; 13:18; 14:10; 16:7a, b, 8); ⑧ 슈브(שׁוּב '돌아오다'; 19:4; 20:33; 29:6; 30:6, 8, 9; 33:13; 36:13); ⑨ 아자브(עָזַב, '버리다'; 12:1; 13:10, 11; 15: 2; 21:10b; 24:18, 20, 24, 25; 28:6; 29:6; 32:31); ⑩ 할라크(הָלַךְ, '걸어가다'; 11:17); ⑪ 마알(מָעַל, '배역하다'; 12:2, 26:16, 18; 28:19, 22; 29:19, 35; 30:7; 36:14); ⑫ 샤마(שָׁמַע, '듣다'; 30:20; 33:13; 35:21); ⑬ 라파(רָפָא, '치유하다'; 30:20; 36:16).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 왜 이방 국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내야 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 시대(주전 970년)부터 바벨론 포로로 간 여호야긴의 출옥(주전 561년)까지의 약 420년 동안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왕정 역사를 기술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40명의 왕과 12명의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언약의 백성들과 특별히 그 영적 지도자들의 대표격인 왕들의 우상숭배(불경건)와 사회 부조리(불의)에 대하여 "복과 저주, 선과 악, 생명과 사망"(신 30:15, 19)이라는 양자택일의 조건에 따른 징계와 심판의 부정적인 이야기이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왕의 아내나 백성들 포함)이 악을 행했다는 표현은 열왕기에 무려 38번 나온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 치닫는 모습을 냉엄하게 그리고 있다. 믿음의 위기와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던 유대인 포로들에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롬 15:4) 쓰여졌다: 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② 여호와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③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을 강조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서로 종결되는 바, 그 기록 목적 역시 열왕기서와 동일하다. 70년간 바벨론 포로에서(주전 605-539) 귀환한 유대인들 역시 성전 재건도 했건만(536년 시작, 530년 중단, 520년 9. 21. 재개시, 515년 3. 12. 완성; 참조, 스 3:8; 4:1-5, 24; 5:2; 학 1:14; 스 6:15),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는지, 조상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들은 여전히 효력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지, 다윗의 후손은 어디에 있는지?" 등의 일련의 질문들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역대기서도 하나님은 겸손과 신뢰로 회개하는 심령을(대하 7:14; 20:20)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즐거워하심과(대상 29:9, 17, 22),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순종하고(대상 5:20; 28:8b-9; 대하 7:13-15; 12:5; 20:20),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대하 30:1-31:1),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알고(대상 1-9장),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도록(대상 10장-대하 9장; 대상 28:5; 29:23; 대하 9:8; 참조 왕상 10:9) 격려함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문제나 고통이 닥칠 때, 이를 대하는 다양한 유형을 보게 된다. "왜 유독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 하며 절망하는 자도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해결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았자 위기 앞에 안전하지 않다는 의심

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배우고 신앙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일념으로 야무지게 삶을 정비하기도 한다. 본문은 우리 삶에 홀연히 등장하는 예측불허의 위기와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 원리와 과정을 소상하게 알려준다.

2) 언약의 조건과 그 결과로서의 복과 저주

본문 13-14절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인 이스라엘 개인과 신앙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순종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레 26장, 신 28장 참조)의 요약이며,[9]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요 20:28)으로 시인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롬 1: 7)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규범이 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13절)라는 징계는 현대 유대인에게까지 계승되어 만 3세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에 두 차례 암송하는 '쉐마'(신 6:4-9; 11:13-21; 민 15:37-41) 중의 신명기 11:13-17[10]을 연상하게 한다.

농사짓는 땅이라면 꼭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고, 또 안 와야 할 때 안 오며, 비가 오되 적당량이 와야 함이 사활적인 것은 이스라엘이나 한국의 모든 땅에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은 비가 매년 세 번 오며, 농사를 위해 "그것[비]의 때에"(베잇토[בְּעִתּוֹ]), 즉 비가 와야 할 때 반드시 비가 와야 하는 것이다. 즉 파종기의 '이른 비'(요레[יוֹרֶה]; 10월 초-11월 하순; 신 11:14; 약 5:7), 본격적으로 오는 큰비인 '중간비'(게셈[גֶּשֶׁם]; 12월 중순~2월 말; 스 10:9, 13; 슥 10:1; 욥 37:6), 그다음에 곡식을 영글게 하는 '늦은 비'(말코쉬[מַלְקוֹשׁ]; 3-4월; 신 28:12; 렘 5:24; 호 6:3)가 바로 절대 필요한 세 번의 비이다.[11] 또한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각각 '초실절'(유월절 3일 후 첫 보리 수확의 감사제), '맥추절'(칠칠절 혹은 오순절, 초실절 50일째의 첫 밀 수확 감사제), 수장절(초막절, 포도나 올리브 등의 과실 수확 감사제)의 농사와 직결되므로 더욱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가 오고 안 오는 문제, 비가 얼마나 오는가의 문제, 어떤 시절에 비가 오는가의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물론, 창세기 2:5로부터 구약성경 전반에서 "비와 풍작"의 주권자가 "여호와냐, 바알이냐?"의 양자택일의 결단을 요청하는 본문들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12] 이것은 오늘도 세계만방에 적실하다. "내가 그들의 땅을 치유할지라"(14b절)는 약속은 일찍이 출애굽 당시에 이미 하나님

9) 레 26:1-2(언약의 조건), 3-13(언약 순종자에 대한 복), 14-39(언약 불순종자에 대한 징계), 40-45(언약 회복의 조건과 결과; 대하 7:14 참조), 46(요약); 신 28:1a(언약조건인 순종), 1b-14(순종의 경우 언약의 복), 15-68(불순종의 경우 언약의 저주) 등; 보다 자세한 논의는 참조. 김진섭,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언약의 복과 저주'의 북한 정황적 적용", 『성경과 신학』 40 (2006): 308-368.

10)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신 11:13-17; 필자 강조).

11) 참조. '베잇토'(בְּעִתּוֹ; 12회): 신 11:14; 28:12; 렘 5:24; 겔 34:26; 호 2:11; 시 1:3; 104:27; 145:15; 욥 5:26; 38:32; 잠 15:23; 전 3:11; 참조. 3인칭 남성 복수 소유격과 함께 레 26:4; 렘 33:24; 비교. 창 2:5-7; 27:27-28, 37; 슥 10:1.

12) 창 2: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본문은 땅(창 1:10), 사람(창 1:26-27), 초목과 채소(창 1:11-12)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와 풍작"의 참 신이지, 결코 바알이 아님을 지적한다. "여호와냐, 바알이냐?"의 양자택일적 결단을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요청하는 실례로서 수 24:15; 삿 3:5-7("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의 실체는 불신 결혼과 그로 인한 그들의 신들인 바알과 그 아내 아세라임을 지적함); 왕상 17:1; 18:37-40 등을 보라.

께서 천명하셨다.

>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치유자임이니라"(출 15:26).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이유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치유자이기 때문"(키 아니 아도나이 로페카[רֹפְאֶךָ כִּי אֲנִי יְהוָה])이라고 선포한다.

여기 '치유'(라파[רָפָא])란 단어의 기본 뜻은 '잘못된, 병든, 깨어진, 또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올바른 원래 상태로 '회복시킴, 온전케 함'을 의미한다(왕상 18:30; 렘 19:11).[13]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연의 상태, 최상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치료(cure)는 할 수 있어도 치유(heal)는 절대로 할 수 없기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 모든 휘어지고 망가지고 부러지고 더러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래의 가장 좋은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치유의 기본 뜻인 것이다.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세계의 수많은 흐트러진 문제들은 본문의 순서대로 줄과 잣대를 맞추기만 한다면, 치유와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 예수님으로 오셔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 2:17)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13) Michael L. Brown, 김진섭 역, 『구약의 치유신학』 (서울: 대서, 2010), 26-27. 보다 자세한 사전적 어원적 논의(17-26), 구약의 용례와 의미(26-31), 치유에 대한 부가적인 성경 용어(31-42)를 참조.

복음으로 오늘도 믿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만사(萬事)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역대하 7장은 솔로몬 왕의 지휘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모아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르실 성전을 완공한 뒤 드리는 성대한 낙성식 장면(1-10절)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당부하시는 말씀(11-22절)으로 이루어져 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1-2절). 왕과 백성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 완성한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정성껏 준비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른다.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조차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이다. 온 백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는 경이롭고 장엄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실로 엄청난 수의 제물들이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고, 다윗 왕이 지시해 제작한 악기를 레위인들이 연주한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심지어 준비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태우기에 놋 제단이 넉넉지 못해, 여호와의 전 앞뜰 가운데를 깨끗이 하여 그곳에서 제물을 태운다. 큰 회중이 모여 칠 일간의 낙성식을 치르고, 이어서 칠 일간의 성회를 갖는, 도합 두 주간의 전 국가적인 잔치가 치러진다. 이에 대해 "여

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10-11절).

연이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12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13절)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영적 과정과 원리를 일러주신다. 조금 전 성대하고 은혜로운 낙성식과 성회를 마치고 모두들 돌아간 그날 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 주님을 위해 능력과 힘을 발휘하여 멋지게 일을 해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어렵고 고단한 일들로부터 열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완공하는 데 7년(25-32세; 주전 966-959)이 걸렸고, 그 장엄하고 감동적인 완공 봉헌예배가 역대하 6장에 상술되어 있다. 그 후에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32-45세; 주전 959-946) 지었고, 그 직후 하나님께서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응답(왕상 9:1-9)과 마지막 15년 통치(45-60세; 주전 946-931) 동안 모세를 통해 이미 명시하신 "왕직 매뉴얼"(신 17:14-20)을 조직적으로 범한 죄의 결과(왕상 10:1-11: 8)로 인해 본문 19-22절의 경고대로 남북 분열의 참상(왕상 11:9-13)이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믿음의 전당에 등재된 인물들의 명단에서도 삭제되는) 왔음을 보여준다. 이 과거 역사를 익히 다 알고 있는 에스라 시대(주전 5세기 후반)의 포로 귀환자들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됨을 밝히는 역사적 정황에 본문이 놓여 있다.

우리가 더 확실한 역사적 흐름을 알기 위해 역대하 6장을 살펴보자. 7년 동안 건축한 성전을 완공하고 헌당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12-13절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가로×세로×높이(2.3×2.3×1.4m)의 놋단을 만들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처음에는 제단 앞에 서서, 그다음에는 놋단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대하 6:12-13; 왕상 8:54).[14]

'손을 들다'는 것은 '몸짓 언어'로서 많은 의미가 있지만,[15]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다. 그 내용(14-42절)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언약 속에 말한 징계, 흔히 우리가 저주라고 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이며, 솔로몬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고(7:1-3), 그다음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내용이 역대하 7:11-22(왕상 9:3-9)이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13년 후에 들어주신다면, 우리 중에 몇

14) 솔로몬의 기도(대하 6:3-42[다윗에게 준 영원한 언약에 호소]; 왕상 8:22-53[모세를 통한 출애굽 구원에 호소])는 크게 세 대목으로 나눠진다: (1) 기도의 자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의 송축,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헤세드[חֶסֶד]와 에메트/네에만[נֶאֱמָן/אֱמֶת]; 14-17 / 15, 23-24; 참조. 출 34:6-7; 신 7:9-10)에 대한 호소(대하 6:14-21 / 왕상 8:22-30[이후로 / 앞은 대하, 뒤는 왕상의 책명과 장은 생략]); (2) 레 26장과 신 28-30장의 언약에 근거한 7가지 간구(대하 6:22-39; 왕상 8:31-51): ① 재산 손실에 대한 증인 없는 맹세(22-23 / 31-32; 참조. 출 22:6-12; 레 6:1-5); ② 적국에 패배 후 회개 기도(24-25 / 33-34; 참조. 레 26:17; 신 28:25); ③ 가뭄(26-27 / 35-36; 참조. 레 26:19; 신 28:23); ④기근, 전염병, 적국 침범(28-31 / 37-40; 참조. 레 26:16, 19-26; 신 28:22-23, 38, 59-61); ⑤ 이방인의 기도(32-33 / 41-43); ⑥ 전쟁 수행 등 이방에 있는 경우 성전 향해 기도(34-35 / 44-45; 참조. 단 6:10); ⑦ 불순종으로 인한 재난(레 26:27-39; 신 28:45-68)과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과 회복의 소망(레 26:40-45; 신 30:1-10); (3) 결론(대하 6:40-42; 왕상 8:52-53): 대하 6:40-42은 왕상 8:52-53을 시 132:8-10로 대체함.

15) 수메르어로 '기도'는 "슈('손') 일라('들어올린')"인데 성경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출 17:11; 욥 11:13; 시 28:2; 63:4; 77: 2; 88:9; 스 9:5; 느 8:6; 애 3: 41; 딤전 2:8), 맹세하거나(창 14:22; 신 32:40; 느 9:15), 축복하거나(레 9:22; 시 134:2; 눅 24:50), 계명의 묵상(시 119:48)에 사용된다. 현대인들에게는 그 외에도 '환영, 도움을 청함, 붙잡음, 항복'의 의미를 지닌다.

사람이 자신의 옛 기도를 기억하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잘 읽어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간구에서 자신이 사용한 핵심 용어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시 메아리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그다음 13절을 보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이 13년 전 성전 봉헌식에서 임시 놋단 위에서 무릎 꿇고 손들고 드린 간구의 축약 형태의 메아리이다.

> "만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범죄함으로 인해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만일 그들이 '당신'께 범죄함으로 인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그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마름이나 깜부기나 메뚜기나 황충이 있거나,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성문들의 땅에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대하 6:24, 26, 28 필자 사역).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당신'으로 표현된 모든 일련의 행동 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나'란 주어가 이미 들어 있지만, 주어를 더욱 강조할 때는 인칭대명사(아니[אֲנִי], 14b절, "하늘에서 '내가' 친히 듣고")를 사용한다.[16] 성경과 인류역사가 보여주는 분명한 진리는 '우연'이나 '자연발생'의 사건은 결코 없으며,

16) 12-22절에, 동사에 주어가 포함된 경우가 14회이다(필자 사역):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이곳을 내게 제사의 집으로 택했다"(12절; 2회); "내가 하늘을 닫고,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내가 보내고"(13절; 2회); "내가 '친히'(아니[אֲנִי], 14b절)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14절; 3회); "내가 이제 이 전을 택하고, 내가 거룩하게 하여"(16절; 2회); "내가 네 왕국 보좌를 견고하게 하되, 네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언약한 대로"(18절; 2회);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뽑아내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전도 내가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조롱거리로 내가 만들겠다"(20절; 3회).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기 위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며,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것"(마 10:29-31)은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한 국가의 흥망성쇠(삼상 2:6-8; 왕하 17장; 롬 9:15-18; 11:36)에 이르기까지 세상만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음을 확증한다.[17]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고전 10:13) 하나님이 주체이시며, 사고현장에서도 '좋은 것들'을 주시는(마 7:11)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단 3:18), "비록 없을지라도"(합 3:17), "나를 죽이실지라도"(욥 13:15), "주시는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욥 1:21)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회개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속에 역대하 6:22 이하를 보면, 처음에는 소박하게 이웃과의 범죄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재난 현상들, 특별히 비와 관련된 심판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범죄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것임을 밝힌다. 비가 꼭 와야 할 때와 오지 않아야 할 때가 한 해 농사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비' 문제가 얼마나 인간 생존에 사활적인가는 본 논고에서 앞서 밝힌 바

17) 역대하 6장은 다음과 같은 7가지 대소사의 배후에 주권적인 하나님이 계심을 확증한다: ① 이웃과의 범죄 문제(대하 6:22-23 〈 출 22:10-11; 레 6:3-5); ② 적국에 패배(대하 6:24-25 〈 레 26:17, 23; 신 28:25, 36-37, 48-57, 64; 수 7:11-12); ③ "비가 와야 할 때"(대하 6:26-27; 베잇토, "그것[비]의 때에"); ④ 7대 재난인 기근, 전염병, 곡식 시듦, 깜부기, 메뚜기나 황충, 적국 침범, 무슨 재앙이나 질병(대하 6:28-31 〈 레 26:16, 20, 25-26; 신 28:20-22, 27-28, 35, 42); ⑤ 성전에 와서 드리는 이방인의 기도(대하 6:32-33; 사 2:3; 56:6-8; 미 4:2; 슥 8:20-23; 14:16-21; 시 87편); ⑥ 전쟁 때(대하 6:34-35; 13장; 14:9-15; 18:31; 20:1-29; 25:5-13; 32:20-22 〈 레 26:7-8; 신 28:6-7); ⑦ 심지어 포로 중에도(대하 6:36-39; 36:15-20; 왕하 17:7-20; 25:1-21 〈 레 26:33, 44-45; 신 28:49-52).

가 있다.[18]

미국 대통령 취임식 예전 중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하기 전에 각자가 애송하는 성경말씀을 낭독하며, 헌법에 명시된 취임선서에 사용되는 36개 단어 외에 1789년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 "So help me God!"이란 4단어를 추가로 사용한다. 미국 역사상 취임 선서식에 역대하 7:14을 사용한 대통령은 링컨(Abraham Lincoln, 1861, 16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auer, 1953, 34대, 시 33:12와 함께), 레이건(Ronald Reagan, 1981, 1985, 40대) 등이 있다. 비록 재선 취임 시(2013년 1월 21일) 성경에 반대되는 친 동성애의 "Gay Rights"란 용어를 미국 역사에 처음 사용했고, 대법원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결정(2015년)을 내린 부정적인 대통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2009, 44대) 역시 1861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취임 시 사용한 역대하 7:14을 선택했다. 이 예전은 미국의 최고법인 헌법이 어디까지나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성경이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미국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공인하는 몸짓 언어였다.

이 지상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절망의 나라였던 우간다를 보라. 이디 아민(Idi Amin, 1925-2003)이 1971-79년 사이에 약 50만 명으로 추산하는 양민을 학살하고, 1990년대에는 30% 국민의 에이

18) 각주 11-13; '가뭄'에 대한 경고 중 특히 참조.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렘 14:22);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암 4:7-8).

즈 감염을 예상했던 절망의 나라, 발음 그대로 우~간~다, 다 가는 곳이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대통령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내외가 1999년 12월 말에 새 천년을 맞으며 주 예수님과 우간다가 '언약'(covenant)을 맺는 공식 언약서에 서명하므로 한 국가가 주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에이즈 확산율을 10% 낮추는 운동과 유전이 발굴되는 등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연간 4억 달러(한화 4천여억 원)의 막대한 원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2월 24일(현지 시각) 동성애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反)동성애법에 서명해 전 세계인의 이목을 한 몸에 받으며 소망의 국가로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역사에 발생한 중대 사건들에 나타난 한국교회의 역사적 책임, 비전과 사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게 된다: (1) "한국교회는 성경기독교, 기도기독교, 선교기독교"라는 세계교회의 공인을 가져온 평양 장대현교회의 '한국판 오순절' 회개 부흥운동(1907.1.14-15); (2) 아베 노부유끼(阿部信行) 총독이 총독부 경무관 세이데(星出遠雄)와 비밀히 진행한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조선의 종교인과 사상범 약 3만 명을 무성무기로 살육하라") 시행 직전의 광복(1945.8.15)과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하에서의 복음적 교회의 태동과 성장; (3)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제27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1938.9.9)의 신사참배 가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만 10년(1948.9.9) 후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분단

국가, 교회분열과 교권다툼 앞에서의 한국교회의 책임; (4) 기도로 시작된 제헌국회(1948.5.31)와 수수께끼 같은 '세계대전'으로서 '잊혀진 전쟁' 내지 '잊혀져가는 전쟁'(1950.6.25남침-1953.7.27휴전)이 도전하는 교회의 역할; (5) 김일성의 '출생 100주년'(2012.4.15)과 노무현 정권의 한미연합사 해체(2012.4.17) 시도; (6) 국가 안보와 맞물린 대형사고인 천안함 피격 침몰(2010.3.26), 세월호 침몰(2014.4.16); (7) 중고등 역사교과서의 검인체제에서 국정체제로의 확정고시로 인한 올바른 역사관 교육 실종, 동성애·동성혼과 직결된 성차별 금지법, 이슬람 할랄 음식에 대한 국론분열 등의 논의도 이러한 시각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북한이 6·25 남침의 300만과 지난 과반세기 종교사상범으로 100만과 1995년 이래 고난의 행군에 아사자 300만 도합 700만의 생명을 앗아간 세계 최악의 불량국가로 전락됨에도, 전국에 3만 5천여 개[19]의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특히 장대현교회 터인 현 '평양학생소년궁'에서 600m 북쪽에 있는 만수대에 23m 높이의 참배용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레 26:1-2),[20] 그중에 약 5만 명에 달하는 지하교회 산 순교자들은 남한의 약 3만 5천 개의 향락산업의 상징인

19) 통일원 북한 자료센터, 『화보로 보는 북한의 우상화 실태』 (서울: 가든, 1989), 17.

20) 필자가 만 20년간(1977-97) 미국의 신학교 교수와 교포교회 개척 및 목회의 삶을 정리하고 백석대학교로 부름 받아 만 23년 이상을 봉직하고 있는 동안 북한의 농사를 비롯한 재난이 해마다 반복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김일성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돈독한 부모인 김형직·강반석이 낳은 '언약의 자녀'(Covenant Child)이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인 되신 벨(E. Nelson Bell) 선교사가 본래 이름인 강신희를 강반석으로 바꾸었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평양의 그 생가를 가보고 필자는 확인했다. 그런 김일성이 중국 연변의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성극 할 때는 예수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바로 1907년에 평양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장대현교회 터 위에 학생소년궁전을 짓고, 인근 만수대에는 자기를 신(神)으로 절하는 우상을 세운 것이다.

러브호텔과 약 4만 개 교회 1,200만 성도의 불경건과 불의를 경고하고 각성시킬 거룩한 그루터기로 보존되고 있다는 고백이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사활적인가를 지적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참조: 마 5:13-16)고 규정함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엄정한 도전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전반에 모든 왕들의 "왕정 매뉴얼"(신 17:14-20)을 주시면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신 17:18-19)는 지침을 주셨다. 이 지침은 오늘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반드시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배우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신 17:20b)는 복을 자신(가문, 소속정당)이 누리고, 국민에게 나눠 주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하나님께서 한국 정치사 속에도 제헌국회(1948.5.31)는 감리교 목사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시작하였고, 오늘까지 세 분의 장로(이승만, 김영삼, 이명박)와 세 분의 유년주일학교 출신(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허락하셨다. 고(故) 김준곤 목사 중심으로 1968년부터 해마다 빠짐없이 진행해 온 (대통령 초청) 국가조찬기도회가 금년 제52회(2020년 9월 28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줌(Zoom) 온라인 비대면으로 용인의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 시무)에서 열렸는데, 놀랍게도 설교

본문이 역대하 7:14(대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 "대한민국을 치료하라")이었다.

개인적으로 국가안보의 총체적 위기 속에 막강한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비전과 사명의 길을 향한 나침반으로 이 본문을 체득하고 애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각자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치유 받고 완전을 향해 말씀으로 은혜롭게 서로를 세워 주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가 충분히 다 나타나도록 서로를 이렇게 끝까지 밀어 주는 신앙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이 본문이 상당히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4) '베잇토'(In His Time)의 주권적 하나님: 십자가 해석학

구약에 12회 사용된 '베잇토'는[21] 본래 '그것의 때에'란 뜻으로, 약속의 땅의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이른 비, 늦은 비, 중간(겨울) 비가 와야 할 때"를 가리킨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분의 때에'로도 번역이 가능한 것은, "모든 것을 그분[하나님]이 지으시되, '그것의 때에 따라'(베잇토) 아름답게 하시는"(전 3:11)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만사의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 3대가 만 3세로부터 임종까지 하루에 두 차례 암송하는 쉐마 본문 중의 하나(신 11:13-21)에서 보리 새 이삭을 대표로 하는 농산물이 해마다 풍년으로 생산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명시할 때 사용된 '베잇토'(신 11:14) 역시 십자가 해석의 원리를 드러낸다:

21) 본 논고 각주 12, 18 참조.

(1) 비가 와야 할 때('베잇토') 반드시 와야 하고, 절대 가뭄이나 홍수가 생겨서는 안 된다; (2) 일조량이 적당해야 한다; (3) 가축을 위해서는 들에 풀이 나야 한다; (4) 이 모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가, 또한 얼마나 주변 이웃들이 섬기는 우상을 배격하는가에 달려 있다; (5)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형태의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닫혀 비가 없고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는 언약의 저주로 인해 속히 멸망할 것이다.[22]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 of God)이란 신학적 용어로 특징짓는 장로교 신학, 즉 개혁주의신학은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예측불허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한다. 모든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에 두는 로마서 11:36을 필두로 이스라엘 왕조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사무엘상 2:6-10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인류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로마서 9-11장, 특히 9:16-18, 21-24이 그 대표적 본문이다.

성경 전체의 '대하 이야기'(meta-narrative)는 모든 피조물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우주(인간) 창조(창 1-2장), 인간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창 3장-계 20장), 하나님의 우주(인간) 완성(계 21-22장)"이라는 '구속사적 언약관계'에 두고 있다. 그 대하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대' 사

2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신 11:12) 땅이며, "이른 비, 중간 비, 늦은 비"가 꼭 와야 할 "자기 때에"(베잇토)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권'의 복을 전제로 한다. 대조적으로 언약 저주로서의 가뭄과 그 후유증에 대한 레 26:14-20; 신 28:22-24; 왕상 17:1; 대하 6:26-31; 7:13-16을 참조.

건이나,[23] '사소' 사건[24] 모두가 절대 우연은 없으며,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예측불허의 하나님의 주권"[25]과 수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각 사건의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신학적) 원인-결과와 인간과 환경의 수평적(역사적) 원인-결과의 '십자가 해석학'(Cross Hermeneutics)에 있음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사건은 그리스도의 수직적 신성과 수평적 인성의 교차점에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적·신학적 의미가 해석될 수

23) 예를 들면, (1) "이스라엘 왕국사"(주전 1050-586)라는 거대 사건(삼상 2:6-10); (2) '열국 심판'을 주제로 한 선지자들의 경고: 사 13-23장(12개국); 렘 46-51장(9개국); 겔 25-32장(7개국); 암 1-2장(8개국); 습 2:1-3:8(6개국); (3) 통일왕국의 분열(주전 930년)의 ① 수직적 원인(왕상 11장): 솔로몬이 국제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 아내들(후궁 700명, 첩 300명)을 두게 되어, 그 결과 주변국가의 온갖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음(왕상 11:9-13, 31-33); ② 수평적 원인(왕상 12장):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출신의 노동자들을 감독하면서 솔로몬의 과세 정책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알게 되었고(왕상 11:26-28), 아들 르호보암이 노인보다는 자기 또래의 소년들의 정책자문을 받아들여 부친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백성에게 부과함으로 민심이반이 일어나 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음(왕상 12:16-20); (4) 북쪽 이스라엘 왕국 멸망(주전 722년)의 ① 수직적 원인(왕하 17:2, 7-23, 34-41):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왕들의 불신앙적 규례를 따름); ② 수평적 원인(왕하 17:3-6)-마지막 왕 호세아가 조공을 바쳐오던 앗수르 왕 살만에셀을 배반하고 애굽 왕 소에게 의존함; (5) 남쪽 유다 왕국 멸망(주전 586년)의 ① 수직적인 원인(왕하 24:3-4; 대하 36:5): 3세대에 걸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 선조 므낫세 왕의 모든 죄와 여호야김 왕의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림; 여호야긴 왕의 악행(왕하 24:9; 대하 36:9); 시드기야 왕의 악행(왕하 24:19-20; 36:12-16; 렘 52:2-3); ② 수평적인 원인-3세대에 걸친 바벨론 배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3년 간 섬기다가 배반(왕하 24:1); 그 아들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감(왕하 24:10-16);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의 바벨론 왕 배반과 두 눈을 빼고 놋 사슬 결박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감(왕하 24:20-25: 7; 렘 52:3b);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달리야와 그 부하들을 왕족 이스마엘이 암살하고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집단 도망(25:22-26).

24) 예를 들면, ① 과부 룻이 보아스와 재혼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조의 후손(룻 4:21-22; 마 1:1, 5)으로 출생하게 되는 그 필연적 과정에 나타난 '우연히'(미크레, 룻 2:3)나 '마침'(베힌네, 룻 2:4; 4:1); ② 원문에는 없으나 문맥상 '마침'으로 번역된 결정적 사건들인 창 19:1과 에 6:4; ③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거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그리스도인"(마 10:29-30).

25) 시 115:3; 135:6; 엡 1:5, 11; 특별히 욥 23:13("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롬 9:18("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있음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1) 수직적(신학적) 이유: ① 범죄한 아담 하와 각자가 벌거벗음의 수치와 공포를 가리려고 '능동적 의'로서 만들어 입은 '무화과 잎 앞가리개'(창 3:7)는 '생리대'(사 64:6)와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손수 대체한 '수동적 의'(사 64:8)의 표징인 '[양]가죽 옷'(창 3:21)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계 5:6, 9, 12; 13:8); ② '유월절 어린 양'(출 12:21)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전 5:7)의 인격과 사역을 묘사한다. 출애굽의 문을 열게 한 핵심 사건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유월절 양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의 모형이다. 참조. 광야의 장대에 달린 구리 뱀(민 21:8-9)의 대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예언한 요 3:14; 8:28; 12:32; ③ 자신의 죽음은 '반드시'(참조. 마 16:21의 조동사 데이[δεῖ]) 필연적인 것임을 명시하신 대로(마 26:2), 비록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자들은 "민란이 날까 하니 유월절은 피하자"(마 26:5)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가룟 유다가 갑자기 나타나 배신으로 당국에 은 30에 팔아넘기고, 하룻밤 사이에 'Pax Romana'의 자랑스러운 법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행 2:23)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2) 수평적(역사적) 이유: ①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공회원 같은 종교당국자들과(마 12:14=막 3:6=눅 6:11; 막 11:18=눅 19:49) 심지어 보통 유대인들까지도(요 5:18; 7:1)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꾸준히 추진했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얄팍한 위선과 거짓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주장하는 신성모독, 예루살렘 성전 모독, 장로들의 유전(구전 토라)과 안식일 성수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

하는 종교선동가로서 공존이 절대 불가능하며, 위협적인 존재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②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심코 내뱉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요 11:50)라는 발언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요 11:51-52)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요 11:53)고 덧붙이고 있음이 흥미롭다; ③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마 27:19)라는 극적 장면도 예수님의 석방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며, 빌라도가 무죄로 드러난 예수님을 유월절 전례를 따라 석방시키고자 3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을 받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한 것이다(마 27:15-26=막 15:6-15=눅 23:13-25=요 18:39-19:16).

8·15 해방과 6·25 남침의 경우를 십자가 해석학적으로 간략하게 분석해 보자.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에 의해 종교인과 사상범 약 3만 명을 무성무기로 살육하기 이틀 전에 한국은 해방을 맞아 남북한이 꼭 같이 복된 출발을 가졌지만,[26] 불행하게도

26) 1945년 아베 노부유끼(阿部信行) 총독이 총독부 경무관 세이데(星出遠雄)와 단독 비밀회담에서 성사된 이 계획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해방을 맞고, 맥아더 장군의 강요로 일왕 히로히토(裕仁)가 항복선언문에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 고백하게 한 것은 일본 고대 800만 신들의 주신인 태양여신 아마테라수 오미카미(天照大御神)의 아들이라는 신화의 가면을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벗기므로 한국판 엘리야인 박관준 장로가 일본 중의원에서 예언적인 폭탄선언에서 일본의 우상숭배로 인한 멸망을 주장한 대로(1939년 3월 24일) 일제 '천황신앙'에 대한 '하나님신앙'의 승리의 선포이다. 박관준 장로의 아들이 쓴 그의 자서전인 박영창, 『정의가 나를 부를 때』 (서울: 성광문화사, 1982)를 보라.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하나님 앞에 범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의 가공할 만한 '우상숭배 죄'(레 26:1 참조)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에 실패했다.[27] 제27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1938년 9월 9일)가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며 국가 예식이라고 결정한 지 정확히 만 10년 만에(1948년 9월 9일) 동일한 장소인 평양에서 38도 이북에는 초대 수상 김일성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수립을 선포함으로, 분단국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언약파괴자에 대한 하나님의 국가적 징계로 보인다. 더욱이 남한교회는 일제 신사참배의 범죄를 공적으로 인정하기는커녕 교회 분열의 극치 속에서[28]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레 26:2 참조) 북한의 침략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맛보게 되었다.

우리의 역사해석도 그것이 성경의 구속역사이든 성경 밖의 세속역사이든, 항상 수평적 원인-과정-결과(인간의 자유의지,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세속 문서와 유물을 적극적으로 비평

27) 한국교회사에 흐르는 친일파 전통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최덕성,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2000)을 보라.

28)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7), 587에 따르면, 1950년 4월 21일 대구 제일교회에서 모인 36회 총회가 두 개의 경남노회 총대 문제와 고려신학교 문제로 "싸움판이 되어…결국 경찰이 동원되어 총을 겨누어 싸움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당시 총회에 참석했던 독고삼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들이 군홧발로 예배당에 진입하여 목사, 장로들의 싸움을 말렸고, 경찰 인솔대장은 강대에 올라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총대들에게 퍼부었다고 하였다…총회는 같은 해 9월 청주에서 속회로 모이기로 결의하고 해산하였으나, 그런 일이 있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6 · 25가 터졌으니, 이는 교회가 싸우고 난 장판을 만든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진다"; 참조. 심군식, 『한국교회인물 25인 약사』 (서울: 양문 1993), 154, 각주 40;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1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종교교육부, 1956), 152.

활용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현재의 동인에서 유추하여 과거를 해석하는)와 수직적 원인-과정-결과(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섭리에 따른 예측불허의 은혜를 강조하며, 기적의 역사적 개입을 기대하는)의 교차점에 두어야 한다.

본문이 확실하게 진단하는 모든 인류의 대소사의 "원인과 처방"의 핵심은 전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이며, 둘째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라는 "십자가 해석학"(마 22:36-40)이라는 전제 아래 다음의 사실들을 제시하고자 한다.[29]

29)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십자가 해석학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요일 4:20)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② 죄인은 사랑하나 그가 지은 죄는 멸하신다. 왜 우리에게 애꾸눈이 아닌 두 눈을 주셨는가?; ③ "인애와 진리가 (십자가 안에서)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 맞추었으며"(시 85:10); ④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 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지나치면 '간교'해진다; 창 3:1),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지나치면 '유치'해진다; 호 7:11); 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뜨거운 가슴)와 진리(차가운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⑦ 불경건(하나님 사랑의 반대)이 불의(이웃 사랑의 반대)를 낳는다: ㉠ 롬 1:18; 1:19-23(불경건)과 24-32(불의); ㉡ 십계명 제1-5계명(하나님 사랑;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 격으로서, 정상적인 자녀들의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할 가능성이 크므로 돌로 쳐죽이라고 명하신다)과 제6-10계명(이웃 사랑의 구체적 증거로서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의 집 소유물 탐내지 말라); ㉢ 삿 17-18장(불경건), 19-21장(불의); ㉣ 남유다왕국 멸망 5년 전의 에스겔(겔 22:1-5[우상숭배], 6-7[부모 불효,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학대], 8-9a[성물, 안식일 더럽힘, 우상제물 먹음], 음행[9b-11], 뇌물과 변리[12]); ㉤ 유다 멸망 직후 애굽 도망자들(렘 44:3-9[다른 신들에게 분향], 10[나의 율법과 법규 준수 않음], 16-22[다른 신들, 특히 '하늘의 여왕'인 이쉬탈에게 분향], 23[여호와의 율법과 법규 준수 않음]); ㉥ 우상숭배와 음행의 불가분리 관계(민 25:1-10; 삿 3:1-6; 왕상 11:1-13; 렘 44장; 겔 16장, 23장; 행 15:20, 29; 21:25; 고전 10:8b, 14; 계 2:14, 20-22; 3:14-16, 20-23; 19:6-9); ㉦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다(출 34:15-16; 신 31:36; 사 1:21; 2:17; 8:27, 33; 렘 2:20; 3:1, 6-14; 겔 16:15-58; 23:1-49; 호 2:1-13; 대상 5:25); ㉧ 거룩의 반대어가 음란(살전 4:3); ㉨ 육체의 일에 속한 목록들의 으뜸이 바로 성적 불결(마 15:19; 막 7:21-22; 고전 6:9; 10:7-8; 갈 5:19).

2. 모든 문제의 하나님 해법 4단계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발생한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법을 본문에서 분명한 4단계로 제시한다. 한글 개역과 개역개정성경은 맨 마지막 단계를 제일 먼저 두는 잘못된 순서로 인하여 문제 해법에 상당한 혼란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30]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조건("그 악한 길에서 떠나")은 원문의 논리상 맨 뒤에 가야 되는 것이다. 첫째, 스스로 낮추고, 둘째, 스스로 기도하며,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넷째, 자신의 악한 것들(죄굽성, 죄행위, 죄습관, 죄오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심"(요 16:8; 딤후 3:16)을 따라 드러나는 대로 그것에서부터 돌아오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 원문 사역: "그들 위에 내 이름이 불리는 내 백성이[31] 스스로[32]

30) 주전 200년경의 헬라어 역본(LXX), 영어, 기타 역본들(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등)과 한글 역본들(공동번역, 표준새번역, 킹제임스흠정역, 현대인의 성경, 바른성경)이 원문의 순서를 따라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유독 개역한글성경과 개역개정한글성경과 우리말성경이 맨 마지막 항목을 맨 앞에 두는 큰 실수를 한 바, 한국교회가 반드시 교정해야 할 심각한 폐해이다. 참조. 김진섭, "번역 배후에 흐르는 신학 사상-역대하 7:14를 중심으로," 『백석신학저널』 29 (2015가을): 233-26.

31) 소유권과 통제를 표현하는 관용구 "니크라 쉐미 알레헴"(נִקְרָא־שְׁמִי עֲלֵיהֶם; ~위에 내 이름이 불리는)이 가리키는 지시물(referent)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신 28:10; 대하 7:14; 사 63:19; 렘 14:9; 벤 시라 47:18); (2) 예루살렘(렘 25:29; 단 9:18); (3)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단 9:19); (4) 성전(왕하 8:43; 렘 7:10-11, 14, 30; 32:34; 34:15; 대하 6:33); (5) 언약궤(삼하 6:2; 대상 13:6); (6) '모든 열방'(콜 고임; 암 9:12); (7) 선지자들(렘 15:16); (8) 도시(삼하 12:28; 암몬의 수도인 랍바의 이름이 정복한 요압의 이름으로 개명될 수 있음); (9) 전쟁으로 과부가 된 일곱 여자가 급감된 한 남자의 이름으로 불리게 됨(사 4:1).

32) 동사 카나(כָּנַע)의 수동태(니팔; 24회 사용)로서, 그것의 용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항복하다': 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삼상 7:13; 대상 20:4); 북이스라엘 자손이 남유다 자손에게(대하 13:8); ② '~의 손 아래'(타하트 야드): 모압이 이스라엘의~(삿 3:30);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들의~(시 106:42); ③ '~의 면전에서'(리프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들의~(삿 8:28); ④ '의 얼굴에서부터'(미프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2) '스스로 겸비하게 되다': ① 이스라엘의 할례받지 못한 마음(레 26:44); ② 그들 위에 내 이름이 불리는 내 백성(대하 7: 14); ③ 이스라엘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대하 12:6, 7, 12); ④ 아셀, 므낫세, 스불론의 몇 사람(대하 30:11); ⑤ 히스기야가 자신의 마음의 교만에서(대하 32:36); ⑥ 므낫세(대하

낮추고, 스스로[33] 기도하고, 내 얼굴을 간절히[34] 찾으며, 그들의 악한 길들에서 돌아오면, 내가 친히[35]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치유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언약의 내 백성, 곧 오늘 여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와 우리가 이런 네 단계의 수순을 밟는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심령에서부터 동심원을 그리면서 그들이 속한 모든 영역에 발생된 문제를 치유(원상복귀)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진실성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1) "스스로 낮추라"

첫째, 스스로 낮추라. 역리적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 누가 제일 문제인가? "나는 예수님이 와도 그만이고, 가도 그만입니다"라는 사람, 문제가 없으며 스스로 겸비할 사연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이다. 제일 문제가 적은 사람이 누구인

33:12, 19); ⑦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스스로 겸비하지 않음'(대하 33:23, 2회); (3) '하나님의 면전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되다': ① 밀리프네: 아합(왕상 21:29), 요시아(대하 34:27), '스스로 겸비하지 않은' 아몬(대하 33:23), 시드기야(대하 36:12); ② 미프네: 요시아(왕하 22:19); ③ 레파나이: 요시아(대하 34:27).

33) 동사 팔랄(פָּלַל)의 재기형(reflexive; 히트파엘; 79회; 참조. 재귀 명사 테필라(תְּפִילָה, '기도', 79회)으로서, 그 기본적 의미가 '스스로 기도하다'이며, 25개 이상의 본문이 '~를 위해(바아드 레(בַּעַד לְ)) 중보기도 하다'의 의미를 가진다(예. 창 20:7; 민 21:7b; 신 9:20; 삼상 7:5 등). 흥미로운 것은 재귀동사의 빈도수 순서로 보면 대하(14회), 왕상과 렘(10회), 삼상(9회), 사(7회), 왕하(6회), 재귀 명사의 경우 시(32회), 대하(12회), 왕상(8회), 사(5회) 순위로 각각 사용된다.

34) 본 논고 각주 43 참조. 동사 바카쉬(בָּקַשׁ)의 기본 의미가 '잃은 것이나 놓친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라면, 그 강세형(피엘; 222회)의 기본적 의미를 살려 '간절히'라고 번역될 수 있으며, 약 20회 정도의 본문에 그 '긴급성, 간절성'을 드러내며(예: 창 31:39; 43:9; 민 16:10; 수 22:23; 삼상 20:16; '피'를 목적어로 삼하 4:11; 겔 3:18, 20; 33:8), 다음과 같은 빈도수를 보여준다: 삼-왕(50회), 렘(22회+애 1회), 시(27회).

35) 히브리어 동사 샤마(שָׁמַע) 자체에 인칭 접두어 '나'(에[אֶ])가 포함되어 있지만(에셔마[אֶשְׁמַע]), 대명사 '나'(아니[אֲנִי])를 그 동사 앞에 두어 동작 주체를 강조한다.

가?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라는 절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문제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이웃의 문제, 주변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에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절망감에서 스스로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 "스스로 낮추다"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항복하다'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한 모압(삿 3:30), 미디안(삿 8:28), 암몬(삿 11:33), 블레셋(삼상 7:13; 대상 20:4)이나 유다에 항복한 이스라엘(대하 13:18), 원수들의 손아래 항복한 이스라엘(시 106:42)에 각각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나 실제 재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전적 승복'(total surrender)하는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전문 용어이다.

(1) 레 26:40-42: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른 허물을 '자복하고'(야다[יָדָה], 재귀형)…내가 그들의 대적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옴으로 그들의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들의 형벌을 '지불하면'(라짜[רָצָ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정녕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정녕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원문 사역).

(2)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스스로 낮추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연기하시거나 제거하신 경우로서, ① 르호보암(대하 12:6, 7, 12); ② 아합(왕상 21:29); ③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히스기야의 공문을 듣고 '스스로 낮추어' 순종한 북이스라엘의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의 일부(대하 30:11); ④ 히스기야(대하 32:26); ⑤ 므낫세(대하 33:12,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께 '간구하고'[할라, חָלָה, 강세형] 그의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메오드, מְאֹד]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33:19, 23); ⑥ 요시아(왕하 22:19 = 대하 34:27, "[재난의 경고에 관한]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라카크, רָכַךְ], 내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⑦ 시드기야(대하 36:12,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에 사용되었다.

그렇다. 문제가 발생할 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문제 해법의 필수 출발점인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벧전 5:5)고 말씀하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면한다. 무슨 말씀인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킬 망정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스스로 낮추는" 구체적인 동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승복하는 몸짓 언어로 두 손을 들고 "무릎 꿇는" 것이다(참조. 엘리야[왕상 18:42]; 다니엘[단 6:10]; 에스라[스 9:5]; 예수님[눅 22:41]; 스데반[행 7:60]; 베드로[행 9:40]; 사도 바울[행 20:36; 21:5; 엡 3:15]). 바로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에서 놋단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언약의 맹세로서 손을 든 자세이다(대하 6:13).

스스로 겸비해야 할 우리를 향해 본문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36]이란 직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확증한다. 구약의 '하나님'(엘로힘)이란 칭호는 '창조주'를 가리킨다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주'를

36) "그들 위에 내 이름이 불러지는"(원문 직역)이란 표현은 소유권을 의미한다: 신 28:10; 대하 7:14; 사 63:19; 렘 14:9; 벤 시라 47:18.

가리킨다. 흥미로운 것은 구약의 '여호와'란 단어가 신약에 인용될 때는 '주'란 단어로 자동전환되는 바(욜 2:32의 롬 10:13 인용 참조),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주 예수님이라는 것이다(롬 10:9). 뿐만 아니라, '여호와'란 단어와 어원적으로 직결되는 '스스로 있는 자'(에흐예[אֶהְיֶה]; 출 3:14;[37] 호 1:9[38])라는 단어의 신약 헬라어 동등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소개된 '나는 ~이다'(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39]이다.

이 본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이 백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는 무릎을 꿇는 삶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사활적인 기본 동작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국과 교계의 현실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해야 될 일이 무엇인

37)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흐예 아쉐르 에흐예[אֲשֶׁר אֶהְיֶה]אֶהְיֶה)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에흐예[אֶהְיֶה])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38)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임이니라"(개역개정)는 원문(베아노키 로-에흐예 라켐[וְאָנֹכִי לֹא־אֶהְיֶה לָכֶם])의 직역은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로 에흐예'(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상반절의 대구어인 '로 암미'[לֹא עַמִּי, 내 백성이 아니다] 참조)이다."

39) 요 4:26에서 18:8까지 23회 사용된 이 고정문구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요한복음에 7회 사용된다: 6:35(나는 생명의 떡이다); 8:12; 9:5(나는 세상의 빛이다); 10:7, 9(나는 양의 문이라); 10:11, 14(나는 선한 목자라); 11:25(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6(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15:1, 5(나는 포도나무이다). 참조. 8:58,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 참조. 마 14:27, "안심하라, '나니'(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 두려워 말라"; 사 43: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아니 후[אֲנִי הוּא]=LXX, 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 51:12,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아노키 아노키 후[אָנֹכִי אָנֹכִי הוּא]-אָנִי=LXX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 ἐγώ εἰμι])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욜 2:32a, "누구든지 '여호와'(야훼=LXX, 쿠리오스[κύριος])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롬 10:13, "누구든지 '주'(쿠리오스[κύριος])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조.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3)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갈 3:3; 참조. 고전 3:1-3), "겸손으로 시작하여 교만으로 끝난" 사울 왕의 생애(삼상 9-31장; 족보[대상 8:29-40; 9:35-44];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대상 10장])를 간략히 정리해 보자.

① 사울 왕은 '준수한 소년'(삼상 9:2; 바후르 바토브, '선택되고 좋은')이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고'(9:2; 10:23; 참조. 수메르어 '왕'[루갈=루, '사람'+갈, '큰']),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지도자'(나기드, '인도자')"(9:16)를 삼기 위해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부르신 자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요, 그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신의 가족"(9:21)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그때"**(15:17) 초대 왕으로 지명되어 비밀리 기름 부음 받았고(9:15-17, 20-21, 27; 10:1), "'여호와의 영'(성령)이 '크게 임하여'(짤라흐, '관통하다') **'새 마음'**(10:9; 레브 아헤르, '다른 마음')을 가진 **'새 사람'**(10:6; 이쉬 아헤르, '다른 사람')"이 되었고, 선지 생도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의 은사도 받았다(10:10-12). 미스바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모으고, 적어도 네 번 이상 제비 뽑아(삼상 10:19-21) 사울이 선택되었으나, "행구 사이에 숨는"(10:22)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었다.

② 요단 강 동편의 암몬 왕 나하스에 의해 위협 받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삼상 11:6) '새벽'(삼하 11:11; 새벽 2-6시) 작전으로 완승하였다. 그 뒤 역사적인 길갈(수 4:19-5:10; 10:7-15)에서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왕국'(함멜루카, 삼상 11:14) 언약 갱신의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했다(삼상 11:15).

③ 그러나 **교만하여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왕권의 몰락을 세 번이나 예언한다: ㉠ 재임 14년 되는 해(주전 1038년; 삼상 13:1-2; 참조. 지휘관 요나단) 블레셋 전투에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지체되는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하여 길갈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망령된 일을 했다(삼상 13:7-14); ㉡ 진멸해야 할 아말렉의 최상의 양과 소를 소위 '하나님 제물용'으로 사울 왕과 백성이 남기고(삼상 15:9), 갈멜(헤브론 남쪽 11.3km; 삼상 15:12; 25:2; 수 15:55)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돌아온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라는 책망을 사무엘이 전한 후, 죽을 때까지(삼상 25:1) 사무엘은 사울과 단교하였다(삼상 15:35; 참조. 19:24[자신의 고향 라마 나욧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신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방문]); ㉢ 이미 죽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기 위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매체로 다시 나타나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왕위가 다윗에게 양도되었음을 선포한다(삼상 28:15-17).

④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삼상 16:14; 바아트,[40] '공포에 질리게') 하였고, 그 결과 두 가지의 상호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감정(사랑과 증오; 교만과 비열 등)이 공존하는 **'양가감정의 이중성'**에 의해 종신토록 시달렸다.

⑤ 사울 왕이 블레셋에 의해 죽을 때(반 자살[삼상 31:4; 삼하 1:6-10]),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함께 죽었다(삼상 31:2). 사울 왕가의 비참한 말로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제외하고는(삼하 21:7),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40) 여기처럼 강세형(피엘) 용법으로서, 참조. 사 21:4; 삼하 22:5; 시 18:5; 욥 3:5.

므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므홀랏 사람 바르실래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이 기브온 거민에 의해 동시에 목매어 죽임당해(삼하 21:8-10), 요나단의 계열 외에는 사울의 후손이 전혀 없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었다(삼상 13:13-14; 15:23-26; 대상 8:29-38; 9:35-44).

2) "스스로 기도하라"

모든 문제해결의 첫 기본동작은 "스스로 낮추라"임을 살펴보았다. 발생한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인정하고, 항복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스스로 낮추는 자의 두 번째 필연적 기본동작은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가장 구체적인 만남이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구체적 만남은 '기도'이다.

문제가 발생할 때, 곧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공식은 열왕기에도 나타나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기도를 독려하는 역대기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41]

신명기 4:5-8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가 있으면 위인이요, 명문가요, 큰 교회요, 강대국임을 유대인의 4천 년 역사와 교회의 2천 년 역사를 통해 확증한다. 유대인은 비록 전 세계 1,500만의 인구와 160만의 정통파라는 숫자상의 소수민족이지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존"(엘룐, 신 28:1)이 된 것은, 유대인의 특권인 '하나님 말씀'(십계명, 쉐마[신 6:4-9; 11:13-21; 민 15:37-41], 토라[모세오경의 '하라' 248개 + '말라' 365개 = 613개],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되는 구약성경[타나크])이 가정 단위로 위탁되며 3대(代)가 함께 전수함과(롬 3:1-2), 하루에 3차례 3대(代)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시 55:17; 단 6:10; 참조. 초대교회, 행 2:15; 3:1; 10:1-3, 9-23) 전통을 수천 년 동안 고수함에 기인한다.

'종교의 씨'를 가진 인간은 죄로 어두워졌지만, 미래의 불안과 현재의 역경과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비록 잘못된 형태이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실존이다(왕상 18:25-29; 욘 1:5).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이는 저[예수님]를 통하여, 우리 둘[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엡 2:18)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많은 통곡과 눈물로 소원들과 간구들을 올리며"(히 5:7)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마저도 받으신 고난들 속에서 "많은 통곡과 눈물로" 소원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림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히 5:8-9).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기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했으니(눅 6:12), 한 사람당 1시간씩 기도한 셈이요,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온 동네가 해가 진 후 서늘할 때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치시는 데 밤을 새우고(눅 4:40),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레모스 토포스[ἔρημος τόπος] 현 지명 Eremos)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심"(막 1:35)으로 숨 가쁜 하루(마가복음 1장에 10회 사용된 '곧'[유쑤스, εὐθύς, 10, 12, 18, 20, 21, 28, 29, 30, 42, 43] 참조)를 마감하셨다. 예수님은 5병2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에 다 흩어버리고 홀로 산에 가서 철야 기도하셨다(마 14:22-

41) 야베스(대상 4:10), 요단 강 동편 지파(대상 5:20), 다윗(대상 16:7-36; 17:16-27; 29:10-20), 솔로몬(대하 6:3-42), 르호보암과 그의 방백(대하 12:6), 아사(대하 14:11), 아비야(대하 13:14), 여호사밧(대하 18:31; 20:6-12), 히스기야(대하 30:18; 32:20-21, 24), 므낫세(대하 33:12-13, 18).

23). 기적 후에는 반드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셨다. 그다음에 물 위로 걸어오셨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으며(25, 29절),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다 낫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36절).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고(마 6:9-13),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막 14:38; 눅 22:40), 심지어 핍박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마 5:44; 눅 6:28)을 권면하셨다. 이 기도의 전통은 초대교회에도 계승되어,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엡 6:18), "기도를 힘쓰며"(고전 7:5; 골 4:2), '항상'(살전 5:17) '범사에'(빌 4:6) 기도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며(약 5:16), "귀를 심으시고 눈을 빚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에"(시 94:9; 벧전 3:12) 고난당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약 5:13).

주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기도-기적-기도"로 도식화한다면(마 14:22-36 참조), 진리 사수와 순결한 삶으로 조국을 살린 고신 교단의 설립 중심인물들인 낙타 무릎(밤새도록 꿇은 무릎 그대로 기도한)의 주남선 목사(1888-1951)와 '오, 주님이여!'의 한상동 목사(1901-1976)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기도-기적-기도의 신앙유산을 잘 계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는 살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동시에, 자신의 실존을 가장 '실감하는'(마 26:38-42; 골 4:2) 순간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의 남은 평생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기본 동작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다음 30년의 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살아 있는 자나, 천국 가는 자나 하나님의 왕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본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해 가시도록, 우리 자신들이 늘 겸손히 기도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인 여러 형태의 기도(예: 매일새벽기도, 금요심야기도, 산기도, 연속합심금식기도, 골방기도 등)와 함께, 남을 돕는 최상의 방법은 "그를 위해 간구"(고후 1:11)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성심껏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는"(골 4:2)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것이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장난이 아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 눈 감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자기의 유식이나 선행을 선전하는 시위가 아니다(잘못된 기도에 관한 사 1:15; 마 6:5-7; 눅 18:9-12; 약 4:3 참조).

구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위기 중 하나는 애굽의 아피스(Apis) 신을 본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출 32:4, 8)라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네 백성"(7절; 참조. "내 백성"[3:7]), "목이 뻣뻣한 백성"(9절),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고이 가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창 12:2] 이 '큰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얼마나 장구하고 아슬아슬한 위기들을 통과해 왔는데, 완전히 진멸하고 아브라함을 대체하는 모세를 삼겠다니?)가 되게 하겠다"(10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33:3)고 "그 재앙의 말씀"(하다바르 하라; 33:4)을 하셨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모세가 '항상 장막'(하오헬, '그 장막', 즉 성막 짓기 이전이므로 임시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오헬 모에드, '예약된 시간/장소의 천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메바케쉬; 바

카쉬, 강세형[피엘] 분사 남성 단수)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33:7),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회복되었다는 표징인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서 있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게 되었다"(33:10).

성경과 교회 역사가 언제나 확증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적은 무리'(눅 12:32; 참조 말 3:16-17)에 의해 진정한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다(참조. 1907.2.14 밤. 선교사 총무인 한 남자청년이 공개석상에서 자기가 선교사님을 마음으로 살인한 죄수임을 자백함을 기폭체로 일어난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운동).

역대기에 본문에 사용된 '바카쉬'(בָּקַשׁ, 13회)와 또 다른 동사 '다라쉬'(דָּרַשׁ, 43회)가 있는 바, 역대하 16:11에는 함께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 두 동사의 대부분 용법은 하나님을 그 간절히 찾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42] 하나님을 찾는 것은 '충성과 헌신'의 표현이기에,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서 나오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대상 22:19; 대하 11:16; 12:14; 19:3; 30:19),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거나 배신하는 행위(대상 10:14; 13:3; 15:13; 대하 15:2; 25:15, 20)의 정반대이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라는 숙어는 역대상 16:11 // 시편 105:4; 시편 27:8(2회), 호세아 5:45에 각각 사용되는 바, 시편 41:1-2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헐떡이며 찾는'(아라그[עָרַג])

42) 본 논고 각주 35 참조. 다라쉬(대상 10:14; 13:3; 15:13; 16:11; 21:30; 22:19; 28:9; 대하 1:5; 12:14; 14:4; 14:7[2회]; 15:2, 12, 13; 16:12; 17:3, 4; 18:7; 19:3; 20:3; 22:9; 26:5[2회]; 30:19; 31:21; 34:3, 21, 26); 바카쉬(대상 16:10, 11; 대하 11:16; 15:4; 15:15; 20:4[2회]).

것처럼 하나님을 '헐떡이며 찾는' 것이며, 그분을 '갈망'(짜메[צָמָא])하는 태도와 같은 의미이다. 아론을 위시한 제사장들의 축도문(민 6:25-26)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하는 동일한 동작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자!"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를 못 보고, "자신에게 속고 남을 속이는"(딤후 3:13)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삼하 12:7의 "당신이 그 사람이라"[앗타 하이쉬, אַתָּה הָאִישׁ]는 책망을 받은 다윗 참조). "숨은 허물과 고의로 죄를 지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시 19:12-13)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가능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얘, 너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활동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이며, 너는 부자라고 생각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지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자이다"라고 사데 교회(계 3:1)와 라오디게아 교회(계 3:17)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를 보면서 참으로 오열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배우자를 보게 된다. 이 못난이를 만나 밑도 끝도 없이 평생 고생하는 이 배우자를 보면서 얼마나 불쌍하고 죄송하

게 여겨지는지!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누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자식들이 보인다. 위선과 자기모순의 갈 지(之)자를 걷는 가족의 운전수인 이 애비를 만나 분노하며 좌절하는 이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하며 동시에 고마운지! 그때부터 자녀들이 그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목사나 신학도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얼마나 엉터리 삯꾼 목사인지를 깨달으며 통곡하게 되는 것이다. 새벽기도회를 예로 든다면, 목사는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매월 얼마의 사례금을 받는지 계산될 수 있다. 그런데 성도들은 새벽기도회에 헌금하는 분들도 있어 헌금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들고 회개가 되는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한 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라"(마 26:40-41)는 주 예수님의 권면을 따라 새벽에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은 자원해서 기도하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사람의 유익이나 아첨이나 눈치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며,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제일 먼저 살피는 자이다(갈 1:10). 하나님이 '예' 하시면 목이 달아나도 순종하고(행 7:51-53), '아니오' 하시면 만인이 칭찬하고 헹가래해도 옷을 찢으면서라도 거절하는 법이며(행 14:12-15), 하나님이 무표정이실 때는 촌각을 다투는 전쟁 와중에도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수 7:6-9) 하나님의 표정과 확실한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수 7:10-15)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리는"(엡 6:19-20) 삶을 추구하는 자이다.

스코틀랜드 육상선수 에릭(Eric Liddell, 1902-1945)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주일성수로 인해 그의 주종목인 100m 예선을 거부하고, 결국 400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400m를 달리기 전 미국 팀 안마사가 사무엘상 2:10("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의 쪽지를 손에 쥐어 주었고, 그는 올림픽 신기록으로(47.6초) 금메달을 땄다. 영국 올림픽 대표단장인 웨일스의 왕자는 누가복음 12:8("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로 축하했다. 그의 경주 기법은 특이했는데, 고개를 젖히고 마치 하나님만 바라보는 듯한 자세로 달렸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내 성공비결은 첫 200m는 내가 할 수 있는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후반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뛸 수 있었다"라고 했다. 그의 삶을 영화로 만든 "Chariots of Fire"를 보면, 처음에는 정상적인 자세로 달리다가 중간에 희열이 솟구쳐 나면서 양팔도 각각으로 돌리면서 고개를 젖히고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는 자세로 바뀌면서 무섭게 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배우자, 자녀, 친족, 공동체, 남한, 북한,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전 세계를 향해 동심원을 그리며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는다.

최근 61세(2020년 9월 3일)로 소천한 뉴욕 소재 세계무역센터협회의 총재였던 이희돈 박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종신교수 및 이사와 같은 세계적인 여러 직함들을 가지고, 매일 15분 간격의 일

정표를 따라 전 세계를 누비는 바쁜 삶이었지만, 매일 새벽기도 2시간과 그 기도회에서 5개 국어로 기도하는 강한 훈련을 통해 "예수천당, 불신 지옥"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였고,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봉직하는 워싱턴성광교회에서 반드시 주일성수를 하면서, 우리 앞에 신앙 사표의 길을 완주하셨다.

4) "자신의 악한 길들(습관)에서 돌아오라"

넷째로 이 연쇄적인 단계의 마지막은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누구나 가게 되는 회개의 걸음이 될 것이다. 역대기에는 9회에 걸쳐 구체적인 회개의 실례를 소개하며, 그중에 6개는 열왕기에 없는 것들이다.[43] 역대기의 '회개'는 두 방향을 가지는 바, "자신들의 죄"(대하 6:26; 7:14)에서 돌아서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대하 15:4; 24:19; 30:6, 9; 36:13) 돌아오는 것이다. 역대기에는 회개하지 않는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갔지만(대하 36:13),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죄를 용서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6:24, 26; 7:14; 30:9).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역대기 독자들에게 큰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제공한다.

역대하 6-7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있는 많은 부분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범죄한다. 삶의 표준인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을 자주 잘라 먹고(omission), 넘어가고(commission), 억지로 비틀고(perversion), 체하는(hypocrisy) 경우가 많다.

역대하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몇몇 구절만 살펴보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43) 대하 6:24, 26, 37; (7:14; 15:4; 24:19; 30:6, 9; 36:13은 열왕기에 없는 것들이다).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지켜서'(샤마르[שָׁמַר]), 네가 내 앞에서 '걸어간'(할라크[הָלַךְ]) 것같이 내 율법대로 '걸어가'(할라크[הָלַךְ])기만 하면, 네게로 좇아 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샤마르[שָׁמַר])"(16절).

솔로몬이 지금 '다윗 언약'(삼하 7:14-16; 참조. 신 11:21; 17:20)의 바통을 물려받으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이 말씀대로 나도 살기를 원하니, 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의 약속을 지키시옵소서!"라고 절규하며, 이것은 또한 31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할라크[הָלַךְ])리이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딤후 3:16) 4중 기능을 항상 가지고 있다. 모든 성경은 명시된 '하라'와 '말라'의 계명(예. 창 2:16-17의 인류 최초 계명)에 대한 "보태기, 빼기, 비틀기, 덮기의 불순종과 불신앙"(예. 창 3장의 뱀과 하와의 대화 분석)이 바로 죄의 실체임을 드러내고 책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가(轉嫁)되는 주 예수님의 '칭의와 성화의 이중은혜'(고전 1:30 참조)만이 사람을 평생 교정하며 의로 교육시킨다는 진리는, 한국 현대사에 가장 극악한 살인범들인 "고재봉, 김대두, 지존파, 유영철" 등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지막 삶을 통해 극명하게 시위되었다.

그다음에 연결되는 32-33절은 세계선교를 통찰하는 놀라운 기도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

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 "이방인, 땅의 만민"은 요한계시록 7:9-12의 천국백성과 관련하여 "260여 개 나라와, 24,000족속과, 78.2억의 백성과, 6,912개의 방언"을 가리키기에, 솔로몬의 이 간구는 이 지구를 품으며 우리가 드리는 세계선교 기도의 원형인 것이다.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마저도 기도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걸음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일종의 X-ray나 레이더 망으로 보듯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점에 문제가 있구나!" "아, 내가 정말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고치는 일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동심원을 그리면서 내 가족, 내 조국, 모든 세계를 고쳐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6:26-27의 말씀을 읽어보자: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 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다음 28절은 7가지 재난(기근,[44] 전염병,[45] 곡식 시듦,[46] 깜부기,[47] 메뚜기와 황충,[48] 적국이 성읍 에워쌈,[49] 재앙이나 질병[50])을 열거한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은 바로 재앙이나 질병과 구별되는 '전염병'에 속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백성을 향한 사랑의 징계라는 관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와 그 합당한 열매를 개인적으로 맺어가는 일에 주력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특별히 요엘서 1-2장에 나오는 농사를 망치게 하는 자연재해로서의 메뚜기 재앙을 살펴보자. 여기서 가장 분명하게 강조되는 것은 소위 자연재해의 진정한 원인은 언약백성의 "죄악"이며, 그 해법은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굵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며,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

44) 창 12:10; 26:1; 41:1-57; 레 26:25-26; 삿 6:3-6; 룻 1:1; 삼하 21:1; 24:13 // 대상 21:12; 왕상 18:1-2; 왕하 6:24-25; 25:1-3; 대하 32:11; 욥 5:20-22; 시 33: 18-19; 사 51:19; 렘 14:11-18; 16:4; 21:7-9; 42:13-22; 52:6.

45) 데베르(דֶּבֶר): 동물(출 9:3; 시 78:48-50), 사람(레 26:25-26; 민 14:12; 삼하 24:13 // 대상 21:12; 겔 5:12; 7:15).

46) 주로 동쪽의 사막에서 부는 강한 열풍(sirocco, hamsin)과 관련; 신 28:22; 암 4:9; 학 2:17.

47) 깜부기는 곡식 시듦과 관련되며, 사람인 경우는 공포나 황달에 기인한 창백함을 가리키거나(렘 30:6), 농작물일 경우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를 말한다.

48) 메뚜기는 완전히 자라서 날 수 있는 수준을 가리킨다면(출 10:4; 신 28:38; 욜 2:25), 황충은 날지 못하고 뛰기만 하는 초기 단계의 메뚜기(사 33:4; 욜 1:4)를 가리킬 수 있다. 때로는 침략하는 군대의 은유로 사용된다(삿 6:5; 사 33: 4; 렘 46:22-23; 51:27; 욜 2:1-27; 나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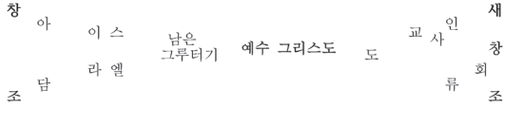
49) 르호보암 시절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 포위(12:2), 요아스 시절에 아람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24:2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 일부를 헐고 성전 기물을 탈취(25:23),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앗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 포위(32:12).

50) 재앙(내가[נֶגַע], '접촉, 공격')과 질병(마할라[מַחֲלָה]): 아사 왕의 발에 중병으로 사망(16:12); 여호람이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으로 죽음(21:15, 18-19); 웃시야가 나병으로 죽음(26:19-21); 유월절 양을 부정한 상태에서 먹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를 위한 히스기야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심(30:18-20); 히스기야의 통곡기도로 그가 죽을병에서 15년 더 연장(32:24; 왕하 20:1-11; 사 38:1-8).

아오면"(1:13-14; 2:12-13a, 15-17),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신다"(2:13b-14)는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대하 6:29)을 다시 주의하여 보자. "어떤 사람이나"(콜 하담[כָּל־הָאָדָם]),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구약학자들은 개인 한사람과 공동체 전체가 공용되는 현상을 "corporate personality"(집합인격성)라 부른다.[51]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전 인류의 범죄요(롬 5:12 참조),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간주되었다면(수 7:1), 한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렘 5:1 참조): "한 사람이든 온 백성이든, '다 각각'(이쉬[אִישׁ])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51) "개인이 곧 전체"라는 개념은 창 1-3장에서 "아담-그 사람/인류/남성, 하와-그 여자/여성, 씨/후손, 뱀의 씨-귀신들/비중생자들, 그녀의 씨-중생자들/천사들"의 경우에 드러난다. 구약에서, 함의 범죄와 그 아들 가나안(7 족속)의 심판(창 9:20-27; 12:5-7; 15:18-21), 아간 개인의 범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아이 성의 실패(수 7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사 42:1-7; 49:1-9; 50:4-11; 52:13-53:12)에 나오는 "종"은 이스라엘-다윗 왕족의 개인-메시아적 개인(52:13-53:12)을 가리킨다. 신약에서, 다윗언약(삼하 7:12-16)의 성취는 그리스도(히 1:5)와 그의 제자들(고후 6:18)에게 동시 적용되며, 종말론적 성전은 개인(막 14:58; 요 2:19 이하)과 단체(고전 3:16; 벧전 2:5)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적용되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다 "참 이스라엘"이 됨이다(요 13:18; 15:25; 19:28). 이 개념을 1935년에 처음 소개한 이래 고전적 작품이 된 개정판 H. Wheeler Robinson, *Corporate Personalit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1964)을 보라. Oscar Cullmann의 "일과 다"(One and Many)의 도표를 참조하라(*Christ and Time: The Primitive Christian Conception of Time and History,* Trans. Floyd V. Wilson [London: SCM, 1962^2], 116-117.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 주민들, 통일한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본문의 정황에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내 심보부터 고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실 수 있도록 먼저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면서, 나 자신이 정말 버려야 할 악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는 걸음을 걸어라"는 것이다. 나 하나의 보잘것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마 3:8)가 결국 조국을 살리는 첩경이라는 것이다.

호남과 영남이 통일이 안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남북통일을 주시겠는가? 매일 서울-부산, 서울-광주의 비행기와 고속철도는 빈번하지만, 왜 영호남이 만나는 지리산을 끼고서도 부산-광주는 비행기 1회, 기차 2회뿐인 참담한 현실인지? 영남에 있는 신학교 출신들은 전부 다 호남에 가서 목회를 하고, 호남에 있는 신학교 출신들은 다 영남에 가서 목회하는 뭔가 이런 게 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그래, 동서가 화합이 되니까 남북도 내가 화합을 시킬게" 하시지 않겠는가? 오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중의 영호남 가족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세계를 보면서, "내가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그 길에서 돌아오는 실천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스스로 겸손하고, 아무리 스스로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도, 우리가 이전 상태 그대로 지속한다면,

하나님의 치유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당장 실천할 때, 이것이 진정한 애국자요, 이것이 진정으로 내 속에 먼저 치유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있는 신앙 공동체에도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에 치유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생국인(生國人) 운동'[52]일 것이다. 11-16절의 문맥적 단락의 맺음말인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16b)를 유의하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치유할지라"고 선포하신다. 그렇다! "귀를 심으시고, 눈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며"(시 94:9), 징계의 채찍과 올무와 덫과 가시가 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성령님께서 씻어 주심으로(딛 3:5; 고전 6:11; 히 9:14) 온전히 용서하시며(요일 1:7, 9),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총체적인 구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교회사와 특별히 한국교회사의 수많은 감동적인 산 간증을 낳은 원리인 것이다.

문제 해법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건인 "자신의 악한 길들에서 돌아서라"(딤후 3:5 참조)는 함성은 '심리학, 마케팅,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우리 시대의 기독교에서는 실종되어 온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아무리 스스로 낮추고, 아무리 스스로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도, 내 삶이 "썩어져 가는 구습"(엡 4:22)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치유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다. 나 하나의 보잘것없는

52) 김진섭, "광복 70주년과 '애국, 호국, 생국(生國)'", 「군선교신문」 304호 (2015.8.15), 5.

"회개에 합당한 열매"(마 3:8)가 결국 나/너/우리/교회/사회/조국/세계를 치유하는 애족 애국의 첩경이라는 것이다.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에 민감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만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갈 5:17) 격렬한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위해 씨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씨 뿌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8)는 성령님의 책망에 순종하여 과감히 '돌아서는' 회개의 열매를 즐기게 될 것이다.

5)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종말이 주는 역사적 경고(17-22절)

앞서 사울 왕의 마지막 15년(65-80세; 주전 1026-1011)의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를 거역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갈 5:16 참조) 비참한 최후에 대하여 살펴보았거니와(본 논고 3. 1). (3), 유대인 히브리어구약성경을 마무리하는 역대하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역사적 경고가 솔로몬과 그 후대에 통치한 왕들에게도 되풀이되었음을 보여주며(왕상 9:6-9; 대하 7:17-22),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말세를 만나 오늘 여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거울과 경계"(고전 10:11)가 되고 있다.

하나님은 왕직 수행과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을 위한 "통치 매뉴얼"을 모세를 통해 일찍이 명시하셨다: (1) 수행 규칙(신 17:14-19; 대하 7:17): ① 말, 아내,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② 율법서(모세오경)의 필사본을 책(두루마리)에 기록; 평생에 자기(봉신) 옆에 두고 읽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종주) 경외(언약 준수)하기를 배움; ③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 (2) 하나님의 결과론적 보장(신 17:20; 대하 7:18): ①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함; ② 이 명령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음; ③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함.

솔로몬 역시 마지막 15년(45-60세; 주전 946-931)의 삶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부러운 듯해도 영적으로는 자기가 한 기도도 다 까먹어 버리고, 정치적 안전을 유지하는 모든 인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통치 매뉴얼"을 조직적으로 파괴한 완전 실패의 삶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1) 총체적 불순종: ① 말 외양간 4만, 마병 2만 2천(왕상 4:26), 병거 1만 4천(왕상 10:26; 대하 1:14), 애굽에서 수입한 '말과 병거'(왕상 10:28-29; 대하 9:24-28에 6회 사용); ②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 후궁 700, 첩 300,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과 우상들이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오게(왕상 11:1-13; 대하 8:11; 느 13:26) 한 것은 정확히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에 바알 종교와 문화가 스며들어 온 경로와 동일 실상이다(삿 3:5-6); ③ 무수한 금과 정금(왕상 10:14-22[13-21에 '금'이란 단어 12회 사용], 25); 돌같이 흔한 은(왕상 10:27); ④ 신명기 17:19의 권면을 따라 율법서를 읽으며 준수하도록 세 사람의 선지자(나단, 아히야, 잇도; 대하 10:29)가 동원되었으나, 신명기 17:20이 약속하는 '왕조의 장구 보존'은커녕, 유다와 이스라엘로 남북분열을 낳고 말았다(대하 10장); (2) 결과: ① 주변 국가(에돔의 하닷, 수리아 왕 르손)의 대적(왕상 11:14-25); ② 신하 여로보암의 배반(왕상 11:26-40)과 남북으로 왕국 분열(왕상 12:1-20); ③ 믿음의 전당(히 11장)에 가장 사사답지 못하게 산 삼손이 죽으면서 회개하여 턱걸이 같이 이름만이라도 들어 있지만(히 11:32; 참조. 삿 16:28-31),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했던 솔로몬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름과 흔적이 없는 것이다. 신약이 말하는 솔로몬은 기껏해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마 6:29=눅 12:27) 정도인 것이다.

남유다왕국이 멸망하기 5년 전(주전 591.8.14; 597년 2차 포로; 593년 에스겔 소명)의 에스겔의 예언(겔 22:1-31)을 보자: (1) 원인: ① 피 흘린 성읍(2, 3, 4, 6, 7[부모 업신여김; 나그네 학대, 고아와 과부 해함], 9, 12[뇌물 받음, 변돈과 이자 받음, 이웃을 속여 빼앗음], 13[불의로 이익 얻음]); ② 모든 가증한 일(2, 3, 4, 8[성물 업신여김, 안식일 더럽힘], 9[산 위에서 제물 먹음, 음행], 10[아비나 월경 중의 여인과 성관계], 11[이웃의 아내, 며느리, 아비의 딸과 성관계]); (2) 결과: ① 이방의 능욕과 만국의 조롱거리(4, 5, 15, 16, 18-22[내게 풀무 불 속의 찌꺼기]); ② 선지자들의 반역(25, 28[거짓 복술]); ③ 제사장들의 부정함(26절); ④ 고관들의 피 흘려 착취(27절); ⑤ 백성의 가난한 자 압제와 나그네 학대(29절) →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30-31절).

남유다의 멸망 직후(렘 40-44장)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① 예루살렘의 포위(주전 588.1.15; 렘 39:1; 왕하 25:1; 겔 24:1-2); ② 2년 6개월 지나 함락(주전 586.7.18; 렘 39:2; 52:5-6; 왕하 25:2-3); ③ 예레미야에게 임한 최종 말씀(주전 586-581[렘 52:30, "느부갓네살 제23년"] 사이)에서 모든 재난의 원인을 '우상숭배'로 규명(렘 44:2-10); ④ 남편의 허락하에 "하늘의 여왕"(이쉬탈)을 섬기고 있는 애굽에 도피한 이스라엘 여인들(렘 44:15-19).

17-22절은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사활적인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서 결론을 맺고 있다. 비록 솔로몬이 여기까지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지만, 그의 종말과 그 이후의 구약역사는 바로 이 본문이 경고하는 그 징계, 즉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벧후 3:11). 하나님이 주신 4단계 해법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여, "3대로, 대대로"(신 6:2; 시 78:4; 욜 1:3; 사 59:21; 행 16:31; 딤후 1:5; 2:2) 갈수록 맛나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삶, 환갑·진갑이 지나가도 늘 신혼부부와 같은 삶(요 2:10; 고후 4:16; 5:17),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안 왔고, 오직 오늘 여기 하루살이다"라는 영적 하루살이의 삶(출 16:21[아침마다], 35[40년 동안]), "성령님 충만"(엡 5:18), "예수님 충만"(행 16:31), "말씀과 기도 충만"(살전 4:3; 딤전 4:5)의 삶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자. 할렐루야, 아멘!

결론: 우리의 결단

우리가 회개의 영과 회복의 역사를 믿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백성과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기를 바라신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에 번번이 실패하여 이제는 그분을 다시 찾는 것조차 주저하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또다시 확신을 주신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대하 7:15).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당신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반드시 그 기도에 당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16절)고 그 이유를 덧붙여 주신다. 솔로몬 왕의 성전 낙성식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당신을 찾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눈과 마음을 두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한없이 은혜가 된다.

우리 자신과 조국을 돌아보자. 구약과 한국 역사를 읽을수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근접한 민족은 한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오늘 여기의 한국이 건재한 배후에는 풍전등화 같은 임진왜란의 시기에 하나님이 일반은총 속에 세우신 성웅 이순신의 삶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예수님의 복음이 한국에 오기 훨씬 이전의 시대였지만, 특별하게 "꿈과 기도와 믿음과 충성의 사람" 이순신의 언행에는 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많은 감동이 있다. 주요 해전이 있기 전, 기도할 때마다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전법을 가르쳐 준 것이 그 실례이다.[53]

뿐만 아니라 레위기 26장이 말하는 "모세 언약의 복과 저주"는 놀랍게도 남한과 북한의 현대사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54] 로마서 9-11장이 펼치는 이스라엘의 구원계획에 180개국에 750만 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173개국에 2만 3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제2의 유대인'으로서[55] 한민족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광대

53) 김진섭, "'여호와의 전쟁신학'이란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1545-98)," 「군선교신학」 11 (2013 가을), 290-332.

54) 김진섭,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언약의 복과 저주'의 북한 정황적 적용", 『성경과 신학』 40 (2006), 308-368.

55) 김진섭, "한국인을 제2의 유대인으로 부를 수 있는 성경신학적 고찰", 현용수,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인: 한국인과 유대인의 유사점 107가지』 (서울: 쉐마, 2020),

무변하신 계획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각한 경고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복 많이 받으세요"가 "돈 많이 받으세요"로 바뀐 지 오래되었다. 돈에 독이 들고 "돈과 쾌락에 미친"(딤후 3:1-2, 4) 나라가 되었다. 필자가 미국으로 정규유학을 떠나던 1997년까지는 '향락산업'이란 단어가 한국에 없었다. 만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원조교제'란 말을 처음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원조를 주면서 교제를 한다." 그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 범죄"를 미화한 일본 외래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딤후 3:1-5)고 경고하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이사야가 탄식한 그대로이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사 1:4-6).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 부르는 일반은총적 인성교육의 실종과 함께 4가구 중 1곳이 '1인 가구'요, 이 중 미혼이 46.2%이며, 국민 4명 중 1명만이 조부모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율,

338-367.

저출산율, 자살률 세계 1위, 성범죄율 2위, 낙태율 3위, 국민 행복지수 세계 꼴찌 수준"의 절망적인 가정 관련 통계들과 할랄 음식을 대표하는 이슬람의 침투, 동성애를 중심한 온갖 형태의 성범죄,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기독교의 기성교회 파괴 공략 등이 그 실례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인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지향하려 한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해법으로 주신 이 말씀 한마디라도 제대로 좀 붙들고, 우리 각자가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자신의 악한 길들, 즉 썩어지게 하는 옛 습관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정도(正道)를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는 이러한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우리 남한과 북한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셨다. 죄인을 치유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자를 위해서 필요하듯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마 8:17)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럽게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요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롬 10:11-12). 우리의 죄와 영원한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으로 십자가 죽음을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여 악한 길에서 즉시 돌이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겠다. 회개와 회복에 대한 확신 없이 닫힌 하늘 문 앞에 떨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은, 당신을 찾는 성도에게 눈과 마음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사랑만이 걷어낼

수 있음을 믿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살려 주세요!" 두 손을 들고 외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즉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간다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조국을 향해서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실 줄로 믿는 것이다.

이 본문이 주는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본래의 그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반드시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잘 감당하고, 비록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소시민들이지만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른길을 걸어가는 "회개와 그 열매"의 걸음을 매일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걸음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Abstract

Corona Pandemic as the Old Testament Speaks: The Cause and Remedy, focused on 2 Chronicles 7:11-22, especially Verses 13-14

Jin Sup Kim

This paper focuses on the globally ongoing Corona Pandemic, which began in Wuhan, China in December 2019, with respect to the cause and remedy as 2 Chronicles 7:11-22, especially verses 13-14 speaks.

Our text assuredly demonstrates the "cause and remedy" of every big or small matter throughout the human history, which is always related vertically to love first "your God with your whole person" as well as horizontally to love second "your neighbor like yourself" (Mt 22:36-40), so that under the presupposition of "Cross Hermeneutics" the following points are emphasized.

First, the rationales for this particular text as our paradigm are suggested as follows:

(1) functions as the master key to evaluate the kings' life of Southern Judah (2 Ch 10-36).

(2) functions as the synopsis of the Covenantal "Blessings and Curses" according to the pro and con of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specified in Lev 26 and Deut 28.

(3) fuctions as the very answer of every problem, especially pandemic diseases within the individual, home, church, society, nation or world should come from the triune Healer through the restoration of mutual right fellowship (Ex 15:26; 2 Chr 7:13-14; Mk 2:17; 2 Cor 12:7-11).

(4) functions as the repetitive context of history, originated from Solomon, immediately after the completion of his palace (946 B.C.; 1 Ki 9:1-9), vindicated not only by the warning of 1 Ki 9:6-9 in the divided kingdom of his son Rehoboam (931 B.C.; 1 Ki 11:9-13), through the systematic violations of the Manual of Kingship (Dt 17:14-20; 1 Ki 10:14-11:8), but also the omission of Solomon's name in the Hall of Faith (Heb 11), and finally reiterated in our text, 2 Chr 7:11-22 to the Post-exilic Israelites in the Ezra time (c. 5th C. B.C.).

(5) functions as the astounding "warning" paradigm to modern history of North Korea to reaffirm the covenantal punishment of Lev 26.

Secondly, the four successive steps of remedy in our text should be our paradigm:

(1) Humble oneself.

(2) Pray oneself.

(3) Seek God's face earnestly.

(4) Return from ones' wicked ways.

Lastly, the threefold remedy and healing is guaranteed, based on the New Covenant in Christ Jesus:

(1) I will hear from the heaven.

(2) I will forgive your sin.

(3) I will heal your land.

Key Words

Corona Pandemic, 2 Chronicles 7:14, four successive steps of remedy, New Covenant, promise of threefold remedy and healing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
- 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중심으로

Suggestions for the Post-Vision 2020 Movement: Focusing on Dr. Jong Yun Lee's Theological Insights on Military Mission

» 이규철 Ph.D.*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인 비전21세기실천운동을 위한 제언을 함에 있다.

「군선교신학」에 발표된 이종윤 박사의 23편의 논문을 주목하는 것은 그의 신학적 성찰이 비전2020실천운동뿐만 아니라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신학적 성찰을 주는 상수이기 때문이다.

비전21세기실천운동이 펼쳐질 군선교 현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파급적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이다. 따라서 군선교의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비전2020실천운동에서 그래왔듯이, 군선교의 비전과 복음에의 섬김을 다하는 주의 청지기들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총 아래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통전적 능동적 변혁을 이루어간다면 비전21세기실천운동 또한 능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마 6: 10)고 전망된다.

비전21세기실천운동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적과 추구 열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거룩한 구속사(heilsgeschite)이다.

중심단어

군선교, 비전2020실천운동, 비전21세기실천운동, 이종윤 박사, 변혁하는 선교

• 논문 투고일: 2020년 8월 20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8월 21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8월 24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장, 안동성결교회

1. 들어가는 말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인 비전21세기실천운동[1]의 방향과 과제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적과 추구 열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거룩한 구속사(heilsgeschite)이다. 주지의 사실인 바 올해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실질적 연한(年限)이다. 그간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비전2020실천운동의 원대한 선교적 비전을 다 성취하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독교가 한국 종교인 1위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한국군의 무형전력 강화와 나라 발전에 기여하여 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의 비전은 연대기적 비전2020실천운동을 넘어 계속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할 선교적 사명이기에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당위(當爲)가 있다.

그렇다면 비전2020실천운동을 이어 한국교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 진행해야 하는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지향점과 가치실현의 실천적 효율적 방안은 무엇일까? '마르바 던'(Marva Dawn)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의 유산은 그것이 발원(發源)된 이래 다양한 해석과 실천이라는 수로를 통해 흘러왔다. 하지만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공통적 기독교 신앙을 통해 물결치며 흘러내려온 그 다면적 전통의 기본적 요소라는 것이 있다.[2] '박찬국'에 의하면, 진정한 창조는 전통의 유산을 시대에 뒤떨어진 덕으로 배격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소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3]

1) 2018년 제47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정기총회는 2020년까지 한국교회의 군선교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2021년 이후에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기반으로 한 비전21세기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사역 전략/전술 보완사항 비교," 『제47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2018), 75.

2) 마르바 던, 『언어의 영성』, 오현미 역 (서울: 좋은씨앗, 2009), 20.

논자는 마르바 던과 박찬국의 논점에 동의하면서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길라잡이로 「군선교신학」에 등재된 '이종윤'의 신학적 통찰을 주목한다. 이종윤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산하 '한국군선교신학회'를 창립하여 군선교에 대한 뜨거운 선교적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군진신학(軍陣神學)의 깊은 정초(定礎)를 놓은 분이다.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논거로서 이종윤의 신학적 통찰을 다시 주목하는 것은 지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8권의 「군선교신학」이 발간되는 동안 군선교와 관련하여 발표된 그의 23편의 논문이 발하는 신학적 성찰이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군선교에 관한 이종윤의 신학적 통찰을 리뷰(review)함으로써 복음의 진취적 진전을 이루는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의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

2. 「군선교신학」에 등재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

1) 주요 논문 요약

이제 「군선교신학」에 등재된 이종윤의 연구논문들의 주요 논점과 시사점들을 간략히 검토해 보자.

(1) 2004년 이종윤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은 군선교의 목표가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 민족복음화를 통한

3)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서울: 그린비, 2015), 9.

세계복음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음을 천명(闡明)한다.[4]

되살펴보면 이종윤은 군선교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온 이스라엘 사상'과 '한 형제 사상', 그리고 '한 하나님 사상'에 입각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전개한 통일 노력과 통일 신학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세우는 데 군선교의 사명이 존재한다고 호소한다.[5]

또한 이종윤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에 대한 비전을 한국교회 전체가 사명으로 받도록 하는 '느헤미야 전략'을 한국교회의 군선교 작전지침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6] 나아가 이종윤은 효과적인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해 일반 및 군인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기독 장병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주문한다.[7]

정리하면, 이종윤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은 군선교신학회가 발간한 「군선교신학」에 등재된 첫 번째 논문으로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표와 구체적 구현방안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2) 2004년 이종윤의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는 모든 복음(whole gospel)을 모든 사람

4) 이종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 「군선교신학」 1 (2004): 30-47.

5) *Ibid.*, 31-40.

6) 이종윤이 제안한 느헤미야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권 선정을 바로 하라. 둘째, 중간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라. 셋째, 느헤미야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넷째, 기지(tact)를 바르게 발휘해야 한다. 다섯째, 정직하게 하라. 여섯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일곱째,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라. 여덟째,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Ibid.*, 40-46.

7) *Ibid.*, 46-47.

(whole people)에게 모든 교회(whole church)가 힘을 다하여 전함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이룸에 있어 요청되는 실천적 각오와 결단을 호소한다.[8]

이종윤에 따르면, 비전2020실천운동에 참여하는 복음증거자는 다음 다섯 가지 덕목을 갖추고 협력해야 한다. 첫째, 비전2020실천운동을 이룸에 있어 사명자의 연합(unity)이 필요하다.[9] 둘째, 세상 앞에 내어놓을 가견적(可見的)인 것(visibility)이 필요하다.[10] 셋째, 복음 앞에서 명료성(clarity)이 필요하다.[11] 넷째, 그리스도 앞에서 일관성(consistency)이 있어야 한다.[12] 다섯째,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겸손(humility)이 필요하다.[13] 이종윤에 의하면, 위 다섯 가지 실천적 각오와 결단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증거가 없이는 우리의 증거는 헛되기 때문이다.[14]

정리하면, 이종윤의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는 비전2020실천운동에 임하는 복음의 역군들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The Purpose Driven Life)이 되도록 '동기의 순수성'(purity of intention)을 각성시키는 거룩한 도전을 준다.

(3) 2004년 이종윤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한국군 내(內)의 종교다원화현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8) 이종윤,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 「군선교신학」 1 (2004): 48-55.

9) *Ibid.*, 49-50.

10) *Ibid.*, 50-51.

11) *Ibid.*, 51-52.

12) *Ibid.*, 53-54.

13) *Ibid.*, 54-55.

14) *Ibid.*, 55.

신학적 검토이다.[15]

먼저 이종윤은 기독교 선교신학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종교다원주의의 본질적 정체성을 파악한다. 이종윤에 의하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무인격적이고 사변적인 초월자로서의 신(神) 개념[16]을 가지고 있고, 정치사회적 봉사구조로서의 윤리종교와 행위를 통한 구원[17]을 강조한다. 또한 종교다원주의는 자연신학에 기초한 계시개념과 종교개념의 종합[18]을 중시하고, 한 분 초월적 신에 대해 서로 다른 신앙양식으로 종교를 형태화[19]한다.

이에 이종윤은 "자기 정체성 없는 종교 간 대화가 가능한가?"라는 질문하에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를 추상적으로 접근하여 결국 신 중심의 종교학으로 전환시켜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한다.[20] 또한 종교다원주의가 한국군 내에서 비등해질 경우 윤리적 측면에서나 사상적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가 배태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21]

15) 이종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군선교신학」 1 (2004): 56-88.

16) *Ibid.*, 64-68.

17) *Ibid.*, 69-74.

18) *Ibid.*, 74-76.

19) *Ibid.*, 77-81.

20) *Ibid.*, 82.

21) *Ibid.*, 84-85. 이종윤은 종교다원주의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상의 '상대적 대등가치'(Ambivalence)를 전제하기에 사실상 종교의 몰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시 말해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절대적으로 상대화시킴으로써, 각 종교가 역사적으로 전승해 온 고유한 신앙을 말살하고 모든 종교를 획일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참된 것과 거짓된 것에 대한 분별력을 망각시키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의 절대적 상대주의는 참되고 절대적인 종교적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고자 하는 의(義)의 능력 곧 순교(殉教)적 신앙의 순수성을 해소시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사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면,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공산주의나, 유일신 사상에 기초한 절대적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 혹은 인간 이성에 의한 자기성찰을 중시하는 불교, 그리고 사회적 · 정치적 윤리를 강조하는 유교, 심지어는 통속적인 샤머니즘까지 모두 동일시됨으로써 종교 간의 충돌과 배타성은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제 종교의 신앙적 독특성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종교적 가치관의 몰락과 참된 진리를 위한 열정의 상실, 아노미(Anomie)적 사회현상, 곧 폭력과 쾌락, 섹스, 금권주의 문화 등의 사회적 병폐를 어떠한 종교적 규범에 기초하여 제어하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측면에서 '종교다원주의'의 절대적 상대주의를 전제할 경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적 독재(獨裁)주의나 사회주의적 제국주의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할 경우,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 북한의 김정일 공산주의적 독재체제나 남한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가 상대적으로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만일 군인이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국가와 부모형제를 위해서 싸우겠는가!

정리하면, 이종윤의 "자기 정체성 없는 종교 간 대화가 가능한가?"는 군선교에 임하는 지도자들에게 기독교 신앙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⑷ 2004년 이종윤의 "군진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군이라는 특수사회에 속한 젊은이들에게 복음진리를 이해시키고 영접하게 하는 효과적인 신학 노선이 상황신학보다는 선교 신학적 측면에 있음을 진지하게 논의한다.[22]

먼저 이종윤은 군선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신학의 본질적 특성이 경건에서 시작하는 학문임을 환기시킨다.[23] 특히 이종윤은 군선교 현장에서 논의되고 적용되는 군진신학은 "군인사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며 인간과 역사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것"[24]에 있다고 개념 범주를

22) 이종윤, "군진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 「군선교신학」 1 (2004): 89-97.

23) *Ibid.*, 90-92. 이종윤에 따르면, 신학의 출발이 경건에 있기에 신학은 철학과 본질적으로 근원(source)이 다르다. 철학은 이성(reason)을 통한 실재를 찾지만 신학은 육신이 되신 로고스를 찾는다. 특히 이종윤에 의하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으로서, 초월성의 현실화(transcendence)의 사건이고 낮아짐의 구체화(condescendence)로서의 성육화 사건이라는 두 방향에서 직접화를 이룬다. 따라서 신학을 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신학을 하나님 말씀의 객관적 진리와 절연시키고 주관적 종교 경험에 치중케 하려는 것들이다.

24) *Ibid.*, 92.

설정한다.

그런데 이종윤은 군선교 현장에서 봉착하는 제반 상황들 곧 이데올로기 문제, 국가관, 애국심, 전쟁에 대한 해석, 인권문제, 이성문제, 불안 공포문제, 리더십 등 군인사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신학적 응답을 찾는 것이 군진신학의 현실적 자리매김이기에 군진신학의 상황 신학적(kontextuelle theologie) 측면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종윤은 상황화를 만능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며, 혼합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지나친 상황화는 죄악된 세상과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중생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종윤의 "군진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군선교가 그 특성상 '아주 특별한 선교'[25]이기에 군선교신학회의 주 신학적 노정(路程)은 상황신학보다는 선교 신학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방점을 둔다.

(5) 2004년 이종윤의 "포스트모던주의의 문제점과 극복에 관한 소고"는 '해체주의'나 '다원주의'라고도 하는 '포스트모던주의'(postmodernism)의 근본 의도와 그 사상에 내포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인간 이성을 강조해 온 현대주의를 극복하는 신학적

25) *Ibid.*, 95-96. 이종윤에 의하면, 군선교가 아주 특별한 선교인 것은 대상적인 면에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라는 점, 기능적인 면에서 순환 조직 사회라는 점, 동원적인 면에서 지휘관의 명령으로 일시에 다수가 모일 수 있다는 점, 심리적인 면에서 고향을 떠나 불안 긴장 속에서 복음 수용이 용의한 점, 안보적인 면에서 내세관을 심어주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군대를 육성한다는 점, 교회 선교 면에서 연 22만 명 이상 수세자를 만들어 민족복음화의 기틀을 만든다는 점, 파급적인 면에서 민족 75%를 신자화하는 파급효과가 생긴다는 점, 경제적인 면에서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본다는 점, 시간적인 면에서 국가가 존립하는 한 군선교는 함께한다는 점, 연합적인 면에서 모범적 교회연합운동의 사례를 이루고 있는 군선교의 본유적 특징 때문이다.

전망을 제시한다.[26]

이종윤에 의하면, 포스트모던주의의 근본 의도는 '주-객-도식'(subject-object-schema)화된 현대주의[27] 사고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함에 있다. 왜냐하면 주-객-도식의 현대적 사유체계로서는 다양하게 급변하는 작금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현상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28]

그런데 이종윤은 포스트모던주의가 현대주의의 사유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대의 후기'(late modernity) 곧 '현대주의 한 아류'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머무른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현대주의의 특성인 이성중심주의(logocentrism)와 인간중심주의적 세속주의(secularism)를 극복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포스트모던주의 역시 인간이성 중심의 사유체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상대적 다원주의' 그 이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29]

이종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종합과 통일이 없는 '해체'로 끝나버린 포스트모던주의는 몇 가지 결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포스트모던의 해석학은 텍스트에 대한 기본 해석은 없고 해석자의 숫자만큼 동일한 텍스트에 대한 해석만 다양해졌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석학은 텍스트에 대한 종합되고 통일된 해석

26) 이종윤, "포스트모던주의의 문제점과 극복에 관한 소고," 「군선교신학」 2 (2004): 277-311.

27) 이종윤의 분석에 의하면, '현대주의'를 지배해 온 형이상학적, 변증법적 주-객-도식의 사고모형은 '영' 혹은 '정신'이라는 '무자아적'(無自我的) 사유 주체가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적 혹은 헤겔적 무자아성 사유주체가 바로 '현대주의'가 전통적인 사유 형태와 표현기법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이탈을 시도해 왔던 '현대주의'의 사유특성이다. *Ibid.*, 288.

28) *Ibid.*, 277.

29) *Ibid.*, 278.

이 없어지고 무수한 개별적 견해만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모던주의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분파주의와 철저한 주관주의로 빠질 위험을 그 자체 안에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포스트모던주의는 해석자라는 주체와 텍스트라는 객체의 주-객-도식을 텍스트와 해석자라는 두 지평의 융합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결과적으로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는 무책임한 허무주의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30]

또한 이종윤에 의하면, 포스트모던주의는 '상대적 대등가치'(ambivalence)를 주장하기에 사상적으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적 독재(獨裁)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적 제국주의를 모두 동등한 가치로 대한다. 만약 이 포스트모던주의의 사상적 경향을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남한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가 상대적으로 동일하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31] 그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주의의 종교학은 모든 종교를 절대적으로 상대화시킴으로써 참되고 절대적인 종교적 진리를 부인하게 되고,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고자 하는 의(義)의 능력과 순교(殉敎)적 신앙의 순수성을 해체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32]

정리하면, 이종윤의 "포스트모던주의의 문제점과 극복에 관한 소고"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초월적 활동에 의한 일치 및 종합 밖에는 포스트모던주의를 극복하는 길이 없다고 해명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초월적 활동에 의한 양자의 일치나 종합을 통해서만 '시·공간의 지평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영원과 시간, 신적 계시와 인간 이성, 하나님 나라와 세상 등의 이분법적 사고 구조는 성령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융합과 '하늘과 땅'의 융합으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33] 이런 점에서 이종윤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 속에 있는 '시·공간'의 지평융합을 '성령론적 보편신학'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 본다.[34]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의식적인 연대적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확산하여 가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다.

(6) 2005년 이종윤의 "기독교 영성과 예배"[35]는 한국교회의 양극화된 영성과 예배에 대한 문제의식[36] 아래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모색한다.

먼저 이종윤은 기독교 영성이 언제나 하나님 은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영성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일치하려는 운동"이라고 정의를 내린다.[37] 이는 기독교 영성

30) *Ibid.*, 298.

31) *Ibid.*, 300.

32) *Ibid.*, 301.

33) *Ibid.*, 304.

34) *Ibid.*, 310.

35) 이종윤, "기독교 영성과 예배," 「군선교신학」 3 (2005): 27-42.

36) *Ibid.*, 41. 이종윤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한편으로는 초월주의적 영성을 강조하고 다른 편에서는 세속화된 영성을 말한다. 초월적 영성교회는 무속신앙적 요소가 강한 반면 세속화된 영성의 교회는 행동 신앙의 요소가 짙다. 또한 초월적 영성교회는 기복주의적 예배를 드림으로 진정한 감사와 헌신보다는 하나님을 단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 정도로 경배한다. 반면 세속화된 영성의 교회는 한풀이식 예배에 치우침으로 참된 아가페적 이웃 사랑과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적 예배정신이 결여되고 있다. 이들은 성만찬도 단순한 친교를 위한 애찬으로 변질시키고, 그리스도의 피와 대속적 죽음은 단순한 민중행동의 준거에 그칠 뿐이다.

37) *Ibid.*, 29. 이종윤에 의하면,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일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올바로 알고 참사랑과 영원을 체험하고 소유하려는 운동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그의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

이 인간이나 세속적 책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서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영성은 행위주의, 개인주의, 감상주의, 이성주의, 이세상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를 거부한다. 도리어 이종윤은 그리스도를 닮아 절제하고 내면적 성화를 이루며 불의한 현실을 변혁시키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그리고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의 기독교 영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38)]

또한 이종윤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예배의 본질적 측면을 재확인한다. 곧 이종윤은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the most momentous), 가장 긴급하며(the most urgent), 가장 영광스러운(the most glorious) 행동"이라는 '칼 바르트'(K. Barth)의 주장에 동의한다.[39)] 그리고 이종윤은 이를 바탕으로 "예배는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과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에 대한 응답"[40)]이라고 예배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한다. 특히 이종윤에 따르면, 예배는 구속받는 성도들의 감사의 축제다. 이 축제의 주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시다. 다가올 메시아 잔치에 대한 성취요 축제다. 그러므로 어떤 의식이 메시아적 해방과 구속의 감격과 기쁨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41)]

이종윤의 "기독교 영성과 예배"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신적 기원을 추적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예배를 신령하게 하며, 예배의 모든 요소가 은총의 기름으로 부음 받게 하며, 영성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영성을 위한 성령'과 '설교의 영성'이 관건임을 해명한다.

(7) 2005년 이종윤의 "생명윤리와 신앙"은 오늘날 군 사회에서 자살 문제를 비롯하여 전쟁에서 살생, 젊은이들 사회에서 임신중절, 안락사, 시험관 아기와 인공수정 문제, 기관이식 문제, 태아 성감별 등 신앙적 대답이 필요한 많은 생명윤리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윤리 신학의 기본 입장을 숙고한다.[42)]

이종윤에 따르면, 기독교윤리 가운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들이 있다.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성경원리에 입각하여 윤리적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기에 올바르게 적기에 대치하지 못하면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43)]

이종윤에 의하면, 특히 나라를 위해 군인으로 부름 받은 이들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고귀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존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윤의 "생명윤리와 신앙"은 기독 장병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더 귀중한 것임을 믿고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윤리로 무장할 의무가 있다[44)]고 역설한다.

도의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적극 실천하려는 운동이다.

38) *Ibid.*, 30-33.

39) *Ibid.*, 34.

40) *Ibid.*, 36.

41) *Ibid.*, 42.

42) 이종윤, "생명윤리와 신앙," 「군선교신학」 3 (2005): 43-48.

43) *Ibid.*, 44.

44) *Ibid.*, 48.

(8) 2006년 이종윤의 "교회 공동체와 국가"는 잘못된 국가관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까지 '학살과 파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기에 바른 국가관을 갖는 것은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전제라는 주제의식하에 국가와 교회 공동체의 제 관계성을 검토한다.[45]

이종윤에 따르면, '국가' 그 자체를 살아 있는 생명체로 보는 '유기체적 국가관'은 사실상 국가관을 '정치 이데올로기'(political ideology)로 만들어 국가를 우상화할 수 있는 가장 사변적인(speculative) 국가관이다. 이런 점에서 유기체적 국가관은 민족주의나 국수주의(國粹主義) 내지 제국주의(帝國主義)로 변형되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46]

이에 이종윤은 기독교의 국가관과 세속적 국가관의 차이점을 규명한다. 이종윤에 따르면, 기독교적 국가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된 '구원 공동체'이다(출 13: 11-16). 다시 말해 구약성경의 국가관은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의 자손을 중심으로 구원사건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약신앙 공동체'(출 19: 5-6)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측면에서 볼 때, 왕권 곧 국가권력은 개인의 권력을 '계약'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국가' 혹은 '통치자'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의미의 '왕권신수설'은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주장하듯 세속적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국가 혹은 통치자의 권력'을

45) 이종윤, "교회 공동체와 국가(國家)," 「군선교신학」 4 (2006): 19-42.

46) *Ibid.*, 26.

영원히 보증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가 권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그의 뜻에 상응하게 통치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국가나 통치자의 권력이 제한되거나 찬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의 국가관과 세속적 국가관의 차이점이다. 이종윤은 그 두드러진 실례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Saul)과 '다윗' 왕에게서 찾는다.[47]

또한 이종윤은 '세속적 국가의 영적(靈的) 실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숙고하면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나라'(*civitas Dei*) 개념과 마르틴 루터의 '두 왕국' 개념을 에베소서 6: 12와 연결시켜 판단한다. 곧 "우리(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엡 6: 12)이라면, 교회 공동체는 이 지상나라의 통치자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48]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종윤은 '세속적 국가를 개혁할 영적(靈的) 실체로서의 하나님 나라-하나님 나라의 세속적 실존양식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숙고한다. 이종윤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교회 공동체라는 실존양식으로 이 세속적 국가 가운데 현존해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국가와 교회 공동체 사이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있다. 즉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세속적 국가에 대하여 항상 '아니오'(no)를 말해야 하는 영적 과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교회 공

47) *Ibid.*, 28.

48) *Ibid.*, 36.

동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함께 공존하고 있기에 함께 협력 곧 '긍정'(yes)해야 할 과제도 있다. 그것이 바로 백성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국가와 백성'을 위한 '섬김'(service)이라고 이종윤은 역설한다.[49]

정리하면, 이종윤의 "교회 공동체와 국가"는 교회와 국가의 적정한 관계성을 모색하면서, 진정한 애국은 국가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굴복이나 형이상학적 허구적 나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랑이듯이,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동시에 고난받는 백성에 대한 이웃 사랑임을 역설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눅 10: 27)고 말씀하기 때문이다.[50] 이에 이종윤은 그리스도 안에 '백성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국가'가 존재하기를 희구한다.

(9) 2006년 이종윤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하여"[51]는 군선교 현장에 상존하는 제반 문제점들[52]을 해소하며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성경적 전도전략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데 집중한다.

49) *Ibid.*, 36.

50) *Ibid.*, 41-42.

51) 이종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하여," 「군선교신학」 4 (2006): 43-79.

52) *Ibid.*, 45. 이종윤의 분석에 의하면, 군선교 현장은 내외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진중세례자의 소수만이 신앙생활을 유지, 군인교회와 군선교회, 그리고 민간교회와의 연계성의 미비, 진중세례를 받는 장병들의 숫자가 다소 감소하고 질적으로 퇴보하는 경향, 군목 등 지도자가 부족하여 군인교회의 체계적인 양육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군 구조개편과 병역자원감소 등 군 환경의 변화, 기독교의 진중세례가 타 종교의 선교 및 포교에 동기부여와 거센 도전을 유발, 이단 및 소수종교가 군내 침투와 군종 파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여러 종교와 종단들의 군선교 과열현상 유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종교활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 등이 가팔라지고 있다.

먼저 이종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비전 성취 과정인 일명 '홍해 작전, 여리고 작전, 가나안 정벌 작전, 그리고 갈렙의 지도력' 등을 모티프로 삼아 성경적 전도전략을 궁구(窮究)한다. 이종윤에 의하면, 홍해 작전, 여리고 작전, 가나안 정벌 작전, 그리고 갈렙의 지도력 등을 기초로 하여 재발견한 성경적 전도전략은 '말씀작전'과 '기도작전'으로 압축된다. 이에 이종윤은 '말씀작전'과 '기도작전'에 기초한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으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특별기도회, 소그룹 성경공부, 진중세례의 활성화, 대대급 단위의 교회 설립, 군선교 일반 사역자 파송 및 교육 훈련 과정 개설, 비전부흥회, 지도력 세미나 실시' 등과 같은 실질적 선교 방안들을 제시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종윤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주안점을 대대급 단위 교회에 두어 실제적인 선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역설한다.[53]

종합해서 볼 때, 이종윤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하여"는 성경에서 채집한 전도전략을 군선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접목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깊다고 사료된다.

(10) 2007년 이종윤의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실천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참여한 기독교 선조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오늘의 한국교회 발전과 갱신을 위한 발판으로 정립하고자 1907년 대부흥운동과 연관된 제 국면을 검토한다.[54]

먼저 이종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말(顚末)을 '에큐메

53) *Ibid.*, 76.

54) 이종윤,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운동," 「군선교신학」 5 (2007): 9-35.

니칼 교회일치 운동, 말씀 연구 운동, 성령 강림의 역사, 회개운동'으로 집약한다.[55]

이어 이종윤은 유다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재건운동, 그리고 '마르틴 루터' 등 일련의 종교개혁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탐구와 당대의 죄악에 대한 회개 촉구, 그리고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개과정과 유형적으로 일치한다고 평가한다.[56]

나아가 이종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역사 속에서 펼쳐진 제 종교개혁운동의 핵심 동력인 '말씀연구를 통한 성령의 에메르겐즈(Emergenz) 현상'을 '비전2020실천운동'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종윤은 진중에서 세례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보충(feedback)하는 운동'의 전개를 촉구한다.[57] 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강한 힘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윤의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실천운동"은 무망(無望)한 시대에 민족 구원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발견한 한국초기교회처럼 군인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군 공동체가 단결되고 조국애가 되살아나도록 하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에메르겐즈 현상'의 장(場)이 되는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평가된다.

(11) 2008년 이종윤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고함: 복음화된 통일조국이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과 패망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바알 숭배'를 모티프로 삼아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는 신앙의 준거(準據)를 제시한다.[58]

먼저 이종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야훼의 대적자인 이방신 바알의 허망함과 문제성을 폭로한다.[59] 이어 이종윤은 신앙의 분열로 인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의 문제를 살피면서 "오늘날 북한이 공산주의를 앞세워 신앙자유를 말살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은 바알 신을 섬기던 북이스라엘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동시에 이종윤은 공산주의의 허상을 바알 신으로 규정한다.[60] 그리고 이종윤은 에스겔 37: 16-22을 분석하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재평가한다.[61] 또한 이종윤은 대한민국 근대사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역사와 남·북의 분열과 통일에 대한 희망과 비교 분석하면서[62] '한(韓)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인'과 같은 남·북한 기독교인들이 굳게 신앙으로 무장하여 풍요와 다산(多産)의 바알을 숭배하는 공산주의와 세속주의를 배척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는 성서적 당위성을 제시한다.[63] 이종윤에게 있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단지 한국 민족을 무

55) *Ibid.*, 11-14.

56) *Ibid.*, 33.

57) *Ibid.*, 35.

58) 이종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고함: 복음화된 통일조국이어야 한다," 「군선교신학」 6 (2008): 9-27.

59) *Ibid.*, 11-14.

60) *Ibid.*, 17.

61) *Ibid.*, 21.

62) *Ibid.*, 21-23.

63) *Ibid.*, 24-27.

조건 기독교인으로 만들자는 또 다른 제국주의적 기독교 국가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시 33:12)이다.[64]

정리하면, 이종윤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고함-복음화된 통일조국이어야 한다"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산 제사 운동'을 전개할 것과 공산주의의 허상과 세속주의의 망상을 버리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의 사명의 당위성에 기반하여 '비전21세기실천운동'의 목표를 제시한다고 평가된다.

(12) 2009년 이종윤의 "여군목 제도창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여군목 제도'가 미래 한국 군대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인지를 검토한다.[65]

먼저 이종윤은 성경에서의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의 본질적 관계성을 살핀다. 이어 이종윤은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수렁에서 구원역사의 수레바퀴를 건진 여인들(라합, 드보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여인들)의 활동상을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선교에 여성의 힘이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군에서도 역시 활성화되어야 할 개연성을 검증한다.

종합하여 볼 때, 이종윤의 "여군목 제도창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선교의 동역자로서의 여성'의 입지를 매우 긍정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성의 기도와 말씀봉사가 더 이상 감춰지거나 무력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군에서도 여성이 복음을 전하고 장병들을

64) *Ibid.*, 26.

65) 이종윤, "여군목 제도창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 「군선교신학」 7 (2009): 9-33.

돌보는 일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21세기를 향한 선교에 여성의 힘이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군에서도 역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앞으로의 사회가 결코 가부장적이거나 모계 중심 사회가 아니라 양성평등의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66] 이러한 점에서 이종윤은 한국군에게 '여성 군목의 활동'의 당위성을 긍정한다.

(13) 2010년 이종윤의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전의 성경신학적 의미-구원을 위한 인침과 징표로서의 성례전"은 '군선교' 속에서 베풀어지고 집행되는 세례와 성만찬이 '영적 군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표징'이 됨을 변증한다.[67]

먼저 이종윤은 기독 신자에게 있어 세례와 성만찬이 '구원의 표징으로서의 성례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함축한다.[68] 그리고 이종윤은 성례전에 참여할 단 하나의 조건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확증(確證)한다.[69] 특히 이종윤은 성례의 선교적 종말론적 의미[70]를 검사한 후, 전투에 임하는 용사의 '신앙적 자의식'에 세례와 성만찬이 가시적이고 인식론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성례로서의 개연성이 담보된다고 평가한다.[71]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윤의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전의 성경

66) *Ibid.*, 31.

67) 이종윤,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전의 성경신학적 의미-구원을 위한 인침과 징표로서의 성례전," 「군선교신학」 8 (2010): 13-39.

68) *Ibid.*, 19.

69) *Ibid.*, 21.

70) *Ibid.*, 32-36

71) *Ibid.*, 37.

신학적 의미-구원을 위한 인침과 징표로서의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위에서 형성된 세례와 성찬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임마누엘 신앙'[72]을 강화하기에 군선교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례(聖禮)임을 규명했다고 사료된다.

(14) 2011년 이종윤의 "軍人(軍牧)의 愛國心과 個人倫理"는 참된 애국심의 본질과 한 개인의 사상적 자유의 범위의 문제를 논한다.[73]

먼저 이종윤은 왜곡된 파시스트적 국가관이 갖는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 혈통주의 국가관과 국가사회주의의 호전성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경계하고 비판한다.[74] 더불어 이종윤은 '통치자 우상화'도 거부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초한 애민(愛民) 애족(愛族)의 국가관을 높이 평가한다.[75] 특히 이종윤은 보편이 실재보다 앞서기 때문에 군종목사의 최우선적 정체성은 그리스도교적 신앙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종윤에 따르면, 군종목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 지휘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직책'이다. 따라서 군목에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상응하는 사상적 가치관과 '군복무규정'이 규정하는 행동지침에 부합되는 '윤리적 책임'이 요청된다.[76]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윤의 "軍人(軍牧)의 愛國心과 個人倫理"는

72) *Ibid.*, 39.

73) 이종윤, "軍人(軍牧)의 愛國心과 個人倫理," 「군선교신학」 9 (2011): 11-35.

74) *Ibid.*, 13-15.

75) *Ibid.*, 22.

76) *Ibid.*, 24.

공산주의자들이나 혈통주의 국가관을 추종하는 세력을 이기는 군대의 신앙적 영적 지도자인 군종목사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 국가관과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함을 해명한다. 특히 "軍人(軍牧)의 愛國心과 個人倫理"는 군종목사에게 "천상의 보편적 윤리인 '신율'(theonomie)에 기초하여 국가적 민족적 명령인 '타율'(heteronomie)을 따르고, '타율'에 기초하여 자기 자신의 윤리인 '자율'(autonomie)을 행함"[77]으로써 그리스도인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군종목사의 균형 잡힌 자기정체성의 신학적 준거를 제시한다고 평가된다.

(15) 2012년 이종윤의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교회의 실천적 방안"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 10: 25-37)를 모티프로 하여 군내(軍內) 사고예방과 병영문화 혁신을 이루어 건강한 병영 만들기를 도모하는 '선샤인(선한 사마리아인)캠페인'의 성서적 배경과 기독 장병의 실천방안에 대해 모색한다.[78]

먼저 이종윤은 선샤인(선한 사마리아인)캠페인을 '자비사역'으로 규정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인 자비의 모범(paradigm)은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된다고 긍정한다.[79] 또한 이종윤은 디아코니아(diakonia)를 자비사역의 신학적 구동원리로 제시하면서,[80] 균형 잡힌 삶으로서의 말씀사역과 행위사역이 필수적임을 해명한다. 말씀 선포는 믿음을 산출하고(롬 10: 16-18), 믿음은 선한 행실을 낳기 때문

77) *Ibid.*, 35.

78) 이종윤,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교회의 실천적 방안," 「군선교신학」 10 (2012): 11-47.

79) *Ibid.*, 16.

80) *Ibid.*, 20.

이다(약 2: 1-23).[81] 나아가 이종윤은 선샤인 캠페인의 보다 실천적 방안으로 'stop, look, listen'을 기축기제(機軸機制)로 하여 "외인으로부터 사귐의 관계로, 사귐에서 친지의 관계로, 친지에서 친구의 관계성을 통해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신뢰의 풍토를 만드는" 실제적 제 방안들을 제시한다.[82]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윤의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교회의 실천적 방안"은 비전2020실천운동을 병영 안에 활착하게 하는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사회화를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티프로 한 기독교실천윤리차원으로 고양시켜 건강한 평화와 견실한 복음화가 용이하도록 하는 준거를 제공한다고 평가된다.

(16) 2013년 이종윤과 김대덕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연대기적 목표점인 2020년을 7년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비전2020실천운동의 비전을 성취하는 역량을 재(再)강화하고자 한다.[83]

81) *Ibid.*, 25-30.

82) *Ibid.*, 31-34. 이종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발견되는 '선샤인 캠페인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그리스도의 사랑), ② 정확한 진단: 가까이 접근하여 상태 확인(관심표현), ③ 응급조치: 기름, 포도주를 붓고 싸맴(문제해결), ④ 계속치료: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계속 돌봄(지속적 관리), ⑤ 사후관리: 주막 주인에게 비용 부담하고 계속 돌볼 것 주문(끝까지 책임). 아울러 이종윤은 선샤인 캠페인에 있어 '천사 역할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① 인사하기: 먼저 접근하는 당신이 천사(웃으며, 눈을 맞추고, 악수하며, 이름을 부르며 정중하게), ② 경청하기: 공감하는 당신이 천사(이입감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③ 동행하기: 함께하는 당신이 천사(위기의 순간에 헬퍼로서), ④ 칭찬하기: 격려하는 당신이 천사(낙심 중에 소망을 갖도록), ⑤ 선행하기: 구원을 베푸는 당신이 천사(생명구원을 열심히).

83) 이종윤, 김대덕, "Vision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군선교신학」 11 (2013): 14-48.

먼저 이종윤과 김대덕은 군선교를 통해서 중단 없이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할 비전2020실천운동의 형성과정을 개괄한다.[84] 다음으로 이종윤과 김대덕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사역인 장병전도 세례사역 결과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진중 수세신자의 누적 수가 약 355만 명에 달한 것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85] 나아가 이종윤과 김대덕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유의미한 성과로서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연합운동, 전도운동, 애국운동, 강군육성운동, 민족복음화운동, 평신도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타종교와의 경쟁'이 발생하고 '명목상 신자'(Nominal Christian)가 양산되는 폐단에 대해 우려한다.[86]

이에 이종윤과 김대덕은 'New 비전2020실천운동의 미래전략'으로서 'ABC 3-Pr원리'를 제안한다. ABC 3-Pr원리는 '열렬한 기도'(ardent prayer), '성경적 설교'(biblical preaching),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consistent program)을 진행하는 것이다.[87]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윤과 김대덕의 "Vision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실제적 성과와 현실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면서 'New 비전2020실천운동의 미래전략'을 제안하여 한국 군선교의 미래조망에 매우 유용한 논문이라고 사료된다.

(17) 2014년 이종윤의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은 군인교회를 포함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예배가 "McDonald

84) *Ibid.*, 14-28.

85) *Ibid.*, 29-36.

86) *Ibid.*, 39-41.

87) *Ibid.*, 42-45.

처럼 대중적이고 싸구려의 시시한 소위 Mc-Worship으로 전락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경적 예배로의 변화를 논설한다.[88]

먼저 이종윤은 현대 교회의 예배가 변하고 있는 현상을 진단한다. 곧 이종윤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참가하는 회중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요소를 첨가하고 있으며, 예배와 집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학적 교리설교나 주석적 강해설교가 약화되는 문제점 및 대부분의 교회가 직면한 교회 음악의 난맥상을 진단한다.[89] 또한 이종윤은 설교의 모범과 관련하여 "목회자의 사역 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역은 없다"는 전제하에 강해설교의 아우트라인(outline)을 제시한다.[90] 나아가 이종윤은 '예배신학과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신중히 제안한다.[91]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윤의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은 오늘의 예배 초점이 인간의 필요에 맞춰져 있고 흥미에 맞춰져 가고 있다는 진지한 반성하에, 한국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예배 신학적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한 직설(直說)이라고 사료된다.

(18) 2015년 이종윤의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는 '군인권과 선교활동' 이슈와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

88) 이종윤,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군선교신학」 12 (2014): 11-37.

89) *Ibid.*, 13-21.

90) *Ibid.*, 21-30.

91) *Ibid.*, 33-35. 이종윤은 예배신학과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들과 관련하여 성경적 예배를 회복해야 하며, 현대예배에 첨가된 새로운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혁할 것과 설교는 가급적 강해설교를 하며, 은사와 직분에 따른 절제와 경건의 권위와 가치를 다시 세울 것을 주문한다.

설교'의 중요성을 재인식한다.[92]

먼저 이종윤은 "인권은 신권(神權)이다"는 기독교적 인간이해[93]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서의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94]를 전제로 하여, 2010년 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군장병에게 무종교의 자유보장 등 권고"한 것에 대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신학적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를 신앙자유로 해석한 인권위는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결정이다.[95] 둘째, 군종업무훈령 제3장 12조 3항에 명기된 바 "부대 내 종교시설이 없을 경우 종교활동의 지원을 위해 군종장교는 지휘관의 승인하에 부대 인근의 민간 성직자와 협조하여 이들의 종교시설을 이용한다"는 규정에 비춰 볼 때, 군인 개인의 인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군의 종교활동은 신앙전력화라는 정신 전력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며, 소수 종교 보호라는 미명하에 이단 사이비의 군내 침투는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한다. 동시에 종교 소수인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현재에 되어 있으므로 법령 개정들은 필요치 않다.[96] 셋째, 종교행사 불참 장병에 대한 불이익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것

92) 이종윤,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 「군선교신학」 13 (2015): 17-48.

93) *Ibid.*, 18.

94) *Ibid.*, 19-21.

95) *Ibid.*, 24. 이종윤에 의하면, 세계인권선언의 모체인 초기 인권 협약은 오토만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였다. 특히 1941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인권선언이 강조한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할 자유'는 신앙을 가진 이로 하여금 자기 신앙을 유지 발전시킬 자유가 있음을 언급한 것이지, 인권위가 주장한 '종교를 갖지 않는 권리'를 인권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96) *Ibid.*, 24.

이다.[97] 넷째, '무종교도 종교다'라는 논리는 공산권 국가의 헌법과 방불하다.[98] 다섯째, 신앙할 자유란 예배, 의식참여, 헌신, 그리고 포교(전도)의 자유도 포함된다.[99]

다음으로 이종윤은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의 필요성과 핵심 실제를 제시하면서 군인교회 사역자와 한국교회 강단의 갱신을 촉구한다.[100]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윤의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는 군내 복음 전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 인권 즉 신권을 세우는 일이며, 헌신된 성도의 의무요 사명인 것을 군 내외(內外)에 천명하는 신학적 통찰의 울림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예배회복을 위해 교회의 설교자들이 강해설교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신학적 통찰이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19) 2016년 이종윤의 "오늘의 설교의 개혁"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운동을 모티프로 삼아 오늘의 교회 강단의 설교자들에게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의 당위성과 실제적 측면을 해명한다.[101]

먼저 이종윤은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등가적 당위성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선례에서 찾는

97) *Ibid.*, 24. 군에서 종교행사에 참석을 권고하는 것은 휴식이나 오락시간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장병의 신앙무장을 통해 무신론 공산군과 대치하고 있는 국군의 신앙전력화를 위한 국가적 시책이기에 개인의 종교자유라는 논리를 앞세워 그 시간에 TV 시청금지, 청소 또는 작업지시를 불이익으로 불평하는 용사는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무지와 책임적 사회의 일원임을 망각한 소치이다.

98) *Ibid.*, 25-26.

99) *Ibid.*, 26-27.

100) *Ibid.*, 29-48.

101) 이종윤, "오늘의 설교의 개혁," 14「군선교신학」(2016): 8-29.

다.[102] 특히 이종윤은 "민주화되고 개인주의적이고 반지성적 Post-modernism 시대와 실용주의와 낙천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대 문화의 파고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예배마저도 인본주의적 예배로 변질되고 있다는 신학적 반성[103]하에 강단의 개혁으로서의 강해 설교[104]를 소환(召喚)한다. 이종윤이 강해설교를 강조하는 것은 "강해설교가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영적 의미를 찾아 거기서부터 성경진리를 찾아 제시"하는 '성경 중심의 설교'(Bible-centered preaching)이기 때문이다.[105]

특히 이종윤은 성경 본문과 현실세계의 두 지평의 융합(to fuse)을 찾는 강해설교자의 과제를 이렇게 정리한다.

> 성경 본문을 설교자의 경험 속에서 재번역(retranslate)해야 하는 과제가 강해 설교자에게 주어진다. 시대상황에 따라 관심과 이슈와 문화의 스펙트럼(spectrum)이 다르다. 설교자는 성경의 세계와 청중이 살고 있는 세계 사이를 연결시켜야 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선포하기 위해, 그 의미와 함의를 찾아야 그 말씀을 적절하게(relevance) 선포할 수 있다.[106]

102) *Ibid.*, 8-9. 이종윤에 따르면, 루터는 교리와 예배와 생활개혁을 주장했다. 칼빈은 교리와 치리(discipline), 성례(sacraments)와 경건한 직분자들에 의한 예배(ceremonies) 개혁을 강조했다.

103) *Ibid.*, 9-12.

104) *Ibid.*, 12-16. 이종윤에 의하면, 현대인의 강단에서 강해설교가 점차 사라지는 것은 성경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 때문이다. 오늘의 시대에 강해설교가 회복되고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할 이유는 자명하다. 강해설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며,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깊이 있게 하며, 회중을 도우며, 성경 전체를 취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제공하며, 설교자에게 토요일 밤의 고민을 없게 해주는 유익이 크다.

105) *Ibid.*, 20-21.

106) *Ibid.*, 23. 이종윤은 강해설교자의 실제적 준비에 관해 다음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빈 마음으로 묵상하라. 둘째, 성경 본문을 충분히 읽어라. 셋째, 분명하게 기록하라. 넷째, 뜨겁게 기도로 익혀라. 다섯째, 자신이 설교한다는 것은 잊고 설교하라.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윤의 "오늘의 설교의 개혁"은 흔들리는 현대 교회의 예배의 위기를 성경에 기반한 강해설교를 통한 개혁의 당위성으로 귀결시킨다. 이종윤에게 있어 설교자에게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리고 현대인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해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20) 2016년 이종윤의 "파트너십과 합작을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자-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관계정립을 위하여"는 군선교 현장에서 군종목사의 수가 절대 부족하여 군선교사들이 군종 사역을 돕고 있는 현실에서 두 그룹 간의 파트너십과 합작은 필수적이며 격려를 받아야 할 당위성을 논한다.[107]

먼저 이종윤에 따르면, 복음은 흩어진 주의 제자들에게 관계회복을 위한 첫 번째 좋은 소식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몸(교회)의 분열은 세계선교의 방향을 방해하는 주요인이 된다. 따라서 군선교 현장에서의 연합은 필수적이다.[108]

다음으로 이종윤은 복음선교의 현장에서 영적 연합을 이루는 실제적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이종윤은 군선교 현장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에 있어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주 안에서 서로 몸의 지체처럼 다양성과 상호의존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권

107) 이종윤, "파트너십과 합작을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자-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관계정립을 위하여," 「군선교신학」 15 (2016): 10-15.

108) *Ibid.*, 11-12. 이종윤에 의하면, 요한복음 17: 20-23에서 그리스도께서 연합을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과의 연합을 말씀한 것이지 세상과의 연합을 말씀한 것이 아니다. 이 연합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 구조적 연합(structural unity)으로서 신앙고백이 다르다 해도 모든 교회가 모여 이루는 연합운동(WCC, NCC 같은 조직). 둘째, 닮은꼴 연합(confirmity unity)으로서 자신과 비슷한 교회끼리 모여 이루는 연합운동(주로 보수적인 교회들의 연합). 셋째, 영적 연합(spiritual unity)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연합(요 17: 21)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룬 이들끼리 이루는 연합운동(성경적 연합).

고한다. 파트너십 형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양성(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모델로 삼아야 하며, 복음의 증진을 위해 개별적 사역과 구조와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합작을 격려하는 모든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돕는 사역의 네트워크(network) 형성이 필요하다. 이에 이종윤은 군선교 현장에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결성하여 상호 소통을 강화하되,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연합수련회나 연합기도회 등을 가져 영적 동역자의식을 함양하면 군복음화라는 공유된 목적성취를 이룰 수 있으리라[109]고 전망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윤의 "파트너십과 합작을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자-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관계정립을 위하여"는 군선교 현장에서의 파트너십 형성이 군선교를 위한 관건임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공헌점이 크다고 사료된다.

(21) 2017년 이종윤의 "동성애와 군형법 92조의 6 개정안에 대한 소고"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군형법 92조 6을 개정하여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신학적 반대 입장을 개진한다.[110] 이종윤에 따르면, 동성애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제도에 대항하는 반(反)성경적 행위자이다.[111]

이종윤은 동성애를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동성애는 비(非)성경적이며, 소수자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112] 또한 이종윤

109) *Ibid.*, 12-15.

110) 이종윤, "동성애와 군형법 92조의 6 개정안에 대한 소고," 「군선교, 청년」 한국군선교신학회논문집 16 (2017): 13-22.

111) *Ibid.*, 13.

112) *Ibid.*, 15. 이종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마약 복용자는 소수자인데 그 마약 복용자들이 소수자이기에 사회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듯 동성애자가 소

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군대 내 동성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 훈령 1932호가 시달되었는데, 국방부 훈령 제1932호나 인권위 권고가 군형법상 금지된 동성애적 성행위가 부대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다.[113]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윤의 "동성애와 군형법 92조의 6 개정안에 대한 소고"는 성경적 윤리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그리고 국군의 유무형 전력강화 차원에서 공히 동성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우는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22) 2018년 이종윤과 이규철의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는 한국군선교 70년의 역사 속에 '복음화된 조국 건설'을 향한 소망적 성취와 진전을 이룬 것을 평가한다. 그리고 비전2020실천운동의 실질적인 결실을 향한 청년사역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비전 21세기 실천운동'을 전망한다.[114]

먼저 이종윤과 이규철은 2016년 12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기독교가 "종교유형별 인구(1995, 2005, 2015) 1위"가 된 것은 비전2020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

수자라는 이유로 보호받기를 주장하는 것은 반(反)사회적 행위다. 이에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UN 또한 친(親)동성애적 활동을 중단시키고 비(非)사회적, 반(反)성경적 동성애를 우리 사회에서 금지시킬 뿐 아니라 추방시켜야 할 당위가 있다.

113) *Ibid.*, 17-18. 국방부 훈령 제1932호(부대관리 훈령)에 의하면, "동성애자 용사는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제253조 기본원칙), "지휘관 등은 성 경험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을 금지한다"(제254조 신상 비밀 보장). 또 "어느 누구도 동성애자 용사의 동의가 없는 한 부모·친구·부대에 동성애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114) 이종윤, 이규철,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군선교, 청년」 한국군선교신학회논문집 17 (2018): 15-45.

군선교 70년의 축적의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이종윤과 이규철은 비전2020실천운동을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의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역량으로 규정한다.[115]

다음으로 이종윤과 이규철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청년사역의 네트워크 강화 문제를 검토한다. 이종윤과 이규철에 의하면, 군선교는 철저히 청년사역이다. 현재 한국교회와 진중군인교회 무론하고 청년사역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116] 따라서 청년선교를 위한 입체적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추진하는 '예스 미션'(YES! Mission: Young People Evangelization Special Mission) 사역[117]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복음으로 네트워크화한다는 점에서 웅대한 비전이다. 하지만 복음전도의 외연 확장에 치중하다가 군선교 본연의 구심점을 상실해서는 안 되기에 선교전략적 방향성을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윤과 이규철의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는 기독교세계선교역사의 최전단(最前端)인 한국군선교가 비전2020실천운동에 기반한 '비전21세기실천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규명한다. 또한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는 전군신자화로부터 비전2020실천운동과 비전21세기실천운동에 이르는 주 선교 전략인 세례 사역은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성사(聖事)임을

115) *Ibid.*, 24.

116) *Ibid.*, 24-26.

117) *Ibid.*, 32. 예스 미션은 '청년전도사역(청년복음화)을 위하여 지역교회, 대학캠퍼스, 군대, 직장 등 4대 영역을 벨트화하되 관련 전문선교기관들이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하여 비전2020사역에 기여하는 등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청년전도사역'이다.

재확인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비전21세기실천운동을 위한 복음의 접촉점과 영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군선교 사역자들 모두가 강한 사명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제적인 군선교 정책을 제안한 논문이라고 사료된다.

(23) 2019년 이종윤의 "병역대체 복무제 진단과 기독교 입장-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신학적 비판"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39조에 근거하여 소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병역대체 복무제 시행 귀결에 대한 신학적 비판을 한다.[118]

먼저 이종윤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1헌바379'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 병역법 88조 1항의 위반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이종윤은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적 양심에 대해 어떻게 누가 증명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한다.[119]

다음으로 이종윤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피조물성(被造物性)을 주장하는 기독교 대 이단(아리우스주의와 유사)"이며 실제적 문제점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120]

---

118) 이종윤, "병역대체 복무제 진단과 기독교 입장-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신학적 비판," 「군선교, 청년」 한국군선교신학회논문집 18 (2019): 13-35.

119) *Ibid.*, 14-15.

120) *Ibid.*, 17-18. 이종윤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의무 기피, 집총 거부, 수혈 거부 운동, 가정윤리 파괴, 직업 포기를 강요,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을 포기, 정상적 결혼을 거부, 자파의 비밀이나 의문을 발설폭로하면 배도자로 제명하여 추방시키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세계 50여 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추방당했고 포교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윤의 "병역대체 복무제 진단과 기독교 입장-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신학적 비판"은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1헌바379'로 촉발된 소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심각한 우려를 개진한다. 그리고 "병역대체 복무제 진단과 기독교 입장-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신학적 비판"은 국가안보와 상생적 합리적 공정한 병역제도를 위한 궁구(窮究)의 필요성을 제기한 신학적 통찰이라고 평가된다.

2)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 「군선교신학」에 등재된 이종윤의 제 논문은 한국군선교의 목적으로부터 비전2020실천운동 수행에 있어 심대한 도전적 과제를 극복하는 세부 실천 방안까지 두루 다루고 있다. 곧 이종윤은 한국군 내의 종교다원화현상과 극복 방안, 군진신학의 방향,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점과 극복 과제, 예배 개혁, 기독교 영성 강화, 생명윤리 문제와 기독교윤리, 교회공동체와 국가의 관계,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 1907년 대부흥운동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에메르겐즈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 검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는 성서적 당위성, 여군목 제도 제안, 영적 군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표징으로서의 세례와 성만찬,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 국가관과 윤리의식, 선샤인 캠페인에 대한 신학적 검토, 비전2020실천운동 중간평가, 예배의 갱신과 강해설교, 예배 회복을 위한 강해설교의 실제, 복음의 파트너십, 동성애와 군형법 92조 6 개정안에 대한 신학적 비판, 청년사역과 네트워크 강화, 병역대체 복무 시행 귀결에 대한 신학적 비판 등 한국군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검토한다.

한국군선교와 관련한 이종윤의 제 신학 논문은 군선교와 관련한 대내적 대외적 현안과 이슈에 대한 신학적 평가와 선교적으로 유효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이종윤의 제 신학 논문은 비전2020실천운동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인 비전21세기실천운동의 신학적 지향점과 가치실현의 실천적 효율방안에 대한 훌륭한 신학적 길라잡이로서 매우 값진 신학적 통찰을 제시해 준다고 사료된다.

3.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

1)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이 전개될 군 내외 선교환경 전망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인 비전21세기 기독교실천운동이 펼쳐질 군 내외 선교환경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시기보다 매우 급속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군외적(軍外的) 상황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소위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문명의 전환 속에 다양한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최영식'에 의하면,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 주창된 용어로서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시대를 지칭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 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D 프린팅, 나노 기술 등 6대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이 핵심을 이룬다. 현재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 이용되고 있으며, 더욱 진보된 기술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인간의 신체기능과 지능보다 더 강화되면서 인간의 감정까지 이해하는 로봇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만의 고유 영역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121]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상 하나의 시대가 끝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불의 기술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유전공학의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불꽃의 힘으로 물질을 변형시키고 융합해 온 인간은 이제 생명이나 생물을 변형하고 이용한다.[122]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유전자 환원주의(還元主義)'는 인간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며, 심지어 사회와의 관계까지도 단절시키는 세계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니엘 핑크'(Daniel Pink)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현대 사회는 정보를 잘 다루고 분야별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인정받는 '지식근로자'의 시대였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가치에 대한 열망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화'는 화이트칼라의 업무를 해외로 이전시키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은 일부 직종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는 '하이컨셉'(또는 하이터치) 능력들을 장려한다. 하이컨셉은 패턴과 기회를 감지하고, 예술적 미와 감정의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며, 훌륭한 이야기를 창출해 내고,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123]

---

121) 최영식,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의 이해에 대한 최신 의학적 접근," 『인공지능이냐? 인간지혜냐?-인공지능시대의 인간교육을 생각한다』, 박성원 편 (안동: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2019), 36.

122) 제레미 리프킨, 『엔트로피 II: 유전자공학시대의 새로운 세계관』, 김용정 역 (서울: 안산미디어, 1995), 37-38.

123) 다니엘 핑크, 『새로운 미래가 온다』, 김명철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 2010), 14. 다

'에디 깁스'(Eddie Gibis)가 교회의 존립 환경에 대해 진단한 바에 따르면, 전 유럽에 걸쳐 교회의 영향력과 교인들의 출석률은 계속 급감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주류 교파가 쇠락하고 있으며, 소규모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으로 규정되는 통제 불가능한 세상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 깁스에 따르면, 영적인 생명력과 선교에 대한 헌신을 견지하는 교회들은 교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수적으로도 성장하여 마침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다.[124]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에 따르면,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시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이에 유발 하라리는 학교를 향해 기술적 기량 교육 비중을 낮추고, 종합적인 목적의 삶의 기술 교육에 주안을 두어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을 함양"할 것을 주문한다.[125] 이와 함께 유발 하라리는 "격변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감정의 근력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126]고 우려한다.

군내적(軍內的) 상황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과 연동된 군사무기의 능력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전력화되면서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탈피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기술집약형 구조로 개편"[127]될 것으로 예견된다. 군내 환경의 이 같은 변화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중점적으로 펼쳐 왔던 장병들에 대한 진중세례와 복음에의 양육 결실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전21세기실천운동이 펼쳐질 어간(於間)에 4차 산업혁명은 점점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 또한 두드러지며, 군 내적으로도 병력 감축과 부대의 재편이 이루어짐에 따른 병영 변화가 이루어지기에 군선교 환경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되리라고 전망된다.

2)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

이제 앞서 살펴본 이종윤의 신학적 통찰을 기반으로 하여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해 몇 가지 신학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사랑 복음운동으로서의 군선교 사명 재인식 강화 필요

주지의 사실인 바,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과 민족, 인류 복음화에 이바지하므로 국가적으로는 모범국민 육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 애족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고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랑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력화 운동이요, 교회로는

니엘 핑크는 하이터치를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를 잘 다루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잘 유도해 내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 이를 추구하는 능력으로 본다. 다니엘 핑크가 제시한 하이컨셉에 적합한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디자인으로 승부하라. 둘째,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스토리를 겸비해야 한다. 셋째, 집중만으로는 안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공감이 필요하다. 다섯째, 진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놀이도 필요하다. 여섯째,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안 된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Ibid.*, 14-16.

124) 에디 깁스, 『넥스트 처치』,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22-31.

125)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전병근 역 (파주: 김영사, 2018), 393.

126) *Ibid.*, 64-65.

127) 〈https://www.mnd.go.kr/mbshome/mbs/plan/download/plan.pdf〉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128]

이종윤과 이규철에 따르면, 전군신자화 운동으로부터 비전2020실천운동, 그리고 비전21세기실천운동으로 이어질 진중세례는 세례 장병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례로서 나라사랑의 지름길이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중요한 통로이다.[129]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비전2020실천운동으로 대변되는 군선교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군, 그리고 한국의 청년과 한국 교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그 신앙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전2020실천운동을 이어 향후 전개할 비전21세기실천운동 역시 청년 생명을 살리고 나라사랑 복음운동이라는 본질적 사명 완수를 목표로 하여 군선교에 임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 깊이 군선교에 대한 사명을 재인식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전군신자화 운동, 비전2020실천운동에 이어 한국교회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비전21세기실천운동은 청년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사랑의 복음운동이자 민족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앙적 가치 재인식과 변혁하는 선교

'크리스토퍼 도슨'(Christopher Dawson)에 따르면, 이데올로기가 신앙과 동일한 사회적 기능을 이루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도 이데올로기는 신앙과 다르다.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일, 즉 의도적인 정치적 의지가 사회적 전통을 그것의 목적에 주조하게끔 시도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그에 비해 신앙은 인간의 세계와 그의 일들의 너머를 본다. 신앙은 인간에게 국가와 경제의 질서가 예속하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세계보다 더 높고 더 우주적인 세계를 소개한다. 신앙은 인간의 사회적인 문화의 역사적인 운명과 함께 내적 경험에 대하여 창조적이고 변화시키는 영향을 가지게 할 만한 영적 자유의 요소를 인간의 삶에 소개한다. 더불어 신앙은 타(他) 세계적이고 인간사회의 모든 가치들과 규준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종교라도 문화에 대하여 역동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사회변화의 움직임에 이끄는 힘을 제공한다.[130]

크리스토퍼 도슨에 의하면, 서방에서 영적인 힘은 중국의 유교적 국가체제와 인도인의 카스트제도처럼 성스러운 사회적 질서 속에서 비기동화(非機動化)로 고정되지 않았다. 영적인 힘은 사회적인 자유와 자발성을 획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앙의 활동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리어 신앙은 사회적이고 지적인 삶의 모든 국면에 널리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131]

따라서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은 비전21세기실천운동으로 계승하여 심화시키되 '변혁하는 선교'(transforming mission)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에 따르면, 변혁하는 선교는 '실제를 변혁시키는 활동'이다.[132]

에디 깁스에 따르면, 세계의 교회는 지금의 문화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같은 격변기에 처해 있다. 이에 교회가 거듭남

128)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편, 「미래출석교인양육교재」(2002, 5), 27.

129) 이종윤, 이규철,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39.

130) 크리스토퍼 도슨, 『선교와 서구문화의 변혁』, 채은수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9), 11.

131) *Ibid.*, 12.

132)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c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Orbis Books, 1993), 511.

의 변신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9가지 분야에서의 변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과거 회귀에서 현실 참여로, 마케팅적 모티브에서 선교적 모티브로, 관료적 계층 구조에서 사도적 네트워크로, 집단적 가르침에서 개인적 멘토링으로, 대중적 설교가에서 내면적 영성가로, 보는 예배에서 느끼는 예배로, 기다리는 전도에서 찾아가는 전도로, 수동적인 교인에서 활동적인 신자로, 닫힌 공동체에서 열린 공동체로"의 변혁이다.[133] 이런 점에서 에디 깁스의 주장을 모두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비전21세기실천운동의 강력한 구동을 위해서는 참고할 점이 많다고 사료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한국 군선교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앙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비전21세기실천운동으로 계승하고 변혁시키는 지속적 필요성이 군선교에 헌신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요구된다.

셋째, 비전21세기실천운동을 위한 선교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성공적인 비전21세기실천운동을 위해 선교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데이튼'(Edward R. Dayton)과 '프래저'(David A. Fraser)는 선교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집약한다. 첫째, 선교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성령의 뜻을 찾게끔 만들어 준다. 둘째, 선교전략은 미래를 미리 예언하게 하는 시도이다. 셋째, 선교전략은 우리들의 의도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넷째, 선교전략은 방향성의 전체적 감각을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응집력

133) 에디 깁스, *op. cit.*, 10-11.

을 준다.[134]

데이튼과 프래저의 강조처럼 비전2020실천운동을 계승 발전시켜 변혁하는 군선교를 이루도록 하는 비전21세기실천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실질적인 군선교전략은 매우 필요하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제시한 비전2020실천운동과 비전21세기실천운동의 핵심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표1. 비전2020실천운동과 비전21세기실천운동 비교〉[135]

구분	비전2020실천운동 (1998–2020년)	비전21세기실천운동 (2021년 이후)
기한	202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목표	3,700만 기독교신자의 나라건설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전략	〈역할분담/고전 3: 6–9/지속〉 – 바울: 군인교회 (전도세례) – 아볼로: 일반회원교회 (후원)	〈ABC 3–Pr원리 적용(보완)〉 – 열렬한 기도(Ardent Prayer) – 성경적 설교(Biblical Preaching) –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Consistent Program)
전술	전도·세례·양육·연결 (4대 전술)	전도·세례·정착·양육·연결 (5대 전술)
전략부대	훈련소·신교대·교육사·훈련단 (지속)	대대급교회 부흥강조 (보완) 수세자의 자대정착
주체 (군현장)	군종목사	군종목사 + 군선교사
신자 카드	녹색카드	한국교회 교적부와 지역교회 연결카드 이원화

134) Edward R. Dayton, and David A. Fraser, *A Planning Strategy for World Evangelization* (Michigan: Eerdmans Pub. Co., 1980), 16-17.

135)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사역 전략/전술 보완사항 비교," 「제47차 정기총회 보고서 · 회의안」(2018) 75.

구분	비전2020실천운동 (1998–2020년)	비전21세기실천운동 (2021년 이후)
지역 교회 연결	9:1 비율로 부대주소 없는 상태로 연결	100% 부대주소 있는 녹색카드만 연결 백색카드(부대주소 없음)는 희망하는 교회만 연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웰컴티켓, 웰컴패스포트 시행
특기 사항	⊙ 2020년 이후에는 '비전21세기 실천운동'으로 명명함(현재는 비전2020 실천운동).	

이종윤과 이규철에 의하면, 비전2020실천운동과 비전21세기실천운동은 상호 분리된 별개의 선교전략이 아니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2020실천운동을 보완하여 전진하는 바 한국교회에 매우 합당하고 훌륭한 선교전략이다.[136] 이에 이종윤은 군선교사역의 성공적인 진척을 위해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음 다섯 가지 과제를 인식하고 함께 마음과 지혜와 열정을 모아나가자고 제안한다.

> 첫째, 우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연합을 해야 한다. 연합은 우리의 증거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를 참회하고 불필요한 중복은 피하며 진리와 예배, 거룩과 선교에서 깊은 연합을 찾도록 해야 한다.
> 둘째, 복음의 가견성(可見性)을 드러내야 한다. 개인적인 삶과 지역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야 한다.
> 셋째, 복음의 절대적 명료성을 증거함으로써 상대주의나 다원주의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한다.
> 넷째, 복음사역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다섯째, 복음증거자들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상을 섬기는 자로 나서야 한다.[137]

136) 이종윤, 이규철,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34.

성공적인 비전21세기실천운동을 위해 이종윤이 「군선교신학」의 제 논문에서 투사한 선교적 통찰과 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변혁시켜 전심으로 군선교 현장에 총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선교전략적 네트워크 강화는 필요하다.

넷째, 복음의 접촉점 강화와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의 영성 함양

급변하는 군선교의 환경에서도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로 하여금 복음의 접촉점(the point of contact)을 깊게 형성하는 강력한 영성 함양이 필요하다.

복음의 접촉점은 기독교 복음 전달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헨드릭 크래머'(Hendrik Kraemer)는 "신자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불신자들의 가슴과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이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138]

'김은수'는 선교적 확산의 방안을 강구할 때 선교적 접촉점과 관련한 세 가지 원리를 조언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문화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여야 한다. 셋째, 텍스트(text)를 해석함에 있어 컨텍스트(context)와 창조적 관계구조를 가져야

137) 이종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 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하여," 44.

138) Hendrik Kraemer, *The Christian Message in a Non-Christian Religions* (Grand Rapids: Kregel Pub., 1977), 137.

한다.[139]

'데이비드 키타리'(David Kitari)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현존 자체가 바로 증거이기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 현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키타리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전도를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롬 15: 18) 복음의 전도자들 또한 사회의 구체적 상황 속에 참여하면서 전도하여야 한다.[140]

이에 이종윤과 이규철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本)처럼 군종목사와 신자장병들이 병영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현존하는 복음의 접촉점 형성을 통해 무수한 장병들이 이들의 삶의 현존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크리스천의 헌신적 현존을 역설한다.[141]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선교현장에의 헌신적 현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의 삶인 영성을 강화하되,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평화'하는 일상의 영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기채에 따르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유형에서 무형으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강함에서 유함으로'의 세 가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변화는 성령이 주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중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 적용할 수 있다면 개인과 사회에 혁명과 같은 삶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139) 김은수, "선교확산을 위한 동양종교와 기독교의 접촉점 연구-도교(道敎)와 불교(佛敎)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0)3 (2014), 60-63.

140) David Kitari, "Theology of Presence, Dialogue, and Proclamation,"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 1975.), 116-117.

141) 이종윤, 이규철,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40.

것으로 전망한다.[142]

특히 2020년 벽두부터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코로나19의 범람에 의해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언택트(untact)의 상황[143]에서도 여전히 국방에 힘쓰는 국군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음의 접촉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의 헌신적 현존으로써만 가능한 일이라 사료된다. 이에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제 사역(설교, 기도, 교육, 상담, 윤리)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복음의 진전을 이루도록 개인적 영성을 진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후원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군선교사역 현장에서 비전21세기실천운동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고 섬겨 나가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개인적 영성 또한 날마다 새롭게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여"(딤전 4: 7)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딤전 4: 12)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HEART**운동**

이종윤과 이규철에 의하면,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비전21세기실천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HEART)을 품는 동기에 기초한다. 이종윤과 이규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HEART)을 품

142) 한기채, 『심층혁명의 영성』 (서울: 두란노, 2015), 12. 한기채에 의하면, 사회나 신앙생활에서 최근의 변화 트렌드는 '행위(Doing)에서 존재(Being)로, 소유(Possess)에서 소통(Access)으로, 성공(Success)에서 의미(Significance)로, 속도(Speed)에서 방향(Direction)으로, 성장(Gross)에서 성숙(Mature)으로, 사업(Business)에서 사역(Ministry)으로, 좋음(Good)에서 위대함(Great)으로, 부흥(Revival)에서 변혁(Transformation)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변화의 물결을 타면서 선도해 가지 않으면 떠밀려 나가게 된다. *Ibid.*, 331.

143) 〈https://blog.naver.com/amoayhwh/221996258754〉

는 운동을 소위 'HEART운동'으로 명명하면서, 이 HEART운동의 핵심 요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144)]

H Honoring God ……
(예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E Equipping the Saints ……
(제자) 모든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A Awakening the Next Generations ……
(차세대) 다음세대를 깨워 리더로 세우는 것

R Restoring Relationship ……
(섬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T Taking the Gospel to All Nations ……
(선교)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

이종윤과 이규철에 따르면, HEART운동과 함께 성공적인 비전21세기실천운동을 위해 한국교회와 군선교 현장과의 유기적인 강력한 '중보기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145)] 아울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교회는 이단의 군내 침투를 방어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또한 강화하여 주의 사랑스러운 양들을 돌보는 일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은 비전21세기실천운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타 종교와의 원만한 관계 구축에도 힘을 기울이는 세심한 노력도 필요하다.[146)] 복음의 전진을 위해 구원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144) 이종윤, 이규철,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44.

145) *Ibid.*, 41-42.

146) *Ibid.*, 42.

의 HEART를 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4. 나가는 말

이상에서 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살피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인 비전21세기실천운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주지의 사실인 바, 2020년까지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진행한 비전2020실천운동은 '복음 전도, 진중 세례, 세례 장병 양육, 그리고 일반교회와의 결연'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역동적 전진이다. 이어 한국교회는 2021년부터 진행할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비전21세기실천운동'으로 명명하여 군선교를 통해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웅대한 선교 비전 아래 전진하고자 한다.

비전2020실천운동에 이어 비전21세기실천운동이 펼쳐질 군선교 현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요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기존의 전통적 통념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4차 산업혁명의 이름 아래 파급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군선교의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비전2020실천운동에서 그래왔듯이, 군선교의 비전과 복음에의 섬김을 다하고자 하는 주의 청지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총 아래 한국교회가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다하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통전적 능동적 변혁을 이루어간다면, 비전21세기실천운동 또한 능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마 6: 10)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바로 이 거룩한 비전21세기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상수(常數)가 되는 이종윤 박사의 군선교에 관한 신학적 통찰은 매우 풍부한 자양분이 되고 시사점을 준다고 사료된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기독교가 한국 제1의 종교가 되는 열매를 맺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 함께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비전21세기실천운동을 통해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실 줄 분명히 믿고 감사드린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사(聖事)가 더욱 왕성하도록 군선교 현장의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MCF, 기독군인가족 성도, 군종병,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HEART)을 품고 하나 되어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

청년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사랑 복음운동으로서의 비전21세기실천운동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적과 추구 열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거룩한 구속사(heilsgeschite)이기 때문이다. 비전2020실천운동에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인 비전21세기실천운동에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20) 말씀하신다.

Abstract

Suggestions for the Post-Vision 2020 Movement: Focusing on Dr. Jong Yun Lee's Theological Insights on Military Mission

Kyu Chul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Dr. Jong Yun Lee's theological insights on military missions, and based on this, make a suggestion for the Vision 21st Century Movement, a Post-Vision 2020 Movement.

The reason why Dr. Jong Yun Lee's 23 papers published in Journal of Military Mission Theology is that his theological reflection is a constant that still gives effective theological reflection not only in the Vision 2020 Movement, but also in promoting the Post-Vision 2020 Movement.

The military mission field where the vision 21st century movement will take place will maximize the ripple effect of postmodernism.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environment of military missions will not be easy. However, as in the Vision 2020 Movement, if the stewards of the Lord who are committed to the vision of the military mission and serving the Gospel are armed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and unite the Korean Church under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o achieve a total and active transformation, the Vision 21st Century Movement will be implemented. The movement is also predicted to be capable of "God's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done in heaven"(Matthew 6: 10).

The Vision 21st Century Movement is a holy history of redemption (Heilsgeschite) that must be accomplished and progressed in a continuum of the purpose and pursuit of the Vision 2020 Movement.

Key Words

Dr. Jong Yun Lee, Military Mission, Vision 2020 Movement, Vision 21st Century Movement, Transforming Mission

화해의 공공신학과 군선교의 과제

The Public Theology of Reconciliation and Military Evangelism's Challenges

» 강찬영 Ph.D.*

국문초록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따갑다.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이 억울하면서도, 교회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하게 된다. 교회는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만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교회의 공공성 문제이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왕국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본회퍼와 칼 바르트의 시대도 혼란의 시기였다. 나치즘이 창궐하고,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열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갈등의 시대에, 본회퍼와 칼 바르트는 신학적으로 자기 시대의 문제에 직면한다. 교의학에서 출발하여 사회윤리의 자리로 나아간 본회퍼도, 사회윤리에서 출발하여 교의학에 뿌리를 내린 바르트도, 현장과 동떨어진 현학적인 신학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고민을 통해 자신의 신학을 전개해 나간다. 물론 그들의 신학적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노력 자체는 일종의 공공신학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들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화해론적인 접근은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공신학적인 통찰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본회퍼와 칼 바르트의 윤리학을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화해의 공공신학을 통한 군선교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심단어

본회퍼, 칼 바르트, 윤리학, 공공신학, 군선교

• 논문 투고일: 2020년 10월 6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7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7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육군3사관학교 충성대교회, 기독교윤리학 박사과정 수료

1. 들어가는 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기 대구 신천지의 집단감염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교계는 이단과의 분명한 선긋기를 통해 신천지에 대한 반사회적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이단에 대한 부정적 국민정서와 관련해 여러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신천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과 안타까운 오해들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명하려는 시도조차 공격받을 정도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금 들여다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1)]

과거에 비해 한국교회는 대사회적인 관계형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교회의 향한 사회의 시선이 달라진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보여준, 지나친 개인적 영성추구, 기복주의, 교회의 정치세력화 등으로 인해, 교회를 향한 사회의 인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신정국가인 고대 이스라엘이나 기독교 주도의 중세 유럽이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난 세월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삶의 자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군선교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선교는

1) 이도영,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233-236. 이 책의 부제는 "한국교회, 공교회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망한다"이다.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선교가 아니다. 군선교는 한국교회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시대를 넘어설 수 없다. 군선교는 언제나 그 시대의 군선교다. 용사들의 인권이나 자유가 간과되었던 시절의 군선교와 지금이 같을 수 없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통념이 긍정적인 시대나 무관심의 시대, 아니 무관심을 넘어 적대적인 시대의 군선교는 새로운 도전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교회는 대결과 분열의 아이콘처럼 비쳐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오해받고 고난받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진영논리로 인해 나뉘어 싸우고 있는데, 교회가 거기에서 자유롭기는커녕,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교회가 분열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사회를 향해 외쳐야 할 주제는 무엇보다 분열을 뛰어넘는 화해이고, 이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장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공공신학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논자는 본회퍼(Dietrich Bonhceffer)와 칼 바르트(Karl Barth)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공공성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격변의 시기를 살았던 두 신학자들에게 공공성은 절대 무관심의 영역이 될 수 없었다.[2)] 오히려 공적인 영역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의

2) 고재길, "신학의 공공성과 교회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 본회퍼의 신학을 중심으로,"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서울: 킹덤북스, 2010), 290-291. 그리스도, 교회, 세상은 서로 모여서 본회퍼 전체의 신학의 중심을 구성한다. 개별적인 신학의 주제가 본회퍼의 특별한 삶의 정황 속에서 더 많이 강조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주제는 본회퍼의 신학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이처럼 본회퍼의 신학은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에 근거해 있는 것이다.

중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물론 그들의 신학적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목과 진영논리로 가득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의 고민을 통해,[3] 우리 시대를 향한 화해의 공공신학과 관련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군선교의 고민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회퍼와 바르트의 윤리학적 특징

1) 본회퍼 윤리학의 특징

본회퍼의 주요 저서에 속하는 『기독교 윤리』는 완성작이 아니다. 수년에 걸친 그의 단편들을 모아 그의 사후에 출판된 것이다. 그러나 본회퍼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윤리학의 완성이라고 말했다[4]는 점에서 윤리학은 그의 신학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본회퍼의 윤리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으나, 그의 윤리는 일종의 책임윤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회퍼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부활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인간의 책임을 말한다. 본회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현실을 강조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타협의 접점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3) 본회퍼와 칼 바르트는 여러 번의 만남을 가졌으며, 많은 서신들을 남겼다. 특히 본회퍼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도 그의 편지였다. 본회퍼가 독일로 간 것은 바르트가 촉구했던 것처럼, 그가 독일인이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에버하르트 베트게,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113. 그리고 본회퍼의 주변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던 시기에도 그들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Gerhard Ludwig Müller ed. *Dietrich Bonhoeffer works*, translated from the German edition: v. 16. Conspiracy and imprisonment: 1940-1945 (Ausburg: Fortress Press, 2006), 110(p. 190), 158(p. 274), 160(p. 276), 161(p. 277).

4) 디이트리히 본회퍼,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11.

물론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타자를 위한 인간(교회)'을 이야기하는 본회퍼의 윤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종의 윤리적 부담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5]을 받기도 하지만 어쩌면 대사회적인 비난과 오해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꼭 필요한 고민과 접근방식일 수 있다.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본회퍼의 윤리를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본회퍼의 윤리는 이원론(二元論)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있다. 그는 세상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성과 속 등을 나누는 것을 비판한다.[6] 본회퍼는 이미 선악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에서 근원으로부터 타락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윤리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중에 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윤리는 결국 인간의 자아가 현실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7] 그는 두 영역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세계의 현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실"[8]에 참여함으로 극복된다고 말했다.

둘째, 본회퍼는 철저하게 기독론적인 윤리를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형성'(Gestaltu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예수

5) 고재길, 『본회퍼, 한국교회에 말하다』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2), 32-33.

6) 본회퍼, 『기독교윤리』, 170.

7) 고재길, 99.

8) 본회퍼, 『기독교윤리』, 169.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서 모습을 취하시는 것이다.[9] 본회퍼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에 기초해 하나의 형성적 행위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의 형성화와 거기에 상응하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관계가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단지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였다.[10]

셋째, 본회퍼의 윤리는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을 통합하는 윤리이다. 교회의 역사 속에는 종말론적인 포기와 종말을 지연시키는 현실주의적인 삶의 입장이 일종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회퍼는 궁극을 위해 급진적으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미완의 삶을 타협적으로 살아가는 것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삶에 대한 긍정의 태도를 불러올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현실성을 제약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11] 본회퍼는 새로운 윤리적 논거를 통해서 인간의 현실과 관련하여 불신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자연적인 것'의 개념을 복음으로 다시 회

9) 본회퍼, 『기독교윤리』, 72-74. 그리스도께서 현실의 인간이 되시고, 그렇게 함으로 모든 인간적인 현실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습에 따른 형성이란 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이며 동일한 것으로 일반적인 이념이 아니라 오직 일회적인 것,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은 유지되고, 이렇게 하여 현실의 인간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받는 것이다.

10) 본회퍼, 『행위와 존재-조직신학 내에서의 초월철학과 존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34.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 안에서 인격으로 계시하신다. 공동체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세상의 종말을 위하여 재정된다.

11) 박충구, 『기독교윤리사 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32-234. 본회퍼에게 있어서 궁극의 것은 이미 궁극 이전의 것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속에서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에 의하여 규정되고 평가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화해되었다는 관점과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복했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구원의 현실이고,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을 통합하는 것임을 주장했다.[12]

2) 칼 바르트 윤리학의 특징

바르트는 교의학과 윤리학을 구분하여 다루지 않고 교의학 안에서 윤리적 주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윤리학에 대한 바르트의 관심은 간과되기 쉽다. 하지만 바르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교의학'은 윤리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13]

흔히 알려진 것처럼, 바르트는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칸트의 윤리학에 있어서 선과 악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가능케 하는 이성이었다. 그는 이성을 통해 선악의 문제, 행동의 문제까지 언급하는데, 칸트의 영향을 받은 바르트 또한 선과 악이 문제 되기 전에 선과 악이 비로소 인식되는 궁극적인 근거와 소재를 밝히려고 노력했다.[14] 이를 통해 그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윤리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물론 칸트가 궁극적인 근거를 이성에다가 두었다면, 바르트는 그리스도(그리스도 사실)에 두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제하지 않은,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

12) 본회퍼, 『기독교윤리』, 123-125.

13) 바르트는 교의학은 필연적으로 윤리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교의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2, 793.

14) 필립 워거만, 『기독교 윤리학의 역사』, 임성빈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395-396.

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윤리적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일반윤리학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기독교 윤리는 단지 이성에서 출발할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념이 아니고 가장 구체적이며, 실존적인 사실로 윤리의 해결점이었다. 결국 바르트의 결론은 어떠한 특수한 그리고 자립적인(독립적인) 교회적인 윤리학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15)]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라 불리는 신학적 경향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려 한다. 바르트는 슐라이에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이후 독일 신학자들의 교의학과 윤리학의 분리로 인한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했다. 바르트는 신앙과 행위는 다 같이 그리스도께 들어야 하는 것이었다.[16)] 교의학과 윤리학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되는데, 적어도 듣는다는 의미에서는 교의학이 우선적이다. 먼저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기에, 바르트의 윤리학은 그의 교의학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바르트에게 있어서 교의학의 중심과 윤리학의 중심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집중되어 있다.

바르트에게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실존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은 물론 행위에도 동시에 관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신앙과 행위를 가져오는 것은 인간 존재이고, 하

15) "교의학은 곧 윤리학이고 윤리학은 곧 교의학이다." 바르트는 기독교 윤리학이란 독립적 인간학이 아니라, 신학 또는 교의학의 제목이라고 말한다. 만약 윤리학이 어떻게 바른 행동을 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이는 인간 실존의 문제인데, 인간이란 사고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실존)하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Karl Barth, *Word of God and the Word of Man* (Harper & Row, 1957), 142.

16) 칼 바르트,『바르트 교의학개요』, 정경연 역 (서울: 한신대출판부, 1989), 26.

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기에, 바르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실존에 선행하며, 이러한 실존의 문제에 미리부터 책임을 지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근원이었기에, 바르트에게 교의학은 윤리학일 수밖에 없었다. 교의학적 변증과 그것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실존'에도 관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17)]

이와 같은 바르트의 윤리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8)]

첫째,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윤리이다.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했다. 존재론적으로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정한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바르트에게 그리스도 없는 윤리는 의미를 논하기 이전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둘째, 바르트는 윤리와 관련하여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이해했다. 그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즉 관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격리된 인간 속에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바르트는 인간에 대해 하나님을 위한 인간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 그의 동료들을 위한 존재로 이해한다. 그는 예수님의 인간성이 가지는 함축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님의 인간성은 1)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의미, 2) 그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의 함축, 3) 그의 동료 인간들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종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의미, 4)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

17) 윤성범,『칼 바르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212-213.

18) 맹용길,『하나님의 명령과 현실: 칼 바르트의 신학적 윤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이 책은 맹용길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다.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책임의 윤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바르트의 윤리는 결의론(Casuistry)을 지양하고 있다. 결의론에는 항상 율법주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윤리이론들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바르트의 윤리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요소를 가진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상황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초대 또는 하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결의론적인 대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경험적 상황에서 결단해야 한다.[19]

3. 본회퍼와 바르트의 윤리학 비교

1) 본회퍼와 바르트의 윤리학적 공통점

본회퍼의 윤리사상은 많은 부분에서 바르트와 닮아 있다. 두 사람 모두 윤리적인 규범으로서의 '절대적인 것'이나 '보편타당적인 것'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20] 바르트는 물론 본회퍼의 윤리학

19) 물론 이러한 부분이 상황윤리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박봉랑, "찬미의 윤리: 칼 바르트의『교회교의학』제1권에 나타난 신학적 윤리 서론",『신학연구』vol 16. (1974), 213.

20) 정초주의에 관련하여 바르트를 이해할 때 두 가지 방식의 정초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 내에서 자명한 인식의 토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인식 능력을 넘어서 자명한 인식의 토대가 있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내재적인' 정초주의라고 부르고, 후자를 '초월적인' 정초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바르트는 내재적인 정초주의는 거부하나 초월적인 정초주의는 거부하지 않는다. 바르트 신학에는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foundation)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신학의 가능 조건인 이러한 토대는 인간의 경험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으로 환원될 수도 없고, 인간이 보기에 자명한 것이나, 인간의 인식의 토대가 될 수도 있는 그 어떤 주어진 것(the given)으로도 결코 환원될 수 없다. 바르트에게는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신이 바로 인식의 토대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르트의 신학은 '초월적인' 정초주의라고 파악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William S. Johnson, *The Mystery of God: Karl Barth and the Postmodern Foundations of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184-185 참조.

에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선과 악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 책임적 인간은 인간이나 환경이나 원칙의 뒷받침을 받지 않으나, 주어진 인간적, 일반적, 원칙적 조건들을 잘 고려함으로써 자기의 자아의 자유 안에서 행동한다.…그 자신이 행동의 동기, 전망, 가치와 의미를 음미해야 한다. 그러나 의도하는 행동의 동기의 순수성, 적절한 환경이나 가치나 그 중요한 의미도 그의 행위를 지배하는 율법, 즉 그가 거기로 돌아오고 권위 있는 자로서 거기에 호소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사죄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그러한 율법이 될 수는 없다.[21]

그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책임 가운데 행동한다는 것은, 자유 가운데 행동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처럼 본회퍼와 바르트는 윤리가 천편일률적인 확정된 원칙에 지배되지 않고 주어진 정황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인간의 행동을 어떠한 보편적인 원리나 규범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실과 결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원리에서 시작해서 구체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참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와 관련된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인간은 선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참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해, 책임의 행동을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율법의 완전한 성취자가 되신 것이다. 본회퍼의 윤리는 철저하게 그

21) 본회퍼,『기독교윤리』, 215.

리스도 중심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르트와 일치한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행동이란 결코 성문화된 율법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다.

본회퍼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Nachfolge/Discipleship*)』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무엇이며, 이것이 율법적인 행위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며 강조하고 있다.[22] 바르트의 윤리에서도 '성화'가 중요한데, 바르트는 『교회교의학』 제4권 제2부의 '인간의 성화'를 다른 부분에서, 본회퍼의 '본받음에의 부름'(The Call to Discipleship)이라는 말을 그대로 본떠서 좀 더 자세히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23] 바르트는 성화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로마서 강해에서 그는 로마서 1: 5(믿어 순종케 하나니)을, 믿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는 것으로, 칭의는 다시금 성화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말한다.[24]

2) 본회퍼와 바르트의 윤리학적 차이점

본회퍼와 바르트는 신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한 사람은 교의학에, 다른 한 사람은 윤리학에 중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본회퍼의 전기를 쓴 베트게는 바르트는 사회윤리에서 출발해서 목회를 거쳐 교의학자가 된 반면에 본회퍼는 교의학에서 출발해서 목회를 거쳐 사회윤리로 끝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25] 그런데 두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는 것에는 아무 의심이 없을 것이다. 물론 바르트는 그리스도를 출발점에서 보고, 본회퍼는 그를 종착점

22) 본회퍼, 『나를 따르라』,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39-46.

23)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V/2, 533-534.

24) 칼 바르트, 『로마서 강해』, 조남홍 역 (서울: 한들, 1997), 3-10.

25) 윤성범, 186.

으로 보았다는 차이점은 있다. 즉 전자는 그리스도를 '칭의'에서, 후자는 '성화'에서 보았다는 것이다.[26]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은, 본회퍼의 '세속화론'이나 '비종교화론' 등의 영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회퍼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곧 세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과 육의 대립과 분열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계명은 명령이 되고, 이는 율법의 명령과 다를 것이 없었다.

> 원리로 이해되는 그리스도교는 고립되며, 세상을 향해 강요되는 율법으로 이해된다. 산상설교는 모든 세상 행동의 율법으로 선언된다. 그것은 국가의 법을 대신한다. 군복무, 맹세, 소유의 철폐는 그 자명한 결과다. 이러한 모든 시도가 현실적 세상에 부딪쳐 실패할 때,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세상이 이제는 원리적으로 이해되기에 이른다. 세상의 법은 그리스도교의 법보다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제는 그리스도교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원리적 권리를 갖게 된다. 세상적인 일, 곧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모든 행동에서 그리스도교는 아무런 입지를 갖지 못한다. 오히려 여기서 세상의 자율성이 지배하게 된다.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특별한-교회적, 종교적, 개인적-영역에 속하게 되며, 오직 이 영역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열광주의와 세속주의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러한 오류를 받아들인 두 가지 형태다. 이 둘은 배타적인 대립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교와 세상을 원리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와 세상을 성육신과 무관하게 이해한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27]

26) 윤성범, 219.

27) 본회퍼, 『윤리학』, 282. 이 인용문은 '역사와 선(제1판)' 장(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본회퍼의 윤리학 번역서 초판인 『기독교윤리』에는 내용이 없었으나, 2010년 전면개정판 『윤리학』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회퍼는 바르트와 입장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교의학자였던 바르트의 한계였을 것이다. 본회퍼는 '성숙된 사회'가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세계이지만, 바르트와 같이 대립된 이원론적인 세계로 보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계시'와 '이성'을 하나로 합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불신앙의 세계요, 하나님 없는 세계로 계시와 대립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28] 이로 인해 율법은 단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 실천될 수 있다. 따라서 율법적인 명령준수가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결단적인 행동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본회퍼는 바르트의 '신앙의 유비' 혹은 '관계의 유비'를 좀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된다.[29]

이는 루터의 사상과 맥을 같이하는데, 루터(Martin Luther)는 두 왕국론을 통해 하늘과 땅, 믿음과 이성, 영과 육,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 질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 즉 복음과 율법으로 구분한다. 물론 이 두 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일된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만 그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중요한 문제였다.[30] 즉 루터에게나 본회퍼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대로만 있게 되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믿음은 결실을 많이 거두어

28) 본회퍼, 『기독교윤리』, 174. 본회퍼에게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세계였고, 현실은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에 의해 존속하고, 화해된 현실로 이해되었다.

29) 윤성범, 220-221.

30) 마틴 루터, "크리스찬의 자유," 『종교개혁 3대 논문』, 지원용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3), 271-347.

야 하며, 생명적이고, 활동적이고, 사업적이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주방에서, 농토에서, 공장에서, 군대나 학원에서, 재판장이나 시나 정부기관 등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해야만 했다.[31]

4. 본회퍼와 바르트의 공공신학

1) 그리스도 중심의 공공신학

바르트와 본회퍼의 신학에서 가장 큰 특징이고 공통점이라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다. 특히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은 공공신학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공신학이란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32]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과 타자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본회퍼는 그리스도론에 입각하여 타자의 윤리를 전개한다.[33]

31) 본회퍼, 『기독교윤리』, 220-221. 본회퍼는 소명이란 세상 제반 질서의 성화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예리한 항거를 내포하는 것이며, 루터가 수도원으로부터 세상 즉 소명으로의 귀환은 원시 기독교 이래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고 평가한다. 그에게 소명이란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고 책임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한다.

32) 이와 관련해서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었는데,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로 도식화하여,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그가 밝힌 것처럼, 이러한 구분 자체가 매우 인위적이며 꼭 들어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유용한 입장임이 분명하다. 니버는 결론적으로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모델을 제시하였고, 많은 공감을 얻어냈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로 대표되는 재세례파 계열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예수의 정치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공공성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리처드 마우(Richard Mouw)와 같이 변혁적 관점에서, 세상 속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누구 하나가 맞고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33) 이상철, "타자를 향한 서로 다른 포물선," 『제3시대』 Vol. 23, 24, (2011), 41-48 참고. 저자는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레비나스의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이 드러날 때 겨우 열리는 초월의 벽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공동체의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횡적 연대를 도모할 여

일반적으로 본회퍼는 신학과 삶을 통해 신앙과 사회적 책임이 분리될 수 없음을 증명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루터의 '두 왕국론'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거나,[34] 나치즘(Nazism)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악을 방관했던 당시의 교회현실에 맞서, 사회적 책임은 신앙의 영역과 함께해야 함을 강조했다.[35] 본회퍼 신학의 출발점은 언제나 현실이었다. 인간은 추상적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관계 속에 있는 존재였고, 그리스도는 그 관계의 중심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의 현실 속에, 모든 인간은 하나로 모이게 된다. 본회퍼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현실성과 세계의 현실성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 기독교 윤리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이 그 피조물 가운데서 실현되어 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교의학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성이 참되냐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과 같다. 다른 모든 윤리에 있어서는 당위와 존재, 이념과 실현, 동기와 결과의 대립에 의해 그 특징이 드러나지만, 기독교윤리에서는 현실과 현실화, 과거와 현재, 역사와 사건(신앙)의 관계나 애매한 개념들을 사건의 불분명한 이름으로 대치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가 문제된다. 선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는 문제가 된다.[36]

이처럼 본회퍼의 윤리학은 칸트 이후 서구의,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거부했고, 동시대 라인홀드 니버의 분열된 현실인식도 부정했다. 본회퍼에게 있어서 윤리란 인간의 의지나 정신의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존재의 윤리가 아니었고, 업적이나 성과를 중요시하는 행위의 윤리도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윤리의 주체는 그리스도와 그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였는데, 이들은 타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존재였다. 이처럼 본회퍼의 윤리는 어떤 의미에서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 타자를 위한 윤리는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의 본질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37]

본회퍼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가운데 침묵하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38] 이는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하나님(신) 이해이자, 이를 통해 본회퍼

지를 본회퍼의 윤리사상에서 찾고자 한다.

34) 본회퍼에 따르면 신루터주의자들의 "두 영역의 사고"는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이다. 두 영역의 사고방식은 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사이의 적대적 대립의 관계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원칙은 기독교적인 것과 비기독교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등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두 영역의 사고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전체"로서의 새로운 "현실"에 대한 인식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 고재길, 『본회퍼, 한국교회에 말하다』, 100.

35) 에릭 메택시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 순교자, 예언자, 스파이』, 김순혁 역 (서울: 포이에마, 2011), 254-262. 본회퍼는 당시의 교회를 "새로운 나치 종교"라고 평가한다. 국가교회는 쉽게 말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종교로 전락하였다. '나의 투쟁'이 성서였고, 히틀러가 그리스도였으며, 유대교적인 모든 것이 제거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루터교도였지만, 루터의 정신은 없었다. 자유주의신학의 영향으로 성경의 권위는 사라졌고, 국가와 권력의 권위만이 남았다. 더 이상 독일의 교회는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

36) 본회퍼, 『기독교윤리』, 163.

37) 본회퍼, 『기독교윤리』, 174. 본회퍼에게 교회의 과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무엇이나, 경건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종교기관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다.

38) 본회퍼는 하나님의 초월을 피안의 초월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삶의 한가운데 있는 초월을 말하였고, 하나님의 전능을 그의 권력과 지배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무기력함과 약함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사랑의 전능으로 이해하였다. 강성영, 『생명 · 문화 · 윤리: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주제탐구』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6), 238.

는 비로소 본인의 윤리적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본회퍼의 '십자가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대리'(Deputyship)이다. 본회퍼는『기독교윤리』에서 책임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의 책임윤리를 그리스도론으로 설명했는데, 책임적인 삶의 형태가 '속박'과 '자유'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정된다고 주장했다. '구속'(Obligation)은 '대리'(Deputyship)와 '현실적응성'(Correspondence with reality)이라는 이름으로, '자유'(freedom)는 '생활과 행동의 자기음미'(The self-examination of life and action)와 '구체적인 결단의 모험'(The venture of a concrete decision)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본회퍼는 책임이 대리행위를 근거로 생겨난다고 보았고,[39] 본인의 사상을 지탱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생명 자체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대신 사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그가 대신 산 삶(대리적인 삶)이다. 예수는 결코 스스로가 완전성에 도달하려고 한 단독자가 아니라, 단지 자신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나(das ich)를 받아들이고 감당하신 분으로 사신 것이다. 그의 생활, 행위, 노력의 전체는 대리(Deputyship)이다. 인간이 살고, 행동하고 괴로워해야 할 것이 그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의 인간적인 실존을 형성하고 있는 이 진실한 대리의 행위에서 그는 책임을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모든 생명은 대리된 것으로 규정된다.[40]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적 타자인 하나님께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신(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인간은 타자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신의 신다움이 보장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리를 통

39) 본회퍼,『기독교윤리』, 193.

40) 본회퍼,『기독교윤리』, 194-195.

해 양자 간에 극복될 수 없었던 타자성은 극복될 수 있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대리적 죽음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철저히 '타자를 위한 존재'로 규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은 인간의 전존재의 전환이 일어나는 경험과, 예수님께서 오직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경험이다. 예수님이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죽기까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에 관여하는 일이다(성육신, 십자가, 부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최고의 존재에 대한 종교적 관계라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존재'인 예수님과 관련된 새로운 삶이었다.[41]

이처럼 본회퍼의 그리스도 중심 신학은 결국 타자를 향한 신학이며, 이는 세상을 향한 교회론으로 나아가게 된다. 본회퍼는 인간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에 바탕을 둔 관계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기독교인과 그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 문제에 무관심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결국 개인적인 것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는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 없었다.

> 명백한 태도 결정을 피하는 자는 사적인 덕행에 피난처를 찾게 된다. 그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자기 능력에 따라 선을 행한다. 그러나 그는 공적인 책임성을 고의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자기를 투쟁에서 건져 주는 허락된 한계를 지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 앞에 눈과 귀를 닫지 않을 수 없게 된다.[42]

41) 본회퍼.『옥중서신』, 고범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29.

42) 본회퍼,『기독교윤리』, 58.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분열과 오해의 시대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중심주의라고 해서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화해와 구원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복음의 배타성으로 인해 많은 비난과 오해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 같은 것이다. 평화를 위해 복음(진리)을 포기할 수는 없다. 배타성은 진리의 속성이고, 교회는 오랜 세월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 하지만 배타성을 표현(표출)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적 관용이 아니라, 배타성을 드러내는 태도적인 관용은 복음을 통한 참된 화해의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43)]

본회퍼와 바르트는 그리스도 중심의 윤리학(신학)을 펼쳐 나갔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동시에 세상에 대한 고려도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변화시키고자 고민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고민과 노력은 이 시대의 공공신학의 그것과 맞닿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본회퍼의 화해론과 공공신학

본회퍼는 그의 화해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전개했다.[44)] 먼저, 본회퍼

43) 김영한, "변혁주의적 종교대화 신학을 향하여," 『한국개혁신학논문집』 18 (2005), 13-32. 김영한은 "선교적 동기를 상실치 아니하면서 타 종교 신자들에 대하여 열린 태도로 만나고 경청하고 증언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44) 심광섭, "문명들의 충돌과 화해," 『신학과 세계』 46 (2003), 36-38 참조.

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히틀러에 의해 자행된 인간경멸의 맥락에서 설명한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은 완벽한 세계, 도덕적으로 선한 세계, 종교적으로 경건한 세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인간, 세계의 현실, 현실적인 세계와 인간을 받아들인 행위였다.

>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세계를 사랑한다.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를 사랑한다. 우리가 혐오할 것은 우리를 고통과 적대관계로 끌고 가는 세계가 가진 하나님에의 반역이다. 현실의 인간, 현실의 세계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사랑의 근거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깊이 그것들과 관계한다. 하나님은 인간, 현실의 인간이 된다.[45)]

이러한 받아들임은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히틀러(Adolf Hitler)와 같은 독재자에 의해 한편으로는 인간이 경멸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우상화되는 참혹한 역사 가운데 실천되었다. 독재자 히틀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경멸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실 앞에서 독재자에 대한 인간 경멸은 물론이고, 선한 인간에 대한 경멸도 존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회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은 모든 현실을 용납하는 사건이었다.[46)]

둘째, 본회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공이 우상화된 시대의 맥락에서 설명한다. 독재자 히틀러는 세계 정복의 야욕에 불타 있었

45) 본회퍼, 『기독교윤리』, 61.

46) 본회퍼, 『기독교윤리』, 63.

고,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도덕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의도 정당화되는 시대였고, 성공을 선으로 믿었기에, 본회퍼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모습은 성공이 만물의 척도이고 의인으로 생각되는 세계에는 낯설고 기껏해야 연민의 가치밖에는 없는 것이다."[47]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성공주의의 사고를 무너뜨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성공자를 변호하거나, 패배자에게 저항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만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셋째, 본회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나치 시대의 죽음의 우상화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독재자에 의한 우상화와 폭력을 무력화시키고, 저항과 극복을 통해 '궁극적인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활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궁극 이전의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들은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 제한된 권리를 죽음에게 넘겨준다. 그러나 인간들은 오직 죽음 저편, 죽음을 이긴 힘으로부터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세계를 기대한다."[48]

본회퍼가 화해론을 전개했던 나치즘 치하의 독일의 상황은 참담했다. 당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47) 본회퍼, 『기독교윤리』, 65.

48) 본회퍼, 『기독교윤리』, 68.

이었다. 하지만 본회퍼는 성공신학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전개하면서, 갈라진 것들의 화해를 촉구했다. 특히 본회퍼는 그리스도께서는 화해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묶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어쩌면 이러한 본회퍼의 화해론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신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으로 그의 공공신학적 화해의 윤리를 전개해 나간 것이다. 앞의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회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타인을 위한 존재로 인식했고, 이러한 입장은 그의 화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3) 바르트의 화해론과 공공신학

바르트의 『교회교의학』은 미완성작이다. 만년에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원론을 집필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의 화해론은 그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회퍼 역사적 맥락이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면, 바르트 화해론의 역사적 맥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불거진 유럽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문제였다. 바르트는 자신이 화해론을 작성했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나는 우선 정치적인 문제에 다가갔다. 정치적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이 이미 삶의 초기에도 쉬운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십 년 동안 광범위한 어려움에 휩싸였다. 무엇이 일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무엇을 경험하였나?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나 역시 참여하고 그리고 나를 그늘지게 했던 동-서-물음(Ost-West-Frage)이었다."[49]

바르트는 동구의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

49) 심광섭, 38.

된 시대현실에 대해 학자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사람들이 자신을 숨은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독일의 재무장을 반대하며 제3의 길을 걸어갔고, 이런 이유로 양 진영에서 공격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르트는 자신의 시대 가운데 평화를 세우기 위하여, 실존적인 고민 속에서 신학적인 작업으로 화해론을 풀어 나갔다. 사실 그가 화해론을 써내려간 맥락 자체가 일종의 공공신학적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대의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고민과 실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의 공공신학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르트는 자신의 화해론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네 가지 차원(의미)을 이야기하고 있다.[50]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는 심판자'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하여 전적인 심판자가 됨으로써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불의에 대하여 눈먼 인간을 고발하고 심판하신다. 이러한 인간이란 전쟁을 만물의 아버지로 삼는 인간이다. 그들은 동-서 대립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선악을 뚜렷한 기준으로 삼아 만물을 판단한다. 그리고 또한 국가주의적인 절대주의, 혹은 이데올로기적이거나 테크놀로지로 옷 입은 절대주의의 모습으로 무법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는 심판자'는 인간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줌으로써, 인간은 심판의 직무로부터 완전

50) 심광섭, 39-42 참조.

히 벗어나야 함을 보여주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는 심판자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은 심판자'이다. 십자가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수 사랑을 드러낸 사건이다. 교회공동체는 이 사건으로부터 '동-서 갈등'(Ost-West-Konflikt)의 냉전 속에서도 '동-서 사이'(Zwischen Ost und West)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바르트 시대의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와 절대적 원수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수행된 화해의 시각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다가 예수를 반대하였음에도 예수는 유다를 위하셨다. 그리스도는 독재자를 반대하고 제거하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다. 만약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기독교인이 적대국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면,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은 심판자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심판자'이다. 이는 십자가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이다. 십자가는 세상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심판자의 사건이며, 세상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다. 보편적인 심판을 포기하신 심판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화해를 위해 자신의 전존재를 내어주셨다. 이런 차원에서 바르트가 자신의 시대에 적법한 위기에서조차 대량살상무기의 개입과 사용을 용인하지 않은 것과 정의, 평화, 자유를 섬기고 지킨다는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51]

51) 물론 바르트도 국가의 존립 혹은 자율성과 관련된 위협과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전

마지막으로 **넷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행하는 심판자'이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신 메시아는 구약을 성취하며,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정의와 언약을 실행하는 존재이다. 십자가로 드러난 메시아는 기독교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회적인 불의와 억압에 맞서 인간의 권리, 평화, 자유와 질서를 이루기 위해 싸우는 정의로운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바르트의 화해론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 시대의 공공신학이 추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르트의 신학을 맥락적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신학의 자료를 계시로부터만 찾는 것도 아니요(정통주의), 경험을 계시로 환원하는 길(자유주의)도 아니요, 경험과 계시를 상관적으로 관계시키는 방법도 아닌, 계시가 경험에서 경험과 함께 진리임을 드러내 보이는 방식이었다. 물론 그러한 방법론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바르트의 신학은 상황의 분석과 관련된, 상황의 요청에 책임적으로 응답한다는 의미에서 맥락신학이며, 그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르트와 본회퍼를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당시에 공공신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어떤 공공신학보다도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놓고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공적인 신학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나치즘 치하의 본회퍼는 물론이고, 동서갈등 속에서 공산주의자라는 오해와 비판을 받았던 바르트의 상황 또한 그러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세

쟁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II/4, 461.

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교회왕국주의로 대변되는 한국교회의 지난 세월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세대를 통합하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우리들에게 본회퍼와 바르트의 고민과 접근방식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5. 나가는 말

칼 바르트와 본회퍼를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지나친 비약이라 말할 수도 있다. 사실 바르트는 그 방대한 저서의 난해함으로 인해,[52] 본회퍼는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에 한 가지를 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처럼, 격동의 시기를 살아낸 두 사람의 사상 속에는 시대를 향한, 교회 밖 세상을 향한 깊은 고민과 처절한 몸부림이 묻어 있고, 이는 공공신학이라 말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생각한다.

52) 벌까워(Berkouwer)와 같이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바르트의 신학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W. B. Eerdmans, 1956); Hunsinger는 바르트와 관련하여 6가지 중심 주제를 명시화하는데, 이는 현실주의, 개별주의, 객관주의, 인격주의, 사실주의, 이성주의이다. *How to read Karl Barth: the shape of his the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그리고 바르트를 포스트모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존슨(William S. Johnson)은 바르트가 포스트모던한 신학의 선구자격이라고 평한다. *The Mystery of God: Karl Barth and the Postmodern Foundationsof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존슨과는 달리 바르트를 포스트모던하게 보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오승성은 그래엄 워드(Graham Ward)가 바르트를 포스트모던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를 포스트모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개연성과 독창성은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초월적인 관점에서이긴 하지만 정초주의의 입장에 서 있고, 실재론을 받아들이는 신학자라는 점이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신비이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토대로서 신학의 가능성의 담보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는 실재론과 내재적 정초주의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포스트모던한 외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오승성, "그래엄 워드(Graham Ward)의 포스트모던한 칼 바르트(Karl Barth)," 『장신논단』 43 (2011), 133-155.

사실 지금의 공공신학에 비해 그들의 고민은 훨씬 깊은 차원의 것이다. 공공신학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변혁을 위한 영향력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교회 밖의 사람들과 공적인 공간에서 함께 만나 그들에게 기독교의 독특함을 전할 기회를 시도하려는 점에서는 매우 유용하고 의미 있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은 일종의 패권주의로 흐를 가능성까지 보인다.[53] 이런 상황에서 칼 바르트와 본회퍼와 같이 본질적인 논의는 한국교회를 위한 귀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시도들을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성찰하고 있다. 예배 공동체를 자처했던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면서, 이 땅의 교회는 공동체의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보다 더욱더 중요한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상상만 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시대의 군선교는 첫째, 그리스도 중심의 화해의 군선교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본회퍼와 바르트는 첨예한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 특히 다종교적인 환경에서 군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군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한 군선교의 현장이지만,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적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과 동시에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는 물량주의적 접근으로 군선교를 감당했지만, 앞으로의 변화된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타인을 위한(향한) 교회의 모습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화해의 공공신학으로서의 군선교 또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군선교를 도구주의적으로 바라보던 과거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군선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가 세상과 만나는 방식은 오로지 선교나 전도였지 다른 것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와 교회 성장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낳은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인정할 수 없지만 용납해야만 하는 교회 밖의 세계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응 방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는 추락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두된 것이 교회의 공공성 문제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공성의 개념, 공공성과 교회의 관계설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없었다. 그저 공공성에 막연한 관심을 가지는 데만 만족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저 공공성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었을 뿐, 유행하는 교회성장학을 따르는 교회의 근본적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종의 도구주의(Instrumentalism)[54]로 전락해 버렸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방식의 선교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더 이상 효과적일 수

53) 공공성 회복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논의가 자칫 공공 영역에서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아 오려는 것이라면, 오히려 신학의 사적 측면만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공공신학이 기독교의 공적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기독교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석환, "한국 공공신학의 실천과제로서의 문화변혁," 『기독교사회윤리』 17 (2009), 113.

54) 강인철, 『종교와 군대: 군종, 황금어장의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서울: 현실문화, 2017), 181-185.

도 없다.

셋째, 군선교의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사실 공공성 논의라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시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건전한 신학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교리적인 기초가 분명한, 성경적 신학의 관점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출발한 균형잡힌 교회관을 통해 교회의 공공성 논의는 적절하고 정당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너무 현학적으로 보이는 공공신학의 논의가 마케팅주의와 문화전쟁 이론과 같은 복음주의권의 연약함과 결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공공성 개념 정립과 일반적인 공공성 개념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노력이 쉽지는 않다. 군선교를 대표하는 군선교연합회(군종교구)가 많은 교단의 연합기구라고 하는 태생적 한계는 물론이고, 매년 학술지가 발간되고 심포지엄이 개최되고는 있지만 군선교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사실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생소하고 어색하며,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성에 대한 시대적 부름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이러한 논의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군선교의 현장 안에 공공성에 대한 고려와 실천으로 가득 차고, 이로 인해 군선교의 미래가 더욱 더 밝아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blic Theology of Reconciliation and Military Evangelism's Challenges

Chan Young Kang

COVID-19 has negatively affected the appraisal of the Korean Church in Korean society to a significant extent. Rampant misunderstanding and ill-informed speculation about the Korean Church created a deplorable situation therefor, yet it attests to the degraded status of the Korean Church. The Church seems to be in the midst of conflict. In order to achieve a breakthrough in this crisis, it is imperative that the Church be concerned with securing its publicity. The Church needs to outgrow 'Ecclesiasticism' and actively pursue the mission of salt and light for the world.

Dietrich Bonhoeffer and Karl Barth were confronted by the problems of their time, a tumultuous period of confusion, in which Nazism prevailed and ideological dissension went to extremes. Both Bonhoeffer, who started with dogmatics and went into social ethics, and Barth, who started from social ethics and took root in dogmatics, developed their theological ideation through careful consideration and examination of their here-and-now life scenes, instead of contemplating on abstract, pedantic theology remote from the realities of life. While the details of their ideas may cause disagreement, Bonhoeffer and Barth core effort can be translated as pursuit of public theology. Especially, the Christ-centric, reconciliatory approach adopted by Bonhoeffer and Barth provides insights into public theory for us—those who are undergoing

the age of deep divisions.

This paper analyzes the ethics of Bonhoeffer and Barth from the public theological perspective, and thereby examines the 'Military Evangelism' mission through public theology of reconcil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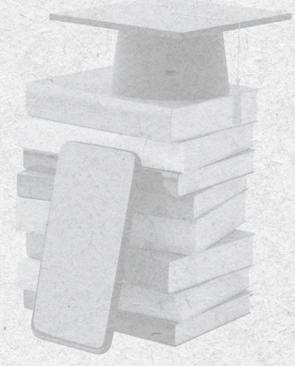
Key Words

Dietrich Bonhoeffer, Karl Barth, Ethics, Public Theology, Military Evangelism

일반논문

존 로스의 요한복음 7: 53-8: 11 삭제 비판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 탁명진 |



존 로스의 요한복음 7: 53-8: 11 삭제 비판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John Ross' Criticism of the Deletion of John 7: 53–8: 11
–Focusing on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 탁명진 목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대한 사본학적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에, 본문에 대한 성경적 입장에서의 신학적 평가를 하고, 존 로스의 요한복음 7: 53–8: 11 삭제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로스는 '간음한 여인 이야기'(7: 53–8: 11)가 진정성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는 한글 역본이 완전히 새로운 번역이므로 개역자들처럼 이 구절들을 생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신약연구에서 이 본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중심단어

존 로스, 요한복음 7: 53–8: 11, 사본학, 교의학, 성령의 조명

• 논문 투고일: 2020년 9월 17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9월 23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9월 29일
* 안양대학교 역사신학 박사과정 수료

1. 들어가는 말

신약성경 27권은 넓은 다양성을 지닌 주제들과 인물, 문학형태 및 업적, 역사적 배경, 목적 등을 반영하여 각 권마다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육신화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1] 그리스도[2]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해 독특한 사례를 제시해 놓았다. 본고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또한 다른 복음서에는 드러나지 않은 독특한 내용으로서 소위 '간음한 여인 이야기'[3]란 주제로 알려져 있다. 이 본문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죄 혹은 원죄가 있으니, 다른 죄인을 비난하고 죄를 물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은 초기 교회 당시 가장 많이 회람되고 가장 빈번하게 구두와 문서로 전해졌을 뿐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상 단일 본문으로서 가장 많이 읽힌 본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표류하는 전승'(floating tradition) 또는 '표류하는 본문'(floating text)으로 불리고 있다. 성경 66권으로 정경이 확립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4]

논자는 이 점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본문이 전한 메시지를 재조

1) '예수'란 이름은 여호수아(Jehoshua)란 이름의 희랍어 형으로 이 이름은 '구원하다'(to save)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 루이스 벌코프, 『基督敎神學槪論』,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8), 161.

2)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the anointed one)라는 뜻으로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말이다. *Ibid*.

3) 이 부분은 본론에서 전개할 내용으로 원문과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요한복음서의 사본 중에서 오래된 사본들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즉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초기 사본에는 등장하지 않는 성경구절이다.

4) 김형근, "예수의 무정죄(non-condemnation)선언: 용서인가?-'간음한 여인 이야기'(요한복음 7: 53-8: 11), 그 장구한 표류의 역사," 「신약연구」 12 (2013), 547-548.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 사상을 재인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자는 먼저 사본학적 가치와 신학적 평가를 전개한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가 중국 만주 지역에 파송한 '존 로스'(John Ross, 1842-1915) 선교사가 1882년부터 1887년까지 한글 복음서와 신약성경을 최초로 번역함에 있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을 삭제한 것에 대한 신학적 비판을 하려고 한다. 이로써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기록된 성경은 정경으로 확립된 이후 절대 가감할 수 없다는 신학적 강조점을 재인식하고자 한다.[5]

2. 요한복음 7: 53–8: 11의 사본학적 가치와 신학적 평가

1) 요한복음 7: 53-8: 11의 사본학적 가치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은 예수님 당시의 지배계층과 충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7장 후반부 끝에서부터 시작되어 8장 11절에서 마무리된 내용에서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6]가 간음현장에서 잡혀온 여인(Pericole de adultera)[7]을 용서하신 사건이 등장한다.[8]

5) 필자가 이렇게 강조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과제를 복음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신현수, "영적 갱신의 본질," 「복음과 신학」 7 (2004), 40-44.

6)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성육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변증하기 위한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로버트 H. 거쓰리, 『신약개론』, 김일우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7), 191.

7)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대중의 관계를 기록하였다. *Ibid*., 195.

8)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역사적 전기를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마침내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메시아의 표적인 이적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다. 저자 사도 요한의 이 책 저작 동기는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이 하나

개정개역판 한글성경에 보면 이 구절과 관련해 꺾쇠 괄호(〔 〕)로 표시하였다. 이 표시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이다. 대략 3세기 이전 사본에는 없었고 이후 사본에서 발견된다.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적절한지는 특정 사본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학자들에 따르면, 실제 있었던 사건은 분명한데,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가 명확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9)]

비록 오래된 사본에는 빠져 있지만 내증 특히 문맥을 고려하여, 이 단락이 요한복음의 내러티브(narrative)[10)]에 적합하다면 요한복음의 한 부분처럼 간주하여 다룰 만한 가치는 있다. 하지만 이 단락의 문맥 역시 논란거리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 단락이 요한복음 7-8장의 자연스런 내러티브 전개를 방해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단락이 없더라도 7: 1에서 시작된 '초막절 내러티브'의 흐름은 8: 59까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7: 37-39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8: 12이 시작될 때 무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있다. 하지만 요한복음 8: 9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도 떠난 채 홀로 남아 계셨다. 따라서 이 단락은 독립적으로 구

님의 나라의 선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차별화이다. 요한은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신성종, 『新約總論』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120-124.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생이다. 즉 성자 안에 생명이 있고(1: 4), '영생의 말씀'이 있으며(6: 68),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11: 25; 14: 6). 오성종, "사도 요한의 영성," 기독교학술원 제53회 월례기도회 및 발표회, 「기독일보」 2016. 4. 1.

9) 사본학은 사본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사본학은 본문비평이라고도 하는데 학자는 메츠거(Bruce M. Metzger), 벵겔(J. A. Bengel) 등이 있다. 변종길, 「개혁신학과 교회」 6 (1996), 67-94; ilitantatheism.tistory.com/28

10) 내러티브는 문맥에 따라 서사체, 이야기, 이야기하기, 담론, 담화 등 다양한 의미로 변역될 수 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서의 내러티브는 이야기 또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전되다 단편으로 보존되었고, 그 후 복음서의 여러 군데에 첨가되고 삭제되는 과정을 거치다가, 누군가에 의해 요한복음에 최종적으로 첨가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11)] 이로 인해 사본학적 가치로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현우'에 의하면, 사본학은 잃어버린 '원문'을 찾아내는 숭고한 작업이다. 신현우에 따르면, '원문'은 성경이고, 그 성경이 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는 거룩한 책이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원문을 찾는 사본학적 작업은 영감에 찬 열정이다.[12)]

교회사적 관점에서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추론가능하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념과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 왔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심으로 당시의 지도자들과 충돌을 일으키셨기 때문이다.[13)]

어거스틴(St. Augustine)[14)]은 일부 신약성경의 사본이 이 본문을 생략한 이유는 도덕주의적인 혐오 때문이라고 하였다.

> 그렇지만 이 같은 용서의 행위는 어떤 나약한 신자들이나 불신자들과 기독교 신앙의 적들의 마음에 충격을 준다.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로 인한 형벌을 주지 않은 뒤에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그 복음서 사본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간음을 행한 그 여

11) 송영목, "간음하다 잡힌 여자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신약연구」 12 (2013), 521.

12) 신현우의 신약학 세상, 〈https: //m.cafe.daum.net/snts/F0ea/5.〉

13) 〈https: //alkods.tistory.com/entry/간음하다가-붙잡힌-여인요753-811에-대한-사본학적-근거〉 2020년 9월 4일에 접속한 내용을 기초로 본 글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함. - https://sheffieldkoreanchurch.org/xe/s02_2/7221

14) 어거스틴(St. Augustine)은 『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을 저술하였다. 그는 북아프리카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다가 430년 8월 28일(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규철, "게르만족의 침략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군선교, 청년」 16 (2017), 244.

> 인을 용서하셨다는 부분을 떼어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15]

이 기사는 초기 그리스어 사본들 중 5세기의 그리스어 사본인 D에 포함되어 있다. 이후 제롬(Jerome)에 의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된 많은 사본들의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라틴어 번역 성경인 불가타 성경의 번역자 제롬은 이 기사를 참 본문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라틴 벌게이트에 이 본문을 포함시켰다.

초기 그리스어 사본들에 이 기사가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디다스칼리아(Didascalia)'와 또 이 디다스칼리아의 기초가 된 '사도들의 헌장'에 이 부분이 인용되었다.

>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여인을 처리하신 것처럼 하리라…장로들이 그녀를 주님 앞에 데려와 주님의 손에 심판을 맡기고 떠나가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물어 이르시되 "딸아, 장로들이 너를 정죄했느냐?" 하시니 여인이 그분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주님', 하매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거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16]

이 두 개의 문서에서 감독들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도록 권유를 받고 있다. 이러한 청원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성경

15) 정동수,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요 7: 53-8: 11)에 대한 사본학적 근거," Vienna, vol. xxxxi, 387. 재인용; 에드워즈 힐 '킹 제임스 성경변호', 149-158.

16) *Didascalia Apostolorum*, tr., R. Hugh Connolly (Oxford: Clarendon Press, 1929), 76. Funk, *Didascalia et Constitutiones Apostolorum*, vol. 1, 92. 〈https://alkods.tistory.com/entry/%EA%B0%84%EC%9D%8C%ED%95%98%EB%8B%A4%EA%B0%80-%EB%B6%99%EC%9E%A1%ED%9E%8C-%EC%97%AC%EC%9D%B8%EC%9A%94753-811%EC%97%90-%EB%8C%80%ED%95%9C-%EC%82%AC%EB%B3%B8%ED%95%99%EC%A0%81-%EA%B7%BC%EA%B1%B0

구절이 인용된 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최고에 이른다. 그래서 티센도르프(Tischendorf)는 이 인용문이 요한복음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며 "비록 '사도들의 헌장'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의 기록자가 요한이라고 실제로 거론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이 이야기의 유래를 다른 출처에서 찾으려 한다면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17]

고영렬에 따르면, 다른 비평가들은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히브리 복음'에서 인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논의의 전 과정이 구약과 신약의 정경에서 증거로 다뤄지고 있는데 정경을 버리고 위경을 찾는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2) 요한복음 7: 53-8: 11의 신학적 가치

최근 학자들은 이 단락을 어거스틴 이래로 전통적인 관점이 되어 온 사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보다는 선지자 직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송영목에 의하면, 이 단락은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복음 7장 52절과 8장 12절 사이에 첨가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다. 송영목에 의하면, 이 단락은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8: 14 이하에서 다루는 '심판'(판단, kri,sij)에 관한 주제의 발판으로 간주된다(요 7: 51). 아울러 요한이 이 단락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직분 가운데 특별히 '선지자직'에 대한 논란을 다룬다는 사실(요 7: 40, 41, 42, 46, 52)을 추가로 언급함에 있어,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미가 5: 2에 근거하

17) 고영렬, "간음하다 잡힌 여인(요 7: 53-8: 11)에 대한 사본학적 연구," 「신약논단」 (2014), 131-135.

여 갈릴리에서는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비교. 요 1: 45).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았다(요 7: 27). 이런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사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보다 선지자 직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18]

그런데 요한복음 7: 53-8: 11에 대해 내러티브(narrative)[19]적으로 접근하면 다르게 볼 수 있다. 요한복음 7: 53부터 8: 11에서는 문학적 차원에서 '문맥'이 강조되었다. 문맥의 강조는 본문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본문이 속한 문맥의 의미와 일치에 따른 성경해석학적 기본 원리에 의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해석은 문학적 문맥(literary context)과 일관되고 있느냐"[20]의 관점에서 성경해석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7: 52과 8: 12은 "요한복음의 문학적 문맥과 일관성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되짚어 볼 수 있다. 곧 본문이 위치한 요한복음 초반부의 문맥을 살펴보고 문맥 연구의 범주 구조로 보면 된다.

본문은 인접문맥에서 각 권의 문맥으로, 저자의 저작들은 전체 문맥에서 관련된 신구약 문맥으로, 성경 전체 문맥으로 이어지는 문맥 연구의 범주 구조[21]에서 인접문맥과 요한복음의 각 권의 범주까지로 내용적으로 구분해 확정해 볼 수 있다.

18) 송영목, "간음하다 잡힌 여자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522.

19) 내러티브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사건, 인물, 배경을 플롯과 줄거리 등 서사구조로 표현하는 말이나 글이다. 내러티브는 '다시 계산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narrare에서 유래했다.

20) 윌리엄 클라인 외 지음, 『성경해석학 총론』, 류호경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315.

21) *Ibid.*, 324-325.

이 본문은 내러티브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볼 때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4단계 구조로 서술되었다. 내러티브의 발단(7: 53-8: 3)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일상(눅 21: 37-38)을 묘사하는 상황 묘사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관과 의례에 적대적인 예수의 사역, 즉 가난한자들과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은 자들에 대한 예수의 동정심,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이해되었던 바 의식법들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예수님과 그들과의 식탁교제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이다.[22]

평소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실제 죄인인 간음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절정(8: 7-9)의 도입인 7절에서 이들이 끈질기게 답변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비로소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대답하시곤 다시 무관심하신 듯 땅에 낙서를 하셨다. 이 대답에 대하여 '너희 중 범죄의 생각도 해본 일이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해석하는 경우, 즉 단순히 보편적인 뜻에서 모든 인간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간음죄는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근거하여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내적 간음자라는 해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23]

또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저희'들은 양심에 가책을 받아 어른들

22) 비슬리-머리 지음, 『WBC 성경주석 36. 요한복음』, 이덕신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311.

23) 아라이 사사구 지음, 『신약성서의 여성관』, 김윤옥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316; 류형기 편, 『성서주해 3』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75), 867; 비슬리-머리, *op. cit.*, 313.

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 나가 버렸다. 그 현장에 남아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간음죄로 끌려온 여인 둘뿐이다. 여기서 성전 안에서 가르침을 듣던 청중들의 존재를 화자가 전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문학적인 기법으로 의도적으로 화자와 청자의 1: 1 구도를 사용하는 이역의 규칙[24]을 사용했다는 것과 청중 자체를 이미 전제함으로써 간음한 여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 청중들이 가르침의 잠재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독자와 내레이터에 대한 내러티브 비평의 분석의 틀[25]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본문에서의 내레이터는 예수님이며, 의미상의 독자(혹은 청자)는 여인이지만, 실제 독자는 그 주변을 둘러싼 청중들과 본문을 읽는 후대의 '독자'까지도 전부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은 단순히 여인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닌 실제 독자들을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말의 핵심은 8장 11절에 있다.

내러티브를 읽는 자신들 역시 죄인에 속함을 알게 되었던 실제 독자들은 11절에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죄 사함의 메시지를 읽게 된다. 이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의 내러티브와의 연관성으로 이해된다.[26] 11절에 대한 해석은 요한복음 5: 14에서도 문자적으로도 일치한다. 이 내러티브를 통해 오직

24) 이상훈,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요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35.

25) 윌리엄 클라인 외, *op. cit.*, 831.

26) 11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후대 교부들에 의한 교회의 삽입이라는 견해가 있다. Jurgen Becker, *Das Evangelium nach Johannes, Okumenischer Taschenbuchkommnetar zum Neuen Testament Band* 4/1, Herausgegeben von Erich Graber und Karl Kertelge, Gutersloher Verlagsjhaus, Ger Mohn, 1979, 285; 최영실, "'간음죄로 고발당한 여인'을 위한 변론", 「기독교 사상」 446 (1995), 16 재인용.

하나님에게만 속한 죄 사함의 권한이 예수님에게도 속해 있으며, 그렇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이라는 요한복음에서의 성육신(成肉身) 신학을 이해할 수 있다.

기독론적 의미에서 성육신 신학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신 말씀에서 출발한다. 성육신이란 요한복음 1: 14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을 의미한다. 이 말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요 1: 1). 요한은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다(요 1: 3)고 고백하였다. 또한 이 말씀은 참 빛이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다.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을 알리는 성육신의 사건인 것이다. 즉 성육신의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곧 자기를 비워 모든 조건에서 인간과 같이 되신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빌 2: 6-8). 그러므로 성육신은 신학적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지음을 받은 존재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27]

3. 존 로스의 요한복음 7: 53–8: 11 삭제 비판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다룬 요한복음의 이해를 바탕으로 존 로스의 성경 번역과정의 일부 내용 삭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한다.

27) 장경철, "성육신의 신학적 의미," 월간 「교육교회」 95, 11월호; 〈http: //m.blog.daum.net/hopeyard/8545?np_nil_b=-2.〉

1) 로스의 성경번역과 역사적 공헌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羅約翰, 1842-1915)는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선교사이자 학자로 알려져 있다. 스코틀랜드장로교회의 선교사로 부름 받아 중국 선교사로 파송 받은 로스는 1872년 중국에 도착하여 중국어 공부에 힘쓴 결과 중국어로 설교하면서 선교에 나섰다. 그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이 개항되었다는 소식에 자극을 받아 그해 4월 '고려문'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에서 로스는 한국어 교사를 구하고 의주의 상인 이응찬을 만나 봉천에서 선교를 위한 한국어를 공부하였다. 1878년에 로스는 이응찬과 한국인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 조선인에게 읽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번역을 하였다.[28] 그는 1882년 5월에 『요한복음』을 출판하였다.[29]

그러나 훗날 언더우드에 의해 로스의 신약전서의 한글번역은 서울에서는 쓸모없고 북한지역과 번역이 이루어진 만주 한인촌 지역에서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30] 그렇게 된 것은 지방성(地方性) 때문에 한국 전역에서 통용될 수 없다는 점, 한문(漢文)투의 번역이 많다는 점, 그리고 번역(飜譯)의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더우드를 위시한 적지 않은 한국 선교사들은 로스역본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한글성서를 새롭게 번역하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뜻을 모으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한글성서번역위원회'를 구성하는 1887년 이후 약 6년에 걸쳐 '로스역본 논쟁'을 겪었으며, 1893년에 이르러는 로스역본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 한글성서번역위원회의 후신인 상임성서실행위원회는 새로운 한글성서의 번역 작업에 착수하여 마침내 1900년에 한글 신약성경 임시본의 출판을 보게 된다.[31]

후대로 오면서 로스역본은 신약성서의 최초 및 완역이라는 점 때문에 극찬을 받기도 하였지만, 역본의 내용적인 면에서 불완전한 역본으로 비판받기도 하였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의 성경번역이 극찬을 받은 이유는 학자에 따라 다소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로스가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 하며, 한글로 쓰인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한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와 함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속해 있던 윌리엄슨 목사가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펼쳤다는 소식과 토마스 목사가 선교를 하는 중에 대동강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한국선교 열의에 감동하여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33] 이 과정에서 로스는 상인 이응찬을 만나 그에게 한국말을 배워 1877년에 한글 문법책 *Corean Primer*를 펴냈다.[34]

또한 존 로스는 한국을 문명화와 기독교화의 대상이 아닌, 오랜

28)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2015), 101-103.

29)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제1권, 이만열 · 옥성득 편역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120.

30) *Ibid.*, 33.

31) 박형신, "'로스역본'(Ross Version) 논쟁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9 (2017), 87에서 재인용.

32) *Ibid.*

33) 김상준, "로스(J. Ross)역 한글성경의 역사적 의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6-8.

34) *Ibid.*, 8-9.

역사와 높은 수준의 문화를 지닌 독립국가로 여겨서 전통적인 선교 활동 대신 한국을 이해하는 학문활동에 힘을 쏟았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사』를 펴냈다. 이 책은 서양 언어로 기록된 최초의 한국 역사책이다. 서양에서는 한동안 한국사 교과서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로스는 선교본부로부터 선교의 방법론에 대해 심한 질책을 받으면서도 서양인 최초로 『한국사』라는 책을 영어로 집필했다.[35] 그는 기독교 신앙이 그 나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당시 선교본부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한국사』를 저술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자는 로스의 성경번역의 역사적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

2) 성경번역 과정에서 문헌 삭제

로스의 성경번역은 선교사로 활동하던 자신이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자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들만의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로스가 진행했던 다수의 낱권으로 된 성경번역 가운데 요한복음의 번역과정에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로스는 1883년 번역된 『요한복음』에서 그리스어 역본의 읽기를 그대로 채용하면서 '간음한 여인 이야기'의 구절을 삭제했다.[36]

35) 권태경 · 허은철,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의 역사이해," 『神學指南』 323 (2015), 267-289. 로스는 1879년 첫 안식년을 맞아 귀국하고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를 통해 그해에 『한국사』라는 책을 펴냈다. 1879년은 한국에서 서양에 대해 문호개방을 하지 않았을 때라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 로스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선교관점은 당대의 보편적인 선교철학과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36)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요 7: 53-8: 11은 초기 파피루스 사본을 포함한 주요 사본들에 나타나지 않으며, 이 이야기를 처음 요 7: 52과 8: 12 사이에 포함시킨 서방계열

간음한 여인 이야기는 비록 그 진정성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지만 신빙성이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한글 역본이 완전히 새로운 번역이므로 저는 개역자들처럼 이 구절들을 생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37]

〈그림 1. 로스의 요한복음 한글번역〉[38]

의 베자 사본은 주후 40년 경에 이르러서야 기록되었다. D. C. Parker, *Codex Beza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48-49.

37) "1883년 1월 24일 로스가 라이트 박사에게 보낸 편지," 옥성득 &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대한성서공회, 2004). 〈http: //egloos.zum.com/bhang813/v/1875987〉

38) 〈http: //egloos.zum.com/bhang813/v/1875987〉 2020년 9월 5일 접속.

로스는 성경번역 작업에서 나름대로의 성경적 안목을 갖고, 당시 새로이 확정된 그리스어 본문에 준하여 번역을 시도하였다. 그는 사본학적 배경을 갖고 당시 한국에 내한해 있던 선교사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작업에 임했을 것으로 사료된다.[39]

하지만 로스는 편집한 1882년『예수셩교요안닉복음젼셔』초판(1882)에서 소위 '간음한 여인 이야기'(Adulteress Pericope)로 불리는 요한복음 7: 53에서 8: 11까지를 삭제하였다.『예수셩교요안닉복음젼셔』초판에서 로스는 단순하게 기존에 번역되었던 중국어 문리역본이나 북경관 화역본, 영어 역본들, 또는 역사적인 그리스어성서 개정역본 가운데 바로 전(前)해에 옥스퍼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발행되었던 역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이 연구가 살펴본 문헌적 증거들은 로스가 사본비평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로스는 성경번역의 원칙에서 그리스어 용어들을 음역하는 등 그리스어 성경원문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원칙을 세우고, 요한복음 초판에서는 시내 산 사본(the Codex Sinaiticus)의 본문을 따라 '간음한 여인 이야기'를 삭제하였다.[40] 이는 주해를 첨가한 옥스퍼드 판

39) 로스의 번역 작업에서의 문제는 평안도 방언으로 한국말을 옮겼다는 것이다. 이후 로스는 1885년 다시 출판 된 요한복음에서 수정하여 전통적인 본문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장절의 구분을 받아들이고 전통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전에 빠졌던 부분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을 복원하였다. 상임성서위원회가 1889년에 로스 역본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완역 신약성서 개정본은 나오지 않았지만,『누가복음젼』(1890),『보라달로마인셔』(1890), 그리고 국한문 병용본인『約翰福音傳 요한복음젼』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 위원회에서는 이듬 해 개정본 출판을 전격적으로 포기하고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로스역본 논쟁 과정에서 장로교의 언더우드는 처음부터 새번역 출판을 주장한데 반하여, 감리교의 아펜젤러는 개정본 출판을 옹호하였고, 영국성서공회의 북중국 총무 브라이언트 역시 개정 본 출판을 적극 지지하였다. 박형신, "'로스역본'(Ross Version) 논쟁에 관한 연구", 86.

40) 이는 여러 사본들에서 요 7: 53-8: 1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혹은 요 7: 52과 8: 12 사이가 아닌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 포함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의 원판인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트(F. J. A. Hort)의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1881)과 맥락을 같이한 것이다.[41] 로스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을 위하여 당대 최선의 성서 번역본을 제공하겠다는 로스의 학문적 노력과 선교사적 열정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로스는 조선정부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전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한글 신약전서를 번역하여 1887년에 완간하고 한국인 권서를 통해 반포함으로써 미래의 선교사역을 준비하는 차선책을 선택하였다.

3) 문헌 삭제의 문제점과 신학적 비판: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존 로스는 선교사로서 한국에 내한한 미국 선교사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한국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섭렵한 로스는 당대의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문헌 삭제를 결정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정경화를 거쳐 공인된 성경을 어떻게 다시 구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 성령의 영감교리에 의해 접근해 볼 때 초기 성경번역에서 시도했던 로스의 문헌 삭제는 용인될 수 없다. 로스가 1885년 재출판된 요한복음에서는 그전에 빠졌던 부분을 다시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진리란 외부의 조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보증으로 나타날 때 모든 의심으로부터 명확해진다.[42] 이러한 명확성을 위해서는

41) 박형신, "존 로스 번역본『예수셩교요안닉복음젼셔』초판(1882)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요 7: 53-8: 11) 삭제 문제,"『韓國敎會史學會誌』43 (2016), 80.

42) 김성천, "칼빈의 설교신학에 비추어 본 총신의 설교자와 신학,"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8.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1. 8. 1, tr., Henry Beverige (Peabody Mass: Hendrickson Pub, 2008), 재인용.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illumination)은 마음을 밝혀 신령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시는 그 일들의 객관적 진실에 대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 '굿윈'(Thomas Goodwin)은 "성령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 첫째는 성령께서 새로운 지각(요일 5: 20) 즉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시며, 둘째는 성령께서 새로운 지각 위에 빛으로 오심으로 영적인 시야를 부여하신다"라고 하였다.[43]

루터(M. Luther)는 성경해석의 핵심을 성경 자체로 보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곧 해석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 감동된 사람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은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다가온다.[44] 오직 경험이 신학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경험은 일점일획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한 것을 신학과 해석을 위해 적용해야 한다. 루터는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45]

칼빈(J. Calvin)은 『기독교강요』 제7장에서 성령의 증거가 성경권위의 확립에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강조하였다. 그는 성경의 절대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완전무오성을 확고하게 여겼다.[46] 그는 성경을

43) 배본철, "성령의 조명과 내적 증거," 「크리스천투데이」 2019. 3. 22. 인터넷판.

44) 베른하르트 로제, 『마틴 루터의 신학-역사적이며 조직적으로 본 루터의 신학』, 정병국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70.

45) 파울 알투하우스, 『루터의 신학』, 이형기 역(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22.

46) 박해경, 『칼빈의 신론』 (서울: 이컴비즈넷, 2006), 158.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1장 13절에서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한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성경과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즉 성령을 통한 신앙(Faith)의 눈으로 볼 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47]

벌코프(L. Berkhof)는 칼빈의 견해를 인용하여 "성경해석에 대해 해석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성경 저자로 하여금 말하지 않게 하는 대신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48]

안명준은 성경해석과 관련 "해석자란 말씀에 대한 신성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였다. 그는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은 일시적인 느낌이나 그 속에서 말하는 신비한 계시도 아니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한 거룩한 삶을 통한 신성한 봉사사역이라고 하였다.[49]

박형용은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 신적 권위의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죄인은 자기가 생의 해석에서 병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계시는 사람의 생각 위에 존재한다고 하였다.[50]

또한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구를 인용하거나 해석할 때 실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영감 저자들로서의 권위와 관련된 사유

47) 존 칼빈, 『기독교강요』,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7), 167-168.

48) 루이스 벌코프, 『성경해석학』, 윤종호 · 송종섭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27.

49) 안명준, "종말론과 해석자," 『복음과 신학』 7 (2004), 69.

50) 박형용, 『박형용 박사 저작전집』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282.

들을 고찰해 보면 그런 단언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51]

이상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위에서 서술한 로스의 문헌 삭제는 성경의 정통성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정통 신학정신에서 그릇된 선택으로 사료된다. 기독교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으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경을 통해 신앙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다. 성경 그 자체로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관(聖經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길이 없다. 앞서 언급한 루터나 칼빈, 벌코프, 박형용 등도 성령의 의해 조명된 성경관을 철저히 견지하지 않았다면 무의미한 변론을 되풀이하였을 것이다. 즉 성령의 의해 조명되어 바르게 기록된 성경은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된다.

4. 나가는 말

로스는 1883년 1월 24일 W. 라이트(Wright) 박사에게 쓴 편지에서 요한복음 7: 53부터 8: 11에 대한 사본비평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로스의 사본비평학적 견해는 옥성득과 이만열이 편역한 자료에서 간음한 여인 이야기는 비록 그 진정성에 대한 증거가 없지는 않지만 신빙성이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여겨, 그것은 화강암 언덕을 지나가는 고운 화성암 암맥처럼 그 바탕과 아무런 동질성이 없이 문맥을 뚫고 지나간다고 보았다. 그래서 로스는 한글 역본이 완전히 새로운 번역이므로 저는 개역자들처럼 이 구절들을 생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였다.[52]

51) *Ibid.*, 356.

52) "J. Ross to W. Wright. Jan. 24, 1883." 옥성득 ·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참조를 위하여 편지의 해당 부분을 영어로 싣는다. "I have left out all words, clauses or sentences omitted in the Revised version and adopted its readings. The Revisers however seem to have shrunk from omitting the story of the woman taken in adultery(8th of John) and the conclusion of Mark's Gospel. I have left out both. That the conclusion of Mark's Gospel is an extension of and addition to the preceding verses, few students can doubt, and though the story of the woman is not without evidence as to its genuineness there is I think little doubt as to its lack of authenticity. It pierces through its context like a trap dyke through a granite hill, having no homogeneity with its bed. As the Corean is an entirely new Version I had not the same reasons to shrink from keeping out these passages as the Revisers had from putting them out." 박형신, "존 로스 번역본 『예수셩교요안닉복음젼셔』 초판(1882)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 83-84에서 재인용.

이제 논자는 로스의 사본비평학적 견해에 대해 교의학적 해석으로 비판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루터와 칼빈 등 교의학의 대가들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앞 장에서 강조한 성령의 조명에 의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자가당착적 사고에 빠져서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말씀을 무시해 버려도 좋을 만한 충고 정도의 책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견해다. 성경을 대하는 이들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머리를 숙여야 한다. 이는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믿는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바른 성경관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고자 한 것이 다 포함되었다고 믿고, 완전 영감(靈感)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Abstract

John Ross' Criticism of the Deletion of John 7: 53-8: 11 -Focusing on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Myung Jin Tak

This paper described After first looking at the basic contents of the copycatological values of John 7: 53 through 8: 11 in the Gospel of John, we made theological assessment of the text from the biblical point of view and criticized John Ross' deletion of John 7: 53-8: 11.

Ross saw that the 'The Pericope of Adulteress'(John 7: 53-8: 11) lacked credibility, although there was no evidence of authenticity. He said that there was no reason why he could not omit these phrases like translators because the Korean translation was a completely new translation. Therefore, researchers are re-examining the importance of this text in the study of new drugs.

In this paper, the book focused on the views of Augustine and Eusebius and gave theological assessment of the 'The Pericope of Adulteress'. The author also look at Ross's historical contribution to Bible translation. and The author criticized the problem of deleting the literature in a theological way, focusing on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Afterwards, he biblically described the attitude of the mind that Christians should have to have.

Key Words

John Ross, John 7: 53-8: 11, Copycatology, Church Dogmatics, Illumination Holy Spirit

부록 1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제1조 (정의)

이 규칙은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 부설기구로 조직된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이다.

제2조 (명칭)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구 : 군선교신학연구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 (소속)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에 둔다.

제4조 (목적)

1. 군선교사역을 통한 민족복음화의 전략인 비전2020실천운동을 신학(선교, 실천)적으로 정립
2. 다원종교 사회속에서의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군선교 전략 및 전술의 계속 개발 및 적용
3. 21세기 세계 종교 상황과 문명충돌 현상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군선교사역 방향확립

4.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이비 이단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
5. 실천신학 분야는 군종목사, 군종목사후보생, 군선교사(군선교 교역자), 군선교사역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6. 한국교회 성장에 군선교가 미친 영향을 역사신학적 측면에서 정립 및 미래방향 제시
7. 군선교사역이 한국교회의 21세기 청년전도의 중심 및 교회부흥을 향한 비전2020사역과 병영 및 사회에서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위한 선샤인(선한사마리아인) & It's Okay 사역의 결실을 맺도록 역할

제5조 (조직 및 임기)

1. 군선교신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실행위원장 1명, 교육위원장 1명, 일반 연구위원 등 30명 내외로 조직한다.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전체사역을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에 대행한다.
2. 분과별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정책위원, 군종목사위원
3. 연구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4. 군선교연합회 총무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5. 효율적인 학회운영을 위해서 실행위원회를 둔다.
6.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 (연구위원 선발)

1. 각 신학분야별로 초교파적으로 선임한다.
2. 본 학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선임하여 본회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7조 (실행위원회)

1. 구성 :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7개 분야별 각 1명씩 7명, 당연직 총무 1명 등 9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제8조 (교육위원회)

1. 구성 :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3명, 당연직 총무 1명 등 6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제9조 (운영방향)

1. 전체회의 : 회장이 소집한다.
   가. 정기회의는 연 1회 10월 중 소집한다.
   나.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한다.
2.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개최
   가.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 또는 사회상황에서 발생되는 핵심이슈를 정하여 개최한다.

나. 대주제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로 한다.

다. 매년 주제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3. 군선교신학 연구논문집 출판 사업

가.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도록 한다.

나. 각 분과별 연구위원들은 격년마다 1편씩 제출을 의무적으로 한다.

다. 군선교신학논문집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인 기획논문을 우선하여 논문집에 수록한다.

라. 편집 등 효율적인 출판을 위하여 제반업무는 실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4. '군선교교역자'라는 호칭을 '군선교사'와 병행하여 사용한다.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군종목사, 군선교사(군선교교역자), 군종목사후보생 등의 선교, 목회, 상담 등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제10조 업무관리

1. 본 학회와 관련한 제반적 업무관리 및 운영 등 실행은 본회의 총무와 사무국(선교팀)에서 총괄한다.
2. 본 학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구위원은 필요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3. 본 학회의 운영규칙 개정은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개정하여 본회 법인이사회 인준으로 개정한다.
4. 이단 사이비 대책

가. 군내 이단 사이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군내 이단 사이비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한다.

다. 1004군인교회 이단 사이비 기준설정 결의

① 군내 침투 이단에 대한 예방 및 대처 기준 설정

-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 중 1개 교단이라도 이단/사이비로 판명 시에는 이단으로 제재

② 교단 차원의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것을 한기총 등 연합기관에서의 상이한 조치가 나올 시에는 교단 결정사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5. 군선교 정책발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의 신학적 발전과 정책, 전략, 전술 등 발전에 책임적인 역할을 다한다.

6. 연구위원은 군선교신문, 단행본, 교계언론매체, 각종학술지 등에 군선교 관련 기고를 적극 실천한다.
7. 본 학회는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을 위하여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제반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제　　정 : 2004. 11. 19
1차개정 : 2009. 7. 27
2차개정 : 2012. 10. 23
3차개정 : 2013. 11. 18
4차개정 : 2017. 2. 2
5차개정 : 2019. 10. 31

부록 1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이하 본 학회)의 연구와 학술 활동이 군선교를 위한 신학의 정립을 모색하며, 교회의 복음전파와 신자들의 신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연구와 논문 작성 시 건전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적 선언)

1. 본 학회는 학술활동과 신앙적 양심에 책임을 다하는 연구를 지지한다.
2.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있어 날조, 위조, 표절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직, 간접적 부정행위를 배제하며 이를 부인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는 그것을 본회의 연구 발표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본 학회는 이중투고를 금지하며 공동연구에 있어 합리적 저자 배분과 공정한 권리배분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4. 본 학회는 모든 학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참여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그 연구결과가 풍성해지는 것을 지지한다.
5. 논문 작성시 '논문 제목, 필자 성명, 소속, 전공,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성명, 영문 소속, 영문 요약, 영문 주제어 6개순'의 제반 항목을 창의성 있게 충실히 완성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개인적인 제보 혹은 심사위원에 의한 확인 및 논문 검증시스템 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로 그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일차 본인에게 연구윤리의 위반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확약 받은 후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순서로 시행한다.
3. 모든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은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2012년 8월)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하며, 그 내용이 심대한 연구부정행위일 경우 정부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본 학회는 타 학술기관이나 학술 활동에서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기독교 정신과 명백하게 위배되는 쟁점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본인의 투고신청서에 윤리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확약하게 한다)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되었다는 고발이나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이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 논문의 심사에 반드시 윤리규정을 이행하였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10인 이상 회원의 요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 학회의 학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의 임시 위원회로서 그 사안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존속한다. 본 학회의 회장은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연구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와 협의, 학계의 중진 가운데서 학문의 명망이 높은 자 또는 교계의 중진 가운데서 목회의 명망이 높은 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6.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종료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내용)

1. 위원회는 해당 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모든 점에서 혐의 없음

   나. 조건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상반되지 않지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보완 후 재심사 : 기존의 연구가 상당하게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고 보완의 가능성이 있음
   라. 부결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충돌되거나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현저하게 충돌되기에 본 학회의 연구물로서 인정될 수 없음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부칙 (2016. 7. 27. 연구윤리규정 제1호)

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1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

1. 논문작성 시 주의 사항

1) 동일 필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으며,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 논문 포함)에 게재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2) 분량은 A4 용지 15~25매를 기준으로 한다.

3) 주는 각주를 사용하고 논문(발제 기고, 자유 기고)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4) 영문 제목과 영문 이름 및 영문 초록(Abstract)을 제출하되, 영문 초록은 논문의 대의와 논지가 잘 전달되도록 300단어 정도로 작성한다. 초록의 끝에는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첨부한다.

5) 주제어(Key Words)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6) 논문의 글꼴은 신명조 11호, 행간은 160%, 각주는 바탕 9호 행간 130%로 한다. 용지 여백은 좌/우 30, 위 20, 아래 15로 한다.

7) 게재 원고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제목 (2) 필자명(간략한 프로필) (3) 논문 본문 (4) 참고문헌 (5) 영문 초록 (6) 주제어(Key Words)

8) 투고 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제1저자 및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그 소속을 명기한다.

9) 논문 작성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투레비안'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참고〉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 6th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10) 원고 접수처는 아래와 같으며, 원고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 E-mail: meak2020@hanmail.net

11) 투고된 논문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심사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군선교신학」 논문집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의 실례

1) 단행본[1)]

<단행본의 기본 표기 양식>

국내서적	N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외국서적	N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저자 1인의 경우>

N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 교 출판부, 1998), 97.

B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 아래에서 N은 각주를, B는 참고문헌을 각각 의미한다. 한글 서적 표기는 '아래 한글'의 'Ctrl F10'을 누른 후 '반각기호(도형)'에 들어가, 책은 『 』으로, 논문집일 경우 「 」로 표기한다.

1998.

N Nathan E. Han,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dale: Herald Press, 1971), 57.

B Han, Nathan E.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dale: Herald Press, 1971.

<저자가 2인 이상의 경우>

N 장종현, 최갑종,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22.

B 장종현, 최갑종.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N Stanley M. Honor and Thomas C. Hunt,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37.

B Honor, Stanley M. and Hunt, Thomas C.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2) 편저

N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12.

B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N Carl F. Henry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25-26.

B Henry, Carl F.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3) 번역서

N 쟈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100.

B 르고프, 쟈크.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N Michel Foucault,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B Foucault, Mich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4) 논문

학술지	저자, "논문 제목(명)," 「학술지명」 권수(발간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발행지: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 저자와 논문집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편집자 (발행지: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의 기본 표기 양식>

<학술지>

N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159.

B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N Gerald Bonner,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ain*

Studies 23 (1992), 35.

B Bonner, Gerald.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ain Studies* 23 (1992).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N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34-35.

B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N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380-381.

B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N Thomas Walter Manson,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14-15.

B Manson, Thomas Walter.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학위논문의 경우>

N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5.

B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N Hyung-Ki Rhee,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88.

B Rhee, Hyung-Ki.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인터넷 사이트의 논문>

N Evans Chan,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B Chan, Evans.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5) 영화작품: 영화명, 감독, 주요배우, 배급자와 연도.

N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B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3. 원고 작성방법

1) 도표는 반드시 "표"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2) 장절의 표기는 Ⅰ, 1, 가, 1), 가), (1), (가) 의 순으로 한다.
3) 연대의 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한다.
4) 서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인용문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6) 인용문이 2행 이상인 경우에는 별행으로 처리한다.
7) 필자가 덧붙인 설명은 [ ] 안에 넣어 원문과 구분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 ) 안에 '원문'이라고 표시한다.
8) 서양어의 서명이나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9) 페이지 인용의 경우 쪽이나 p.를 붙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10) 각주와 내주를 모두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 각주 방식
   (1) 처음 인용할 때는 위의 제시처럼 자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부터는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하고, 제목의 경우 단행본과 논문에서 적절하게 두세 단어를 취하여 저자, 저서(논문명), 페이지의 순으로 처리한다.
      〈단행본〉 Fitzmyer, *Luke I-IX,* 220.
      〈논문〉 Barrett, "Westcott," 12.
      〈번역서〉 브루스, 『신약사』, 121.
   (2) 국문인 경우는 성명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3) 계속 등장하는 동일한 책이나 논문은 반복하여 쓰지 않고 *Ibid.*를 사용한다.
   (4) 바로 앞에 인용한 자료를 다시 참고할 경우 그 사이에 다른 자료가 들어가면 *Ibid.*를 쓸 수 없다.
12) 본문 말미의 참고(인용)문헌에는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부록 2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현황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제1권	2004.5.30	비전2020실천운동과 한국교회의 역할	곽선희 목사	343면
		기조강연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	이종윤 목사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군진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		
		군선교 신학의 정립	정성구 목사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오덕교 목사	
		21세기 한국교회와 군선교 비전	박종화 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	김정우 목사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주연종 군종목사	
		애국심과 신앙심	황우여 장로	
		예장통합측 군선교 비극과 비전2020실천운동	김수진 목사	
		한국 군목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해군·해병대를 중심으로–	조성현 군종목사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 –기독문화의 관점에서–	임성빈 목사	
		군종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 군종의 미래는?	전호진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군선교 사역자 간의 윤리적 제안	박기영 군종목사	
제2권	2004.5.30	족속운동(집단개종, People Movement)과 군선교	정두영 목사	367면
		오늘날에도 거룩한 전쟁이 있는가? –구약성경에서 본 진멸하는 전쟁–	김정우 목사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서적 이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강사문 목사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	김일수 목사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연구	이석우 군종목사	
		세계 종교 상황과 기독교	전호진 목사	
		포스트모던주의의 문제점과 극복에 관한 소고	이종윤 목사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정의	박영관 목사	
		금욕주의 빛 아래서의 어거스틴의 결혼관	이규철 군종목사	
		군인교인 신앙성장을 위한 목회상담 임상사례	김상만 군종목사	
제3권	2005.6.10	귀납적 설교의 비결	곽선희 목사	390면
		기독교 영성과 예배	이종윤 목사	
		생명윤리와 신앙 (기조강연)		
		생명윤리와 신앙	채수일 목사	
		"생명윤리와 신앙"에 대한 논찬	김영철 목사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평화와 생명윤리 그리고 양심의 빛에 대한 기독교의 역사적 모색을 중심으로–	이규철 군종목사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에 대한 논찬	유경동 목사	
		군선교를 위한 기부문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	강사문 목사	
		어거스틴의 "대화록"의 기본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규철 군종목사	
		성경에 나타난 이교와 이단들 고찰	박영관 목사	
		군종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이념(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홍치모 장로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의 치유를 위한 군목회 돌봄 프로그램 연구(CARE 4단계를 중심으로)	안남기 군종목사	
		군인교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발전	정두영 목사	
제4권	2006.6.15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곽선희 목사	500면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교회 공동체와 국가	이종윤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 –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하여–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	우기식 군종목사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에 대한 논찬	전호진 목사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 –누가 군대의 이웃인가?–	허영식 군종목사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에 대한 논찬	김성봉 목사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	주연종 군종목사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구약성서적 이해	강사문 목사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	장승권 군종목사	
		중세를 적신 어거스틴	이규철 군종목사	
		조나단 에드워즈와 구원과 성화	오덕교 목사	
		변화하는 세계와 기독교인의 윤리	임성빈 목사	
		군소 이교와 이단종파들 고찰	박영관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민상기 군종목사	
		청중에의 적응에 관한 연구–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기독 장병의 신앙 정도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박기영 목사	
		우리나라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포교와 예방론 고찰	김광호 목사	
제5권	2007.4.16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실천운동	이종윤 목사	354면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 집단세례	김인수 교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	강웅산 교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찬	이규철 군종목사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윤병국 군종목사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민족 통일에 대한 성서적 이해	강사문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미국에 있어서의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	홍치모 장로	
		칼빈의 기도신학과 실제–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과 소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Pontifex Maximus'로서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규철 군종목사	
		한국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박영관 목사	
		집단개종의 역사적 고찰과 합동세례 보완책 제안	전호진 목사	
		군선교와 세례운동	우기식 군종목사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집단상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현택 목사	
제6권	2008.5.8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고함 –복음화된 통일조국이어야 한다–	이종윤 목사	227면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김성봉 목사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에 대한 논찬	강사문 목사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	최희범 목사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에 대한 논찬	우기식 군종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인격지도 교육을 중심으로)	이종윤 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에 대한 논찬	정성구 목사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 반박	이규철 목사	
		국내외의 군소 이교와 이단 집단들 고찰(2)	박영관 목사	
		군장병들을 위한 성경읽기	강사문 목사	
		국제화 시대 한국 군대의 국제적 책임	전호진 목사	
		군교회와 노년기	우기식 군종목사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제7권	2009.5.20	여군목 제도 창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	이종윤 목사	318면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김진섭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	주연종 군종목사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에 대한 논찬	김성봉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이광순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여성 군종목사 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임낙형 목사	
		다른 종교인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태도	강사문 목사	
		모니카의 사랑에 대한 《고백론》의 반향	이규철 목사	
		군인교회에 침투하는 기독교회의 이단들에 대한 대책	박관영 목사	
		위원입교인규묘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비전캠프(Vision Camp)와 군선교 활성화	한생현 군종목사	
		군 자살 예방에서의 비전캠프의 역할: 종교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세훈 대위	
		르네 자라르(R. Girard)의 희생양 이론을 통한 군선교신학 정립 모색	서민우 상병	
제8권	2010.10.5	군선교 사역을 위한 성례전의 성경신학적 의미 –구원을 위한 인침과 징표로서의 성례전Biblical–	이종윤 목사	320면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	김세광 목사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에 대한 논찬	권오민 군종목사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	정비호 군종목사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에 대한 논찬	최희범 목사	
		기쁨과 행복한 군 병영생활을 위한 제언	강사문 목사	
		자살 생각을 가진 용사들에 대한 기독상담학적 접근	김동연 군종목사	
		교회사에 나타난 군종활동의 역할과 의미	주연종 군종목사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교회를 중심으로 –	오덕교 목사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론』에 나타난 성서 해석의 원리	이규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측』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다자중심적 종교다원주의와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석우 군종목사	
제9권	2011.10.20	군인(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이종윤 목사	309면
		기독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강사문 목사	
		"기독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찬	우기식 군종목사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주연종 군종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에 대한 논찬	오덕교 목사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이규철 목사	
		요한계시록에서 십사만 사천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김추성 목사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 교회의 역할	임성빈 목사	
		민족과 함께 걸어온 한국교회의 발자취	김수진 목사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	안명준 목사	
		군목과 지도력	안광춘 목사	
		전쟁에 대한 기독 윤리적 고찰	김동연 군종목사	
		초기 전군 신자화 운동의 비화	정성구 목사	
		『목수지법』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 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제10권	2012.10.10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	이종윤 목사	293면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박종화 목사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에 대한 논찬	주연종 목사	
		선사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선사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김진섭 목사	
		광야–사막에 피어난 다윗의 신앙과 삶(시 23: 1–6)	강사문 목사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김일수 목사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	안명준 목사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	이규철 목사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래적 전망	김상만, 김택조, 이정우 군종목사	
		군에서의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김동연 군종목사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 장병 양육 연구 (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	오희준 군선교사	
		비전캠프를 통한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 및 선교의 가능성 연구	유현 군종목사	
		21세기 한국 군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에 관한 연구	홍석균 목사	
제11권	2013.10.30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이종윤, 김대덕 목사	420면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	정재원 군종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	주연종 목사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강사문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이규철 목사	
		『조션예수교쟝로회혼샹예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하나님과 이웃 섬김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강사문 목사	
		ACT(수용전념치료)소개: 기독교와의 만남	김동연 군종목사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안명준 목사	
		경제위기에 대한 성경적 진단과 신앙적 대처방안	김성봉 목사	
		"여호와의 전쟁신학"이란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	김진섭 목사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	김수진 목사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국가의 정치적 상황 연구	전호진 목사	
		군 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	김상만 목사	
	논문공모작	장병 인권에 관한 군선교 전략과 과제 –군종목사 후보생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신종훈 전도사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그리고 진중서약식	강찬영 군종목사	
제12권	2014.10.7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기조강연)	이종윤 목사	393면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발제 I)	김진섭, 이승진 민상기 목사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논찬 I)	최희범 목사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발제 II)	김동연 군종목사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논찬 II)	최석환 군종목사	
		구약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만남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김진섭 교수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정성구 교수	
		개혁파 교회의 연합 활동과 신학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	김성봉 교수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폭력에서 사랑으로	안명준 교수	
		군선교를 위한 '뱁티즘'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당신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에 담긴 어거스틴의 기도의 영성	이규철 목사	
		가족미술치료 난화기법의 이해와 적용	김상만 목사	
	논문공모작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관계성 연구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김현택 목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지적 자산과 향후과제 –군선교신학논문(1권–11권) 내용을 중심으로	신종훈 전도사	
제13권	2015.10.27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	이종윤 목사	390면
		군인권과 선교활동	김일수 장로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	이규철 목사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논찬	이승구 목사	
		성경에 나타난 군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1)	강사문 목사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을 위한 3대를 잇는 성령님의 교회 같은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	김진섭 목사	
		개혁된 교회	김성봉 목사	
		군선교를 위한 교육신학 사상연구	최석환 목사	
		PTSD와 이야기 치료와의 대화	김동연 군종목사	
		목회리더십 계승의 성경적 방법연구	이용락 목사	
		대대급부대 세례신자 양육방안에 관한 연구	전요섭 목사	
	논문공모작	청년비전캠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맥락의 개선방안	신종훈 전도사	
		외상상황하에서의 군종상담 연구	전석원 외 2명	
제14권	2016.7.28	오늘의 설교개혁	이종윤 목사	
		토라 613계명의 현대적 의미와 적용	김진섭 목사	270면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김성봉 목사	
		Vita Augustini에 나타난 히포수도원의 영성	이규철 목사	
		노래치유 중심 표현예술심리치료 경험분석	김상만 목사	
		힐트너(Seward Hiltner)의 목회신학에 대한 연구	최석환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제15권	2016.10.6	파트너십과 합작을 하여 하나님나라 확장에 쓰임 받자	이종윤 목사	285면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	안만국 목사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	정재원 군종목사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와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	강사문 목사	
		동성애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남북통합과정에서의 군선교	오상익 군종목사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변화와 군선교 전략 연구	김성훈 군종목사	
		군장병의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신앙활성화에 관한 연구	황미선 목사	
제16권	2017.10.10	동성애와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안에 대한 소고	이종윤 목사	341면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	길원평 교수	
		길원평 교수의 논문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논찬	전요섭 교수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	이상현 교수	
		이상현 교수의 논문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에 대한 논찬	김일생 교수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I)	강사문 교수	
		칼빈주의적 미래 인간상	정성구 목사	
		신학적 해석학에서 본 과학	안명준 교수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이규철 목사	
제17권	2018.10.11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이종윤, 이규철 목사	391면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오덕교 교수	
		오덕교 박사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에 대한 논찬	주연종 목사	
		구약성경에 나타난 군 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IV)	강사문 교수	
		이스라엘 독립 70주년과 현대사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교회의 7대 신비	김진섭 교수	
		이슬람에 대한 루터의 염려	김성봉 교수	
		"성직자와 여인들의 교제에 관한 교훈"에 담긴 어거스틴의 금욕적 자기관리	이규철 목사	
		PTSD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국방부 군 종교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전요섭 교수	
		정의로운 전쟁의 윤리와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제18권	2019.10.10	병역대체 복무제 진단과 기독교 입장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신학적 비판–	이종윤 목사	432면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	김윤태 교수	
		김윤태 교수의 논문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에 대한 논찬	김일수 교수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망	정세준 군종목사	
		정세준 목사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망"에 대한 논찬	강찬영 군종목사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력(V) –다윗 왕과 예언자 예레미야	강사문 교수	
		이슬람에 대한 칼뱅의 견해	김성봉 교수	
		"만유의 평화는 평온한 질서다"에 함축된 평화에 대한 어거스틴의 비전	이규철 목사	
		위기상담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한국 군 군인가족의 영적 지지를 통한 목회상담	전요섭 교수	
		군선교의 공공성 회복과 그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기획논문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적 양심 이해를 중심으로	이규철 목사	
		성평등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길원평 교수	
제19권	2020.11.13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주연종 목사	544면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	이정숙 교수	
		이정숙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찬	최석환 군종목사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홍창식 변호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홍창식의 논문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 –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일수 장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진섭 교수	
		예술심리치료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키릴로스의 세례교육	김선영 교수	
		남성 군종장교와 여성 군인	전요섭 교수	
	기획논문	구약성경이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역대하 7:11–22, 특별히 13–14절이 제시하는 그 원인과 해법	김진섭 교수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 –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중심으로	이규철 목사	
		화해의 공공신학과 군선교의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일반논문	존 로스의 요한복음 7: 53–8: 11 삭제 비판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탁명진 목사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19
군선교, 청년

1판 1쇄 발행 _ 2020년 11월 13일

발행처 _ 한국군선교신학회(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기관)
주소 _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101호
TEL _ 02–744–2662, 02–3675–2020
홈페이지 _ http://www.v2020.or.kr
E–mail _ meak2020@hanmail.net

제작처 _ 쿰란출판사
주소 _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편집부 _ 745–1007, 745–1301~2, 747–1212, 743–1300
영업부 _ 747–1004, FAX 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_ 0502–756–1004
홈페이지 _ http://www.qumran.co.kr
E–mail _ qrbooks@daum.net / qrbooks@gmail.com
한글인터넷주소 _ 쿰란, 쿰란출판사
등록 _ 제1–670호(1988.2.27)

제19권 군선교신학논문집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규철 목사
위　원: 전요섭 교수, 김대덕 목사
담　당: 박종민 주임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파본(破本)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